차 례

《조선고전작가일화집》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이 책은 고대와 중세기에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재능있는 작가, 문인들에 대한 일화들을 수집하여 편찬한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한편의 훌륭한 문학작품이 개인의 운명과 지어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한것은 문학작품에 력사를 창조하는 인민대중, 인간의 무한한 힘과 지혜, 의지와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글은 곧 사람이라고 일러왔다.

우리 문학사의 갈피마다에 이채로운 자욱을 남긴 우수한 작품들에는 그것을 창조한 인간—작가의 얼굴과 마음, 인격과 재능이 그대로 비껴있으니 이제 독자들은 이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니고있던 높은 애국심과 정의감, 뛰여난 예술적 재능을 읽게 될것이다.

이 책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인시화》를 비롯한 옛 문헌들에 수록되여 전해지는 우리 나라 고전작품들의 창작유래와 그것을 창작한 작가, 문인들의 창작생활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가운데서 작가들과 문학애호가들의 창작수업에 도움을 주고 식견을 넓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들을 뽑아 수록하였다.

독자들의 리해를 돕고 친근감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일화의 력사적배경이나 인물들의 생활세부같은것은 일부 보충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기본사건은 어디까지나 문헌의 원사료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고전문학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주기 위하여 일화의 뒤에 필요한 자료들과 상식을 첨부하였다.

이 책은 중세기에 활동한 작가들의 창작일화를 력사적순차에 따라

내려오면서 사적으로 정리한 도서인것만큼 매 일화들이 시대력사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해당 일화의 내용을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참고하여야 할것이다.

고조선의 녀류작가 려옥

우리는 고전작가일화집의 첫페지에 요란한 벼슬을 한 귀족문인도 아니고 뛰여난 시적재능으로 명성을 떨친 시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 그것도 당시사회에서 2중3중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온갖 고생속에 살아온 고조선의 평범한 배사공의 안해 려옥에 대하여 소개하게 된다.

하다면 어찌하여 유구한 력사로 빛나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처럼 천대받고 억압당하던 평범한 녀인이 그 첫페지에 오르게 되였는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 나라의 첫 개인서정가요인 《공후의 노래》와 함께 작가가 체험한 가슴아픈 이야기가 오늘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기때문이리라.

어느날 이른아침 려옥은 김이 물물 나는 조밥을 도시락에 정성들여 퍼담고있었다.

어뜩새벽에 나루터에 배를 부리러나간 남편 곽리자고에게 가져다줄 조반이였다.

소리쳐부르면 얼마든지 들을수 있는 가까운 곳에 나루터가 있건만 려옥은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지어 식을세라 품에 안고 남편이 일하는 나루터에 나가 조반을 대접하군 하였다.

한것은 이른아침에 강을 건느는 길손들이 적지 않아 자리를 뜰수 없기때문이였다.

려옥은 남편이 조반을 드는 사이에는 자기가 노를 저어 길손들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배안에 찬 물을 퍼내기도 하며 그가 마음놓고 아침밥을 들도록 왼심을 쓰군 하였다.

이렇게 한지가 벌써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려옥에게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는 이 아침일과가 행복한 순간으로 소중히 간직되게 되였다. 지금도 그는 남편에게 가져갈 조반상을 내려다보며 무엇이 미진한것이 없는가 세심히 훑어보았다.

조밥그릇옆에는 자그마한 토기에 고사리를 비롯한 몇가지 나물찬이 담겨져있고 그옆에는 또 조롱박모양의 술방구리에 기름이 동동 뜨는 탁배기도 곁들여있다.

비록 산해진미는 없어도 정성이 어린 조반상이였다.

려옥은 강가의 자갈밭에서 자기가 지어온 조반을 맛있게 들군 하던 남편의 순박하면서도 정념친 얼굴을 그려보며 서둘러 베보자기에 그릇들을 차곡차곡 싸안고 부엌문을 나섰다.

그가 막 토방을 내려서려는데 뜻밖에 남편이 한쪽어깨에 노대를 제껴메고 맥없이 사립문에 들어서는것이였다.

여느때없이 일찍 들어온 남편을 의아하게 여긴 려옥은 얼른 밥보자기를 토방우에 내려놓고 그에게서 노를 받아 토방모서리에 세우며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다.

곽리자고는 대답대신 토방우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본시 입이 무거운 남편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려옥은 그가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것 같아 근심어린 안색으로 한걸음 바싹 다가서며 재차 물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얼굴색이 그래요?》

그제야 곽리자고는 《후―》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내 이자 방금 참 기막힌 일을 겪었소. 새벽에 첫 길손들을 강을 건네주고 다시 몇사람을 태우고 배를 돌려 돌아오는데 웬 사람이 강기슭으로 허둥지둥 달려오지 않겠소. 흰머리를 마구 풀어헤치고 손에는 자그마한 호로병같은것을 쥐였는데 노를 저으며 바라보자니 글쎄 그 사람이 무작정 강물에 뛰여들어 물살이 센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오는것이 아니겠소.》

여기까지 이야기한 남편은 잠시 말을 끊고 긴 한숨을 몰아쉬였다.

《아니, 년세도 많은 그 어른이 물에 빠지면 어쩔려구…》

려옥은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 작은 두손을 가슴에 모아붙이며 긴장해서 남편의 입을 쳐다보았다.

그러는 안해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곽리자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막 노를 저어 급히 그한테로 가고있는데 맞은편 강언덕에서 그 로인의 안해인듯싶은 녀인이 남편더러 강을 건느지 말라고 목청껏 소리치며 달려오는것이였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소. 내가 그 로인한테까지 절반도 채 못 갔는데 그는 그만 센 물살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았소.》

《어마나, 그걸 어쩌나…》
남편의 입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가봐 마음을 조이고있던 려옥이 그만에야 무릎우에 손바닥을 털썩 놓으며 소리쳤다.
곽리자고는 또 한번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루터의 왼켠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녀인은 저기 저 버들숲이 우거진 언덕우에 올라 한참이나 통곡하더니 슬프게 노래를 불렀소. 그리고는 누가 말릴새도 없이 훌쩍 일어나 자기도 깊은 강물에 몸을 던지고말았소. 내 10여년세월을 이곳에서 나루배를 부리며 숱한 길손들을 강을 건네주었지만 내외가 한날한시에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일은 처음 보는구려. 그래 내 마음이 하도 산란하고 일손도 잡히지 않아 일찍 들어오고말았소.》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려옥은 강가에서 애타게 남편을 부르다가 물에 몸을 던진 그 녀인의 애처로운 정상이 눈에 금시 떠올라 그만 목이 꺽 메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어깨에 눈물이 흘러 축축해진 자기의 얼굴을 가져다대며 한손으로 그의 다른 어깨를 꾹 그러안았다.
기둥처럼 믿고 사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을가 더럭 겁이 났던것이였다.
곽리자고는 몸을 바르르 떨며 전에없이 자기의 품에 파고드는 안해의 애절한 심정이 헤아려져 그를 넓은 품에 껴안고 배일에 굳어진 마디굵은 손으로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씻어주었다.
그러는 곽리자고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맺혔다가 주르르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아, 이 험한 세상에서 이처럼 연약한 내인들이 남편없이 어떻게 홀로 살수 있으랴.
아마 그 녀인도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진것이 아니랴.
이윽고 곽리자고는 안해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그들부부의 령혼을 위로해줍시다. 당신 그 공후 있지? 그걸루 한곡조 타구려.》
려옥은 남편의 권고에 말없이 일어나 방안에서 공후를 안고 나왔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마음의 벗이 되여온 공후였다.
려옥은 조용히 남편의 옆에 앉아 공후를 안고 방금전에 남편이 들려준 그 녀인이 불렀다는 노래의 곡상을 더듬으며 생각에 잠겨있더니

드디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님아 강을 건느지 마소
그예 님은 건느시네
강물에 들어 죽으시니
어저 님을 어이하리

강가마을의 눅눅한 바람은 로인부부의 원한이 서려있는듯 무겁게 드리워있던 아침안개를 부드럽게 헤쳐놓으며 맑고 청아한 공후의 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려옥의 구슬픈 노래소리를 사연깊은 그 나루터로 실어갔다.

그 노래소리는 마치도 불쌍하게 죽은 늙은부부의 령혼을 위로하는듯 하였다.

* 조선문학사와 음악사에 고대개인서정가요의 첫 작품으로 알려져있는 가요 《공후의 노래》는 이렇게 고조선의 평범한 한 배사공의 안해인 려옥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그후 이 노래는 이웃에 사는 려옥의 동무인 려용에게 전해졌고 그를 통해 한입두입 건너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길동무가 되여 세월의 물결을 타고 오늘까지 전해지게 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공후의 노래》는 B.C.3세기경에 벌써 이웃나라인 중국에까지 널리 전파되였으며 중국의 옛 문헌들인 《고금주》, 《고요언》에도 실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해동역사》, 《오산설림》, 《열하일기》등에 실리여 전해지다가 근세에 이르러 편찬된 《대동시선》에 《공후인》이라는 제목의 한자시형태로 실려 전해지고있다.

평범한 배사공의 안해인 려옥이 공후를 능숙하게 다루며 즉석에서 자기의 생활체험을 담은 노래를 지어불렀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 나라 민간음악과 시가문학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해있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 공후는 손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다현악기의 하나로서 당시 고조선에서는 민간에까지 이 악기가 널리 전파되여있었다. 공후는 13줄로

되여있는 소공후와 23줄로 되여있는 수공후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려옥이 타던 공후는 민간에서 리용되던 소공후였다.

류리왕과 《황조가》

정오무렵의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었다.

하지만 수풀이 우거진 등성이의 오솔길은 그리 덥지 않았다. 오솔길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옆에 이마에 금빛장식을 하고 다리가 늘씬하게 생긴 백마가 금시 급한 길을 달려온 모양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서 있었다.

그옆에는 방금 말에서 내린듯싶은 사나이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씻으며 풀밭우에 주저앉아 수풀사이로 파랗게 내다보이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때는 B.C.17년 여름, 궁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이 산속의 이름없는 오솔길에서 말을 쉬우며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은 고구려의 7대왕 류리이다.

그는 지금 후실로 맞아들인 치희가 사냥차로 며칠간 자기가 궁성을 비운 사이에 역시 후실로 들어온 화희와 다투고 훌쩍 궁성을 나가버렸다는 전갈을 듣고 사냥터에서 곧장 치희의 뒤를 쫓아 달려오는 길이였다.

그런데 산등성이까지 급히 달려와 멀리 앞으로 난 길을 바라보았으나 치희의 행적은 그림자조차 찾을길이 없었다.

할수없이 그는 후일 부하들을 보내여 그를 데려오기로 작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 이곳에서 땀을 들이고있는중이였다.

화희와 치희는 작년봄에 본처 송씨가 병으로 사망한 후 새로 맞아들인 후실들이였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다.

골천지방 귀족의 딸인 화희는 출신이 미천하지만 저보다 용모가 뛰여난 치희를 처음부터 경계하며 로골적인 질투심을 드러냈다. 한편 치희는 늘 자기를 깔보며 거만하게 구는 화희의 처사에 심사가 토라져 쩍하면 본가로 아예 돌아가고말겠노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류리왕은

자주 난처한 처지에 빠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류리왕은 엄하게 훈계도 하고 따뜻이 타이르기도 하면서 그들과의 침식을 고르로이 하여 자신의 공정함을 보이느라 애썼지만 화희와 치희는 의연 랭랭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번에도 자기가 사냥터에 나가있는 기간 그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가 걱정되여 마음 한구석이 편안치 않던차에 아니나다를가 치희가 또 화희와 다투고 궁성을 나가버린것이였다.
아, 대고구려의 위업을 이어 천하를 다스리려던 내가 이 무슨 꼴이 되였단 말인가.
류리왕은 그만 화가 동하여 손에 쥐고있던 말채찍으로 앞에 있는 잡관목의 우듬지를 힘껏 쳐갈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우듬지가 단번에 꺾어져 땅에 떨어졌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류리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화희와 치희사이에 엉킨 매듭도 저 나무가지처럼 단숨에 베여버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
하지만 두 왕비사이에 엉킨 매듭은 단순하면서도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
류리왕이 이처럼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멀거니 앞을 바라보고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꾀꼬리 한쌍이 포르릉 날아와 그가 앉은 맞은켠 나무가지에 나란히 앉는것이였다.
눈부신 황금색깃털이 포르르한 한쌍의 꾀꼬리는 서로 주둥이를 마주 비비기도 하고 상대의 깃털을 다듬어주기도 하면서 애틋한 정을 주고받는것이였다.
날개끝과 꼬리웃부분의 검은 털이 암놈보다 더 선명한 수놈이 주둥이로 암컷의 가슴털을 열성껏 쪼아주자 암놈은 그것이 싫지 않은지 그냥 내맡긴채 청고운 목소리로 그에 화답하고있었다.
《고— 고빌리》, 《객—》
마치 금슬좋은 부부가 서로 정담을 나누며 애무하는듯 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던 류리왕의 가슴에는 이름할수 없는 련민의 정이 그득히 차올랐다.
그것은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여버린 본처 송씨에 대한 그리움이였

다. 그칠새 없는 외적의 침입과 소국통합문제로 부부사이에 살뜰한 정을 나눌 기회가 드물었지만 한번도 그것을 탓한 일이 없는 송씨였다.
언제나 말없이 자기를 뒤받침해주면서 인자하고 사리에 맞는 언행으로 아래사람들을 대하여 시종들은 물론 궁성안의 대소관리들모두가 그를 어렵게 대하면서 존경하였다.
그래서 류리왕은 송씨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컸고 그에게 애틋한 정을 더 주고싶어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송씨가 없다. 게다가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리해해주군 하던, 그래서 송씨를 보듯 그에게서 어느 정도 위안을 찾군 하던 치희마저 가버렸다.
…이젠 난 누구와 함께 궁성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
류리왕은 그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끓어올라 가슴이 답답하였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호위군사들중 우두머리가 다가와 《상감마마, 이젠 돌아가사이다.》하고 여쭈었다.
그바람에 나무가지에 앉아 종알거리던 꾀꼬리가 놀라서 류리왕을 남겨둔채 포르릉 날아가버렸다.
《그래, 우리도 가야지.》
선뜻 대답은 했으나 류리왕의 시선은 여전히 저 멀리로 점점이 멀어져가는 한쌍의 꾀꼴새에게서 떠날줄 몰랐다.
저 새들은 다정히 함께 정다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데 자기는 어수선한 대궐에 홀로 돌아가야 하니 생각할수록 류리왕의 가슴은 무겁기만 하였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키지 않는 걸음을 내디디던 류리왕은 북받치는 시름을 노래에 담아 부르기 시작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짝을 지어 즐기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
눌과 함께 돌아가랴

조용히 입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류리왕의 눈가에는 어느덧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 류리왕이 불렀다는 이 노래는 후날 《황조가(꾀꼬리노래)》라는 제목으로 한역되여 《삼국사기》에 올라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황조가》는 현재 문헌상으로 볼 때 고구려시가유산가운데서 창작년대가 가장 오랜 작품이다.

작품의 창작자에 대해서는 류리왕자신이 직접 지은것이라고도 하고 당시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불리우던 구전가요가 류리왕일화와 결부되여 한자시화된것이라는 설도 있다.

팔월대보름날의 길쌈과 《회소곡》

팔월가배 달밝은 밤
길쌈이 마감이라
인병도 만들자네
단자도 만들자네
오곡이 익어가니
이 명절이 제일일세

이것은 음력 팔월대보름 추석날의 민속생활을 반영한 민요의 한 대목이다.

가배날, 한가위라고도 불리운 이날을 맞으며 우리 선조들은 일년내내 가꾼 햇곡식으로 맛나는 음식을 해가지고 부모들의 산소를 찾았으며 온종일 여러가지 오락을 즐기군 했다.

우의 민요에서 보게 되는 길쌈놀이 역시 추석날을 장식하는 이채로운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조선녀성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로동생활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1세기초에 나온 가요 《회소곡》은 바로 팔월대보름날의 전통적인 길쌈경기에서 유래된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 000년전 신라의 왕이였던 유리니사금은 드디여 오래동안 고심을 기울여 국가체계를 정비하게 되였다.

이해 여름 신라에서는 전국을 여섯개 부로 나누고 관리들의 벼슬품

계를 확정지음으로써 초보적인 국가체모를 갖출수 있었다.
국가정비를 일단 마무리지은 유리니사금은 이를 기념하여 오는 추석명절을 크게 쇠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였다.
그가운데는 가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옹근 한달동안 6부안의 녀인들을 망라하여 진행하는 길쌈경기도 들어있었다.
원래 길쌈경기는 고대로부터 물려오는 추석민속의 하나로서 신라왕은 이를 통해 자기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환상과 기대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왕은 우선 6부의 녀인들을 크게 두패로 나눈 다음 자기의 두 딸을 주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해당 편들에서 선출한 길쌈명수들을 6부에서 제일 큰 관청의 뜰에 모아놓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승부는 8월 15일에 가서 그 성적이 많고적음을 따져 결정하되 이날 밤 진편에서 이긴편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기로 하였다.
7월 16일 새벽 왕실명의로 거둬들인 삼과 누에고치 등을 재료로 내준데 이어 일제히 량팀이 경기에 들어갔다.
차거운 이슬과 내리쪼이는 폭양, 숨막히는 무더위와 장마비속에서도 량팀의 녀인들은 그야말로 눈코뜰새도 없이 련속 가마에 불을 지펴 삼과 고치를 삶아냈으며 걸러낸 실을 북에 감고 부지런히 바디를 놀려 천을 짜냈다.
치렬한 승벽내기로 낮과 밤이 바뀌여 마침내 추석을 하루 앞둔 날 마지막천필이 베틀에서 끊어짐으로써 길쌈경기는 끝났다.
이기고 지는것이 경기인지라 이긴편 녀인들은 경기에서 이긴 기쁨을 안고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얼싸 좋다 돌아갔고 진편 녀인들은 아쉬움과 슬픔에 잠겨 눈마다 맑은 눈물을 머금고 하늘만 쳐다볼뿐이였다.
결국 팔월대보름날의 음식비용은 진편 녀인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보름달이 둥실 뜬 추석날 저녁 상다리가 부러지게 풍성한 식탁이 놓인 경기마당에서 왕과 공주들이며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잔치가 시작되였다.
왁작 지껄이며 질탕치게 먹어대던 왕과 귀족들은 포식을 느끼게 되자 노래와 춤으로 취흥을 돋구게 하였다.

한바탕 음악이 연주되고 가무가 벌어지고나자 이번에는 진편에서 인물이 그중 잘나고 춤에 능한 한 녀인이 지목되였다.
그때까지 동료들과 함께 한쪽구석에 몰려 수심에 잠겨있던 녀인은 거듭되는 독촉에 하는수없이 일어나 뜰에 나섰다.
내키지 않은 기분으로 악곡에 맞추어 빙글빙글 둬고패 돌기 시작하는데 녀인의 시선은 문득 관청창고에 무드기 쌓여있는 천필들에 가닿았다.
순간 녀인은 그만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자기들의 땀이 스민 저 산더미같은 베와 모시천들, 한달나마 집살림을 돌보지도 못한채 뙤약볕을 맞아가며 죽기내기로 애썼건만 결국은 어르신네들의 재산을 불구어놓았을뿐 자기에게 차례진것이란 도리여 이날의 잔치비용을 부담한것뿐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각도 집식구들은 햇곡식마저 다 떼우고 끼니도 못 에운채 자기를 손꼽아기다릴것이였다.
생각할수록 기막힌 설음과 억울함이 가슴에 맺히는데 거나하게 취한 식객들은 연방 고래고래 계속하라고 소리친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친 녀인은 참다못해 《아소, 아소.》하고 탄식소리를 내더니 몸을 잽싸게 돌리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칠념도 않고 《아소》소리를 연방 하며 몸부림치듯 춤을 추는 녀인의 모습을 보며 다른 녀인들도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의 심정이자 자기들의 심정이였고 그가 웨치는 탄식이자 자기들의 울분그대로였다.
그러던중 누군가가 먼저 따라부르자 하나둘, 나중에는 모두가 녀인의 선창에 따라 다같이 받아웨치기 시작했다.
《아소, 아소－》
야속한 세상에 대한 원성인양 처량한 《아소》소리는 한가위의 밤하늘에 오래도록 메아리쳤다.
그후 민간에서는 6부의 그 이름없는 녀인이 웨치던 《아소》소리를 조흥구로 삼은 노래가 지어져 널리 불리워졌는데 제목도 자연히 《아소곡》(한자로 《회소곡》)이라고 하게 되였다고 한다.

* 현재 《회소곡》의 구체적인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창작유래에 대한 일화로 보아 대체로는 길쌈로동과 착취사회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결부된것으로 짐작된다.

국상으로 된 을파소

서압록곡 좌물촌에 묻혀있던 을파소가 왕의 부름을 받고 국내성에 올라온것은 고국천왕13년(191년) 여름이였다.

그런데 이때 궁정대신들속에서는 을파소의 입조를 두고 시기중상하는 별의별 말들이 쉬쉬 돌아갔다.

《한갖 시골뜨기가 언감…》

《때 따라 지조가 변하는자로다.》

그 리유인즉 이러하였다. 을파소는 원래 이전 대신 을소의 손자로서 명문가에서 태여났으나 간신들이 날치는 정계에 환멸을 느낀 할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내려갔었다.

을파소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 학식도 높은데다 지혜가 많고 성질이 강직하면서도 너그러워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러한 을파소에 대한 소문이 대궐에까지 알려지자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있던 외척들인 평자 좌가려 등은 저들의 심복으로 써먹을 목적으로 여러차례 사람을 파했다.

그자들의 심보를 꿰뚫어본 을파소는 그때마다 일생동안 강호에 묻혀사는게 제일 큰 락이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그후 고국천왕이 국세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간다는것을 알고 대노하여 간신들을 축출하려고 하자 좌가려 등은 반역음모까지 꾸미다가 처형당하였다.

간신들을 쓸어버린 후 궁궐이 비게 되자 임금은 남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라일을 맡아볼 인재를 천거하라고 하였다. 이때 천거된 사람중에 동부의 안류라는이가 있었는데 그는 혼란된 정사를 두고 왕과 의논하면서 《대왕께서 만약 나라를 바로잡으시려면 꼭 을파소를 쓰셔야 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고국천왕은 곧 안류를 보내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있던 을파소를 데려오게 하였으며 그가

쉬이 응하지 않자 친서까지 보냈다. 하찮은 시골뜨기에게 극성을 부리는 왕의 처사에 질투를 느낀 일부 보수파대신들은 벌써부터 입비뚤어진 불평을 부렸었다. 이런 때 드디여 을파소가 임금을 뵈오러 수도에 올라왔던것이다. 고국천왕은 겸손한 말과 두터운 례로 을파소를 맞아들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외람되게도 선왕의 대업을 계승하여 신하와 백성우에 앉았으나 덕이 없고 재주가 부족하여 정사에 정통치 못하였소. 선생이 재능과 총명을 감추고 곤궁하게 초야에 묻혀있은지 오래다는데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마음을 돌리여 찾아왔으니 이는 나에게 다행일뿐아니라 고구려의 행복이요. 그대의 가르침을 달게 받겠으니 부디 심신을 다 바쳐주기 바라오.》

고국천왕은 곧 을파소를 중외대부로 임명하고 작위를 첨가하여 우태로 삼는다는것을 좌중에 알렸다. 전례없는 이 벼락출세에 신하들은 입을 딱 벌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이라도 해야 할 을파소가 거절의 뜻을 표시하는것이였다.

《저의 우둔한 품으로는 감히 존엄하신 령을 감당할수 없사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현명한 인재를 선택하여 높은 관직을 줌으로써 대업을 달성케 하소서.》

그러자 임금의 도량에 만족한 웃음을 짓던 안류는 너무 급한 나머지 을파소의 소매자락을 슬그머니 당기기까지 했다. 하건만 머리를 수굿하고 꽉 다물린 을파소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고국천왕은 마음이 불쾌했으나 그것을 애써 누르고 조용히 다시 권고하였다.

《재삼 부탁하는것이니 그대는 부디 기울어진 국세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려는 과인의 뜻을 외면하지 마오.》

간절한 그 어조에 을파소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사실 을파소로서는 자기에 대한 임금의 신임이 더없이 고마왔다. 하나 자신이 좌물촌을 떠날 때 품었던 부국강병의 뜻을 펴기에는 임금이 내리는 벼슬이 너무나 낮은데다가 자기를 깔보는 저 서슬 푸른 대신들밑에서야 어찌 큰 포부를 이루랴. 그렇다고 맞대놓고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수도 없었던 을파소는 생각던 끝에 《상감마마, 외람되오나 제 금방 떠오른 시 한수를 읊어보고저 하나이다.》 하고 입을 열었다. 순간 대신들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생뚱같이 시라는건 또 뭔고? 저 촌뜨기가 궁성에 들어오더니 머리

가 돈게 아니야?)

그러거나말거나 을파소는 몸가짐을 바로하며 태연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월상국 범소백이 명수공성 못한적에
오호 연월이 좋은줄 알건마는
서시를 싯노라 하여 늦어 돌아가니라

《월상국 범소백》이란 옛날 중국력사에서 월나라 왕 구천의 상국(국가정사를 총괄하는 벼슬)을 지낸 범려를 가리킨것이였다. 범려는 당시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미인 서시를 리용한 계책을 써서 월나라를 인차 강국으로 만들었다. 결국 시는 보통벼슬이 아니라 대담하게 정사전반을 맡긴다면 범려처럼 나라를 부강케 하겠다는 뜻을 담고있었다. 을파소의 요구를 알아챈 고국천왕은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다.

《하하, 담이 커야 범을 잡는다 했거늘 과시 그대는 이 나라의 다시 없는 기둥감이로다.》

왕은 즉시 어명을 고쳐 을파소를 국상(당시의 정승벼슬)으로 임명한 다음 대신들에게 엄한 분부를 내렸다.

《귀한자나 천한자나 할것없이 만약 국상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멸족시킬지어다.》

다음날 국상으로 첫 업무에 착수하는 자리에서 을파소는 자신의 립장을 이렇게 표명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퇴하고 때를 만나면 힘을 다하는것이 선비의 떳떳한 도리이다. 선비의 절개는 성미의 강유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 대한 충성에 있을뿐이거늘 오늘 온 나라 백성이 나를 믿어주고 대왕께서 이토록 후히 대하여주니 내 어찌 전날처럼 은퇴할수 있겠는가. 이런 믿음과 기대에 내 오직 충의가 모자랄가 걱정될따름이다.》

그뒤 을파소는 국상으로 전력을 다해 나라일을 받들어가며 정사와 교화를 옳게 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을파소를 과소평가하며 시비하던 선입견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안정되여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변방이 무사하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노래하였다.

고국천왕 다음대인 산상왕7년(203년) 가을 을파소가 세상을 뜨자 전국의 백성들이 모두 섧게 울었다고 한다.

* 현재 문헌기록에는 을파소의 작품이 시조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조가 고려시기에 발생한 민족시가형식이라는 사실을 념두에 두면 을파소의 작품은 원래 한자시이던것을 후세에 시조형식으로 고쳐놓은것이라고 볼수 있다.

나라위해 공을 세웠건만…

세나라시기 신라의 가요 가운데는 3세기초 나해니사금(196－230년) 시기 물계자가 지은 《물계자가》라는 작품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물계자는 한미한 집안 태생으로서 인품이 쾌활하고 소년시기부터 큰뜻을 품고있었는데 특히 무예가 남달리 출중하여 그가 한번 나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싸움도 역전되군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전형적인 무관인 물계자가 세나라문학사에 흔적을 남기게 된데는 스쳐버릴수 없는 사연이 있었다.

212년 가을 신라의 왕경(경주)에서는 골포와 칠포 등 주변소국들의 침습을 물리친 갈화성(경상남도 울산)싸움의 승리를 기념하는 큰 연회가 벌어졌다.

이번에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했던 나해왕은 개선한 즉시 장수들을 모두 궁성에 불러들이고 후히 대접한 다음 공로에 따라 등급을 올리기도 하였다.

승진을 목전에 둔 장수들은 저마다 누가 제일 큰 부귀영화를 차지하게 될지 속가늠을 해보았다.

아무리 따져보아야 태자 날음의 수하장수 물계자외에는 다른 사람이 짚이지 않았다.

한것은 이번에 물계자가 혼자서 적 수십명의 목을 베고 싸움의 맨 앞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기때문이였다.

그래서인지 물계자자신의 표정에서도 배포유한 느낌이 강하게 풍기고있었다.

드디여 장수들의 승진에 대한 임금의 조서가 발표되였다.
헌데 어인 일인가.
물계자의 이름은 첫번째는 고사하고 아예 명단에조차 없지 않은가. 오히려 진골이나 성골이랍시고 지체만 요란할뿐 싸움판에 별로 얼굴도 내밀지 않던자들은 빠짐없이 탐탁한 벼슬을 하사받았다.
마감사람을 호명하는 순간 물계자는 딛고선 바닥이 와락 꺼져버리는듯싶은감으로 하여 휘청거리였다.
《여보게, 어찌된거야. 물계자가 빠지다니?》
《글쎄, 이번 명단은 태자가 작성했다고 하던데…》
수군대는 장수들의 귀속말이 피뜩 귀전을 스쳤다.
(이번에도 태자는 나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구나.)
형언키 어려운 야속함을 느낀 물계자의 머리에는 3년전의 일이 부지불식간에 떠올랐다.
그때 신라는 바다가의 여덟개 소국을 물리치는 싸움을 벌렸었다.
당시 이벌찬으로 중앙과 지방의 군무를 총괄하던 날음은 전투지휘를 맡아가지고 무턱대고 군사들을 내몰기만 했다. 물계자는 이때 그의 선봉장으로 있었는데 적아간의 력량을 타산하여 신중히 대처할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날음은 한미한 물계자의 의견이라 깔보던 나머지 하마트면 부대를 전멸시킬번 하였다.
다행히 물계자가 희생적으로 적을 막아낸 덕에 신라군은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반격에로 넘어갔다.
싸움이 끝난 후 날음은 자기 과오를 인정할 대신 도리여 물계자의 도움을 받은것이 속에 걸렸는지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
그때 물계자의 처지를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번 싸움에서 제일 큰 공을 세운건 그대인데 당신에게 상이 돌아오지 않으니 태자가 그대를 미워하는게 원망스럽지 않은가?》 하며 임금께 상주할것을 권했다. 그러나 물계자는 태연히 웃으며 《명철하신 임금께서 우에 계시는데 신하가 어찌 원망을 품고 나서겠는가, 또 제 공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덮어두는것은 뜻있는 선비가 할바가 아니니 그저 자기 뜻을 가다듬으며 후일을 기다릴따름이요.》 하면서 점잖게 물리쳤다.
그후 물계자는 아무 불평없이 직분에 충실하며 어느때든 태자가 오

해를 가실것이라는 미련을 품어왔었다.
하건만 이번에도 편협하고 옹졸한 태자는 끝내 심사를 바꾸지 않았고 더구나 임금까지도 그에 귀를 기울여 동조한것이 분명하였다.
생각할수록 억이 막힌 물계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궁궐을 빠져나왔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이제나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안해가 반겨맞았다.
하지만 그도 물계자의 수심어린 기색을 띄워보자 사태를 직감하며 오열을 터뜨렸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이가 이번에도 또…)
물계자는 말없이 안해의 등을 어루만지며 달래였다.
《예로부터 신하된 도리는 위급한것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 하고 어려운 고비를 당하면 자기 몸을 잊어야 한다고 하였거늘 전날 포상, 갈화싸움은 위급하고도 어려웠다고 할수 있었건만 내 남에게 알려지도록 목숨과 몸을 바치지 못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거리에 나다니겠소?》
안해는 물계자의 말에 더욱 어깨를 떨며 도리머리질을 했다.
《그만해요. 당신이 밤낮 대바르게 산다하지만 누가 그걸 알아주기나 해요? 남들은 곰살궂게 놀면서 잘만 사는데 당신 혼자 허리를 굽히지 않더니 도리여 화만 당하지 않았는가 말이예요.》
안해의 푸념은 가뜩이나 무거운 물계자의 마음을 모질게 헤집어놓았다.
(아, 내 그래도 나라위해 공을 세웠건만 성품을 대바르게 간직한탓에 이런 운명을 당해야 하는가?)
속이 답답하여 견딜수 없었던 물계자는 벽에 걸린 현금을 내리웠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자기의 마음을 담아보던 현금이였다.
둥기당당 둥기당당 세차게 울리는 가락에 맞추어 물계자는 대쪽같은 자기 지조가 화근이 되여 억울한 처지를 당하게 된 구슬픈 마음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불렀다.
안해의 흐느낌소리도 섞여울리는가 현금의 선률은 흡사 졸졸 흘러가는 개울물처럼 처량하기만 하였다.
다음날 물계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체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버렸다.

그뒤 물계자는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슬픈 사연을 담은 《물계자가》만이 사람들속에 알려지게 되였다.

지리산의 메아리

백제 지리산기슭에 자리잡은 구례현의 어느 한 마을사람들에게 큰 경사가 났다.

인물 잘나고 성품이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이웃고을의 처녀가 다름아닌 자기 마을사람에게 시집왔던것이다.

비천한 농부의 딸인 그는 용모가 천하절색이여서 처녀꼴이 잡히자마자 제노라하는 가문의 중매군들이 문턱이 닳게 찾아오군 하였다. 하지만 처녀는 권세와 재물의 끈덕진 유혹을 다 뿌리치고 순박한 농군총각을 일생의 반려자로 택했다.

시집살림 역시 본가나 다름없이 각박했지만 그는 한마디 타발도 없이 고된 농사일과 가정사를 이겨냈으며 동네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을 제일처럼 여기면서 스스럼없는 방조를 주군 했다.

성실한 안해, 인정 많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가는 그의 미더운 모습은 가혹한 생활고에 눌리워 언제 한번 웃은적이 없던 시집사람들과 동네사람들에게 유일한 기쁨으로 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다.

당시 궁중안에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임금은 구례현에 뛰여난 미인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당장 끌어올 흉심을 품게 되였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심복신하에게 가마까지 들리워 구례현으로 파했다.

마을은 삽시에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다.

녀인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관속들에게 항거하던 남편과 시집사람들은 뭇매를 맞아 졸도해버리고 때아닌 곡성에 달려온 동네사람들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동정의 눈물만 흘렸다.

이때 아침 일찍 지리산에서 나물을 캐가지고 들어서던 녀인이 수라장이 된 집광경을 보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도대체 이 무슨 일이세요?》

집을 아예 도륙낼 잡도리로 날뛰던 관속들은 녀인을 보자 우르르 곁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녀인의 도도한 눈총을 맞고는 감히 범접치 못하고 궁중대신 쪽만 흘끔흘끔 살폈다.
과시 듣던바대로 경국지색이라 일컬을만 한 녀인의 미모에 궁중대신은 한동안 혹해있더니 흉물스레 웃으며 말을 꺼냈다.
《하늘의 덕으로 너에게 임금님의 총애가 차례졌으니 그리 알고 함께 가야겠다.》
사태를 직감한 녀인은 무서운 분노로 치가 떨렸으나 가까스로 참아내며 태연히 응수했다.
《무슨 당치않은 말이시오? 귀하신 나라님께서 어찌 저같은 일개 시골녀자를 배필로 삼는단 말인가요. 더구나 애까지 있는 남의 유부녀를 말이예요?》
대신은 그만 말문이 막혀 우락부락하더니 《네 감히 성상의 어지를 조롱하려 드느냐?》 하고 마을이 떠나갈듯 소리를 질렀다.
이때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녀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안깐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안된다. 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인륜도 모르는 짐승같은 놈들아!》
로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우악한 관속에게 가슴을 떠박질리워 마당에 나딩굴었다.
순간 녀인은 《잠간.》 하고는 무엇인가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임금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떠나겠소이다. 그런데 그전에 저를 택하신 은총에 사례의 글을 올리게 해주세요.》
대신은 그러면 그럴테지 하고 성을 누잦히며 《요구에 순응하면 기꺼이 받을테다.》 하며 필묵을 가져오게 했다. 녀인은 그것을 받지 않고 《제가 까막눈으로 문자를 모르니 어찌 쓸수 있으리까. 노래로 대신할가 하니 수고로운대로 나리께서 적어올리시오이다.》 하며 의견을 냈다.
그럴듯이 여긴 대신은 《그럼 내가 쓸테니 빨리 부르기나 해라.》 하며 붓대를 들었다.
녀인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선채 잠시 주위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는 그의 머리속에서는 착한 며느리를 맞았다고 그리도 기뻐하

며 화목하게 지내던 식구들과 동네사람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살아났다.
아, 이제는 영영 리별인가. 세상도 무심하구나…
솟구치는 눈물을 삼키던 녀인은 이윽고 평소에 사람들을 그처럼 즐겁게 해주던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이제껏 자기를 보살펴준 식구들과 동네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것과 그 정을 저버리고 임금의 품에 안길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로 일관되여있었다.
한참 적어내려가던 대신은 그제야 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붓을 홱 내던지며 《무엄할지고.》 하고 꽥 소리를 쳤다.
순간 녀인은 무서운 분노로 얼굴을 이그러뜨리더니 손에 든 나물바구니를 대신의 면상에 힘껏 던지였다.
그리고는 즉시 돌따서서 지리산으로 달음질쳤다.
《이놈들, 뭣들 하느냐. 당장 저년을 붙잡지 못할가.》
악을 쓰는 대신의 고함질에 어쩔줄 모르던 관속들은 급기야 녀인의 뒤를 쫓아갔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추격하는 관속들을 뒤에 떨구고 녀인의 모습은 벌써 지리산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던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녀인이 남기고 간 노래의 구절구절이 지리산의 지울수 없는 메아리인양 깊이 파고들고있었다.

＊ 이때 녀인이 부른 노래는 《지리산》이라는 제목으로 구례현뿐 아니라 많은 지방에 널리 퍼져 불리우다가 인멸되여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명주가》에 깃든 이야기

명주(오늘의 남강원도 강릉)는 아득한 옛날부터 경치가 아름답거니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인물곱고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고장이다.

하기에 이곳에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절승경개에 흠뻑 취하여 떠나기 아쉬워하는데다가 가는 곳마다 친절히 환대하여주는 이 고장 사람들의 후더운 마음씨에 끌려 돌아가기를 단념하고 아예 눌러앉는이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고장이니만치 여기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아름다운 전설도 많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노래 《명주가》에 깃든 이야기도 이 고장과 더불어 전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가운데 하나이다.

구름조차 쉬여넘는다는 높은 령길을 단숨에 날아넘을듯 다급히 말을 몰아대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흐르는 땀에 온몸이 젖었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말을 때려몰았다.

(조금만 더 달리자, 조금만 더…)

낯익은 지형을 눈여겨보며 앞으로 달리던 젊은이는 문득 등에 진 보퉁이가 나무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흠칫 몸을 떨었다.

가까스로 말고삐를 움켜쥐고 위기를 모면한 그는 넁큼 말에서 뛰여내려 떨어진 보퉁이를 집어들고는 서둘러 그안의 비단천말이를 뽑아서 옷섶안에 깊숙이 찔아넣었다.

그런데 다시 안장에 오르려하니 먼길을 달려온 로독탓인지 말은 거품을 잔뜩 뿜으며 가쁜숨을 몰아쉬는것이였다.

(허, 이러다간 말이 아주 주저앉고말겠는걸.)

그는 내친김에 말도 쉬우고 자기도 한숨 들일겸 길옆에 힘겹게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옷섶안에 간수하였던 비단천말이를 다시 꺼내 펼치고 깨

알처럼 박아쓴 글자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소중한 사연이 씌여있는듯 자자구구 따져보는 그의 눈앞에는 잊지 못할 옛추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도읍에서 나서자라 글공부에 전념하던 그는 지난해 초봄 이곳 명주에 왔었다.
당시 명주는 산천경개가 아름다웠거니와 뛰여난 인물 또한 많아 학문을 숭상하는 고장으로 알려졌으므로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이곳에 찾아왔다.
향학열이 남달리 높았던 이 서생도 지금껏 쌓아온 학문을 숙달하고 견문도 넓힐 욕망에서 이곳에 왔던것이다.
참말로 명주는 듣던바그대로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기이한 봉우리들은 옹긋쫑긋 하늘을 향해 치솟고 가는 곳마다 맑은 물 졸졸 흐르는데 초봄 맞아 파릿파릿 돋아나는 풀잎마다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있고 우거진 나무숲에서는 온갖 새들이 청고운 소리로 울고있었다.
참으로 선경이 이곳에 펼쳐진듯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에 눈 한번 돌리지 않고 이악하게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러던 어느 명절날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와 수려한 산천경개를 돌아보던 그는 우연히 어느 량가집처녀와 사귀게 되였다.
그로 말하면 인물이 출중하고 문장에 능하여 명주일판에 소문이 자자한 처녀였다.
첫눈에 홀딱 반한 서생은 솟구치는 련정을 시에 담아 남몰래 처녀에게 보내였다.
처녀도 서생의 준수한 용모와 남다른 향학열에 마음이 끌려 화답시를 보내여 자기의 속마음을 전하였다.
이후로 그들은 꽃피는 봄날 달 뜨는 밤마다 서로 만나 애틋한 마음을 시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였다. 산천의 봄빛이 짙어갈수록 그들의 사랑도 나날이 깊어졌다.
도읍으로 돌아가기 며칠 앞둔 어느날 서생은 처녀를 만나 성례를 치르고 함께 올라가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지금까지 밤낮없이 글공부한것은 장차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자고 한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한갖 녀자에게 빠져 품은 뜻을 일조에 버리시려 하시니 저로서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랑군께서 나라의 당당한 인재가 될 때 가서 혼인을 하여도 늦지 않을것이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학문에 전심하시옵소서.》 하며 거절하였다.

처녀의 속깊은 마음에 깊이 감동된 서생은 기어이 품은 뜻을 이룬후에 떳떳이 그를 안해로 맞이하리라 다짐하고 곧 명주를 떠났다.

그후 서생은 글공부에 더욱 전심하여 끝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시험에 합격하였다.

경사를 만난 서생의 집에서는 떡을 친다, 술을 빚는다, 고기를 사들인다 하며 법석 떠들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생겼다.

저자에서 사온 물고기의 배속에서 뜻밖에 깨알같이 박아 쓴 비단천편지가 나온것이다.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하여 저저마다 그 편지를 들고 읽을념을 못하였다.

서생이 호기심에 끌려 달려와보니 다름아닌 명주처녀의 편지가 아닌가.

편지에는 부모들이 억지로 다른 사람과 혼사시켜주려고 하고있다는것, 자기는 죽어도 랑군을 저버리지 않을터이니 한시바삐 내려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사태는 매우 절박하였다.

하여 서생은 앞뒤를 재여보지도 않고 그달음으로 말을 타고 천방지축 명주로 달려오는 길이였다.

손에 든 비단편지와 눈앞의 명주땅을 번갈아보던 서생은 문득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와 소스라치듯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한편 이날 처녀의 집에서는 잔치준비로 온 집안이 법석대였다.

하건만 안방에 곱게 단장하고 앉은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대로 살아 무엇하랴. 차라리 깨끗이 목숨 끊는것이…)

앞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앞섰고 종무소식인 서생이 야속하기만 하였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그가 꼭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니 그것은 며칠전에 써보낸 편지가 혹시 그에게 가닿지 않았을가 하는 희망때문이였다.

며칠전에 있은 일이였다.

부모들의 억지혼사로 남모르게 번민하던 처녀는 혼사날이 박두하자 보낼수 없는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비단천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들고 못가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끝없이 탄식하였다.

그런데 이때 못가에서 한자도 실히 넘을 큰 물고기 한마리가 불쑥 솟구치더니 처녀의 손에서 비단천을 나꿔물고는 다시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처녀는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여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사라진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행여 그것이 랑군님에게 전해졌으면 하고…

이 일이 있은 후 처녀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그가 꼭 돌아올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건만 눈물속에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덧 혼인날이 되였다.

벌써 대문너머에서 풍악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는 하늘이 무너지는듯 아찔하여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온 집안이 떠나갈듯 들썩해야 할 이 시각에 갑자기 물뿌린듯 조용해지는것이 아닌가.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든 처녀는 살며시 문앞으로 다가가 바깥동정을 살폈다.

순간 처녀는 와뜰 놀라며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기다리던 서생이 지금 대문가에 들어서고있는것이였다.

그뒤로 신랑될 사람도 따라들어왔다.

서생은 처녀의 부모들에게 그간 있은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물고기가 전해준 비단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처녀의 부모들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라 어리벙벙해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처녀가 뛰여나오는것을 본 서생은 자기도 모르게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마주 달려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이 세상 눈물이 아무리 많다한들 이들이 흘리는 눈물보다 많을수 있으며 이 세상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들의 기쁨에 어이 비길수 있으랴.

쌓이고쌓여온 그리움과 고대하고고대하던 상봉의 기쁨은 그대로 노래가 되여 저 멀리 하늘가로 울려퍼졌다. 처녀의 부모들은 물론 마을사람들도 그들의 기이한 상봉에 혀를 찼다.

＊ 이날 서생과 명주처녀가 상봉의 기쁨을 안고 부른 노래가 바로 고구려시가유산에서 애정륜리주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명주가》이다. 《명주가》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가사와 곡이 전해지지 않고 다만 그 창작경위와 관련된 설화만이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에 실려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이야기가 《양어못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여있다.

《치술령곡》이 전하는 이야기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의 신하는 될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매는 맞을지언정 왜의 록과 벼슬은 받을수 없다.》

이것은 5세기 신라의 애국충신 박제상이 사형을 앞두고 남긴 유명한 말이다. 놈들의 모진 악형과 회유에도 굴함없이 한목숨 바쳐 민족적절개를 과시한 박제상의 장거는 후세에 많은 노래와 전설을 낳았다. 이 박제상의 애국적장거에 대한 이야기에 못지 않게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요 《치술령곡》이 전하는 박제상의 안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때는 신라 눌지왕시기(417－458년), 박제상이 왜땅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안해는 낮에 밤을 이어 남편이 떠난 률포(경상도 울진지방)바다가에 나가있군 하였다. 그가 이곳에 나가기 시작한것은 박제상이 왜땅으로 떠나간 다음부터였다. 눌지왕의 동생 보해를 데리고 돌아온 날 박제상은 또다시 왜땅에 있는 다른 동생 미해를

구출하는 위험한 임무를 자청해 나섰다. 그때 눌지왕과 관리들이 다문 며칠만이라도 집에 들려 처자를 만나보고 갈것을 권했으나 박제상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임금님의 령을 받고 떠나는 신하의 마음은 오직 임금의 령을 실행할 한가지 마음이여야 합니다. 이제 도중에 처자생각으로 집에 들리면 마음이 잡스러워질뿐아니라 신하로서 공경치 못한 행동으로 되는것이니 정 저를 생각하시는 말씀이라면 그저 떠난 뒤라도 소식이나 전해주면 고맙겠나이다.》

박제상이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뒤에야 소식을 들은 안해는 엎어질듯 달려 포구에 가닿았다. 그런데 배는 벌써 돛을 올린채 한창 멀어져가고있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애타게 부르짖으며 안해가 손을 흔들자 박제상은 그냥 배를 몰게 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내 임금님의 령을 받들고 적국에 들어가는것이니 그대는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그후 안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바람 부는 바다가에 있는 치술령에 올라 왜땅쪽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이를 민망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그러다 병이나 만나면 어쩔려우?》 하고 걱정하면 박제상의 안해는 《그처럼 나라위해 큰일로 떠나시는 상공을 제대로 바래우지도 못했는데 이제 돌아오실 때마저 직접 맞이하지 못하면 내 무슨 면목으로 그이를 대하리까.》 하며 내려갈념을 안했다. 그러던 얼마후 왕자 미해만 돌아오고 남편이 끝내 왜놈들에게 희생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던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슬픔에 박제상의 안해는 며칠동안 슬피 울었다. 그런 후에는 낮뿐아니라 밤에도 치술령우에 나와앉아 날을 새였다. 당시 눌지왕도 매우 슬피 울고나서 박제상의 충정을 표창하여 대아찬벼슬을 추증하고 후한 상을 내리는 한편 박제상의 둘째딸을 미해의 안해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박제상의 안해를 국대부인으로 봉하여 온갖 부귀를 다 누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박제상의 안해는 그런 부귀영화에는 아랑곳없이 계속 바다가에 나와있었다.

세 딸과 이웃들이 이제 더는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기다려 몸을 상하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다못해 억지로 붙안고 집으로 내려오려 하면

발을 버티고 끝내 들어오지 않으려 했다.

《나를 제발 여기 있게 해다우. 비록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찌 이곳을 떠날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육신이 설사 왜땅에서 연기로 흩어졌다 해도 나라를 사랑하던 그 넋까지 묻혔겠느냐. 그이의 령혼은 반드시 이 땅에 오지 않을수 없을터이니 그때 내가 비단이불을 덮고 편히 누워 자고있다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느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령혼은 한밤중에 다닌다고 하니 나를 여기 놔두거라. 밤늦게 조용히 왔다갈 아버지의 령혼을 내 여기서 맞이하련다. …》

《어머니!》

《이 사람아!》

안해의 뜨거운 진정에 딸들과 마을사람들은 더이상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하지 못하였다.

그후에도 박제상의 안해는 이곳에서 늘 왜땅쪽을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불렀다.

박제상의 안해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는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무덤을 써주고 사당을 세워주었다.

후세사람들은 박제상의 안해가 발을 버티며 떠나지 않았던 땅을 《벌지지》(버티고있는 땅)로, 치술령에서 부르던 노래를 《치술령곡》으로 부르면서 박제상의 충정과 함께 그의 안해의 미덕을 길이길이 전해왔다.

*《치술령곡》은 현재 가사와 곡이 전해지지 않고 다만 《고려사》 악지에 제목과 간단한 내용만 올라있다.

《정읍사》의 창작유래

사람들은 세나라시기 백제의 가요라고 하면 모름지기 가요 《정읍사》를 제일먼저 생각할것이다.

이 가요가 창작된지도 이제는 어언 천수백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사》가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것은 그 사상예술적우수성과 함께 거기에 깃든 당대 인민들의 애틋한 인정세계 특히는 작품의 창작유래에 대한 일화와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가요 《정읍사》의 제목은 백제때 정읍현(현재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지어진 노래라는 의미로 붙여진것이다.

언제인가 이 현에 살던 어떤 사람이 멀리 행상을 떠난적이 있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속에서는 농한기에 행상(보짐장사)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런데 그 행상인이 여느때에는 닷새면 어김없이 돌아오군 하였는데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였다.

기별 한장 없는 남편을 두고 초조해하던 행상인의 안해는 그를 마중가려고 몇번이고 길차비를 갖추었지만 홀로 남을 아이 생각에 도로 눌러앉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여느날처럼 남편의 밥그릇을 가마에 넣어두고 방문을 열던 안해는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의 잠꼬대를 듣게 되였다.

(오죽이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한숨속에 다시 문을 닫은 안해는 이날따라 짙어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안은채 천천히 전주로 뻗은 등성이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달빛에 어스름히 드러난 길, 그우로 인차 오마하고 떠나가던 남편의 정겨운 모습이 안겨왔다.

혼인후 말다툼 한번없이 의좋게 살면서 늘 반복되는 리별이 지겨워 제발 이노릇을 그만두라고 애원한적은 그 몇번이였던가.

그때마다 남편은 《참, 아낙네들이란 마음이 너무 여린게 탈이야. 농사만 지어 산다면 여북 좋겠나.

관가에 물 조세만 해도 아름찬데 그냥 있으면 어쩔텐가.》 하며 훌쩍 떠나군 하였다.
이번에도 같이 따라서겠다는 청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안해는 먼길가는 남편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것 같아 그만두었었다.
깊어지는 상념을 안고 등성이마루에 올라서는데 문득 저아래 수림가에서 인기척소리와 함께 웬 그림자가 언뜻 스쳐지나는것이였다.
안해는 너무 기쁜김에 무서움도 잊고 가까운 너럭바위로 뛰여올랐다.
《이보세요, 당신이예요?》
그러나 산골짜기가 되넘기는 메아리뿐 저쪽에선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아마 밤짐승이였던게지.
저도 모르게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바위우를 내리려던 순간 (혹시 남편이 밤길을 오다가 맹수나 도적이라도 만나면…) 하는 불길한 생각에 그는 그만 등골이 오싹해났다.
그는 다시 수림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어둑침침한 그곳에선 소쩍새소리만 처량히 들려왔다.
(제발 그이가 늦어지더래도 밤길을 걷지 말았으면. …)
갈마드는 불안감으로 차마 바위를 내리지 못하는 안해의 심중에는 이제껏 품었던 야속함보다도 남편의 신상에 대한 근심이 더 짙게 갈마들었다.
하지만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니 남편이 꼭 이밤에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으랴.
(이럴 때 홰불이라도 있었으면 그이가 찾아오게 비쳐라도 주련만…)
안해는 무심결에 사위를 둘러보았다. 모든것이 어둠에 잠겨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단지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것은 중천에 솟은 둥근달님뿐이였다.
그러나 그 달빛은 너무도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아, 달님아, 너라도 좀 더높이 솟아서 랑군님 오는 앞길을 비쳐주려마.)
안타까운 심정을 하염없이 되뇌이던 녀인에게 불현듯 (그렇지, 차라리 노래를 부르면 어떨가. 그럼 그이가 오시더라도 멀리서 내 노래를 들으실수 있을거야.)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리하여 안해는 달을 우러러 진정을 터놓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높이 좀 돋아서
어긔야 멀리 좀 비치여다오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온 장터 다니시지 않느냐
어긔야 진창을 디디올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한참 노래를 부르느라니 어느덧 마음속에 남편이 자기의 노래소리를 듣고 더 빨리 올것만 같은 생각이 들면서 무거운 근심이 한결 가벼워지는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안해는 더욱 목청을 돋구며 거듭 노래를 불렀다.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는데 캄캄할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안해의 갸륵한 그 심정을 헤아린듯 은하수 비낀 밤하늘의 달님도 유난히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정읍사》를 《정읍곡》으로도 표기하였다. 그에 의하면 리조시기까지도 정읍현 북쪽 10리되는 곳에 행상인의 처가 노래를 지어부르던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망부석》(남편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정읍사》는 현재 전해지는 우리 나라 가요유산가운데서 절가형식의 가장 오랜 작품의 하나로서 녀성적인 부드러움과 섬세성이 느껴지는 시적서정의 특성과 고유한 우리 말 표현의 재치있는 구사 등으로 하여 세나라시기 서정가요의 발전면모를 엿볼수 있게 한다.

《정읍사》는 창작이후 광범하게 애송되면서 후날 봉건궁중음악으로까지 리용되였다.

《서동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 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 잔다네

어찌 보면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공주의 타락한 생활을 야유하는듯싶은 노래 《서동요》이지만 여기에는 백제의 총각 서동과 신라 진평왕(579－632년)의 셋째공주 선화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서동은 원래 백제의 수도 사비성(오늘의 충청남도 부여)남쪽 어느한 산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들에 나가 마를 캐다 팔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왔는데 그가 마를 캐는 총각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한자로 마 서자를 붙여 서동이라고 불렀다.

서동이 어렸을 때 어느날 동무들과 함께 마를 캐러 나갔다가 이웃동네에 새로 시집온 한 새각시를 두고 잘생겼다느니, 못생겼다느니 하면서 말씨름을 벌린적이 있었다.

이때 서동은 친구들앞에서 《나는 아주 이쁘고 귀한 녀자한테 장가들테다.》 하고 흰소리를 쳤다.

그러자 한 친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겼다는 신라공주 선화한테 가지.》 하고 놀려주었다.

《선화공주?! 그가 정말 세상에 으뜸가는 미인이라면 그한테 장가들테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와르르 웃었다.

《얘, 선화공주가 너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오겠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지겠다. 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랬어.》

《왜, 나도 좀 있으면 총각이 될텐데.》

《하하하, 총각이 되면 아무한테나 다 장가갈수 있다더냐?》

친구들의 놀림을 받게 된 서동은 약이 올랐다.

《가지 않구. 두고봐, 내 이제 꼭 선화공주를 색시로 삼고말테다.》

원래 한번 한다고 한 일은 해내고야마는 성미인지라 서동은 이때 동무들앞에서 으시대느라 롱으로 한 말이지만 앞으로 기어이 선화공주를 안해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다.

어느덧 서동이 다 자라 기골이 장대한 름름한 총각이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친구들에게 한 언약을 실행하려고 신라로 떠났다.

그는 선화공주를 찾아다니면서 만약 공주가 자기를 가난뱅이로 배척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공주가 혼자 다닐 때 업어오거나 밤에 그의 방에 뛰여들어가 자루에 넣어서라도 데려오리라 마음 먹었다.

그런데 신라의 수도에 와보니 공주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우선 공주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아내기가 조련치 않았다. 서동이 람루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화공주가 어데 사는가고 물으면 모두 대주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여 미친 놈이 아닌가 하여 피하기까지 하였다.

여러날 신고하던 끝에 선화공주가 있는 곳이 사량궁이라는것을 겨우 알아내여 찾아갔으나 이번엔 궁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그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어느때이건 공주가 궁밖으로 나올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기다려보았으나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공주는 그림자조차 볼수가 없었다.

그사이에 서동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어떻게 하여야 공주를 불러낼수 있을가.

그를 만나자고 누구한테 부탁할수도 없는것이고 궁앞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쳐 불러낼수도 없는 일이였다.

(공주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번민속에 모대기고있을 때 매일같이 궁안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와 거리와 골목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그의 머리를 틔워주었다.

《그렇지, 노래로 공주를 불러내자. 노래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궁궐에도 들어갈수 있을것이니까.》

그는 곧 공주와 자기의 관계를 담은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길량식으로 가지고왔던 마를 구워 거리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노래를 배워주었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 가서
서동이를
밤이면 안고 잔다네

노래는 놀랄만 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거리, 저 거리로 퍼졌고 얼마후에는 온 장안에, 나중에는 궁궐에까지 번져가게 되였다.

그러자 공주의 비행을 비난하는 여론이 궁궐안팎에서 떠들썩했고 고관들은 왕에게 꼬리를 물고 상소하였다.

《이 소문이 비록 근거없는것이오나 공주가 궁중의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성안과 온 나라에 퍼지고있으니 그냥 놔두었다가는 궁실의 존엄이 심히 훼손될가 하나이다.

아무래도 공주를 궁궐에서 내보내여 온 나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나라의 법도가 엄함을 알려야 할것 같사옵니다.》

노한 신라왕은 선화공주를 멀리 정배보내라는 령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억울하게도 선화공주는 서동이 내돌린 노래때문에 궁궐밖으로 쫓겨나게 되였다.

서동은 사량궁근방에 지켜섰다가 귀양지로 가는 공주의 뒤를 따랐다.

《공주님, 저도 귀양지쪽으로 가는 사람이온데 불행하게 된 공주님을 위하여 그곳까지 모셔다드리고저 하오니 저의 소원을 허락해주시기 바라나이다.》

억울하고 쓸쓸한 마음을 어데다 하소할데 없어 안타까와하던 선화공주는 서동의 청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서동이 공주를 가까이하고보니 선화공주는 정말 듣던바대로 이 세상에 더없을 미인인데다 마음 또한 어지였다.

서동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감에 싸여 밤낮없이 공주곁에서 떠나지 않고 극진히 돌봐주었다.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 서동인지라 공주의 울적한 기분을 가셔주려고 여러가지 흥겹고 즐거운 노래도 지어 불러 주었다.

선화공주는 매우 기뻐하며 길을 갈 때나 류숙할 때나 서동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매번 재미나는 이야기와 노래를 청하군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정이 들었다.

귀양지에 도착한 서동은 공주의 거처지를 마련하여 불편없이 지내도록 한 다음 공주에게 자기는 할일을 다하였으니 이젠 그만 물러가겠노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주는 펄쩍 놀라며 정배살이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동무해주며 떠나지 말라고 극력 만류하였다.

이때에야 서동은 넌지시 물었다.

《하지만 제가 남자로서 어찌 늘 공주님곁에 있겠나이까. 그러다 서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주님에게는 좋지 않을테니 제가 물러남이 좋을가 하나이다.》

《서동이요?! 호호… 난 아직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남을 곤경에 빠뜨려놓을수 있을가요. 한번 속시원히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찌겠나이까?》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터이니 그대는 조금도 겁내지 말아요.》

이때 서동은 정색하고 무릎을 꿇었다.

《제가 바로 그 서동이옵니다.》

《아니?…》

공주는 깜짝 놀랐다.

《저는 백제사람이온데 어렸을 때부터 공주님이 인물 잘나고 품행이 바르다는 소문을 듣고 안해로 삼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어 신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주님을 만날길이 없어 할수없이 그런 불손한 노래를 지어 내돌리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곤장을 안기든 목을 치든 이젠 공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나이다.》

《?!》

공주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벙벙하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니 지금껏 내가 저 어리무던하고 착해보이는 총각의 잔꾀에 걸려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도 맹랑한 일이였다. 그러나 공주는 이 열정적이고 대담한 총각에게 벌을 내릴수 없었다. 이미 그의 가슴속에서는 서동에 대한 사랑이 봄풀처럼 자라고있었던것이다.
《아니, 난 당신을 절대로 놓아줄수 없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공주의 아름다운 눈에는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였다.

* 옛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서동은 백제 30대왕인 무왕(600−641년)의 어린시절 별명이였다고 한다. 《서동요》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초기향가의 하나로서 원래는 인민들의 슬기와 지혜를 찬양하여 구전으로 창조전승되던것인데 7세기 후반기에 향찰표기법으로 서사화된것으로 보고있다.

《사모곡》이야기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말을 다심하고 자애로운 사랑의 대명사로 여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품을 찾는 인간본성의 마음을 담아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이 이 세상에 태여났던가.
가요 《사모곡》도 중세 우리 나라 가요유산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절절히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현재 《악장가사》에 실려 전하는 《사모곡》은 력사의 갈피속에 남은 창작유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세나라시기 신라의 대록군(충청남도 청주지방)에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기로 소문난 처녀가 있었다.
어느해 마가을 오랜 병환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는 다른 녀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처녀는 친어머니를 모시던 심정으로 이붓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공

대를 성심껏 다했다.

그런데 집재산을 독차지할 야심을 품은 계모는 처녀에게 이것저것 없는 허물을 씌워 모해하기 시작했다.

계모의 모해를 꿰들어보지 못한 아버지는 딸을 불러다 된욕을 퍼붓더니 나중에는 집에서 나가라고 강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억울하기 그지없었으나 처녀는 아버지를 계모의 손에 맡기고 떠날수 없어 잘못을 고칠테니 노여움을 삭이라고 빌고는 그냥 남아있었다.

물을 긷고 밥짓는것은 물론이요 땔나무와 빨래 등 집안의 힘든 일을 도맡아가지고 뛰여다니는 처녀의 정상은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런데도 계모는 오히려 《저 꼴 좀 봐요, 저년이 당신의 령쯤은 귀등으로 흘리며 넌떡 뻗치는군요.》 하며 비꼬아댔고 그때마다 아버지도 더 성이 나서 생야단을 쳤다.

처녀는 하는수없이 눈물속에 아버지를 하직하고 눈보라치는 겨울날 집을 나섰다.

정처없이 떠돌던 처녀는 어느 한 산중에 이르러 추위와 배고픔에 못견디여 쓰러지고말았다.

다행히도 근방에 거처하고있던 늙은 할머니가 처녀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을 시켜 업어다 구원해주었다.

정신을 차리자 처녀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거듭 드리고 다문 얼마만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어머니를 여읜채 계모의 흉계로 아버지의 사랑마저 잃은 처녀를 불쌍히 여겨 기꺼이 승낙했다.

워낙 마음씨 곱고 근면한 처녀라 그가 온 뒤부터 할머니의 집살림은 날이 다르게 펴이였고 집안분위기도 전에없이 흥겨워졌다.

정이 푹 든 할머니는 아예 자기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고말았다.

가정을 이룬 녀인은 무던한 남편과 합심하여 더욱 직심스레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 얼마간의 재산도 장만하게 되였다.

이처럼 생활이 안착되여갔지만 녀인의 마음 한구석엔 늘 집에 남은 아버지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일찌기 어머니가 림종때 자기를 불러앉히고 너라도 내대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어머니의 유언을 어긴 죄스러움을 안고 모대기던 녀인은 뜻밖에도 아버지가 계모의 무절제한 사치로 가산을 거덜내고 어렵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녀인은 더 긴 생각할새없이 남편과 의논하고 시어머니에게 아버지와 계모를 모셔올 의향을 비치였다.
《인정상 그래야 하겠으나 제 딸을 한지에 버리는 그 위인들이 네 정성을 알아줄상싶으냐.》
시어머니는 뜨아해하였으나 아들까지 곁들어나서는 바람에 응낙하고말았다.
며칠후 친정집에 당도한 녀인은 수척해진 아버지를 붙들고 한참 통곡하고나서 불민한 딸탓에 이 지경이 되였으니 이제라도 같이 모여살자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대뜸 거절하고싶었으나 당장 풀죽도 어려운 판이라 후처를 데리고 딸네 집에 옮겨왔다.
녀인은 두 살림을 돌보는 조건에서도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침저녁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올리며 지성을 다했다.
하건만 계모는 여전히 질투심을 버리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기뻐하거나 회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게다가 입밖에 내는 소리란 전부 딸과 사돈집을 시비하는것뿐이였다.
그러다나니 시켠도 달가와할리 만무했고 그처럼 화목하던 집안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썩이던 녀인은 어느날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랐다.
그런데 정작 일을 하려고 보니 어찌나 속상한 생각에 옴했던지 낫을 들고 온다는게 호미를 들고 온게 아닌가.
(아뿔싸, 이 정신 보지.)
녀인은 서글픈 웃음을 지은채 덤덤히 앉아 한숨만 내쉬였다.
아, 구천에 계신 어머니는 이 딸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나 계실가.
생각할수록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간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못견디게 그리웠고 계모의 말만 듣고 자기를 멀리하는 아버지의 처사가 야속하기만 하였다.
녀인은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

기 시작하였다.

호미도 날이 있지마는
낫같이 들수는 없나이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둥셩
어머님같이 자애로울수 없어라
아소 님아
어머님같이 자애로울수 없어라

노래를 부르는 녀인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맑은 눈물이 되여 고여올랐다.

＊ 《고려사》 악지에서는 이 《사모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제목을 《목주가》로 소개하였다.

한편 17세기에 활동한 실학자 안정복은 《대록지초》라는 글에서 《사모곡》을 대록군의 노래라고 하였는데 대록군은 곧 고려시기 목주(현재의 충청북도 청주지방에 있던 고을)의 옛 이름이다.

이것을 고려해보면 《사모곡》이라는 제목은 노래의 내용에 따라 붙은 제목이고 《목주가》는 창작된 지방의 이름에 따라 붙인 제목이라고 할수 있다.

시 한수로 30만대군의 기를 꺾은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뛰여난 애국명장인 동시에 우수한 시인이기도 하였다.

13세기의 이름있는 문인이였던 리규보는 《백운소설》에서 을지문덕의 시는 《글짓는 기법이 기묘하면서도 순박하고 미끈하며 굽게 꾸미는 법이 없으니 요새 문인들로서는 도무지 따르지 못할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후세문인들이 이처럼 높이 평가한 을지문덕의 시적재능에 대한 일화는 바로 력사에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고구려의 자랑찬 반침략투쟁이야기와 결부되여있다.

《장군, 빨리 령을 내려주소이다.》

두번째로 적군의 형세를 알려온 전령의 보고를 받은 수하장수 하나가 급히 뛰여들어와 거듭 령을 내려줄것을 간청했지만 을지문덕은 그냥 말없이 깊은 생각에 골몰하고있었다.

장막밖에서는 다른 장수들이 모여서 적들이 벌써 성밖 30리지경까지 밀려들고 아군의 포위준비가 물샐틈없이 꾸려졌는데 왜 장군이 령을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저들끼리 수군거리고있었다.

그러나 을지문덕의 입에서는 《성급해말고 만전을 기하라.》 하는 단마디 훈계만이 따분하게 되풀이되군 하였다.

때는 612년(영양왕 23년) 여름 바야흐로 고구려－수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시각이였다.

당시 300만이나 되는 대무력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수양제는 료동성공격의 실패로 시일만 허비하게 되자 전쟁을 시급히 종결지을 속심밑에 좌둔위대장 우중문의 30만 별동대를 봉황성(당시 고구려의 부수도로서 고구려군 총지휘부가 자리잡고있었음.)으로 내몰았다.

고구려군의 총지휘를 맡고있던 을지문덕장군은 적들의 무모한 기도와 적아의 력량관계를 타산하여 이 별동대를 봉황성가까이 끌어들여 소멸할 대담한 작전을 세웠다.

고구려군대가 부단한 소모전과 청야전술을 쓰면서 허위후퇴를 하자

수나라군대는 기고만장하여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후방에서 멀리 떨어져 보급로가 막힌데다가 쌀 한톨, 물 한모금 얻지 못한채 놈들은 심각한 기근과 피로에 허덕이게 되였다.
기회를 노리던 을지문덕장군은 얼마전 담판을 구실로 적진에 직접 들어가 취약한 내부실태를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담차고 로숙한 장군이 결전준비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어째서 요지부동인지 참 알수 없는 일이였다.
(혹시 아직도 싸움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걸가…)
사람들이 제나름의 추측에 잠겨있을무렵 정찰나갔던 군사들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왔다.
그때까지 잠자코 앉아있던 을지문덕은 급히 일어서며 빨리 들여보내라고 재촉하였다.
이윽고 온몸이 땀으로 절은 나이 지숙한 군사가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장군, 예견하신대로 적들이 전진을 멈추고 움직이지 못하고있소이다.》 하고 보고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을지문덕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뒤짐을 진채 평상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러다 벽에 걸린 장검앞에 멈춰서는 순간 그의 숱진 눈섭아래 눈동자에서 푸른 섬광이 번쩍이였다.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
그의 거동을 살피던 장수들은 비로소 결전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직감하며 가슴을 들먹이였다.
이제 장군이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부대를 거느리고 쳐나가 침략의 무리를 요정내리라.
을지문덕은 붓대를 쥐고 잠시 무엇인가 사색하는듯 하더니 번개같이 손을 놀렸다.
그리고는 조금전까지 출전을 제일 열렬히 주장하던 한 장수를 불렀다. 선코를 떼운 아쉬움과 부러움의 눈길들이 쏠리는 속에 의기양양하여 종이를 받아들던 장수는 그만 얼굴색이 굳어지는것이였다.
글쎄 종이에는 공격명령이 아니라 난데없이 시 한수가 적혀있지 않는가.

신통한 지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네
싸움에서 이긴 공로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장수가 영문을 몰라 주밋거리자 을지문덕은 《그대는 지체말고 그것을 적장 우중문에게 전달하라.》하고 엄히 일렀다.

그가 나간 뒤 남은 장수들과 막료들은 을지문덕에게 리유를 설명해주기를 청했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호탕한 웃음을 터치며 말했다.

《먼길을 수고로이 찾아온 〈손님〉이 피로해하기에 내 좋은 글로 위로하였거늘 뭐 그리 놀라오? 아마 우중문 그놈이 제풀에 달아나지 않고는 못 배길걸.》

을지문덕은 다시 동안을 두었다가 근엄한 안색을 지었다.

《그러니 제장들은 적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는 즉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제히 엄습하도록 하라.》

그제서야 을지문덕이 시를 보낸 의도를 깨달은 고구려장수들은 그 자신만만한 배심과 예지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관하부대로 달려갔다.

한편 부대를 멈추고 전전긍긍하던 우중문은 뜻밖에 을지문덕의 시를 받게 되자 어리뻥뻥해졌다.

얼핏 보매 시에서 을지문덕은 자신의 뛰여난 지략을 추어주는듯 하였지만 자세히 음미하면 고구려군의 계교에 놀아나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된 수나라군대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 구절구절 풍기고 있었다.

특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라는 마지막구절은 친절한 권고라기보다 일찌감치 돌아서지 않으면 무서운 화를 당하리라는 경고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한생을 전장에서 늙으며 제딴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는 우중문이라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리 없었다.

금시라도 고구려의 철갑기병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들것만 같은 공포심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은 우중문은 담판장에서 만났던 을지문덕의 위엄있던 모습을 생각했다.

수십만의 창검이 겨누어진 속에 단신으로 들어와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리정연한 언변술로 자기를 당황망조케 하던 그,

그의 기상이 얼마나 위엄있었던지 고구려국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사로잡으라던 황제의 밀령은 아예 실행할 엄두조차 못내지 않았던가.

우중문이 패배감에 빠져 한숨을 내쉬는데 곁에 있던 한 부하가 제잡담 횡설수설하는것이였다.

《아니, 이거야 고구려가 항복을 인정하는 시가 아니오이까?》

부아가 치민 우중문은 꽥 소리를 질렀다.

《천치같은 자식, 뭐 항복? 그래 아직도 모르겠어? 빨리 전군에 퇴각령을 내려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나라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저락되였다.

이제는 승리고 뭐고 누가 먼저 함정을 벗어나는가 하는 식으로 장수이하 모두가 줄행랑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구려를 함부로 얕보고 덤벼들었던 침략자들은 결코 무사할리 없었다.

이미 을지문덕의 총반격령을 기다리면서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던 고구려군대와 인민들은 사방에서 들이치며 적군을 살수에 몰아넣은 다음 완전히 괴멸시켰다.

30만이나 되던 수나라 별동대가운데서 살아 도망간자는 겨우 2 700명의 기병뿐이였다.

무졸장군으로 요행 목숨을 건진 우중문은 대노한 수양제의 어명으로 쇠사슬에 꽁꽁 묶인채 황제가 타는 수레뒤에 끌려 료수를 건너갔다.

결국 을지문덕의 시 한수가 30만대군의 기를 꺾어놓고 살수대첩의 시초를 열어놓았던것이다.

화랑들을 안심시킨 《혜성가》

신라 진평왕때(579－632년) 어느해인가 바다건너 왜땅에서 숱한 함선들이 동해로 몰려든적이 있었다.

해안가에 설치된 봉수대들에서는 련일 다급한 적정을 알리는 불길이 타올랐고 도처에서 싸움준비를 갖추느라 부글부글 끓었다.

이무렵 왕경의 월성 동쪽에 자리잡은 황룡사의 중 융천은 여느날처럼 저녁산책을 하고있었다.

융천은 당시 불학에 능통한 승려로서뿐아니라 문인들 못지 않은 시적재능을 지니고있어 널리 소문을 내고있던 사람이였다.

매일 저녁 그러하듯이 숲속에 난 한가닥 오솔길을 타고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소쩍새울음소리에서 시상을 무르익히던 그는 문득 고개마루에 몰켜선 세사람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 밤중에 무슨 사람들일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가서는데 그들은 저들의 이야기에 팔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저것 봐, 란리때에 괴성이 뜬걸 보니 무슨 일이 나겠어.》

《어때, 우리가 돌아서길 잘했지?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공연한 걸음을 덜었을걸 부득부득 떠나더니…》

융천은 호기심이 부쩍 생겨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체 그대들은 어디서 오는 길손들이요?》

세사람은 그 바람에 놀라며 머리를 돌렸다.

마침 유난히 달밝은 밤이라 손에 든 초롱이 없이도 융천은 그들의 복색을 쉬이 알아볼수 있었다. 나이로 봐서 겨우 열서넛을 넘겼을만한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자지색옷을 걸치고 등에는 보퉁이를 하나씩 지고있었다.

때아닌 융천의 출현에 놀라왔던지 그들은 입을 봉하고 경계의 눈초리만을 보냈다.

융천은 그들의 속내를 짐작하고 《난 이곳 황룡사의 융천이라 하오.》 하며 자기 소개를 했다. 웅글면서도 침착한 말씨에 마음이 어느정도 놓였던지 아까 별을 가리키던 젊은이가 먼저 말을 뗐다.

《저희들은 왕경의 화랑들이온데 오늘 아침 금강산구경을 떠난 몸들이오이다.》

《뭐, 금강산?》

융천의 눈가에는 반가운 기색이 떠돌았다.

《보아하니 년소한 그대들에게 참 멋진 복이 내렸구려.》

그런데 젊은이는 웬일인지 한숨을 내쉬며 풀이 죽은 기색을 띄웠다.

《하지만 복이구 뭐구 이렇게 도중에 돌아섰나이다.》

《아니 어째서 말인가?》

의문을 표시하는 융천의 물음에 다른 젊은이가 대답했다.

《저걸 좀 보시오이다. 지금 왜놈들이 쳐들어온다구 복새판인데 또 괴이한 별 하나가 솟지 않았겠소이까. 아무래도 조짐이 불길해서 아예 포기하구 집으로 갈가하오이다.》

과연 하늘에선 전에 볼수 없는 별이 빛을 뿌리는것이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니 민간에서 살별이라고 부르는 혜성이였다. 융천은 저도 모르게 어이없는 웃음을 터쳤다.

《아니 살별이 떴기로서니 그게 무슨 금강산유람에 방해가 된단 말인가?》

《스님도 참, 너무 물정에 어두우시오이다. 옛날부터 살별이 뜨면 재앙이 인다는거야 뻔한 리치가 아니나이까?》

그 말에 융천은 웃음을 거두고 그들의 눈빛을 찬찬히 주시했다.

분명 그들은 산속에 묻혀 세상사를 등진 자기의 좁은 안목을 비웃는듯 했다.

융천은 천천히 눈길을 돌려 해안가쪽을 바라보았다. 이밤도 외적을 감시하느라 밤을 새우는 군사들의 군영에서 여기저기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저렇듯 만전을 기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있을진대 어찌 하늘이 불리한 조짐을 내리랴.

융천은 어쩐지 천진스럽기만 한 화랑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감촉했다.

융천은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던 끝에 문득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내 노래 하나를 부를테니 어디 한번 들어보려나?》

《좋소이다.》

융천은 목청을 가다듬고나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동쪽 옛 나루
건달파 노닐던 고장을 바라보니
왜병이 들어왔다고
해변에서 봉화를 올리는구나
세 화랑이 산구경 간다는 말을 듣고
달수를 부지런히 헤이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
살별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 달아래 떠갔더라
이 벗아 무슨 불길한 혜성이 있을가

화랑들은 노래를 듣고나자 묵묵부답으로 서로 눈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리해가 안되는듯 물었다.

《그러니 스님께선 저 별이 불길하지 않다는것이오이까?》

《그렇네, 자네들이 자기 백성의 힘을 믿지 못하니 하찮은 별에도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허둥지둥하는게 아닌가.》

융천은 나지막하면서도 저력있게 화랑들을 타일렀다.

그의 말을 새기며 화랑들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보니 융천의 노래처럼 혜성은 하늘의 요사한 기운을 쓸어내는 커다란 비자루모양으로 생각되였고 더우기 곳곳에 이는 봉화대의 불빛이 뻗쳐 생겨난듯도싶었다.

그러니 제김에 놀라 금강산유람을 포기한 자신들의 처사는 얼마나 경솔한것이였던가.

저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화랑들이 머리를 숙이자 융천은 다시 온화한 어조로 일렀다.

《됐네, 자네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절에서 자고 래일 일찌감치 금강산으로 떠나라구.》

화랑들은 한결 개운해진 기분으로 융천을 따라 절로 내려갔다.

혜성에 대한 융천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기라도 하듯 얼마 안있어 왜적들의 배는 마침내 인민들의 반침략기세에 눌려 제 소굴로 도망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융천의 이름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졌고 다시는

혜성을 두고 불길한 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 향가는 삼국시기부터 고려초엽까지 존재한 우리 나라 민족시가 형식의 하나이다. 옛 문헌기록에 의하면 향가는 원래 우리 말로 사뇌가라고 하였으며 그후 사뇌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향찰표기법으로 씌여진것이라는 뜻에서 향가라고 하였다.

향가라는 표현을 처음 쓴것은 고려초에 균여의 사뇌가를 한문으로 번역한 최행귀이며 그에 대한 기록은 혁련정이 쓴 《균여전》에 실려있다. 향가는 4구체, 6구체, 8구체, 10구체 등이 있으며 정형시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전형적인것은 10구체이다.

10구체향가는 내용상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첫부분과 둘째 부분은 각각 4개의 시구로, 마지막부분은 2개의 시구로 구성되고 그앞에 보통 감탄사가 붙어있어 이 부분을 락구 또는 결구라고 한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바로 융천이 지은 《혜성가》이다. 향가는 우리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향찰표기법에 의해 창작된 독특한 정형시가 형식으로서 후날 민족시가문학발전에 영향을 미치였다.

잘못 리용당한 우화 《토끼와 거부기》

삼국시기 말엽인 642년 11월 백제와의 싸움으로 한꺼번에 40여개 성을 잃은 신라왕실은 대경실색하여 발칵 뒤집혔다.

선덕녀왕(632－647년)과 문무백관들은 닥쳐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마를 맞대고 밤낮을 새웠다.

여기서 신라조정은 비렬하게도 당나라와 손을 잡고 동족을 해칠 궁냥이를 꾸미였다. 하지만 바다건너 당나라군대가 오자면 적지 않은 기일이 필요한지라 신라는 림시 고구려의 힘을 빌어 백제를 견제하면서 당나라군사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에 가는 청병사신 선출이 문제였다.

당시 고구려는 612년 수나라와의 전쟁때 신라가 배신적으로 죽령이북땅을 점령한것을 괘씸하게 여기고있는 상태여서 누구도 선뜻 나서는자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이번론의에서 당나라의 힘을 빌리자고 마지막까지 우기던 왕족출신의 김춘추가 사신으로 나서게 되였다.
평양성에 도착한 김춘추는 곧바로 고구려 보장왕을 만나 신라의 긴박한 사정을 헤아려 원병을 보내줍시사 하고 청하였다.
신라의 이 렴치없는 행동은 곧 고구려의 비난을 샀다.
사실 신라는 이전부터 고구려의 사심없는 도움으로 몇번이나 멸망의 위기를 면하였고 고구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국세를 유지해왔었다.
그러한 신라가 외적을 막는 힘겨운 싸움을 돕지는 못할망정 길러준 개 발뒤축 무는 격으로 땅까지 도적질하고도 오늘은 또 도움을 청하니 고구려로서야 어찌 밉살스럽지 않으랴.
그래서 고구려왕은 배신적으로 차지한 죽령이북지역을 도로 반환하기 전에는 절대로 도와줄수 없다고 잘라맸다.
그러자 김춘추는 오히려 제편에서 고구려왕실의 몰인정을 탓하며 당나라원병이 오면 두고보자고 을러멨다.
격분한 고구려왕은 김춘추를 잡아가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대신들은 김춘추를 극형에 처하여 고구려의 위엄을 보이자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목숨은 위태롭게 되였다.
사태가 이쯤 되고보니 김춘추는 당황망조하여 사신의 임무보다도 경각에 이른 목숨부터 건지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그래서 가지고온 푸른 베 300보를 고구려의 대신인 선도해에게 몰래 보내여 도움을 청했다.
선도해는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편으로서 매사에 신중하고 경우가 밝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있었다.
며칠후 김춘추가 연금된 객관 뒤골방에서 선도해와 김춘추의 밀회가 벌어졌다. 술상을 마주한 두사람은 처음 아무말없이 권커니작커니 잔을 비웠다.
어느덧 선도해쪽이 거나하게 취한 기미가 보이자 김춘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일전에 한 부탁은 어찌되였소이까?》
선도해는 짐짓 눈살을 찌프리더니 《아따, 지금같은 판에 어떻게 감히 거기를 살리자고 직언한단 말이요. 가뜩이나 대왕이 진노하여 말끝마다 죽이자는 소리뿐인데.》라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간이 콩알만해진 김춘추는 대번에 풀이 죽어 《후－》하고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용기를 내여 선도해의 손을 붙들었다.

《그렇게 아닌보살 마시구 제발 이 불쌍한 생령을 좀 보살펴주. 내 아무렴 은공을 잊겠소?!》

순간 선도해는 나이도 퍽 아래인 자기를 은인처럼 섬기며 굽신거리는 김춘추가 어쩐지 측은하게 여겨졌다. 사실 고구려가 죽령문제를 원병조건으로 내세운것은 이 기회에 표리부동한 신라를 단단히 신칙하여 외세의 간섭을 막고 겨레의 통일대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래서 외세에 빌붙기 좋아하는 김춘추와 같은자들부터 겨레의 편으로 돌려세우든가 아니면 아예 제거하여 있을수 있는 화근을 뽑아버리려 했던것이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선도해는 그만 죽을 고비에 들어 급급해하는 김춘추를 동정하여 그를 도와줄 마음을 먹게 되였다.

《참, 그렇게도 생각이 외통배기라구야. … 혹시 이런 옛말을 들은적 있소?》

(?!…)

당장 죽게 된 자기에게 생뚱같은 옛말소리를 꺼내자 김춘추는 어안이 벙벙해졌으나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옛날 동해룡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간이 약이란 말을 듣고 거부기가 자진하여 뭍에 나온적이 있었다오. 토끼를 만난 거부기는 달콤한 말로 꾀여서는 바다에 들어가다가 도중에 본색을 실토하였지. 그제야 속히웠다는것을 안 토끼는 자기가 신의 후손이여서 가끔 오장을 꺼내여 씻어넣군 하는데 요즘 속이 나빠 간을 꺼내 바위밑에 놓아두었다고 꾸며댔소. 거부기는 토끼의 말에 넘어가 그를 업고 도로 륙지로 나왔지.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진 토끼는 언덕에 오르자마자 〈이 미련한 놈아, 간없이 사는 놈이 어데 있다더냐?〉라고 거부기를 놀려대면서 숲속으로 뛰여갔다질 않소.》

선도해는 이야기를 마치고 더 군말없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가 돌아간 뒤 몇번이고 그 옛이야기의 내용을 곱씹어 생각해보던 김춘추는 비로소 선도해가 옛이야기를 들려준 의도를 간파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다음날 고구려왕에게 면회를 청한 김춘추는 전에없이 공손한 기색으로 《제 그간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왕님의 말씀대로 죽령이북은 본래 귀국의 땅인지라 땅과 원병을 바꾸자는 의견에 십분 리해가 됩니다.

만일 저를 돌려보내주시면 꼭 우리 임금을 설복하여 돌려드리도록 하지요. 믿을수 없다면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건대 하늘이 저의 자손에게 천벌을 내릴것입니다.》라고 루루이 설명을 했다.

급작스레 돌변한 김춘추의 태도에 고구려왕이 저으기 의아해하자 선도해가 재빨리 말을 꺼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의 생각에도 춘추가 이번 길에 우리 위세를 똑똑히 보고 또 신라왕실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인것만큼 설사 돌려보낸대도 랑패가 없을줄 아옵니다.》

이렇게 되여 김춘추는 고구려에 온지 60일만에 선도해가 들려준 우화대로 거짓맹세를 하고 겨우 놓여나오게 되였다.

자기 나라의 변경에 이른 김춘추는 토끼의 본을 따서 《내 백제에 분풀이하기 위해 청병하였던것인데 오히려 귀국의 왕은 땅을 요구하니 이는 신하로서 할수 없는 일이요. 요전의 맹세는 단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뿐이였소.》 하고 본색을 드러낸 다음 줄행랑을 놓았다.

김춘추가 돌아간 이후 신라왕실은 드디여 고구려와의 관계를 끊고 라당련합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되였다.

다음해인 643년 배족적인 조약체결을 위해 당나라로 떠난 신라사신단의 앞장에는 다름아닌 김춘추가 서있었으니 이것으로 하여 그는 후세토록 영영 력사의 저주를 받게 되였다.

* 선도해가 들려준 《토끼와 거부기》는 본래 고구려인민들이 창조한 구전우화였다. 우리 나라 우화유산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전하는 이 작품은 봉건통치배들의 포악무도한 행위를 비판하고 인민적지혜의 승리를 찬양한것으로 하여 후세에 널리 전승되였으며 18세기에 이르러 그를 토대로 한 《토끼전》이라는 소설까지 창작되였다.

옥중의 성충

백제 의자왕 16년(656년) 어느 봄날.

망해정에서 임금의 부화방탕한 행동을 간언하던 좌평 성충이 의자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으로 끌려갔다.

무엄하게도 왕을 노엽혔다는것이 그의 죄목이였다. 옥에 갇히운 성충은 분하고 억울하기짝이 없었다.

한 나라의 대신이 노복처럼 버림을 당해 옥에까지 갇힌 설음에 가슴이 저리였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왕을 바로 일깨워주지 못하고 버림받은것이 더 분한 일이였다.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처음 10여년동안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의자왕은 즉위한 뒤 얼마동안은 국력을 강화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나라창고에 재산이 늘어가고 군사는 강하여 신라의 침입도 쉽게 물리치고 강토를 넓히여나갔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궁궐을 수축하고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운 뒤로 의자왕은 정사는 뒤전에 밀어놓고 궁녀를 3 000명씩이나 뽑아다놓고 사냥과 잔치놀이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다.

성충도 처음에는 나라가 태평하니 궁궐에 노래와 춤이 없을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았었다.

그런데 그런 놀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되였는지 성충은 요새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였다.

왕실의 사치를 위해 백성들은 밤낮없이 가렴잡세와 부역에 시달려 도탄에 빠지게 되였고 상좌평을 비롯한 요직들에는 아첨군과 시기군들이 등용되였다.

설상가상으로 백제가 해이되기를 엿보던 신라는 당나라와 결탁하여 침공준비를 은밀히 서두르고있었다.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된데는 왕이 안일을 추구한데도 있지만 그를 받드는 신하들이 바로돕지 않은데 더 큰 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성충은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품고 망해정까지 찾아들어가 의자왕을 깨우쳤던것이다.

그런데 이미 환락의 나락에 깊숙이 빠진 의자왕은 이 태평성대에 무슨 얼빠진 수작인가고 도리여 성을 냈다. 평소에 성충을 시기하던 간신들은 또 그들대로 성충의 남다른 야심에 대해 불구어 고해바쳤다. 결국 나라일을 걱정한 죄로 성충은 령어의 몸이 된것이였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왕을 옳게 도울 생각은커녕 그의 비위만 맞추며 체면을 차리는 간신들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였으니 이런자들을 가려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아, 망국의 치욕을 당할 그때 가서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내 몸이 과연 이 나라의 한뙈기 땅에나마 묻힐수 있으랴.

묵새길수 없는 비탄에 잠긴 성충의 뇌리에는 문득 옛날 왕의 버림을 받은 한 충신이 나라가 망하자 강물에 빠져죽었다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와 조금도 다를바없는 자기 일을 돌이켜보며 추연한 생각에 잠겨있느라니 저도 모르게 이런 시구가 떠올랐다.

묻노라 멱라수야 굴원이 어이 죽다더냐
참소에 더럽힌 몸 죽어 묻힐 땅이 없네
창파에 골육을 씻어 고기배속에 장사지내더라

이때 《좌평어른!》 하고 목메여찾는 목소리가 살창쪽에서 들려왔다. 머리를 돌려보니 흥수와 계백 등 자기와 뜻을 나누던 신하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들도 방금 성충의 변고를 듣고 막 달려오는 참이였다. 서둘러 손을 내밀자 그들은 성충의 손을 와락 움켜쥐고 탄식을 연방 했다.

《이젠 다요. 좌평 같은 충신들이 하나둘 없어지면 누가 백제의 사직을 구원하겠소. 차라리 우리도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나 내려가고말겠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성충은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아니, 내 어찌 이대로 나약하게 죽을 생각만 하는가.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백제의 운명을 건져내야 한다. 감옥에 있다고 어찌 충정마저 갇히우랴.)

성충은 비장한 각오를 굳히며 입을 열었다.

《이보게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백제사람들일세. 팔짱끼고 망국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심혼을 다해 미리 막아야 하네.》

그리하여 성충은 옥에 갇혀 고초를 겪으면서도 사람을 띄워 신라와 당나라의 동태를 렴탐케 하였고 계백과 자기대신 좌평이 된 흥수 등 충신들과 그에 대처할 방책도 자주 의논하군 하였다. 신라와 당나라의 협력이 명백해지자 성충은 유사시 나라에서 중시하여야 할 한가지 대책안을 왕에게 직접 건의하리라 마음먹었다. 성충은 땀배인 흰 옷을 벗어 펴놓은 다음 자기의 마음을 쪼아박는 심정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여 상소문을 썼다.

《소신은 죽어도 나라일을 잊을수 없어 한마디만 아뢰고 죽겠소이다. 제가 늘 시국의 변천을 살펴보건대 기필코 전쟁이 있을듯 하온즉 무릇 군사를 쓸 때 지세를 잘 살펴서 택해야 하는바 상류에서 대적을 막아야만 나라를 보존할수 있소이다.

만일 적들이 침입하게 되거든 륙로로는 탄현(충청남도 공주지방의 고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공주 금강하류의 포구)의 둔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험준한 곳에서 방어를 하면 능히 어떤 적도 견지해낼수 있다는것을 알리고싶나이다.》

옷자락에 피로 쓴 이 상소문은 좌평 흥수에 의하여 의자왕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의자왕은 냄새나는 옷자락이라 쥐여보지도 않고 상좌평에게 보라고 했다.

간신인 상좌평은 얼핏 보는둥마는둥하더니 《있지도 않는 외적침입을 우려한 글이옵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성충이 그 사람 옥에 갇히더니 머리가 돈 모양이구만.》

《늙어 로망인가봅니다.》

의자왕은 이렇게 성충의 혈서를 내버리게 하고 옥에 가둔 성충을 더 박해하였으며 성충의 상소를 적극 지지하던 흥수마저 미친 사람이라고 귀양까지 보내였다.

성충은 왕이 자기의 마지막혈서도 보지 않고 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기가 막혀 안타까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다가 옥사하고말았다.

이때로부터 5년이 지난 660년 여름 드디여 침공을 개시한 신라와 당나라련합군은 성충이 예견한대로 탄현과 기벌포를 거쳐 물밀듯이 부여성으로 쓸어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성충의 의견이 옳았다는것을 깨달은 의자왕은 통분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아, 성충, 그렇듯 현명한 충신의 말을 듣지 않다니…》

* 성충이 옥에서 지은 시는 현재 《청구영언》에 시조형식으로 올라 전해지고있지만 이 작품 역시 을파소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원래 한자시였던것을 후날 시조형식으로 옮긴것으로 추정된다.

강수의 의리

강수(?－692년)는 7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이름난 문인이였다.

전해오는 력사기록에 의하면 그는 중원경(현재 충청북도 충주) 사량부태생으로서 원래는 자두라고 불리웠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의 뒤머리에 불거진 뼈가 있는데로부터 강수선생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석체가 나마라는 신라의 낮은 벼슬등급(11등급)을 가지고있기는 했으나 가세가 빈한하여 늘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강수는 이를 악물고 학문에 전심하여 고금의 옛경전과 시문을 통달하여 박식한 지식과 뛰여난 문장술의 소유자로 되였다.

특히 그는 654년 당나라에서 보내온 국서해득과 회답편지작성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명성을 떨치였다.

그러나 강수가 사람들의 인망을 모으는 문인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데는 그의 남다른 의리심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할수 있다.

강수가 다른 나라 국서의 어려운 대목을 해득하여 임금의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은 후부터 그의 명성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은 물론 여느때는 알은체도 하지 않던 권세가들과 고을원들까지 저마다 찾아와 강수를 극구 찬양하였다.

그런가하면 강수를 사위로 삼겠다며 한다하는 가문들에서 보낸 매파들이 문턱이 닳게 드나들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극성을 부린것은 고을사또가 보낸 매파였다.

임금의 눈에 든 강수를 이번기회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왕실에 접근해보려는 사또의 단단한 부탁을 받은지라 그 매파는 승낙을 받기 전에는 아예 물러서지 않을 잡도리로 달라붙었다.

그런데 강수에게는 이미전에 혼사를 치르기로 약속이 되여있는 대장쟁이의 딸이 있었다.
강수의 아버지 석체가 사유를 이야기하고 거절해버리자 매파는 오히려 더 끈질기게 달라붙는것이였다.
《아따, 이 사람 보게. 자네 아들로 말하면 이제는 당당한 나라님의 총아가 되였는데 뭐 세상 천한 대장쟁이와 사돈을 맺어? 원, 듣기조차 거북하이. 그따위 고망년적 일을 가지구 그다지도 윈심을 쓰나?》
중매군이 어찌나 끈질기게 감언리설로 구슬리는지 강수의 아버지는 그만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중매군의 말대로 강수가 이제는 큰사람이 되였는데 그에 어울리게 배필을 정하는것이 남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것이였다.
석체는 관가에 있는 관계로 언제인가 사또댁 규수의 미모를 본적이 있었다.
게다가 상대는 한다하는 명문거족이였던것이다. 이리하여 석체는 아들과 한번 의논해보겠다고 하며 반승낙을 하고말았다.
며칠후 석체는 기회를 봐서 강수에게 사또댁과의 혼사에 대하여 은근히 내비쳤다.
그러자 강수는 대뜸 《저야 이미 정한 녀자가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이까.》하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에 석체는 《네가 지금 명망이 높아져 세상사람치고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터인데 이제 천한 집 딸을 배필로 삼는다면 우리 집의 수치가 아니겠느냐.》하며 짐짓 노여운 기색을 띄웠다.
그러나 강수는 한번 먹은 마음 변치 않고 그후에도 아버지가 아무리 설복을 해도 대답은 언제나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그만큼 아버지는 더욱 지꿏게 달라붙어 설복을 하기도 하고 꾸중도 섞어가며 강수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하였다.
《이 못난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제 모르는바가 아니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것이 부끄러운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찌기 성현들도 고생을 같이한 안해는 박대할수 없고 비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제 이제 눈앞의 부귀를 따져 약혼녀를 버린다면 그게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또가 아니라 설사 임금의 청이라도 결단코 따를수 없으니 부디 이

아들을 용서해주사이다.》

강수의 이 말에 석체는 가슴이 무엇엔가 쿡 찔리우는듯싶은 충격을 받았다.

임금이 요구한대도 한갖 부귀를 위해 약혼녀를 버리지 않겠다는 아들의 굳은 지조를 깨닫게 된 석체는 경솔했던 자신의 처사를 뉘우치며 두번다시 혼사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후 대장쟁이의 딸을 안해로 맞아들인 강수는 수십년동안 국가의 외교문서를 맡아보는 요직에 있으면서 한번도 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의좋게 한생을 살았다고 한다.

력사의 갈피속에 전해오는 강수에 대한 이 일화는 작가의 인간됨에 대해 오늘도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이야기해주고있다.

* 강수의 문학창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력대 문헌들에는 그가 당시 손꼽히는 문장가로서 그 필치가 세련되고 뜻이 충분히 함축된것이 특징이였다고 전하고있다.

엄장을 꾸짖은 광덕의 처

신라 문무왕시기(661－681년) 수도에 자리잡고있는 분황사 서쪽마을에는 향가를 잘 짓기로 소문난 광덕의 처가 있었다.

본래 분황사의 불목하니였던 그는 짚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던 광덕과 가정을 꾸린 후 알뜰하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광덕은 성품이 근면하고 성실한 반면에 불교에 혹하여 어려운 살림에도 시주만은 꼭꼭 번지지 않았다.

안해는 이미 절간생활을 통해 불교의 허황함을 어느정도 느끼고있어 여러번 남편에게 헛된 시주로 재물을 허비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광덕은 도무지 들을념을 안했다.

그러던 어느날 광덕이 뜻하지 않게 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크나큰 슬픔에 잠긴 안해는 제상을 차려놓고 이튿날부터 조객들을 맞아들이였다.

이 조객들가운데 남악(지리산)의 절간주지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있

던 엄장이란 중이 있었다.
엄장은 광덕과 소시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지간이였다.
광덕과 달리 가사를 걸치고 불도에 나선 엄장은 광덕이 살아있을적에 자주 그의 집을 찾아오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속세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면 자기처럼 부처의 《자비》를 받아 극락에 갈수 있을것이라고 설교하군 했다.
그래서인지 광덕은 엄장이 올적마다 그를 소시적 친구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사도로 각별히 대접하군 했다.
두사람은 모여앉으면 의례히 《누구나 먼저 극락에 가거든 서로 꼭 알리자.》고 약속하기도 했었다.
제사마당에 나타난 엄장은 한바탕 곡을 하고는 식구들에게 또다시 자기의 《신통력》을 늘어놓았다.
그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 해저물어 노을이 비끼고 소나무그늘이 짙어질무렵 갑자기 창밖에서 《나는 벌써 극락으로 가네. 그대는 잘있다가 빨리 나를 따라오게.》 하는 광덕의 말소리가 들리더라는것이였다.
문을 열고 나가 쳐다보니 구름속에서 풍류소리가 나고 광명이 땅에 뻗치더라고 하는것이였다.
식구들은 저마다 엄장이야말로 부처의 령험이 내린 신승이 분명하다고 혀를 차면서 제사를 주관해주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사실 이 엄장은 겉과 달리 속이 음흉한자였다.
엄장은 이미 광덕의 처에게 혹하였으나 감히 친구의 안해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속만 썩이고있었다.
그런데 다행히 일이 될세라 광덕이 죽은것이였다.
(쪼들리는 살림에 신물이 났을 저 녀잘 잘만 구슬리면…)
엄장은 벌써부터 음심이 정수리까지 차올라 숨이 가빴으나 애써 자제력을 발휘하며 기회만 노리였다. 다음날 시체를 렴습하여 장사를 치르고 내려오던 엄장은 광덕의 처에게 넌지시 물었다.
《남편이 죽었으니 앞일이 참 걱정되는구려.》
광덕의 처가 대답대신 한숨만 푹 내쉬자 엄장은 드디여 속심을 내비쳤다.
《지내 상심마오. 차라리 나와 같이 지내는것이 어떻겠나?》
그 말에 광덕의 처는 아연하여 엄장의 낯을 새삼스레 뜯어보았다.

다른 때도 아니고 남편의 상사를 당한 이 마당에서 그따위 소리를 꺼내다니, 그것도 지금껏 잡욕을 버려야 극락으로 간다던 엄장이…

광덕의 처는 너무도 분해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다. 이미전부터 자기에게 추파를 던지며 별스레 굴군 하던 엄장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본 광덕의 처는 이번 기회에 저 패덕한을 한번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주리라 속마음다지며 애써 침착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그 일은 오늘 밤에 좀 생각해보리다.》

녀인의 궁냥을 알리 없었던 엄장은 성공한 느낌에 막 미칠듯 기뻐하며 《응, 그럼 내 오늘 밤을 기다리지.》하고 선선히 응했다. 그날 밤 엄장은 평복을 갈아입고 도적고양이처럼 광덕의 집으로 새여들었다. 아닌게아니라 광덕의 처는 그때까지 초불을 켜놓고있었다.

엄장이 기척을 내며 들어서자 광덕의 처는 조용히 창문에 다가가 두손을 맞잡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달아 이제
서쪽을 지나갈것인가
*무량수불앞에
말씀을 가져다 전해다오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두손을 모아 꽂으며 사뢰나니
원왕생* 원왕생
념원하는 사람이 있다 전해다오
아야 이 몸을 버려두고
*48 큰 소원을 이루실가

* 무량수불=불교에서 소위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준다는 부처.

* 왕생=인간세상을 버리고 극락세계로 간다는 뜻.

* 48 큰 소원=무량수불이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 마흔여덟가지 큰 소원이 이루어지게 석가여래에게 빌었다고 함.

노래를 듣던 엄장은 제나름의 생각으로 광덕의 처를 치하했다.

《그대가 사뇌가의 능수라더니 정말 그른데 없소그려. 부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 속세의 중생을 불쌍히 여겨 꼭 극락으로 인도해주실 거요. 광덕이 그대를 남기고 혼자 떠났지만 내 기필코 그대와 함께 극락으로 갈것이요.》

그리고는 녀인의 뒤로 다가가 그를 자기 품에 껴안으려들었다. 순간 광덕의 처는 엄장을 힘껏 내치며 쏘아붙였다.

《대사가 극락을 찾는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바라는것이라 하겠소. 래세는 고사하고 속세의 극락도 어림없는줄 아오.》

돌변한 녀인의 태도에 엄장은 놀라며 물었다.

《아니, 광덕이와도 그렇게 지냈는데 나와 또 그렇게 못살것이 무엇이오?》

광덕의 처는 엄장을 쏘아보며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무릇 천리길을 가는자는 한걸음에서 알아볼수 있는것이외다. 전날 대사는 순간의 잡념이 공들인 극락의 길을 망칠수 있다고 하시더니 지금 계률을 어기려는 스님의짓은 동쪽으로나 갈만 하오니 서쪽의 극락은 아무래도 못 갈것이 뻔한 일인가 하오이다.》

사리정연하고 준렬한 녀인의 타매에 엄장은 그만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화끈해났다.

이제 보니 그가 방금 부른 노래라는게 결국 자기를 빗대고 훈계하자고 한것이 분명했다.

엄장이 부끄러운 생각으로 숨도 크게 못 쉬고있는데 광덕의 처가 벌컥 문을 열어제끼며 야멸차게 소리쳤다.

《저는 지금의 속세생활에 만족할뿐이니 정 소원이시면 대사 혼자나 극락에 찾아가시오.》

무안해진 엄장은 터벅터벅 문지방을 넘어서기 바쁘게 줄행랑을 놓았다.
그후 광덕의 처의 절개와 재능은 린근에 자자히 알려졌고 엄장은 더이상 배길수 없어 거처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 광덕의 처가 지은 향가 《원왕생가》는 초기향가의 대표작으로서 이 작품의 창작동기에 대한 일화는 당시 녀인들속에서도 향가창작이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설요가 택한 길

《선자!》

등뒤에서 자기의 법호를 부르는 소리에 설요는 문득 멈춰섰다. 머리에 쓴 삿갓을 반쯤 제끼고 뒤돌아보니 금방 지나온 고개길로 가사를 걸친 웬 사람이 달음박질치며 내려오고있었다.

(아니, 혜명이가?)

자세히 살피던 설요는 반가운김에 손을 흔들어보이였다.

혜명은 설요와 절간에서 막역지우로 지내던 녀승이였다.

설요의 앞에 이르기 바쁘게 혜명은 그의 두손을 덥석 잡으며 《이런 법이 어데 있어. 나한테 귀띔도 없이.》 하고 다짜고짜 나무람부터 하였다.

설요는 어줍은 웃음을 짓고 《미안해. 네가 아침시주를 나갔길래 기다리다 못해 인사불성으로 떠났어.》 하며 혜명의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았다.

한참만에야 진정이 된 혜명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주지어른이 널 당장 찾아오라구 야단을 하고있어.》라고 자기가 따라온 사연을 말하였다.

《뭐, 주지께서?》

설요는 안색을 흐리며 령너머 절간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실 설요의 지나온 생애는 주지와 뗄수 없이 얽혀있었다.

설요는 본래 신라왕실계통인 좌무위장군 설승충의 딸로서 어릴적부터 인물곱고 총명하여 집안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었다. 그러던 15살나던 해 뜻밖에 승충이 세상을 떠나자 앞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그전부터 잘 알고있던 절간 주지에게 딸의 장래에 대하여 부탁했다.

그리하여 주지는 설요를 독실한 불교신도로 키워낼것을 결심하고 절에 데리고 들어와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지어준 《선자》라는 아호를 그대로 법호로 쓰게 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고로 비구니(녀승)의 몸이 된지도 어언 6년세월이 흘러 설요는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하여 터득할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요의 마음속에서는 도를 닦아 안심을 얻으리라던 주지의 말과 달리 허무한 승려생활에 대한 환멸감이 걷잡을수없이 자라났다.
외계와 격페된 심심산골에서 하루종일 불경이나 외우고 신도들이 보태주는 시주밥으로 연명해가자니 동냥거지가 된것 같은 느낌에 안정은커녕 짜증만 늘어갈뿐이였다.
게다가 온갖 욕망에서 해탈하였다고 자처하는 승려들속에서는 엄한 계률을 어기고 량가집부녀들을 유혹하거나 절간재산을 탐오하여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들이 드문히 나타나고있었다.
허무하고 위선적인 불교의 내막을 직접 목격하면서 설요에게는 죽을 때까지 념불을 외워 극락을 찾으려던 미련이 점차 사라지고 차라리 다시 속세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아보고싶은 충동이 누를길없이 살아났다.
그리하여 생각던 끝에 주지에게 조용히 자기 의향을 비치였다.
그러자 주지는 대단히 노여워하며 대번에 꾸지람을 하기 시작하였다.
《불가의 도를 깨달아 래세의 복을 누리자면 현세의 잡욕을 이길줄 알아야 하거늘 고작 몇해만에 단념한단 말이냐. 부디 경솔한 생각을 버리고 열반에 전심하도록 하라.》
설요는 자기 일로 윈심을 써온 주지를 더 노엽히고싶지 않아 그대로 물러나왔지만 이미 신물이 날대로 난지라 며칠동안 병을 핑게로 드러누워 불경설법을 회피하기도 하고 절주변을 나돌며 소일만을 일삼았다.
이와 같은 행동이 여러번 반복되자 절간에서는 설요를 두고 이상한 녀자라는 비난이 쉬쉬 돌아갔고 지어 어떤 승려들은 그가 주지를 등대고 제멋대로 놀며 계률을 어긴다고 로골적인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자 주지는 설요를 안착시키고 그에 대한 비난도 무마시킬 작정으로 당분간 외진 절간에 옮겨가있도록 하였다.
이 일을 빌미로 가뜩이나 실뚱해있던 설요의 참을성은 깨지고말았다. 마침내 설요는 불계의 생활과 결별할 용단을 내리고 주지가 없는 틈을 타서 절간을 떠났던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뒤따라온 혜명의 말을 듣고나니 이제껏 자기를 돌보

아준 주지에게 인사말도 없이 훌쩍 떠난 죄스러움이 마음에 걸렸다.
한편 혜명도 설요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하였다.
《선자, 정말 중노릇을 그만둘 생각이냐? 이 깨끗한 산속이 어쨌다고 부득부득 어지러운 속세로 뛰여들겠다는거야?》
눈물이 글썽하여 간청하는 혜명의 모습에 저으기 가슴이 아파난 설요는 슬며시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있는 설요의 눈앞에 파릇파릇 피여난 봄꽃들이 밟혀왔다.
훈훈한 봄바람에 자기 향기를 한껏 풍기며 아름다운 자태를 다투듯 드러낸 진달래며 철쭉들…
저 꽃들은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다.
꽃들도 저러하거늘 하물며 인생의 희노애락도 없이 한뉘 독수공방하다가 늙어죽어 극락세계에 간다한들 내 어이 참된 인생을 살았다 하겠는가.
아니, 이제 6년씩이나 헛되이 살았으면 되였지 무엇때문에 아까운 이내 청춘을 고독한 생활속에서 허무하게 보내랴.
여기까지 생각한 설요는 혜명이쪽으로 머리를 돌려 빙긋 웃었다.
그리고는 주위의 꽃을 하나둘 꺾으며 이런 시구를 읊조리였다.

마음을 구름처럼
깨끗하게 가지려 했건만
사람 하나 없는 산골
너무 적막하였네

봄풀이 꽃피여
풍기는 향기 그리워라
어이 그대로 보내랴
나의 젊은 청춘을

읊기를 다 마친 설요는 한웅큼 꺾어든 꽃을 들어 향긋한 냄새를 맡고는 혜명의 손에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더 아무말없이 혜명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놓고는 발걸음

을 떼였다.

멀어져가는 설요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혜명의 가슴속에는 그가 방금 남기고 간 시구절이 그대로 새겨지고있었다. …

인생이 한해라면 처녀시절은 봄이다.

봄을 맞는 처녀에게 생활의 향기가 없다면 그 어이 삶이라 하랴.

선자는 바로 그 향기를 가꾸러 가는것이다.

마을쪽으로 점점이 멀어져가는 설요의 뒤모습을 넋없이 바라보며 서있는 혜명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이 피여나더니 손에 든 꽃잎새로 방울방울 흘러내리였다.

* 설요(?−692년)의 시 《중살이를 그만두며》는 《대동시선》 등에 실려 전해지고있는데 지금까지 문헌에 남아 전하는 녀류한자시유산가운데서 첫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창작에서 솔직성과 대담성을 발휘한 설총

때는 680년대였다.

지지리도 오래 끌던 장마가 이제는 물러가는지 겹겹이 덮였던 구름장을 헤집고 손바닥만 한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막혔던 숨이 겨우 나가는듯싶은 늦은 여름날이였다.

마을들에서 보리고개를 겨우 넘긴데 이어 울적한 장마고비를 간신히 넘긴 농민들이 누렇게 뜬 얼굴로 벌에 나갈 때 신라왕궁의 넓고 환한 큰 방안에는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특별하게 꾸민 웃자리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신문왕(681−692년)이고 그아래 경건한 몸가짐새로 꿇어앉아있는 삼십대의 끼끗하게 생긴 사람은 설총이였다.

설총은 무슨 까닭으로 자기를 불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이따금 슬그머니 왕의 기색을 살펴보군 하였다. 신문왕은 장마에 온몸이 물크러지기라도 한것처럼 얼굴이 부석부석하였다.

얼굴색은 어데라없이 어둡고 침침하였다.

촉기빠른 설총의 눈은 왕이 어째서 기분이 언짢아졌는지 그 내막을 궤뚫어보았다. 왕은 장마비가 견디기 어렵도록 싫증이 나서 마음이 몹시 울적하였던것이다.

그래서 노상 술을 마시고 얼이 나간 사람처럼 노래와 춤속에 잠겨있었다.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 속에서 밤낮 뚱땅거리고 지냈으니 어찌 얼굴이 붓고 정신이 흐리멍텅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조정에는 바른 말 하는 신하가 없고 모두 발라맞추기에만 이골이 난 벼슬아치들뿐이라 설총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윽고 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오래동안 내리던 장마비도 비로소 개이고 눅눅한 바람도 좀 시원해진듯 하구나. 이런 때에는 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좋은 음악을 베푼다 해도 훌륭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우스개소리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것만 같지 못하니라. 그대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있을것이니 나를 위하여 성의를 아끼지 말라.》

설총은 대답을 삼가하고 잠간 생각을 굴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헌데 하늘이 돕고 신이 떠밀어준다는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는 좋은 기회가 분명하다. 그다음은… 임금이 기이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우스개소리를 하라는것은 술도 노래도 싫증이 났으니 그보다 더 자극이 있는 말을 듣고싶다는 뜻인데…)

설총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워졌다.

좋은 글을 어찌 한잔 술이나 술좌석에서 부르는 흥타령에 견줄수 있으랴만 그렇다고 하여 그 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다고는 볼수 없었던것이다.

지금 왕의 요구는 술도 노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의 울적한 심정을 달래달라는것이였다.

이 기회를 효과있게 리용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묘하게 꾸민 재미나는 이야기로 임금의 가슴에 따끔한 동침을 놓아주겠는가.

자칫 잘못하여 왕의 비위를 거슬려놓는 날이면 목이 날아날 판이였다.

그러나 원래 견식이 넓고 창작적환상력이 뛰여난 설총의 머리속에

는 벌써 왕의 그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제 할 소리를 다할 수 있는 하나의 묘한 이야기줄거리가 엮어지고있었다.
이윽고 설총은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분부대로 하겠사오이다. 신은 옛날 꽃왕이 처음으로 왔을 때 일을 들은바가 있사오니 그 이야기를 하오리다.》
설총이 이같이 서두를 떼자 신문왕은 귀가 솔깃하였다.
《꽃왕이 왔다고 하여 그것을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둘러싸서 가지 하나, 잎 하나 흠이 갈세라 정성껏 가꾸었더이다. 무르녹는 화창한 봄이 왔나이다.
꽃왕은 어찌도 곱게 피였던지 온갖 꽃들이 따를수 없을만큼 오직 혼자 뛰여났더이다.》
설총이 구수하게 엮어나가는 재미나는 이야기에 왕은 점점 더 깊이 끌려들어갔다.
꽃왕이 더없이 아름답게 피여나자 멀고가까운 모든 곳에서 온갖 고운 꽃들, 어여쁜 꽃들이 꽃왕을 만나보려고 서로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맨처음으로 아주 곱게 생긴 한 미인이 나타났다.
그는 빨간 얼굴에 옥같이 흰 이를 곱게 드러내고 날아갈듯싶은 몸단장으로 맵시있게 사뿐사뿐 걸어왔다.
미인은 꽃왕앞에 이르러 얌전하게 인사를 하고나서 말하였다.
《저는 눈같이 흰 모래불에서 돋아나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보면서 봄비에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맑은 바람을 즐기면서 부럼없이 지내고있는 장미라고 하옵니다.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듣고 향기로운 장막에서 시중을 들고저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음은 다른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허줄한 베옷에 가죽띠를 동이고 새하얀 머리를 드러낸채 지팽이를 짚은 그는 굽은 허리를 하고 어정어정 걸어와서 말했다.
《저는 도성밖의 큰 길가에 살면서 발밑으로는 넓디넓은 푸른 들경치를 굽어보며 머리우로는 아아한 산세에 의거하고있사옵니다. 저의 이름은 백두옹(할미꽃)이라고 하옵는데 조용히 말씀드릴 사연이 있어서 찾아왔나이다. 좌우에서 임금님에게 드리는 음식이 비록 풍족하여 고량진미로 창자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여 그것을 충분히 저장까지 한다 하더라도 좋은 약이 있어야 기력을 돋구고 악석

(극약이름)이 있어야 독을 제거할수 있는 법이나이다.
그런고로 모두 말하기를 실이나 삼과 같은 귀한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이나 광대나물 같은 천한 물건도 버리지 말라고 하였더이다.
참으로 모든 군자들이 대를 두고 새겨볼 말이오나 임금님께서 의향이 있으신지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둘중에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려 하시오이까?》 하고 임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으니 꽃왕은 딱한듯 우물거리면서 말했다.
《늙은이의 말에도 리치가 있기는 하나 미인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니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리오?》
그러자 백두옹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임금님이라 하면 총명하시여 사리를 잘 아실줄 믿고 찾아왔나이다. 헌데 이제 보니 그렇지 못하시오이다.
무릇 임금된자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신하를 멀리하지 않는자가 드문 까닭에 옛날부터 성인이 평생토록 불우하였고 뛰여난 인물도 시골에 파묻혀 늙어버렸으니 난들 어찌하리이까.》
그때에야 꽃왕은 서둘러 《내가 잘못하였노라.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고 말했다. …
설총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난 신문왕은 깊이 느껴지는바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에 추연한 빛을 띠우며 나직이 말했다.
《그대의 이야기는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글로 남기여 후날 임금된 사람들이 경계할바로 삼게 하라.》
이리하여 설총의 대담한 창작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준 우화 《화왕계》는 우리 나라 우화문학의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꽃을 꺾은 로인의 《헌화가》

샐쭉해서 독촉하는 안해 수로의 청에 순정공의 옹색함이란 정말이지 접시의 물에라도 빠져죽고싶은 지경이였다.

(글쎄 천길높이나 되는 저 돌벼랑꼭대기의 진달래를 내 무슨 수로 꺾어온단 말인가?)

그러건말건 수로는 계속 진땀을 빼는 남편을 다몰아댈뿐이였다.

《아니, 그래가지구두 뭐 나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을 따온다구요?》

순정공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때아닌 닥달질을 일으킨 방금전의 실언을 상기해보았다.

성덕왕(702－737년)의 령에 따라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순정공은 도중에 이 바다가에 자리를 정하고 점심을 먹게 되였다.

멀리 도읍으로부터 떠나온 일행을 위로해주려는듯 동해의 물결도 서늘한 바람을 몰아다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순정공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것은 정든 안해 수로가 예나 다름없이 지금도 제곁에서 시중을 들어주는것이였다.

자색이 뛰여나고 마음씨 고운 수로는 이번에 순정공이 외진 고을로 떠나게 되자 아무 타발없이 따라섰다.

산전수전 겪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란 그였으나 남편을 위한 험한 길에 스스로 따라서는 그 진정은 참으로 갸륵했다.

그래서인지 순정공은 몇잔 술이 들어가자 기분이 들떠서 그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겠다고 흰소리쳤다.

그런데 그 말이 도리여 자기를 옹색한 처지에 빠뜨릴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여느때없이 마음이 넓어진 남편의 호언장담에 수로는 거북해서인지 옆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그러자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막고선 산꼭대기에 진달래가 한창 만발한것이 눈에 뜨이였다.

《아이, 진달래!》

처음 이런 멋진 산풍경을 구경한 수로는 어린애처럼 너무 좋아 손뼉을 치더니 문득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상공, 하늘의 별은 그만두고 저 진달래를 꺾어주사이다.》

《?!》

순정공이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우물거리자 수로가 이번에는 행차를 따라온 측근들에게 부탁했다.

《그럼 일행중에 누가 꽃을 꺾어다줄 사람이 없어요?》

순정공은 이때야 비로소 겨우 숨을 돌리며 의미있는 눈길을 던지였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의 수종군들은 대개가 지난날 자기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것으로 하여 늘 결초보은을 입버릇처럼 외워오던 사람들이기때문이였다.

한데 그들 역시 자칫하면 굴러떨어져 상하거나 목숨을 잃기 십상인 그 위험한 벼랑에 선뜻 오를 용기를 내지 못했다.

도리여 《부인, 저긴 사람이 발붙일데가 없는 곳이여서…》하며 서로들 얼굴만 마주보며 망설이고있는것이였다.

순간 순정공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고현놈들 같으니라구. 평소의 그 결초보은은 다 어데로 갔담.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더니 정작 일이 생기니 서로들 발뺌하는 표리부동한자들이였구나.)

순정공과 부하들이 덤덤해있는것을 본 수로부인은 그만 울상이 되여 발딱 일어섰다.

《아니, 그렇게들 담이 없어요? 아녀자의 소망 하나 이루어주지 못하는 졸장부들이 어떻게 나라일을 치르겠어요.》

일이 이쯤 되자 순정공은 그만 밸이 울컥 치밀어 수로를 한바탕 꾸짖었다.

수로부인이 설음에 북받쳐 그만 눈굽에 수건을 가져가자 바빠난 시중군들은 그를 위로하기에 급해 돌아갔다.

이때 《부인님, 제가 꺾어올터이니 진정하사이다.》 하고 등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 일행이 돌아보니 백발에 눈주름이 가득 잡힌 로인 하나가 소를 끌고가다가 서있는것이였다.

순정공과 수종군들이 어이없는듯 쓴웃음을 지으며 시답지 않게 여

기자 로인은 허허 웃더니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붉은 바위가에서
손에 잡은 어미소 놓아두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면
꽃을 꺾어드리오리다

순간 수로는 놀랐다.
보기에는 시골의 평범한 농사군에 지나지 않는 이 늙은이가 노래도 곧잘 부르는것이 아닌가.
로인이 다시한번 노래를 반복하자 수로는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로인에게 권했다.
로인은 술 한잔을 쭉 들이키더니 산벼랑으로 다가가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벼랑의 삐죽이 나온 돌모서리를 잡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나이탓인지 젊은이처럼 탄력있고 민첩하게 오르지는 못했으나 끝까지 산꼭대기에 톺아올랐다.
그리고는 진달래를 꺾어 끈으로 동여매고는 다시 내려왔다.
《야!》
뜻밖에 기이한 로인을 만나 진달래를 받아든 수로부인은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다.
순정공은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제가 직접 술을 부어 로인에게 다시 권했다.
《내 처의 허망한 소원을 풀어주었으니 로인장이야말로 은사이시오.》
그 로인은 손을 내저어 사양하며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러시오이까. 마음이 높지 못해 그러는거지 어찌 산이 높아 그러시겠소.》라고 말하였다.
덤덤해있는 일행을 뒤에 두고 로인은 소를 몰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한참만에야 순정공은 그 고마운 로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아보지 못한 자책을 느끼며 수종군 한명을 급히 보냈다.
하지만 로인의 모습은 벌써 어데론지 사라져버렸다.

* 로인이 지은 《헌화가》는 4구체로 된 향가로서 우리 나라 국문시가형식의 하나인 향가의 발전력사를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듬이소리에서 착상된 양태사의 시

759년 1월 어느날 오랜 방문일정을 마친 발해사신단은 귀국에 앞서 왜왕정의 태보(최고위관직) 후지와라에미노 오시가쯔가 자기의 화려한 개인주택인 다무라노다이에서 특별히 차린 송별연에 초대되였다.

여기에는 왜의 고관대작들과 한다하는 문인들이 적지 않게 참가하였다.

교태를 머금은 기녀들의 풍악소리와 가무가 취흥을 돋구고 권커니 작커니 술잔이 오가는 속에 어느덧 달밝은 밤도 깊어갔다.

발해사두(정사—사절단의 책임자) 양승경과 나란히 술을 따르던 후지와라가 문득 몸을 일으키면서 《에, 발해귀빈들과 헤여지는 오늘 내 시 한수를 읊을가 하오.》라고 좌중에 알리였다.

이 후지와라는 일본문장가들속에서도 손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후지와라는 시종의 손에서 붓을 받아쥐자 한동안 눈을 감은채 시구를 고르더니 석별의 심회를 한자한자 적어나갔다.

원체 글재간이 있는지라 그만하면 내용과 시어가 나무랄데가 별로 없었다.

양승경이 발해측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자 후지와라가 이번에는 《그렇다면 귀측에서 어느분이 화운시를 하나 지어주시면 고맙겠소.》하며 청하는것이였다.

양승경의 눈길은 인차 곁에 앉은 양태사에게로 쏠렸다.

한것은 양태사에 대한 남다른 믿음에서였다. 문무겸전으로 이름난 양태사는 이번에 사신단 부책임자격인 사사로서 림기응변의 지략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많은 도움을 주군 했다.

그래서인지 왜인들과 시재를 겨루는 이 마당에서 양승경은 그가 아

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사사, 부탁하오.》
양승경의 속마음을 깨달은 양태사도 성큼 일어나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가 잠간 붓을 꼬나들고 시상을 더듬는데 등뒤에서 벌컥 창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쓸어들더니 느물거리며 천천히 타오르던 초불들을 마구 흔들어놓는것이였다.
한 시종이 서둘러 창문을 닫으려 하자 웬일인지 양태사는 다급히 그를 제지시켰다.
그리고는 시종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손바닥을 오무려 창너머로 귀를 강구는 시늉을 해보였다.
그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긴장해있는데 창너머에서 똑딱똑딱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왔다.
은은히 들려오는 그 소리는 멈췄다가는 다시 들리고 또 끊어졌다가는 다시 이어지군 하였다.
양태사의 심중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쳤다.
아, 귀익은 다듬이소리!
고국을 떠나기 전날밤 자기 옷을 정성껏 다듬던 안해의 손에서도 저렇듯 가락맞는 다듬이질소리가 온밤 울렸었다.
《허, 아무래도 저 소리가 그대의 시흥을 깨치는가보구려.》
양태사의 심정을 알리없는 후지와라가 제나름으로 생각하고 누가 얼른 나가 저 다듬이질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분부했다.
이때 양태사가 갑자기 손을 내저으며 입을 열었다.
《그런게 아니오이다. 오히려 저 다듬이소리가 지금 막 시상을 돋구어주는걸요.》
다듬이소리가 시상을 돋구다니?
후지와라가 얼떠름해하자 양태사는 가벼운 미소를 띄우더니 드디여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찬 하늘에 달은 비치고 은하수 기울었는데
나그네는 고향생각에 마음 간절하여라
긴긴 밤 지샐줄 모르고 시름은 싸여 깊어가는데
문득 고요를 깨치며 들려오는 이웃집 아낙네의 다듬이소리

…
고국을 떠난 뒤 그 소리 못 듣더니
이제 만리 이역땅 같은 소리 듣는 마음
모를레라 그대 든 망치 무거운지 가벼운지

일필휘지로 내달리던 양태사의 손이 문득 멈춰섰다.
지금 그의 심정은 낯선 섬나라땅이 아닌 바로 고국의 정다운 집에서 안해에게 속삭이는듯싶은 기분이였다.
잠시 양태사는 창너머로 간간이 울리는 다듬이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분명 그 소리는 남편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머나먼 고국땅에서 보내오는 안해의 살뜰한 음성이였다.
자나깨나 잊은적 없는 고국과 그리운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은 걸음걸음 곡절많은 그에게 언제나 힘을 주었다.
기다리라 고국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이제 너의 정겨운 품으로 돌아가리라.
가슴이 찡해난 양태사는 다시 붓대를 힘있게 휘둘렀다.

이 한때 외로이 규중생각 더듬는데
이 한밤 그대 또한 날 못 잊어 눈물지리
추억은 그지없이 고향으로 달리는데
다시 들리는 다듬이소리 새여들 곳 전혀 없네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볼가 하되
하 그리 긴 수심에 잠인들 차마 오랴

이윽고 그의 시가 랑송되자 발해사신들의 눈가마다엔 눈물이 번뜩이였다.
양태사의 시는 그대로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한것이였다.
후지와라를 비롯한 왜인들 역시 감동을 금치 못했다.
다듬이소리에 맞추어 대번에 장시를 내리엮은 시적재능도 놀라왔지만 그보다는 꿈속에도 잊지 못할 부모처자와 고국에 대한 발해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슴에 마쳐왔기때문이였다.
몇번이고 곱씹어 읽던 후지와라는 시를 적은 종이를 든채 연송 탄복을 표시했다.

《하찮은 다듬이소리를 듣고 이런 시를 엮어내시는걸 보니 사사는 정녕 대가가 틀림없소.》
그러자 양태사는 짐짓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지나친 과찬일랑 마사이다. 귀국에서 내내 느끼던바를 마침 다듬이소리가 터쳐주었으니 감사야 응당 저 다듬이질하는 녀인에게 드려야지요.》
양승경과 발해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치자 후지와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참 뜻깊은 말씀이요. 그대들이 왜 그리 당당하고 강의한 사람들로 보였는지 나도 이제야 깨도가 되는것 같소. 자고로 시란 성정에 근본을 둔다 하였거늘 이 시만 봐도 과시 발해는 타국이 따르지 못할 해동성국일시 분명하오.》
엄지손가락을 펴들고 진심을 터놓는 후지와라의 말은 온 장내에 박수갈채를 불러일으켰다.

귀정문우에 울린 《안민가》

때는 신라 경덕왕시기(742-765년) 어느해 3월 삼짇날, 석양비낀 왕궁 문루앞으로 한사람이 다가서고있었다.
그는 당시 사뇌가(향가)를 잘 지어 이름이 알려졌던 중 충담이였다.
새로 내붙인 현판을 보는 충담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고말았다.
《귀정문》, 뜻은 그럴듯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는 문이라지만 도대체 이안에서 무슨 바른 정사가 나온단 말인가.
형인 효성왕의 뒤를 이어 경덕왕이 룡상에 앉은 이 몇년어간 나라의 정사는 엉망진창이였다.
여러해째나 거듭되는 심한 가물과 때아닌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이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으로 온 나라에 기근이 휩쓸었지만 부역과 잡세는 늘어만 갔다.
웅천주의 향덕이란이가 자기 살을 베여 굶주린 아버지를 봉양했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때 있은 일이였다.

이런 속에서 경덕왕은 이전 왕비인 이찬 순정의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량부인으로 낮추어버린 다음 각간 김의충의 딸을 만월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안팎으로 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경덕왕을 두고 신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도탄에 든 백성들의 원성은 처처에서 높아만 갔다.

그러자 경덕왕은 백관들의 언사와 거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벼슬도 하나 새로 내오고 사소한 기미라도 나타나면 가차없이 징벌하는 한편 하루가 멀다하게 대신들을 갈아치우군 했다.

허나 이러한 폭정은 오히려 경덕왕의 처지를 더욱 난감하게 하였을뿐이였다.

어지러운 시국을 통탄하며 한참이나 현판을 올려다보던 충담이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그게 충담스님 아니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붉은 옷에 상아홀을 든 관리가 서있었다.

그는 이따금 자기의 절에 와 시주를 하는 면식이 있는 이찬이였다.

《오늘 상감께서 새로 내붙인 귀정문의 현판을 보시자구 행차하시여 그대를 부르니 이제 나와 함께 가야겠소.》

충담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금방 왕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찾는다니, 세상일이란 참.)

충담이 궁정관리를 따라 귀정문우의 루대에 올라오니 경덕왕이 그를 맞았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충담이올시다.》

충담이 공손히 대답을 하며 절을 하는데 등에 진 통이 엇비스듬히 드러났다.

경덕왕은 호기심에 끌려 《그 등에 진건 무엇이요?》 하며 통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이건 도대체 뭘 하는 물건인고?》

《소승이 절에서 차를 달일 때 쓰는것이오이다.》

경덕왕은 자못 신기해하며 《그런데 그대는 이 통을 지고 어디 갔다오는 길인가?》 하고 물었다.

충담은 《소승은 3월 삼짇날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밑에 있는 미

륵세존님께 차를 달여올립니다. 오늘이 마침 삼짇날이라 차를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이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경덕왕은 《나도 차 한잔 얻어먹을 연분이 있는가?》 하며 차를 청했다.

충담이 쾌히 응낙하고 곧 차를 달여올렸다. 워낙 절간에서 차를 달이는데 익숙했던지라 차맛은 희한하고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경덕왕이 《그 차맛이 정말 신기한걸.》 하며 못내 감탄하자 곁에 섰던 이찬이 서둘러 그를 소개했다.

《이 스님은 차 달이는 솜씨뿐아니라 사뇌가를 짓는데도 매우 능하오이다. 일전에 상감께서 들으신적 있는 〈찬기파랑가〉도 이 스님이 지은것이옵니다.》

《오, 그런가. 내가 듣기에는 대사의 기파랑을 찬미한 사뇌가가 뜻이 매우 고상하다고 하는데 그대가 지은것이 사실인가?》하니 충담은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했다.

믿어지지 않는듯 경덕왕은 충담을 유심히 살펴보고나서 이렇게 청을 냈다.

《이렇게 새 현판을 붙인 좋은 날 그대가 나를 위해 노래를 하나 지어줄수 있겠나?》

충담은 즉석에서 자기가 좀전에 품었던 생각을 사뇌격에 맞추어 노래불렀다.

임금은 아비며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며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할지…
백성들은 사랑해주는이를 아느니라
차바퀴굴대를 고이고 있는 갓난애같은 백성들
이들을 먹여서 편안히 하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나라를 보존할 길 아노라
아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오리다

노래를 듣던 경덕왕은 금시 얼굴이 흐려졌다. 저 중이 지금 나에게 백성들에 대한 선정을 권고하는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속엔 나를 시비하는 뜻도 없지 않으렷다. 경덕왕은 짐짓 노한 기색을 띄우면서 물었다.

《보아하니 그대는 백성을 거들어 나를 훈계하는데 백성들이야 왕을 받드는게 지당하거늘 어찌 짐이 그들을 받들어야 하는가.》

그러자 충담은 조금도 낯색을 달리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다.

《옛 성인들도 일렀지만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엎기도 하나이다. 만일 상감께서 이를 명심치 아니하면 그들이 기필코 사생결단의 길을 택할것이니 부디 신중히 하소서.》

이 말에 경덕왕은 가슴이 섬찍했다.

(저 중이 보통 중이 아니로다. 불경의 자비만 아는가 했더니 공자의 훈계까지 외우고있는걸 보니…)

경덕왕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정사를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는 《그대의 노래는 참으로 심오하도다.》라고 치하하며 왕사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충담은 《소승은 불가에 매인 한미한 몸이라 벼슬은 어울리지 않소이다. 소승의 진정을 알아주시니 그저 황공할뿐이오이다.》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그리고는 차통을 둘러메고 귀정문을 내려섰다.

영재와 도적들

신라 원성왕(785－798년)때의 중 영재는 익살스럽고 물욕이 없었으며 또한 향가의 능수였다.

그가 향가를 얼마나 재치있고 능란하게 지었던지 당시 영재라고 하면 가사를 걸친 수도승이라기보다 비범한 시재로 더 잘 통하였다.

아쉽게도 영재의 작품들은 거의 인멸되여 그 전모를 가늠할수 없으나 다음의 일화에서 우리는 그가 지닌 남다른 창작적재능과 인간됨을 가늠하게 된다.

늘그막에 남악(오늘의 지리산)으로 들어가던 영재는 뜻밖에도 대현령에서 한무리의 도적들을 만났다.

수효로 보아 60명은 실히 될듯싶은 도적들은 어찌다 굴러든 고기를 놓칠세라 앞뒤로 꽉 막아섰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야 그의 행장이란 고작해서 해져서 노닥노닥 기운 가사 한개와 손에 든 허줄한 지팽이가 전부였다.

헛물을 켠 도적들은 잔뜩 화가 나서 시퍼런 칼날을 영재에게 들이댔다.

하지만 영재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호탕한 웃음을 터치였다.

《고맙소. 소승이 마침 부처님극락전에 갈 궁리를 하던참인데 이렇게 그대들이 도와주니 말이요.》

여느 사람들같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붙으련만 도리여 기뻐하는 기색으로 선뜻 칼을 받는 영재의 태연자약한 행동에 도적들은 그만 아연해졌다.

이때 도적무리의 두령이 영재앞에 나서며 물었다.

《보아하니 담기가 여간 아닌데 대관절 어느 절에 계시오?》

영재는 공손히 읍하며 《소승은 해와 달을 벗삼아 정처없이 동냥다니는 비천한 영재라 하오.》라고 대답했다.

순간 도적들은 저들끼리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들어오던 유명한 영재를 이렇게 만나고보니 두령도 속으로

놀랍기 그지없었으나 어쩐지 의심스러워 짐짓 소리를 질렀다.
《허튼수작, 영재로 말하면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인데 어찌 너처럼 루추한 꼴을 하고 다닌단 말이냐. 늙은 중놈이 되지 못하게 영재스님행세를 하면 살아날줄 알았느냐?》
두령이 언성을 높이자 도적들은 내리웠던 칼을 다시금 꼬나들었다.
《할수 없군. 그럼 어서 이 거짓말쟁이의 목을 자르기나 하오.》
영재는 태연히 칼날에 목을 가져다댔다.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령은 정말 영재가 옳은지 시험해볼양으로 부하들을 제지시켰다.
《듣자니 영재는 사뇌가에 출중하다는데 네 영재가 적실하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지어보아라. 만일 짓지 못할 때엔 우리를 속인 그 죄 용서가 없으리라.》
이리하여 영재는 죽음을 눈앞에 둔채 향가를 짓게 되였다.
무슨 노래를 짓는다?! 생각을 굴리던 영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인륜에 어긋나는 이들의 행위를 깨우쳐줄 비장한 각오를 품었다.

제 마음의 하는짓 모르던 날 멀리 지나치고
이제는 숨으러 가나이다
오직 옳지 않은 파계주*의
무서운 모습에 다시금 돌아서노니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 않네
좋은 날을 물릴수야 없지
아야
오직 이 올라야 할 선*의 둔덕
못 들어갈 큰집이 아니외다

* 파계주=부처의 계률을 어긴 이. 여기서는 도적을 의미함.
선의 둔덕=선을 행하고 선행을 쌓는것을 둔덕에 비유한것.

마치 이런 때를 미리 예견해서 써놓기라도 한듯 줄줄 내리엮는 영재의 노래를 듣던 도적들은 부끄럼으로 얼굴이 달아올라 머리를 수그렸다.
《소인들이 그만 성인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굴었으니 스님께서 용

서해주사이다.》
두령은 거듭 사죄한 끝에 모시천 두필을 영재에게 선사하였다. 그러자 영재는 천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며 말했다.
《내 재물이 지옥의 장본으로 된다는것을 알고 장차 깊은 산중으로 피하여 한평생을 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것을 받겠소.》
도적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두령은 한숨을 내쉬더니 감동어린 눈빛으로 영재의 손을 잡았다. 두령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칼을 놓고 창을 던지더니 영재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을 보니 인륜을 어기고 산 막중한 죄 참으로 후회막급이로소이다. 가세가 하도 막부득이하여 이런 길에 들어선것이니 부디 그 고매한 덕망으로 어리석은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영재는 눈물을 떨구는 도적들의 어깨를 일으켜세웠다. 그리하여 60명 도적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여 남악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달을 보며 남긴 유언시

《사두어른,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오!》
귀전에 울리는 애절한 부르짖음에 왕효렴은 겨우 혼수상태에서 깨여났다.
안깐힘으로 눈을 뜨니 가물대는 초불빛을 타고 부사인 고경수와 판관 고영선 등 낯익은 얼굴들이 비쳐들었다.
온통 눈물범벅이 된 그들을 알아본 왕효렴은 다시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고경수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래 국서를 받는 일은 어떻게 되였소?》
하건만 고경수는 아무 대답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뿐이였다.
《아직 받지 못한가 보구만, 참.》
왕효렴이 저으기 서운해하는 기색을 띄우는데 문득 《대사, 여기 가

져왔소이다.》 하는 왜말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고경수의 어깨너머로 자기를 지켜보는 구와바라노 하라까와 시게노노 사다누시를 발견했다.
이 두 왜인은 발해사신단이 이즈모(일본의 해안고을)에 도착하는 날부터 동행하던 칙사들이였다.
《허, 명색이 일국의 사두라는게 인사불성이 되여 미안하오.》
왕효렴이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하자 구와바라노와 시게노노는 서둘러 앞에 나서며 만류했다.
《대사, 그냥 누워계시오이다.》
일본에서는 사신단의 책임자를 《대사》라고 하였다.
그들의 손에서 왜왕이 발해왕에게 보내는 국서를 받아든 왕효렴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아, 이제는 내 죽어도 원이 없겠군.)
오늘은 바로 왕효렴이 외교활동의 마지막사업으로 국서를 접수받게 된 날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병이 도지는 바람에 침상에 매인 몸이 되고말았던것이다.
국서를 손에 쥐기는 하였으나 다시 엄습해오는 동통을 애써 참으며 왕효렴은 고경수에게 부탁했다.
《아무래도 난 며칠 견딜것 같지 못하니 그대가 뒤일을 잘 조처해주오.》
고경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순간 왕효렴의 마음은 왜서인지 미여지는듯 했다. 이때 왕효렴의 행동을 주시하던 구와바라노가 입을 열었다.
《왕대사, 우리 전하의 분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먼저 떠나고 대사는 여기 남아 몸조리를 한 다음 떠나시는게 어떻겠소이까?》
왕효렴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감도는데 역관 리준웅이 초약을 달여들고 문가에 나타났다.
사람들을 헤집으며 곧장 침상으로 다가든 그는 조용한 어조로 《사두어른, 약을 가져왔소이다. 이걸 잡숫구 어서 기운을 내시오이다. 그래야 부인마님과 자제들을 만나볼게 아니오이까.》 하고 말했다.

약이라는 말에 눈을 뜬 왕효렴은 이내 낯익은 그릇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니, 이 약이 상기도 남아있었느냐?》
이 초약과 그릇은 고국에서 안해가 리준웅에게 마련해보낸것이였다.
있는 힘을 짜내여 몸을 일으킨 왕효렴은 초약그릇에 입을 대려다말고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약물우에 창가로 흘러드는 달빛이 어려있는게 아닌가.
불시에 그 달은 정다운 안해의 모습으로 변하며 흉벽을 세차게 울리는것이였다. …
《상공, 그 몸으로 어이 타향만리를 가신단 말이오이까?》
바람세찬 포구에까지 따라나와 애원하던 안해의 근심어린 목소리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때 자기는 안해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었다.
《너무 마음쓰지 마오. 나라의 중임을 맡은 몸이 어찌 작은 병에 발목을 잡히겠소? 무사히 돌아올테니 그때 마중이나 잘하오.》
이렇게 떠나온 왕효렴이였다.
그런데 안해와의 약속은 고사하고 정든 고국을 더는 보지 못하게 되였으니…
가슴이 쩌릿해난 왕효렴은 고경수와 리준웅에게 의지하여 창가로 다가갔다.
창을 활짝 열어제끼자 시원한 바람이 방안에 밀려들고 은하수 비낀 밤하늘의 둥근달이 자기를 맞이하는것이였다.
왕효렴의 마음은 멀리 북쪽의 고향집 창가로 달리였다.
아마 지금도 안해가 자기와 한 약속을 되뇌이며 이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지도 몰랐다.
치밀어오르는 격정으로 왕효렴은 자기도 모르게 입속으로 시구를 읊기 시작했다.
허나 이미 병마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그의 입에서는 마음뿐이지 소리가 전혀 나가지 못했다.
이런 때면 늘 시를 읊군 하는 그의 습관을 알고있는 고경수가 제꺽 눈치를 채고 붓을 그의 손에 쥐여준 다음 종이를 받쳐들었다.
그러는 경수를 보며 왕효렴은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다.
왕효렴은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며 한자한자 시를 적기 시작했다.

여름날의 외롭고 적막한 밤에
휘영청 둥근달은 높이도 솟았네
뭇산들은 은은한 그늘속에 잠기고
물에 비낀 자연의 그 모습 새롭기만 하여라
고향의 안해 그리는 애끓는 마음
나그네의 시름 짙어만 가네
조국땅은 저 멀리 아득하건만
둥근달은 나와 그대 함께 비쳐주리

가까스로 시를 마무리하고난 왕효렴은 다시 의식이 몽롱해지는지 스르르 눈을 내리감았다.

그러다가 자기를 부축하는 고경수의 손을 뜨겁게 맞잡으며 절절히 부탁했다.

《고국에 돌아가거들랑 부디 내 안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미안해하더라는 말을 전해주오. 그리구 내 죽은 후에 골육이나마 고국산천에 묻어주면 저승에서도 꼭 그대들의 은공을 잊지 않겠소.》

왕효렴의 말을 듣던 고경수는 물론 발해사신들과 왜인들도 다같이 크나큰 감동으로 흐느껴울었다.

이튿날 왕효렴은 달을 바라보며 안해를 그리던 시를 가슴에 품은채 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왕효렴의 사망소식에 접한 왜왕은 조서를 내리여 애도의 뜻을 표시한 다음 경치좋은 곳을 골라 그의 묘소를 쓰게 하였다.

그러나 발해사신들은 왕효렴의 마지막유언대로 그의 유해를 배에 싣고 떠났다.

그의 시신우에는 고인이 림종을 앞두고 지은 시가 놓여있었다, 마치도 생전에 다시 밟지 못한 고국땅을 죽어서라도 찾아가는 그의 넋이런듯. …

때는 816년 5월이였다.

* 왕효렴의 시 《달을 보며 고향을 그리면서》는 양태사의 시《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와 함께 발해시가유산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역병귀신을 몰아낸 《처용가》

옛날 우리 나라 민속에는 자기 집 대문에 처용의 화상을 그려붙여 나쁜 귀신을 쫓고 복을 맞아들인다는 《벽사진경》의 풍습이 있었다.

처용은 신라 헌강왕(875－886년)때의 사람이였다.

고려의 이름있는 시인이였던 리제현이 자기의 악부시에서 《하얀 이발, 붉은 낯에 달아래 노래하고 회색어깨 자주빛소매로 봄바람에 춤추네》라고 한것처럼 처용은 당시 기이한 용모와 뛰여난 예술적재능으로 이름을 날린 민간예술인으로서 실재한 인물이였다.

그러면 일개 민간예술인에 불과했던 처용이 어떻게 되여 《벽사진경》의 화신으로까지 둔갑하게 되였는지.

여기에는 처용이 향가 《처용가》를 짓게 된 재미있는 창작담이 깃들어있다.

휘영청 보름달이 왕경거리를 밝히던 어느날 밤 동료들과 한바탕 주연을 치르고난 처용은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자기 집 대문안에 들어섰다.

울밑의 귀뚜라미소리만 이따금 들리는 뜨락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조차 없었다.

(허, 벌써 잠에 곯아떨어졌나보군.)

당장 소리쳐 부르려던 처용은 갑자기 장난궂은 생각에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한번 혼내줄가?)

천성이 익살기가 심한 처용이라 발볌발볌 문앞에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어제꼈다.

그러나 다음순간 처용은 《이쿠!》 하며 화닥닥 놀라 얼결에 문을 닫고말았다.

혹시 지나친 술기운에 일어난 착각인가. 허벅다리의 살을 꼬집어보고난 처용은 눈을 비비며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희읍스름한 달빛이 스며드는 방안의 이부자리엔 분명 자기 안해와 구척장신의 웬 사내가 나란히 누워있고 이불밖에 삐여져나온 발도 네

개임이 틀림없었다.

(아니, 저게 그새 군서방질을 하댔구나.)

욱 하는 결김에 처용은 문을 짓조기고 들어가 두 년놈을 당장 요정내고싶었으나 웬일인지 잡았던 문고리를 놓고말았다.

그리고는 토방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후 내쉬였다.

(아니, 내탓이다. 돌절구도 밑빠질 날이 있다는데 하물며 젊고 연약한 그가 오죽했으면…)

여느 사람 같으면 분노했을텐데 처용이 도리여 자신을 책망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처용이 이 녀인과 백년가약을 맺은것은 몇해전 일이였다.

그때 학성 개운포(울산)에서 가무놀이를 하던 처용은 우연히 동해안일대를 순행하던 헌강왕의 행차와 맞다들렸다.

처용의 남아다운 용모와 뛰여난 재주를 직접 목격한 헌강왕은 그에게 완전히 홀딱 반했다.

선참 박수를 치며 연거퍼 재청을 하던 헌강왕은 어찌다 맞다들린 재인을 놓치기가 아쉬웠던지 아예 왕경에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는 처용을 안착시켜 궁중의 전문광대로 삼을 작정으로 궁녀들가운데서도 제일 인물이 빼여난 녀인에게 장가를 들이고 급간벼슬까지 하사하는 전례없는 은총을 베풀었다.

이리하여 떠돌이재인에 불과했던 처용은 난생처음 후한 우대를 받으며 궁중생활을 시작했고 인차 온 왕경일판에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 되였다.

하지만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그 무엇에 구속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던 처용은 시간이 감에 따라 틀에 박힌 궁중생활에 불만을 느끼게 되였고 그 누구의 구속도 없이 여기저기 마음내키는대로 돌아다니며 마음껏 즐기던 이전의 생활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갑갑증을 달랠길 없어 전전긍긍하던 처용은 참다못해 밤마다 슬며시 왕궁을 나와 옛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즐기군 하였다.

그러니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그리며 독수공방하는 안해의 괴로움과 원망이야 얼마나 컸으랴. 지나온 나날을 되새기는 처용의 마음속엔 안해에 대한 나무람보다 자기 생각에만 팔려있은 뼈저린 후회가 더 짙어갔다.

일이 이렇게 된바엔 차라리 내가 물러서자.
이것이 변변치 못한 이 남편이 안해에게 마지막으로 보답하는것일 수도 있으리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어선 처용은 하늘중천에 솟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지어불렀다.

동경 밝은 달에
밤 이슥히 놀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고나
둘은 내해였고
둘은 뉘해인가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걸 어찌하리

노래를 마친 처용이 터벅터벅 대문을 향해 몇걸음 옮기는데 갑자기 방안에서 처용의 안해를 끼고 누워있던 사내가 달려나오며 앞을 막아서는것이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사나이는 금시 흉하기 이를데없는 귀신으로 변색하는것이였다.
원래 그는 절색인 처용의 안해를 탐내던 역병귀신이였는데 이날 밤 처용이 오래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기회에 사람으로 변신하고 기여들었던것이다.
처용이 들어온 기미를 알아차린 귀신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동정을 살피며 달아날 구멍을 찾고있었는데 처용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만 감동되여버렸다.
처용앞에 나타난 귀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연송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지금껏 그대의 안해를 탐내여 유혹했더랬소.
그런데도 당신은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여 자신의 잘못을 탓하니 정말이지 나로서는 감격할뿐이요.
맹세컨대 이제부턴 당신의 화상을 그려붙인 문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소.》

이렇게 사죄하고난 역병귀신은 부디 안해를 나무라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부탁을 남기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역병귀신이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저마끔 처용의 얼굴을 대문에 그려붙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 《처용가》는 후기신라때 가장 유명했던 향가로서 처용무, 처용희 등과 더불어 고려와 리조까지 계승되였다.

《칠보지재》 배정

883년 발해사신단의 사두 배정이 왜왕의 국서접수를 위해 궁성에 들어갔을 때였다.
《대사, 그간 수고가 많았는데 오늘은 우리 시나 지으며 한껏 즐기는게 어떠하오?》
며칠째 국서문제로 긴장하게 지내던 배정은 느닷없는 시짓기청에 고개를 들고 왜왕을 바라보았다. 왜왕이 웃음을 지으며 곁에 선 식부소보 스가와라노 미찌자네에게 눈짓을 하자 스가와라노가 갑삭 허리를 굽히고는 문지기군사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서른명나마 되는 문사들이 우르르 어전으로 쓸어드는것이였다.
(왜인들이 또 무슨 작간을 부리는게 분명해.)
배정은 속으로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아닌게아니라 이 시짓기놀음에는 왜왕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었던것이다.
그간 발해사신단의 당당한 위세에 눌려오던 왜왕은 골을 썩였었다. 원래 왜는 발해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전부터 문화교류를 그치지 않고 진행하여왔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왜왕은 발해의 선의를 악용하여 자기 나라가 발해보다 높은 나라나 되는듯이 행세하려 들었다.
특히 이번 배정의 일행이 도착한 첫날부터 그는 자기에게 보낸 발

해왕의 국서에 대해 트집을 거는가 하면 사신단성원들에게 저들의 벼슬을 《하사》한다는 등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배정을 비롯한 사신단성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하는수없이 자세를 낮추어 최상의 대우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밸이 꼴린 왜왕은 어떻게 하나 납작해진 저들의 위신을 추세우려고 신하들과 쑥덕공론을 벌리던 끝에 문장을 통해 봉창하기로 꾀하였다.
신하들의 말에 의하면 대사 배정이 여태껏 문인들과 상종할 때마다 찬사만 늘어놓을뿐 시를 직접 짓는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배정에게 왜문인들의 《우수한》 문장술을 시위하면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게 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왜왕은 문장의 대가로 꼽히우는 스가와라노 미찌자네에게 문인들을 특별히 선발하게 한 다음 배정이 국서접수를 온 기회에 억지청을 들이댔던것이다.
왜문인들이 자리를 잡기 바쁘게 스가와라노가 자기 왕에게 의견을 내였다.
《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오늘의 시모임을 전하께서 몸소 주관하시여 우렬을 갈라주시기 바라오이다.》
이미 계획된 일이라 왜왕은 쾌히 수락하는척 하며 《그럼 내 오늘의 우승자에게 곤룡포 한벌을 하사하겠노라.》라고 상을 걸었다.
그러한 거동을 유심히 살피던 배정은 사태를 짐작했다.
(흥, 시짓기로 위세를 돋구어보자는 수작이군. 아직 불을 설맞았어. 어디 한번 맞서보자.)
배정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왜왕앞에 다가섰다.
원래 배정은 문적원 소감벼슬을 지내던 사람으로서 발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시인이였다.
성품이 겸허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던것인데 이를 알리 없는 왜인들이 서둘러 속단해버린것이였다.
《그렇다면 전하께선 차라리 그 곤룡포를 다른 사람에게 줄것없이 곧장 저에게 주시기 바라나이다.》
《배대사가?》
당황해할줄 알았던 배정이 벌써 우승자로 자처하자 왜왕과 문인들은 아연해졌다. 그러건말건 배정은 재차 어떤 식으로 시짓기를 하는가고 물었다.

《전례대로 서로 시운을 내여 막히지 않고 대구를 놓는것으로 하려고 하오이다.》
스가와라노가 먼저 말을 떼자 배정은 흔연한 낯색을 지었다.
《그럼 순서를 기다릴것 없이 내가 먼저 그대들의 운에 화답하리다. 매 사람이 자기 탁우에 운을 골라 써주기 바라오.》
웅성거리던 왜인들은 즉시 준비해두었던 글귀들에 제일 어려운 운들을 달아 써놓았다. 그리고는 (아무렴, 네까짓게…) 하는 자세로 배정의 화운시를 기다렸다.
드디여 배정이 두줄로 난 탁사이에 나섰다.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왜인들의 눈빛을 마주하는 배정의 심정은 자못 격렬하였다.
순간의 실수라도 나라의 권위에 그늘을 던질수 있었다. 먹을 듬뿍 찍은 붓대를 들고 배정은 맨먼저 스가와라노의 탁에 다가섰다.
그의 시구를 얼핏 스쳐보고는 대수롭지 않은듯 대구를 놓고 지나쳐버렸다.
다음은 맞은켠 시마다노 다다오미의 시탁, 그 역시 왜땅에서 제노라는 문사로 번마다 자기에게 뽐내던자였다. 하지만 거기에도 단숨에 붓을 놀려 시를 써갈겼다.
이렇게 이 탁, 저 탁 오가며 시들을 지어가는데 그야말로 눈깜빡할 사이였다.
바람을 일구며 붓대를 놀려가는 배정의 모습은 흡사 칠척장검을 휘둘러 막아선 적군을 삼대베듯 하는 군사의 용맹한 모습이였다.
배정의 뒤를 따르며 시를 읽던 스가와라노와 시마다노는 너무도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다.
자기들이 그토록 품을 들여 짜낸 운자들에 기묘하게 맞추어 개개가 다 명문장으로 마무리된것이였다.
어느덧 마지막시탁까지 말끔히 해치운 배정은 붓대를 홱 던지고나서 《이젠 평이나 내려주소이다.》 하고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스가와라노는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부르짖었다.
《옛날 위나라 조식이 일곱걸음에 시를 지어 유명했다지만 배대사는 오히려 더 빨리 시를 지으셨으니 정말 그 뛰여난 재주를 칠보지재라고밖에 표현할수 없는게 유감이오이다.》
짝질세라 시마다노 역시 한마디 했다.
《어른의 시는 날카로운 맛이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서리발칼날 한

가지오이다.
즉석에서 시를 내는게 꼭 미리 준비한것 같아 그저 놀랍기만 하오이다.》
다른 문인들도 더 배정과 겨룰 의욕을 잃고 그만 붓을 거두어버리고말았다.
그렇게도 믿던 문인들마저 배정에게 손을 드는것을 목격하던 왜왕은 기가 막혀 량미간을 찌프렸다.
하지만 쒀놓은 죽이라 어차피 자기가 상으로 내건 곤룡포를 내여주고 배정의 요구대로 당장 국서를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결국 이날의 시짓기는 왜인들에게 있어서 혹을 떼려다 붙인 격이 되고말았다.

벼락을 불러온 왕거인의 옥중시

진성녀왕(887—897년)이 신라 력사상 세번째 녀왕으로 등극한지 몇해 지난 어느날 신라의 수도 왕경은 전에없이 떠들썩했다.
녀왕을 그토록 격분시켰던 무기명투서의 필자가 마침내 적발되여 곧 처형된다는 소문이 쫙 퍼졌던것이다.
무기명투서는 얼마전 왕궁앞의 길가에 뿌려졌는데 거기에는 《남무망국 찰니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우삼아간 부호사파사》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얼핏 보면 중들이 외우는 념불의 구절같았으나 문관들이 해석한데 의하면 여기서 찰니나제란 다라니말(불교에서 사용하는 주문)로 녀왕을, 판니와 아간은 당시 벼슬이름이며 부호사파는 궁정에서 세도를 부리던 녀왕의 유모 부호부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망국이란 문자그대로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였다. 결국 투서는 다라니말로 녀왕과 그 측근의 세도가들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풍자한것이였다.
대노한 녀왕은 즉시 천하를 뒤져서라도 이 다라니은어의 작자를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떨구었다.
그 바람에 온 왕경일판이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며 지냈었다.

대관절 이 불집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일가.

사람들의 호기심이 사형수가 갇혀있는 왕궁감옥에 쏠리고있을 때 옥에는 얼마전에 벼슬에서 물러나 대야주에서 은거생활을 하던 왕거인이 잡혀와있었다.

그런데 사실 왕거인은 다라니은어의 장본인이 아니였다.

산책하던 도중에 다짜고짜로 군사들에게 잡혀온 그는 감옥에 당도해서야 자기가 그 유명한 다라니은어사건의 련루자로 몰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마침 예심관리가 왕거인과 면식이 있던지라 이 갑작스런 감금의 전후사연을 들려주었던것이다.

바로 그 전날이였다. 며칠을 두고 벌린 범인색출에서 허탕을 치게 되자 진성녀왕은 또다시 대신들을 들볶아댔다.

《경들은 대체 과인의 신하가 분명하오?

국록을 타먹는 중신들이라는게 어찌 과인을 욕보인 쥐같은자 하나 가려내지 못하고있는거요?》

궁성이 터져나갈듯 악을 쓰는 진성녀왕앞에서 대신들이 진땀을 뽑는데 문득 한 재상이 입을 열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상감의 은총에 백성마다 감격해하는 이 태평세월에 그런짓을 한걸 보면 필시 문사로서 뜻을 펴지 못한자의 소행인가 하오이다. 소신의 생각엔 저…》

그가 말끝을 흐리자 진성녀왕은 《말재간 피우지 말고 그대 생각이나 빨리 아뢰라.》라고 하였다.

《페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날 상소문을 올렸다가 쫓겨간 왕거인을 내놓고는 그런짓을 할자가 없으니 이번에 조정을 헐뜯는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게 어떨가 하나이다.》

순간 녀왕은 그의 말속에 숨은 뜻을 알아차렸다.

그렇지, 누구든 상관 없다.

왕거인이 설사 범인이 아니라 해도 그를 징계하여 다른 험담군들에게 자갈을 물려야 한다.

녀왕은 더 생각할 사이가 없이 왕거인을 압송해올 군사들을 대야주로 출동시켰다.

왕거인은 피가 치솟는것 같은 분노로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러니 자기가 저 암둔한 녀왕과 권신들의 체면유지를 위한 희생물로 선택된것이였다.

또 다라니은어사건을 놓고보아도 오죽하면 그런 투서가 나왔겠는가.

력대 신라왕가운데서도 음탕하기로 소문난 진성녀왕은 전부터 자기 유모의 남편인 위홍과 치정관계를 맺고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또 미남자 두셋을 끌어들여 부화방탕한짓을 일삼고있었다.

녀왕의 총애속에 판관과 아간 등 나라의 요직을 차지한 이자들은 왕거인과 같은 대바른 관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조정의 실권을 틀어쥐고있었다.

뢰물행위와 매관매직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정사가 엉망진창이 되다보니 백성들의 원성은 구천에 사무쳤다.

그런데도 녀왕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 하나의 안락과 부귀만을 추구하고있으니 이 아니 한심한 일인가. 생각할수록 분노와 울분을 누를길 없어 왕거인은 감옥살창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몸부림쳤다.

(아,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도 있단 말인가. 내 나라의 충신은 못될망정 애매한 루명을 쓰고 죽다니…)

하건만 밖에서는 모처럼 잡아들인 《범인》을 주시하는 군사들의 살기띤 눈초리만 번뜩이고있을뿐 누구도 그의 억울함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진맥진하여 털썩 주저앉은 왕거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감옥안을 둘러보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속에서 속절없이 죽음을 당했을것인가. 하건만 이들의 원통함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아니, 죽어도 이 억울한 심정을 후세의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해야 한다.

왕거인은 결연히 일어나 바닥에서 뾰족한 돌을 찾아들고는 옥벽에 대고 자기의 심정을 한자한자 써나갔다.

우공이 통곡하니 3년동안 가물었고
추연이 슬퍼하니 5월에도 서리가 내렸네
지금의 내 설음이 예와 같은데

하늘은 왜 그저 푸르기만 하는가

우공과 추연은 옛날 간신의 참소로 억울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인데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들의 처지를 원통히 여겨 하늘에서 때아닌 서리와 가물을 내렸다고 한다.

시를 쓰고나니 잠시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는듯 했으나 왕거인의 가슴속엔 래일이면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자기의 억울한 처지가 맺혀왔다.

아, 제 리속을 위해 생사람도 서슴없이 해치는 저 악독한 무리를 두고 이 나라는 장차 어찌된단 말인가.

왕거인은 목놓아 울음을 터치였다.

그런데 이때 왕거인의 이 절통한 시가 효력을 보았는지 금시 개여있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뢰성벽력이 사납게 일기 시작했다.

《우르릉— 쾅!》

삽시에 대줄기같은 소낙비와 우박이 억수로 퍼붓더니 연거퍼 쫘르릉 하고 벼락이 치며 감옥벽이 마구 뒤흔들리는것이였다.

파수를 서던 군사들은 하늘이 왕거인의 시를 보고 벼락을 내렸다고 아우성을 치며 저마다 꼬리를 사렸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진성녀왕은 너무도 질겁하여 한동안 입도 제대로 열수 없었다.

분명 하늘이 왕거인의 무죄를 알고 이런 괴변을 빚어냈으니 이제 또 그를 죽였다가는 무슨 천벌이 내릴지 몰랐다.

그러니 다라니은어라는것은 하늘이 준 경고가 틀림없으리라.

진성녀왕은 서둘러 대신들을 불러들이고는 지체없이 왕거인을 고스란히 놓아주라고 야단을 쳤다. 이렇게 되여 왕거인이 풀려나오자 하늘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다시금 평온한 고요가 깃들었다.

사신단을 앞질러온 시

1080년 어느날 송나라 월주의 객관에서는 고려사신단을 위한 연회가 한창 고조에 오르고있었다.

《쨍가당ㅡ》

느닷없이 울리는 아츠러운 소리에 연회장의 정숙한 분위기는 그만 어수선해지고말았다.

금시까지 흥이 나서 시구를 읊어대던 송나라시인은 물론 거기에 심취되여있던 다른 사람들도 누구라없이 얼굴을 찡그리였다.

(제길, 누가 분수없이 좋은 시흥을 깨쳐놓았을가.)

서로마다 불쾌한 마음으로 훔쳐보니 다름아닌 고려사신단의 박인량(?ㅡ1096년)이 미안스러운 표정으로 탁자밑의 사기쪼각을 거두고 있었다.

보매 사달은 그가 쥔 술잔이 미끄러지면서 일어난듯 하였다.

외국사신의 부주의라 송나라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쓴입만 다시는데 고려사신단을 책임진 호부상서 류홍은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떠날 때부터 말썽을 피우더니 저 사람은 언제 봐야 절제가 없다니까.)

류홍이 박인량을 못마땅히 여기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사신단일행이 처음 례성강포구를 떠나던 날 류홍은 남들과 달리 단출한 박인량의 짐을 가리키며 의문을 표시하였다.

《별게 아닙니다. 이번길에 시나 마음껏 지어볼 작정으로 종이를 좀 마련해두었던겁니다.》

《원, 거기라구 시지을 종이가 없을라구. 헌데 시랑은 여기다 시나 채워오겠다는건가?》

박인량이 대답대신 미소만 띄우자 류홍은 저도 모르게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남들은 청자기며 인삼 등을 한바리 실어놓고 송나라에 가서 한몫 챙

길 궁리들을 하는데 풍월이나 짓다 오겠다니 류홍으로서는 그 속량이 어딘가 천진스러운것처럼 느껴졌다.

하긴 당시 조정안에서 글재간이 능하기로 소문난 인량이니 쉽지 않은 이 해외려행에 마음이 어지간히 들뜬 모양이였다.

박인량은 결심대로 송나라 명주(절강성)에 도착하는 첫날부터 짝패인 김근과 송나라의 명승고적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시를 지었다.

그리고는 밤새껏 둘이서 시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초가 다 타버려서야 눈을 붙이군 했다.

이런 때가 비일비재하니 변경(송나라도읍으로서 지금의 개봉)으로 향하는 사신단의 일정이 지체되는 경우가 드문하였다.

《이번 우리가 맡은 국사가 막중하거늘 그대들은 경솔히 처신하지 말고 사신의 체모에 맞게 신중히 처신하게.》

류홍이 간혹 충고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시그시 대답뿐이고 도무지 개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느 때도 자기 속을 태우더니 이 마당에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흐려놓았으니 박인량에 대한 류홍의 불신은 더욱 배가해졌다.

박인량때문에 무안해하는 류홍의 속내를 알아차린 월주자사가 다시 아까 시를 읊던 문인에게 시를 계속 읊으라고 일렀다.

덩달아 고려사신들도 술잔을 권하며 청했다.

《둥기당 둥둥 둥기당 둥둥—》

은은한 거문고소리가 울리는 속에 송나라시인은 목청을 가다듬으며 아까 읊던 시구를 읊어대기 시작하였다.

모나고 괴이한 돌 첩첩 쌓여 산이 되고
그우에 앉은 절간 사방은 물이로세
탑그림자 강에 비쳐 물속에서 흔들리고
경쇠소리 달빛따라 구름속에 사라지네

그가 여기까지 읊자 지그시 눈을 감고 손가락장단을 치던 박인량이 별안간 소리를 내여 그 시구에 뒤를 잇는것이였다.

돛배는 사람 타자 살같이 달리는데
대숲아래 중들의 바둑소리 한가롭다
나라일 바쁘지만 리별이 안타까와
이다음 다시 오마 시를 지어 언약하네

순간 송나라시인은 눈이 화등잔같이 둥그래지며 무척 놀라와하였다.
《아니, 이건?》
이러한 모양을 지켜보던 류홍은 그만 참을성을 잃고 박인량에게 발끈 성을 내였다.
《박시랑, 이게 무슨짓이요. 남이 한창 읊는 시를 가로채다니. 그대는 례절도 모르는가?》
그러자 시를 읊던 송나라시인이 황황히 류홍을 만류했다.
《아니, 그런게 아니올시다. 실은 저 사람이 읊는 시가 신통히 제가 읊으려던 마지막 두련과 꼭같길래…》
그 말에 좌중은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박인량이 아무말없이 웃기만 하는데 곁에 앉았던 김근이 일어서며 송나라시인에게 물었다.
《저 로형께서 방금 읊으신 시가 혹시 구산사에 대한게 아니던가요?》
《과연 그렇소이다. 어제 면목있는 그곳 중이 저의 집에 왔다가 들려준것인데 하도 시가 절묘해서 제 오늘 이 마당의 흥을 돋구려 읊던것인데 글쎄…》
웬일인지 송나라시인은 주저주저하며 더 말을 잇지 못한채 박인량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박인량은 빙그레 웃으며 옆에 앉은 김근에게로 의미있는 눈길을 돌리였다.
그러자 김근은 영채도는 눈빛을 번쩍이며 말했다.
《그대가 방금 읊은 시는 바로 이 박공이 전날 구산사에서 지은 시랍니다.》
뜻밖의 일이라 송나라사람들과 류홍을 비롯한 고려사신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뭐라구요, 그게 박시랑이 지은 시란 말이요?》
류홍은 미덥지 않은듯 재삼 물으며 박인량에게 눈길을 주었다.

《허, 이런 일도 있나. 그러니 그대의 시가 사신단보다 먼저 이 월주땅에 들어와 퍼졌단 말인가요.》

월주자사 역시 뜻밖의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체 그대의 성함은 어떻게 부르시오?》

《저는 고려서 례부시랑을 지내는 보잘것 없는 박인량이라 하옵니다.》

월주자사는 또다시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뛰쳐일어났다.

《그럼 요전번 국경문제로 료나라황제에게 글을 써보낸 대천선생이란 말이시오?》

김근이 대신 그렇다고 하자 월주자사는 아래우를 이리저리 훑어보며 감탄을 표시하였다.

《세상에 이런, 그대의 성함을 익히 듣고 글짓는 선비마다 흠모하고있던차인데 오늘 보니 과시 둘도 없는 문장가이시구려.》

다른 사람들 역시 박인량의 비범한 시재와 그 감화력을 두고 혀를 내둘렀다.

《지나친 과찬 마소이다. 전날 구산사사람들이 하도 성화를 먹이길래 대충 지어주고 떠난것인데 자사어른의 칭찬은 실속에 지나친것인줄 아옵니다.》

박인량이 짐짓 손을 내젓자 이번에는 시의 첫 두련을 읊었던 송나라시인이 말했다.

《이번에 우리 황제께서 고려사신단을 위해 특별히 변경에 동문관을 짓고 지나는 주, 군, 현에서 객관을 새로 지어 맞이하라는 어지를 내리셨다길래 사실 뭐 그리 극성을 부리는가 생각했었는데 과시 그대의 시만 보고서도 고려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비로소 느끼게 되였소이다.》

흥분을 삭이지 못해하는 송나라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류홍은 솟구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뿌듯이 느끼며 박인량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말없는 그의 눈빛에는 이제껏 박인량을 불신했던 자신의 처사에 대한 뒤늦은 자책감도 깃들어있었다.

그날 밤 송나라문인들은 박인량에게 더 많은 좋은 시를 지어 송나라에 남겨줄것을 진심으로 부탁하였다.

박인량도 쾌히 수락하며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시를 주고받

았다.

＊ 이때 박인량이 속한 고려사신단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송나라사람들은 박인량과 김근이 쓴 편지와 표문, 장계, 시 등을 모아 《소화시집》이라는 책을 간행하였으며 그가 구산사에서 지은 시는 당시 중국시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중국의 특색있는 지리총서인 《방여승람》과 《명시선집》에 수록되여 후세에 널리 애송되였다.

시인의 통곡

부벽루에 올라 앞을 바라보면 누구나 그지없이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되여 자신의 존재를 잊게 되니 평양은 참으로 천하제일강산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이 아름다운 제일강산을 한없이 사랑했고 그에 대한 주옥같은 시와 노래들을 많이도 남겨놓았다.

여기에 그러한 시들가운데서 널리 알려졌던 미완성시 한편이 있다.

길게 뻗은 성벽 한켠엔 강물이 늠실늠실
아득한 벌판 동쪽켠엔 산봉우리 우뚝우뚝

이 시는 고려때의 시인 김황원이 지은 《부벽루에서》이다.

김황원(1045－1117년)은 시적재능이 뛰여나고 창작에서 결패가 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시를 썩 잘 지었는데 특히 고체시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평시에 웬만한 시는 눈에 차하지 않았다.

한때 그는 평양류수를 지냈는데 언제인가 한번은 부벽루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천천히 란간으로 다가가서 앞을 바라보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

한 경치에 대뜸 취해버리고말았다.
과연 천하제일강산이였다.
부벽루의 두리기둥에 한손을 짚고 명상에 잠겨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문득 기둥과 들보에 걸려있는 액자들에 눈길을 멈추었다.
그 액자들에 씌여진 글들은 대부분이 시였다.
옛사람이 지은것도 있고 그 당대의 문인들이 쓴것도 있었다.
그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읽어보아도 어느 하나 그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
천하절승인 평양을 이렇게밖에 노래하지 못한단 말인가.
곁패있는 김황원은 기둥과 들보에 주런이 걸린 액자들을 모조리 내리워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한 다음 자기가 직접 평양에 대한 누구도 따를수 없는 명시를 하나 짓기로 마음먹었다.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정경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아름다운 청류벽을 감돌아 버들방천을 기름지게 적셔주면서 흘러내리는 대동강, 강건너 저 멀리 앞이 탁 트인 큰 벌판과 동쪽변두리에 점점이 솟아있는 푸른 산들, 천년강국 고구려의 옛 도읍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이 나라의 근면한 겨레들이 땀으로 가꾼 땅이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피로써 지킨 성스러운 고장인 평양의 절승경개는 시인의 강렬한 흥분을 자아냈다.
그는 드디여 붓에 듬뿍 먹물을 찍어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강과 동쪽벌의 승경을 자신있게 종이우에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금시 종이우에는 담담하면서도 웅심깊은 서정이 맥박치는 시의 첫 두구절이 꿈틀거리는 힘찬 글획속에서 살아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듯 하던 시가 첫 두구절에서 딱 멎어버리고 손에 쥔 붓은 종이우에 멈추어진채 까딱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사정없이 흐르고 해는 한낮을 지나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건만 시인은 란간에 의지한 자세그대로 깎아세운 조각처럼 움직일줄 몰랐다.
그의 입에서는 이미 지어놓은 시의 구절만이 자꾸 되뇌여지고 있었다.
《장성일면에 용용수요, 대야동두엔 점점산이라. … 점점산이라, 가

만, 이제 뒤의 두구절을 어떻게 맺는다?! 그게 기본인데…》
김황원은 이날 종시 날이 어두워지도록 이 두구절을 찾지 못한채 붓을 꺾어버리고 통곡하고말았다고 한다.
지금도 대동강여울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김황원이 부벽루의 란간을 부여잡고 통곡하던 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그러면 어찌하여 시에서는 제노라고 하던 김황원이 이처럼 훌륭한 시구절을 떼놓고 나머지 열네자를 맞추지 못하여 통곡하지 않으면 안되였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김황원의 시적재능에 비해 평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왔기때문이리라.

＊ 김황원의 미완성시는 현재 련광정의 대동강쪽 량기둥에 붙어있다. 이 시는 7언절구형식으로 되여있다.
절구는 한자시들가운데서 제일 짧은 형식의 정형시체로서 대체로 4개의 시구, 2개의 련으로 구성된다.
절구에서는 첫번째 구를 기구, 둘째 구를 승구, 셋째 구는 전구, 넷째 구를 결구라고 하며 절구의 이러한 구성원칙을 기승전결이라고 한다.
매 시행의 글자수에 따라 5언절구, 7언절구 등으로 나누는데 평성자(한자성조의 하나)로 매 련의 마지막을 끝맺고 평측법을 엄격히 적용하는것이 특징이다.

정지상과 평양

동방의 강국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은 오랜 력사를 가진 도시였을뿐아니라 풍치가 수려하기로 유명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일컬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래서 력사적으로 수많은 시인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을 노래하였고 그로 하여 훌륭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정지상(?—1135년)은 이런 사람들중에서도 남달리 평양을 사랑하였고 그 운명이 평양과 떼여놓을수없이 련결되여있는 향토시인이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정지상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시를 잘 지었다고 한다.

그는 일찌기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이 기거주에 이르렀는데 기거주는 고려때 문하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정5품벼슬이였다.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왕을 따라다니면서 력사문건을 만드는데 종사하였다.

정지상은 1135년에 김부식에 의하여 억울한 루명을 쓰고 살해당하였다.

그의 가정래력과 문집이 전해지지 못한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된다.

대동강의 시인

하늘이 류달리 푸르고 화창한 날이였다.

다섯살밖에 안된 어린아이 하나가 강기슭에 서서 아름다운 강풍경을 바라보고있었다.

해빛에 반짝이는 푸른 물은 즐거운듯 넘실거리고 해오라기는 물결우에서 유유히 헤염치는데 감수성이 풍부한 그 어린애의 눈에는 그 모든것이 신비롭게 보였다.

아이는 그날 저녁 낮에 보고 새겨두었던 강풍경을 종이우에 시로 옮겨놓았다.

그 누가 하얀 붓을 가지고
새 을(乙)자를 강물우에 그렸는가

어린 시인은 이 시에서 하얀 붓이라는 한마디로 해오라기의 흰색갈과 새가 떠있는 강물의 푸른빛을 선명하게 표현했고 새 을(乙)자로서 물에 발을 잠근 새가 몸의 웃부분을 물우에 띄운채 목을 길게 뽑고 헤염치고있는 모양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 총명하고 슬기로운 어린 시인이 바로 유년시절의 정지상이였다.

시인으로서의 정지상의 재능은 이렇듯 어릴적에 벌써 싹터자랐고 젊은 시절에는 벌써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대동강을 노래한 그의 유명한 시 2수도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지은것이다.

비 멎은 뒤 방축뚝엔
풀빛이 한결 더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떠나보내며
구슬픈 노래 내 부르노라
대동강 흘러가는 저 물결이
어느때에 가서 마를소냐
떠나보내는 리별의 눈물
해마다 흘러가는 물결을 보태거늘

* 당시 남포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5리쯤 되는곳에 있는 대동강기슭의 포구였다.

대동강나루터에서 벗을 떠나보내는 석별의 정이 짙은 서정으로 노래된 이 시는 창작되자마자 널리 퍼졌으며 후세에도 많은 사람들속에서 즐겨읊어졌다.

아마 대동강을 읊은 시들가운데서 이 시만큼 오래도록 전해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은 드물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정지상의 대동강시는 력대의 많은 문인들속에서 흥미있는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시의 마지막구절에 있는 《보탠다》라는 글자와 관련되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해마다 리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주거니》 하고 읊었는데 그 《보태주거니》라는 표현이 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태주거니》가 아니라 《이루거니》라고 읊었다고 하면서 《해마다 리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이루거니》라고 한 여기에 이 시의 각별한 맛과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론쟁의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것을 시적기교의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옛 시인들의 시구절을 끌어들이면서 론증하기도 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시의 마지막글자는 《보탠다》로 락착되였다.
리별의 눈물이 흘러가는 푸른 강물을 보태준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더 깊이있게 안겨오는것만은 사실이기때문이였다.

정지상과 김부식

정지상과 김부식(1075－1151년)은 문필가로서도 서로 재능을 겨루었고 정치무대에서도 호상 적수들이였다.
15세기의 문필가 성현은 자기의 저서 《용재총화》에서 정지상과 김부식의 창작적재능을 흥미있게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부식은 넘칠듯 풍부하되 화려하지 못하였고 정지상은 번쩍하고 빛났으되 드날리지 못하였다.》
김부식은 환갑나이에 이르러서도 《삼국사기》 50권을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기였고 정력이 왕성하였다.
그러나 넘칠듯이 풍부한 그의 문장도 캄캄한 밤에 섬광이 번쩍이는것 같은 정지상의 재능앞에서는 빛을 잃을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인, 예술가의 재능을 타고난 정지상은 시적기교에서는 나무랄데 없었지만 김부식처럼 학자의 자질과 정치가의 수완은 없었다.
고려시기 대표적인 작가이며 학자인 리규보는 자기의 《백운소설》

에서 이들의 시창작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일화를 전하고있다.

언젠가 정지상은 이런 시를 썼었다.

절에는 념불소리 그치고
하늘은 유리보다 맑아라

이 시구는 김부식의 마음을 대번에 사로잡았다.

정지상의 이 시구가 주옥같이 훌륭한 그의 다른 작품보다는 썩 잘되였다고 할만 한것이 못되지만 김부식으로서는 그 정도의것도 착상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였다.

김부식은 절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노래한 정지상의 시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 탐을 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렇지만 정지상은 김부식의 그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에 앙심을 품은 김부식이 얼마뒤에 억지죄를 씌워 정지상을 살해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하게 되였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김부식이 정지상을 학살한 뒤에 있은 일이다.

김부식은 어느 날 꿈에 《버들은 천오리 실을 두르고 복숭아꽃은 일만점이나 붉어라》라는 시를 짓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흥겨운 목소리로 읊어보고있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눈에서 불이 번쩍나게 그의 따귀를 후려쳤다.

웬일인가 하여 좌우를 살펴보았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순간 어데선가 노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대가 천오리 실, 일만점의 꽃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세여보았느냐. 이왕이면 왜 〈버들은 실실이 푸르고 복숭아꽃은 점점이 붉어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귀에 익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김부식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분명 죽은 정지상의 음성이였던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글자 두자를 바꾸어놓고보니 과연 시가 완전히

달라졌다.
생기없던 시의 형상은 눈앞에 보는듯 생생해지고 전혀 새로운 의미와 정서를 띠게 되였다.
그래서 김부식은 자기가 정지상의 재능을 따르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일화는 사물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성을 띤 형상적표현이 각각 시형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부식과 정지상의 창작적개성의 차이, 재능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례성강곡》이 전하는 사연

언제인가 하두강이라는 송나라상인이 고려의 례성강포구에 온적이 있었다.
여기저기 계약을 맺고 물품을 넘겨주느라 바삐 돌아치던 그는 어느날 아릿다운 젊은 녀인과 마주치게 되였다.
이제껏 본적이 없는 그 녀인의 청신한 미모에 하두강은 대번에 넋을 잃고 홀딱 반해버렸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녀인은 이미 시집간 몸이였다.
하두강은 아쉬운대로 단념하려고 했으나 달아오른 마음을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녀인을 쟁취하기로 작정하고 그 일에 달라붙었다.
며칠후 하두강은 우연한 기회인듯이 일을 꾸며 그 녀인의 집으로 갔다. 상대가 돈많은 이국상인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 녀인의 남편은 후하게 맞아들여 대접하면서 이모저모로 왼심을 썼다.
그 과정에 하두강은 남편이란 사람이 물욕이 강하다는것을 알고 심심풀이 삼아 바둑을 두자고 청하였다.
원래 하두강은 바둑의 능수였다. 그러나 속심을 감추고 우정 약세를 보이며 남편에게 몇판 져주었다.

《허, 당신 바둑이 처음인가보군.》
남편은 번마다 패하는 하두강에게 핀잔을 주었다.
《예, 사실 전 바둑수가 그닥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공의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그려.》
하두강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를새없이 녀인의 남편을 추어대며 패할 때마다 탄식을 하군 하였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거퍼 몇판을 이기게 되자 그 녀인의 남편은 하두강을 아예 보잘것 없는 상대로 치부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의 바둑솜씨야말로 하두강에게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르자 하두강은 바둑판에서 물러나며 오늘 훌륭한 선생을 만나 대단히 기쁘다고 너스레를 떨며 많은 례물을 내놓았다.
제김에 흐뭇해진 남편은 이제부터 시간이 있는대로 바둑을 두러 집에 다니라고까지 하였다.
그때부터 하두강은 매일이다싶이 그 집에 드나들며 열심히 바둑을 배우는척 하였다. 물론 승부는 늘 남편이 이기는것으로 결정되였고 하두강은 톡톡히 《배상금》을 치르었다. 이제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였다고 본 하두강은 얼마후 장사일을 끝마치고 그 녀인의 남편에게 찾아갔다.
《선생님, 오늘은 결판을 짓고맙시다.》
《그만두게. 떠보나마나 결과는 뻔할걸세.》
남편이 이렇게 으시대며 시답지 않게 여기자 하두강은 이때야말로 결정적시각이라고 속으로 쾌재를 올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좋수다. 내 오늘 지면 나의 재산 전부를 다 내놓겠수다.》
《정말?》
《장부일언 중천금이라지 않소.》
하두강의 검은 속심을 알리 없는 남편은 이게 웬떡이냐 하고 선듯 응해나섰다.
《그런데 거기서 지면 뭘 내겠소?》
이번엔 하두강이 물었다.
《?!》
무엇을 걸것인가 하고 갑자르는 남편에게 하두강이 말했다.

《난 내 재산을 통채로 걸었으니 당신은 안해를 대고 해보지 않겠소?》

그러나 남편은 이미 하두강의 바둑솜씨를 겪어본지라 《안해면 안해, 부르는대로 걸겠네.》하고 선선히 응했다.

《두말하지 않겠지요?》

《아따, 장부일언 중천금이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나.》

남편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나서자 하두강은 제꺽 문서를 만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남편은 그 문서에 생각도 없이 손도장을 눌렀다.

벌써부터 하두강의 그 많은 재산을 손에 넣은 기분에 잠긴 남편은 안해더러 바둑판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로 일렀다.

이어 두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늘 지기만 하던 하두강이 오늘은 바둑판에 앉자마자 처음부터 남편을 수세에 몰아넣더니 잠간사이에 이기는 것이였다.

이에 어리둥절해진 남편은 다시한번 두자고 하두강에게 간청했다.

그리하여 몇판을 계속하였으나 남편은 련속 패하고말았다.

그제서야 자기가 속히웠다는것을 알게 된 남편은 성을 벌컥 냈다.

하건만 하두강은 능글능글한 웃음을 짓고 문서장을 내놓으며 안해를 요구하였다.

남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하두강은 《정 그러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 관가에 고소하리다.》 하며 위협하였다.

이때 이 광경을 안방에서 목격하고있던 안해가 나오며 《여보, 약속은 곧 법이니 어찌 어긴단 말이예요. 내가 이분을 따라서면 될것이 아니오이까.》라고 말하였다.

하두강은 쾌재를 부르며 즉시 그의 안해를 데리고 포구로 나갔다.

거기서는 이미 떠날 준비를 다 갖춘 배가 돛을 펄럭이고있었다.

어망결에 안해를 빼앗긴 남편은 멍청하니 서있다가 뒤늦게야 허둥지둥 례성강포구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배는 이미 포구를 떠나 점점 멀어져가고있었다.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 저 흉한 놈한테 안해를 빼앗겼구나!)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라 아무리 가슴을 쥐여뜯으며 후회해도 별수가 없었다.

한편 아름다운 미인을 쟁취한 하두강은 배에 올라서자부터 녀인을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녀인은 쌀쌀한 태도를 취하며 치근치근 달라붙는 하두강을 랭담하게 대했다.
눈이 퀭해진 하두강은 《아니, 스스로 따라서구두 나를 거절하는건 도대체 무슨 심보요?》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녀인은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첫째로 위급한 집안사정을 념려해서였고 둘째로는 죽음으로 이 나라 녀성들의 절개를 당신에게 보이고자 함이였소.》
하두강은 금시 낯을 이그러뜨리더니 녀인에게 덤벼들었다. 녀인은 죽기로 항거하며 그자를 밀어내쳤다.
바로 이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일더니 잔잔하던 바다가 노호하기 시작하였다.
무섭게 일어나는 파도속에 잠긴 배는 당장에 바다밑으로 곤두박질할것처럼 태질하였다.
때아닌 졸경을 치르게 된 배사람들은 하두강이 동방례의지국의 유부녀를 욕되게 하여 하늘이 벌을 내린것이라고 아우성쳤다.
겁이 더럭 난 하두강은 즉시 배머리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배머리를 돌리자 바다는 언제 그랬더냐싶게 금시 잔잔해졌다.
다시는 영영 고국산천에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녀인은 저 멀리 례성강포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굳센 절개를 노래로 지어불렀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요 《례성강곡》이 전하는 이야기이다.

＊ 고려국어가요

고려시기 향가를 비롯한 선행시대 민족시가형식을 토대로 창조된 독특한 구전창작가요로서 고려가요, 고려가사, 고려인민가요, 고려인민서정가요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대체로 언어표현이 입말위주로 되여있고 3.4조, 3.5조의 운률구성과 음악적효과를 위한 조흥구, 삽입구를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절가형식으로 된 개인창작가요로서 그 우수한 측면들이 15세기에 발생한 가사문학에 의해 계승되였다.
대표작으로는 《서경별곡》, 《가시리》, 《청산별곡》, 《정과정》등을 들수 있다.

그물에 걸린 참새

14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시인인 리제현이 편찬한 《익재소악부》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있다.

걸렸네 걸렸네 참새새끼 걸렸네
그물에 걸려서 입만 할딱거리네
눈깔은 있어도 무엇에 쓰겠냐
어리석은 네 모습 가련하구나

어찌보면 참새잡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담은 동요처럼 느껴지는 노래이다.

그러나 이 길지 않은 노래에는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고려시기 어느 해인가 두영철이라는 관리 하나가 장암진(충청남도 서천군 남쪽에 있던 포구)으로 귀양온적이 있었다.

그는 한때 개경에서 세도가 뜨르르한 량반의 심복으로 활약하며 제노라하던 사람이였다.

헌데 그만 상전이 역적으로 몰려죽는 바람에 련좌죄에 걸려 이 외진 해안고을로 쫓겨내려온 신세가 되고말았다.

서천고을관속들은 물론 일반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고 쫓겨내려온 두영철을 동정은커녕 쓴외보듯 하며 상대할념을 안했다.

난생처음 받아보는 푸대접에 두영철은 잔뜩 부아가 났지만 이미 끈떨어진 뒤웅박신세라 별도리가 없었다.

이런 수모는 그래도 삭일수 있었지만 평생 하지 않던 의식걱정을 참아내기란 조련치 않았다.

이틀이 멀다하게 수십리를 걸어 관청에 찾아가 약간의 피륙이나마 청할라치면 쓸데없이 나다니지 말고 가만히 한곳에 붙박혀있으라는 엄한 꾸지람을 듣기가 일쑤였다. 화가 바싹 동한 두영철은 옛 본색대로 행악을 부렸다.

《이놈들, 아무리 귀양 왔기로서니 이리도 괄세를 한단 말이냐. 어디 두고보자. 내 후날 네놈들과 결산할 날이 꼭 있을게다.》
하지만 관청에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작정 그를 미친 놈 취급을 하며 내쫓고말았다.
두영철은 너무도 억이 막혀 길가에 퍼더버리고앉아 섧게 울었으나 누구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한 로인이 그에게 사연을 묻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자기가 거처하는 장암진에 사는 늙은이였다.
두영철의 정상을 가긍히 여긴 로인은 그를 데리고 내려와 장만해두었던 얼마간의 량식과 의복을 내주었다.
이때부터 두영철과 장암로인사이에는 각별한 친교가 맺어져 두영철은 매일처럼 로인의 집에 드나들었다.
로인은 비록 넉넉치 못한 형편에서나마 두영철을 후하게 대접하군 하였다.
그래서인지 두영철은 스스럼없이 그를 은사라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군 했다.
《은사, 이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제 후날 큰 벼슬을 하게 되면 백배로 신세를 갚으리다.》
그럴 때마다 로인은 두영철의 허욕을 타이르군 하였다.
《그 권세욕때문에 화를 당했는데 아직도 못 버리나. 지렁이가 룡으로 될수 없거늘 그런 망상은 안하는게 좋아.》
두영철은 그가 자기를 탐탁하게 여기는것 같지 않아 은근히 심사가 뒤틀렸다.
《아니, 이 두영철이 언제까지나 이 모양대로 있을줄 아시우? 한때는 개경량반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나외다. 기회가 오면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터이니 두고보시우다.》
몇년이 지나 드디여 두영철이 조정의 대사령을 받고 상경하게 되였다.
떠나는 날 두영철은 로인과 작별하며 전날의 은혜갚음을 재다짐하였다.
벌써 득의양양해하는 그에게 로인은 근심어린 어조로 당부하였다.
《이 사람, 요새처럼 시국이 복잡한 때에 괜히 멋모르고 덤벼치다가는 큰코 다쳐. 신세를 갚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그 벼슬에 대한 미

련을 버리라구.》
두영철은 속으로 역시 촌늙은이다운 소견이라고 코웃음치며 로인의 충고를 새기는척 하였다.
하지만 이미 권세에 맛을 들인 두영철의 야욕은 바람맞은 불처럼 세차게 타올랐다.
(꿩 잡는게 매라고 뭐니뭐니해도 사람은 벼슬이 높고봐야 해.)
개경에 올라온 이후 두영철은 이전 버릇대로 또다시 제일 세도높은 량반패당을 찾아들어갔다.
전에 련마해두었던 권모술수가 은을 내여 두영철은 승진하여 평장사라는 벼락감투를 뒤집어썼다.
권세욕에 들뜬 량반들속에서 두영철은 으뜸가는 본보기로 떠받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집은 개경일판에서 왕궁도 무색케 할 정도로 호화로왔다.
하지만 복뒤에 화가 따르는것이 그의 운수였던지 두영철은 또다시 하루아침에 순군부의 포승을 지게 되였다.
어마어마한 죄명을 쓰고 겨우 극형을 면했으나 멀리 남해의 외진 섬에 귀양을 보내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두영철을 태운 수레가 서천고을을 지나가던 때 공교롭게도 장암의 그 로인과 마주쳤다.
머리를 마구 풀어헤치고 목에 칼을 쓴 두영철을 보는 순간 로인은 놀랍고 어이가 없어 손에 쥔 지팽이로 땅바닥을 탕탕 치며 말했다.
《자네가 외우던 신세갚음이라는게 이런 꼴을 구경시키는것이였나? 허참, 그 꼴이 꼭 낟알을 훔쳐먹다가 그물에 걸린 참새새끼 한가지로군.》
두영철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낯이 시뻘개진채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 꼴을 역겹게 바라보면서 로인은 두영철이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때 로인이 부른 노래가 바로 리제현이 악부시로 기록한 가요《장암》이다.

안주명기 동인홍

언제인가 한번은 안주고을에 개경에서 온 시를 잘짓는 선비가 머무르고있었다.

그는 얼마전에 있은 과거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혔던 사람으로서 자기와 시를 견줄만 한 사람을 찾아 이 고을, 저 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자기의 재주를 지나치게 과신해서인지 그는 웬만한 선비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핏하면 《이 고을에도 인재가 없긴 없군.》 하고 비웃으며 자리를 옮기군 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안주태수는 그가 자기 고을에 오면 단단히 혼내주리라 마음먹고 미리 한다하는 선비들을 골라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어찌된셈인지 그와 시재주를 겨루어보러 갔던 고을의 선비들이 아예 문전거절을 당하고 선자리에서 쫓겨나왔다는것이였다.

너무도 어이없어 태수가 《정말 이 안주땅에 그와 겨룰만 한 선비가 없단 말인가.》하며 탄식하는데 곁에서 부채질을 하던 기생 동인홍이 앵두같은 입을 열며 말하였다.

《사또님, 불민하기는 하나 소녀가 한번 그 서생을 만나볼가 하나이다.》

그 말에 태수는 대뜸 랭소를 지었다.

《아서라, 제노라하는 선비들도 문전거절을 당하고 쫓겨오는판에 한날 기생인 네가 그를 당해낼상싶으냐?》

《하늘이 높다고 끝이 없겠소이까. 길고 짧은건 대보아야 할줄 아옵니다.》

동인홍이 정색해서 졸라대자 태수는 잠시 생각을 굴렸다.

본시 평원기생이던 동인홍은 자색과 가무가 뛰여나고 림기응변하여 안주일판에 소문이 났다.

태수는 부임이래 동인홍의 재주를 실지 체험한 사람이였다.

한번은 서북면병마사가 잔뜩 만취되여 자기를 찾아와 바둑을 둔 일이 있었는데 어찌나 지독하게 취했던지 도중에 꼬꾸라지고말았다.

태수는 그때 곁에서 시중을 들던 동인홍에게 《저 량반이 일은 안하고 술놀이만 즐기더니 아예 동서를 분간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어댔다.

그러자 동인홍은 즉시에 《태수께서도 부임이래 바둑만을 일삼으시니 그러다가 저이처럼 생사조차 분간 못할가 걱정되오이다.》라고 충고하는것이였다. 태수는 속이 뜨끔했으나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렇듯 명민하고 대가 바른 동인홍이 자청해서 나오는것이였다.

(하긴 저 애가 남달리 글재주가 출중하지. 이번에 맞붙여본대도 랑패가 없겠어.)

이리하여 태수는 동인홍의 청을 수락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동인홍은 몸단장을 화려히 차리고 서생을 찾아갔다.

서생은 첫 대면부터 한갖 아녀자가 자기와 글재주를 겨루러 온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과연 안주에 인재가 없구나. 도포두른 선비가 물러서니 이제는 치마두른 아녀자를 대신 보내다니, 실로 해괴할지고.》

그러자 동인홍은 복사꽃같은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속단 마소이다. 저는 공자께서 한퇴지와 소동파의 문장에 도통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가 될가 하여 스스럼없이 뵈오러 왔나이다.》

《그래도 제법 성현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군. 시를 지을줄 모르면 천날 배워주어도 소귀에 경읽기니 일찌기 돌아감이 좋을듯 하오.》

서생은 공연히 시간만 허비한다는듯 인상을 찌프리며 돌아섰다.

그러자 동인홍은 제꺽 그의 마지막말을 운자로 정하고 시를 지어 불렀다.

술을 사다 치마단장 하고서
그대를 찾으며 옥같은 손 흔드네

순간 서생은 돌아서며 놀라운 기색을 띠였다.

동인홍은 계속 불렀다.

다행히 좋은 시절 이렇게 만났으니
작약의 이 마음 어찌하면 이루랴

동인홍의 민첩한 시재주에 서생은 저도 모르게 탄복하였다.
《도대체 그대는 뉘시오?》
《평원기생 동인홍이라 하온데 탓하지 말고 받아주사이다.》
동인홍이 기생신분이라는것을 알게 된 서생은 다시 얼굴색을 달리하며 말을 이었다.
《아깝도다. 차라리 그대가 량가집소생이였다면 좋으련만. 인정을 류수같이 여기는 기생과 내 어찌 성현들의 고상한 문장을 론하리오.》
동인홍도 서생의 말을 듣자 웃음을 거두고 입술을 옥물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동인홍은 인차 본래의 얼굴빛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시를 읊었다.

기생의 그 마음
량가집녀인과 무엇이 다르랴
백주의 절개를 어여삐 여기나니
스스로 맹세하네 변심이 없기를

그의 시를 듣고난 서생은 다시한번 놀랐다.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의리와 절개를 중히 여기는 깨끗한 그 마음씨 또한 시재주에 못지 않게 그를 감동시킨것이였다. 서생의 손길이 어느새 동인홍의 손에 와닿았다.
《용서하오. 내 지금껏 숱한 시인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대처럼 시재가 능한 문사는 처음이요. 그러니 과히 나삐 생각말고 시간을 내여 함께 시를 읊조리며 즐겨주기 바라오.》
동인홍은 슬며시 손을 빼며 핀잔을 주었다.
《저같은거야 이 안주땅에 흔하디 흔한 둔재이온데 부디 공자께서 시를 즐기실 마음이면 다른 고을을 택하시옵소서.》
그러자 서생은 동인홍이 하는 말뜻을 알아차리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대와 같은 인재를 배출한 안주야말로 학문이 높은 고장임이 분명하오. 내 그대한테 무릎꿇고 절을 하겠소.》
이렇게 되여 서생은 다른 고을로 가보려던 생각을 단념하고 안주에 눌러앉아 동인홍과 함께 여러날동안 시를 지으며 즐기다가 개경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사랑을 되찾아준 겨울비의 노래

12세기말에 활동한 고려시인 김돈시(?－1170년)는 비를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지어 자기의 개성을 보여준 시인이였다.

그의 시 《괴로운 비》는 평범한 자연현상인 비에 의탁하여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고를 진실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당시 문인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었을뿐아니라 오늘도 우리 문학사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취급되고있다.

그의 처녀작도 비를 노래한 시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김돈시는 아마도 비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듯 하다.

아래의 일화는 시인이 처음으로 비와 인연을 맺게 되였던 사연과 관련된것이다.

김돈시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 어느해 겨울이였다.

아버지인 김부식과 친교가 깊은 한 중이 당상관(개경에 있던 외국상인들의 숙소)에 가다가 집에 들린적이 있었다.

안방에서 책을 뒤적이며 갑갑증을 달래던 김돈시는 기회를 놓칠세라 어머니에게 졸라댔다.

《어머니, 오늘 읽을 책은 다 보았으니 스님을 따라 밖에 나가게 해줘요.》

《아서라, 눈이 저렇게 쏟아지는데 괜히 그러다 감기라도 걸릴라.》

그러나 김돈시는 계속 지꿎게 달라붙었다.

곁에서 웃음을 띄우고 바라보던 중은 자기도 길동무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던차라 《사모님, 학문도 견문이 넓어야 제것으로 되는 법인데 한번 마음 쓰시지요.》 하며 돈시를 편들어주었다.

마침 아버지가 관청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터이라 돈시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던 끝에 응낙하고야말았다.

《그럼 스님을 따라가서 문방구나 몇점 사가지고 얼른 돌아서거라.》

《예, 알았나이다.》

이렇게 되여 김돈시는 중을 따라 당상관으로 향했다. 청기와를 씌

운 담장이 빙 둘러선 당상관안으로 들어서던 김돈시는 대문곁에 앉아 있는 한 녀인과 부딪쳤다.

그 찰나에 돈시는 가느다랗게 울리는 녀인의 흐느낌소리를 듣게 되였다.

(?!)

그 녀인은 연송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듯 바깥쪽만 내다보고있었다.

차림새를 보니 중국사람같았다.

돈시는 의아해하며 《스님, 저 녀인은 왜 저렇게 슬퍼하는가요?》 하고 중에게 물었다.

중도 의문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중은 원래 박식하여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알고있던지라 녀인에게 말을 건넸다.

녀인은 잠시 주밋거리더니 중의 동정어린 물음에 마지못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녀인은 지금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처를 버리고 자기와 장사거래를 하는 상인의 딸에게 장가갈 차비를 한다는것이였다.

《아니, 이역에 와서 제 처를 버리다니요. 그런 한심한 일도 있나이까? 스님.》

중에게서 그 녀인의 사연을 들은 돈시는 어린 마음에도 격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중은 한숨을 내쉬며 《어쩌겠니, 사람이 돈에 환장을 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란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스님, 저 불쌍한 녀인을 도와줄수 없을가요?》

돈시의 이 물음에 중은 도리머리를 저으며 《제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일에 괜히 간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돈시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국의 진귀한 상품들이 가득찬 당상관을 돌아보면서도 돈시는 불쌍한 그 녀인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와 항시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아무리 남의 나라 사람이라도 동방례의지국에서 이런 불륜지사가 허용되다니.)

문방구를 사들고 나오던 돈시는 아까 그 녀인이 웬 사내를 붙들고

애원하는것을 보았다.

(남편이 돌아온게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붙잡고 애원하는 녀인을 와락 밀어내치는 것이였다.

눈덮인 찬 땅에 쓰러진 녀인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다.

때아닌 곡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삽시에 어깨성을 쌓았다.

그러자 그 녀인의 남편은 더욱 화가 치밀어 주먹을 내흔들며 녀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는 돈시의 마음은 당장 달려가 그 무례한 남편에게 콱 욕질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중의 말대로 공연히 남의 나라 사람에게 나이도 어린 자기가 함부로 나설수도 없는 일이였다.

(어떻게 한다?)

돈시가 잠시 서성거리는데 하늘에서 눈이 멎고 대신 갑자기 때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방울져 떨어지는 비를 손에 받던 돈시는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돈시는 서둘러 방금 산 벼루를 보퉁이에서 꺼내들고 거기에 비물을 받았다.

그리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듬뿍 묻히고나서 종이에 시 한구절을 썼다.

돈시는 시를 쓴 그 종이를 즉시 녀인의 남편에게 내밀었다.

(아니, 저 소년이 종이에다 뭐라고 썼길래 그걸 저 사람에게 줄가?)

어깨성을 쌓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서로 수군거렸다.

그런데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던 녀인의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주먹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는것이였다.

사태가 갑자기 돌변하자 사람들은 놀라며 어린 돈시에게 시선을 모았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있었다.

절승이라 이름난 고려의 겨울날
상서로이 내리던 눈 비로 변하누나

아마도 무산의 선녀가 신통력 부리는가
객관의 나그네 안해를 버리지 말라고…

무산선녀는 중국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옛 전설의 주인공이다.

고대중국의 남방을 다스리던 적제의 딸 조희가 처녀로 죽었는데 그와 하루밤 인연을 맺었던 촉나라 양왕이 무산꼭대기에서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여 내리는 그의 혼을 위로하여 묘비를 세웠다고 한다.

돈시는 바로 깨끗한 사랑을 지향하는 중국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한 이 무산선녀의 전설에 의탁하여 남편의 야속한 처사를 준절히 꾸짖었던것이다.

이것은 남편의 심정을 정통으로 찔렀다.

(아, 이 나어린 소년도 얼마나 민망스러웠으면 나를 이토록 꾸짖는것일가.)

드디여 결심한듯 그 녀인의 남편은 돈시가 써준 그 종이를 쥔채 달려가더니 눈비에 질벅해진 땅에 쓰러져 아직도 흐느끼고있는 안해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우고는 와락 끌어안았다.

이 광경을 목격하던 사람들은 와— 탄성을 올리며 불쌍한 녀인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아준 나어린 소년시인에게 찬탄의 눈길을 보냈다.

소년시인 박원개

고려 의종왕(1147－1170년)때의 일이다.

어느날 왕궁의 회경전뜰에서는 백관들의 눈길을 끄는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이 사람 원개, 이게 얼마만인가?》

《아니, 시랑어른이 아니시오이까?》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가와하는 두사람의 모습은 자못 감격적이였다. 한사람은 이번 사마시(진사, 생원을 뽑던 시험)의 장원급제자로 방금 어사화를 받고나온 박원개이고 다른 사람은 고려때 사학의 시조로 알려진 최충의 후손인 문하시랑 최윤의였다.

《내 그때 자네가 꼭 오늘처럼 될줄 알았네.》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내며 웃는 최윤의의 말에 박원개는 점적해서 얼굴을 붉히였다.

이를 목격하며 제일 놀란것은 이번시험을 맡아보았던 지공거와 동지공거(과거시험때 임명하는 시험관 벼슬이름)들이였다.

평소에 이름조차 없던 저 젊은 선비와 명망높은 최정승이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기에 저렇듯 반가와할가.

잔뜩 호기심에 싸여 다가온 관리들이 사유를 묻자 최윤의는 《이 사람이 열한살때였으니까…》 하며 감회에 젖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해 봄날 저녁 관청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던 최윤의는 난데없이 자기앞으로 보낸 한장의 장계문을 받아들었다.

(아니, 장계문이야 관아로 가져가는것이지 대신의 집에 들이미는 법도 있는가. 참, 동서를 모르는자도 있군.)

첫 기분에 마뜩지 않았으나 어쨌든 자기한테 온것이라 최윤의는 겉봉을 뜯어보았다.

그런데 안에는 짤막한 글월이 적혀있는것이 아닌가.

은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단지 저의 아비뿐이요

만물이 제 도리를 하게 할분은
오직 상공뿐인줄 아옵니다

(이건 또 무슨 벼슬청탁인고?)

최윤의는 다급히 시종을 불러들였다.

《도대체 이건 누가 가져왔더냐?》

여느때없이 놀라는 주인의 안색을 조심히 살피며 시종은 《저, 좀 전에 송악동 박원개라는 소년이 가져온것이올시다.》 하고 나직이 여쭈었다.

《소년이라구?》

《예, 실은 그녀석이 꼭 상공을 만나뵙겠다고 떼쓰는걸 제가 글월만 받고 우격다짐으로 돌려보냈소이다.》

최윤의는 자못 의아해하며 다시 글월을 세세히 뜯어보았다.

읽으면 읽어볼수록 소년의 궁냥치고는 너무 당돌했고 더우기 글을 지은 솜씨는 여간 맵시있지 않았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노라는 인재들을 두루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최윤의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그 재능을 믿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튿날 사람을 보내여 박원개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정작 대면해보니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소년이였다.

살결에 아직 솜털이 보르르해있고 몸은 그리 다부지지 않았으나 초롱초롱한 두눈동자는 새벽이슬을 머금은듯 반짝이고있었다.

최윤의는 첫눈에 그 소년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였으나 일부러 엄한 안색을 지으며 말했다.

《에끼 이녀석, 나라정사가 뭐 철부지들의 놀음인줄 아느냐. 이 글은 분명 네 애비가 꾸며보낸게 분명한데 대체 무슨 좀스러운짓이냐?》

그러자 소년은 대뜸 눈이 올롱해지더니 항변하듯 대꾸했다.

《대감님의 말씀은 당치않소이다. 소자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일개 장부로 어찌 구차스레 남의 손을 빌리오리까.

듣자니 나으리께서 관리등용에 공정하시다기에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돕고싶어 함부로 적은것인데 내키지 않으시면 그저 물리시되 부디 다른 허물은 잡지 마사이다.》

사리를 따지는 원개의 말에 최윤의는 (그녀석 꽤 제법인걸. 씨알머

리가 배겼어.) 하고 내심 혀를 찼다.
그리고는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래 몇살이냐?》
《올해 들어 열한살 되였습니다.》
록록치 않은 소년의 태도에 더욱 호기심이 동한 최윤의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작정했다.
《좋다. 이 장계문이 네가 쓴게 적실하다면 어디 한번 그 솜씨를 보련다.
만일 해낸다면 너의 소청대로 아비에게 벼슬을 주선할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기죄로 폐문일족할것이니 그리 알아두어라.》
그러자 원개는 도리여 《상공께서 실없는 소리는 아니시겠지요.》 하고 반문했다.
최윤의는 그 말에 허허 웃고나서 뜰안의 화원에 핀 함박꽃을 가리켰다.
《저 작약으로 시를 짓되 운자는 향기 향, 임금 왕자이다. 시간은 내가 차 한잔을 마시는 동안이다.》
그리고는 탁자우의 차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다댔다.
그런데 최윤의가 두어모금 삼킬가말가 하는데 벌써 귀전에 원개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봄빛을 함뿍 담은 함박꽃
란간앞에 풍기누나 야릇한 향기
아마도 모란이 곁에 있었다면
스스로 부끄러우리 백화왕 그 자태에

최윤의는 순간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하마트면 목안의 차물을 넘기지도 못한채 재채기를 할번 했다.
가까스로 차물을 삼키고난 최윤의는 차종을 든채 원개를 새삼스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과연 그의 시재는 얼마나 신묘한것인가.
함박과 모란을 대비한 시상도 신통했지만 순식간에 앞뒤가 딱 물린 명구를 지어낸 저 소년. 최윤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주 멋있어. 네 정말 소년시인이 분명하구나. 내가 졌다.》
박원개도 희색이 만면하여 《그럼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하며 다

가셨다.

최윤의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개는 꾸벅 절을 하고는 신을 채 꿰지도 안은채 문쪽으로 달음질쳐나갔다.

이런 때 보면 틀림없는 소년이라 최윤의는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저녀석은 틀림없이 큰 문장가가 되겠어.)

이 일이 있은지 몇해만에 최윤의의 예언대로 박원개는 사마시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것이다.

최윤의의 이야기를 듣고난 시험관들은 꿈이야기같은 박원개의 재능에 누구나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후 박원개는 의종의 부패한 정사와 뒤따라일어난 무신란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적막한 초야에서 한생을 마치고말았다.

하여 이 뛰여난 소년시인의 재능은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보이지 못하였다.

의종을 질겁케 한 김신윤의 풍자시

개경에서 임금이 파견한 칙사가 도착하던 날 룡만(고려시기 평안북도 의주)땅은 초상난 집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뻔질나게 드나드는 별공사(조세외의 봉물을 거두는 관리)들때문에 고을이 결단날 지경인데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칙사까지 파했다니 틀림없이 굉장한 진상령이 떨어질것은 뻔한 일이였던것이다.

또 한차례 들볶일 걱정거리로 온 고을이 숨도 크게 못 쉬고 가슴을 조이고있던 때 룡만진관청에 드디여 칙사가 도착했다.

칙사는 동헌마루를 딛고서서 뜰에 엎드려있는 진사 김신윤과 고을 관속들에게 어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듣거라. 수일내로 5도량계의 객사와 역참에 붙어있는 시들을 모두 적어올리라는 상감마마의 분부이시다.》

예상외의 어지라 저으기 놀란 관속들은 약속이나 한듯 얼결에 고개

를 쳐들었다.

그러다가 사신의 눈초리에 부딪치자 다시금 모두들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에－ 모아들인 시가운데 풍요와 백성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문제를 제의하고 또 문장으로 잘된것은 특별히 골라 상주하기로 되였으니 여기 룡만진에서도 빈틈없이 조처할지어다.》

칙사는 이어 기한을 정하고나서 다시 린접고을로 떠나갔다.

그제야 자리를 털고일어난 관리들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이보게 별장, 혹시 뭐가 잘못된게 아니요. 여직껏 고길 내라, 녀자를 내라 하다가 시를 진상하라니?》

《그러게 말일세.》

《아따, 이런 진상이라면야 죽은 낙지궤듯 하겠는걸. 좌우간 이번판은 무난히 넘기게 됐네.》

관속들의 횡설수설에 김신윤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숙하라. 어지를 놓고 이 무슨 무엄한 언행들인고.》

관리들은 대번에 입을 봉하고 그의 다음령을 기다렸다.

《성상께서 필시 백성들의 실정을 료량하실 의도이니 그대들은 삼가 받들어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이윽고 고을의 여러곳을 각기 분담을 받은 관리들은 여느때없이 활기를 띠고 흩어져갔다.

보매 그들은 김신윤의 훈계야 어떻든 봉물이나 부역징발이 아닌것이 다행이라는 태도였다.

김신윤 역시 숨이 저절로 나가는것을 느꼈지만 어쩐지 마음에 납덩이가 매달린듯 무거워졌다.

다음날부터 탁자에는 수집된 시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족족 시편들을 뒤적여보던 김신윤은 치밀어오르는 불만감을 누를수 없었다.

대개가 태평성대에 대한 칭송 아니면 목가적인 풍월을 읊은것뿐이였다.

아마 임금의 비위를 거슬리는 글을 냈다가 화를 당할것이 두려워 모가 난것들은 빼버린 모양이였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임금이 자기 정사의 폐단을 느낄수 있겠는가.)

김신윤은 잠시 당대의 민심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저 멀리 개경의 룡상에 앉은 의종으로 말하면 력대의 고려왕들중에서도 극도의 사치와 부화방탕으로 악명이 높았다.

등극 첫날부터 그는 전국의 군사와 장정들을 징발하여 개경과 여러곳에 수덕궁과 안창궁, 중흥전 등을 새로 짓고 날마다 호화로운 술놀이를 벌리는 한편 자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법회, 반승(중잔치) 등 불교행사를 전례없이 크게 진행하고있었다.

거기에 드는 엄청난 비용으로 국고가 거덜나게 되자 의종은 기은색이라는 기구를 새로 내오고 별공사들을 도처에 파견하여 지방토산물을 닥치는대로 긁어들이였으며 민간의 미인들을 마구 뽑아올리였다.

임금자신이 이러다나니 관료들은 저마다 백성들의 고혈을 긁어 뢰물행위에 급급했고 솜씨를 보인자들은 벼락감투를 얻어 하루밤사이에 벼슬이 껑충 뛰여올랐다.

이런 란장판속에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기보다 더한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였다.

한 부역군의 안해가 남편의 식사 한끼를 위해 머리태를 팔지 않으면 안되였던 《중미정이야기》도 바로 이때에 생겨난 일인것이다. 김신윤은 원래 개경출신으로서 이 참혹한 정경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으며 그에 불만을 가졌던 죄아닌 죄로 이곳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하지만 여기 룡만의 사정 역시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의종의 변태적인 향락추구가 빚어낸 이 페풍을 외면하고 어찌 태평성대를 운운한단 말인가.

김신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적우의 붓대를 손에 잡았다.

(이 기회에 주색과 아첨을 즐기는 임금의 페단을 단단히 깨우쳐주어야 한다.)

백성을 짜내여 아부하는 풍이 생겨 오래더니
나라안에 온통 선과 악이 뒤바뀌였네
신하들을 후히 대함은 훌륭하다 하겠건만
청천백일이야 어찌 속일수 있단 말인가

흥분한김에 예까지 써내려간 김신윤은 잠시 붓대를 멈추었다.
(아니, 아첨군들이나 없앤다고 사정이 달라질가.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주색을 즐기는 임금의 습성이 진짜 화근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김신윤은 다시 힘을 주어 붓을 휘갈겼다.

임금의 질병이야 능히 고치겠건만
주색이야 어찌 마다할수 있으랴
친구분네 부디 웃지 마소
옳아도 따르지 못하는이 바로 남아라오

이렇게 마감을 짓고나니 마음이 한결 씨원해졌다.
그는 곧 자기의 시를 다른 시들과 함께 밀봉한 다음 개경으로 올려보냈다.
그로부터 며칠후 의종앞에 김신윤의 시가 와닿았다.
시를 읽어내려가던 의종은 가슴이 그만 싸늘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뭐, 병은 약으로 고친대도 주색은 사내의 기질이라 어쩔수 없다구?)
의종은 목구멍까지 노기가 치밀어왔으나 민심의 동향을 살피려고 올려오게 한것인지라 함부로 내색할수도 없었다.
허나 참고 보기만 하자니 막 미칠것만 같았다.
갑자기 오한이 나듯 몸이 떨려난 의종은 자기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내리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시길래 임금이 저리도 당황해할가.
의종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던 대신들은 왜가리목을 해가지고 시구를 넘겨보았다.
다음순간 그들도 낯이 시뻘개가지고 길게 뺐던 목을 자라목 움츠리듯 했다.
무거운 공기가 떠도는 가운데 한 대신이 약삭바르게 종이를 집어들고는 의종을 대신하여 윽윽했다.
《아니, 이런 불손한 시를 다 올리다니. 전하, 당장 김신윤을 불러다 엄히 다스림이 옳을가 하나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대신이 나서며 열을 올렸다.
《그 김신윤이 개경에 있을적부터 걸핏하면 술먹고 미친 소리를 하

던자이니 이번에 아예 엄히 처형하여 뒤말을 없애야 할줄 아오이다.》

그러건말건 의종은 여전히 낯색이 창백한채 말없이 앉아있었다.

한참만에야 입을 연 의종은 《그만하라. 짐의 이번 어지는 풍요를 통해 민심을 알아보자 한것이니 좀 과하기로서니 어찌 벌을 내릴고.》 하며 마지못해 제지하였다.

림춘과 성산군수

속담에 《비단천은 쭈그려도 구김살이 없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리라.

12세기 후반기의 재능있는 시인이였던 림춘이 바로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림춘은 우리 문학사에 첫 시사로 알려진 《해좌칠현》의 한사람으로서 시와 문장에 능하기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그는 젊어서 여러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권세가들의 미움을 받아 종내 락방되였으며 1170년 무신란때에는 온 가족이 몰사되는 참화를 입고 방랑살이를 하였다.

그처럼 어려운 처지였지만 림춘은 권세앞에 아부하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며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언젠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림춘이 개경의 리인로를 만나러 가던 도중 성산(현재 경상북도 성주군)고을에 들린적이 있었다.

성산군수는 림춘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지라 그가 상경한다는것을 알고는 오기 전부터 역사를 정돈한다, 음식을 준비한다 야단을 쳤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명종왕은 정중부, 리의방 등의 무신란이 일단 평정되자 지난 시기 숨어다니던 문인들을 다시 등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림춘의 막역지우인 리인로와 조통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입궐한 뒤 우간의대부, 정언 등의 록록치 않은 벼슬을 지내고있었으며 또 자기 친구들을 임금께 천거하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때 림춘이 상경한다는것은 곧 벼슬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라고 판단한 성산군수는 후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 자기 은혜를 입게 해두는것이 손해 없으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림춘이 당도하자 군수는 즉시 청원루가까이에 있는 객관의 제일 좋은 방에 들이고는 화려한 옷과 음식을 선물로 보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밤에는 예쁘장한 기생 란초를 특별히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고을원의 속심을 알리 없던 림춘은 예상외의 극진한 환대에 어리둥절해졌다.

그런데 란초는 웬일인지 만나는 순간 인상을 찌프리더니 묻는 말도 시답지 않게 여기며 대답조차 안했다.

이름난 서하선생이라기에 기대를 가지고왔건만 도포와 신발은 언제것인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때투성이 아닌가.

이제껏 지체높은 량반, 부자만을 대상하던 까닭에 눈도 어지간히 높아진 그가 알거러지같이 볼품없는 림춘을 좋아할리 없었다.

란초는 끝내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달아나버렸다.

빈방에 홀로 남은 림춘은 어이없어 쓴입만 다시고는 일찌감치 초불을 끄고 누워버리고말았다.

다음날 림춘이 감사를 표하러 관가를 찾아가자 군수는 입이 함박만해서 어쩔줄 몰라했다.

《세상이 다 아는 선생을 이렇게 만나게 되여 반갑기 그지없구려. 어제 밤은 즐겁게 보내셨소?》

《사또님덕분으로 오래간만에 발편잠을 자보았소이다.》

림춘이 아무 내색없이 흔연히 대답하자 성산군수는 그가 자기 성의에 완전히 녹은줄로 여기고 이말저말 돌리던 끝에 《선생이 상경하신단 말은 일전에 들었소이다.

재능이 높으신분이니 이제 가면 능히 정언 아니면 중서성 주서까지도 될것이니 그땐 이 비천한 시골사람도 알아주소이다.》 하고 넌지시 내비쳤다.

《허, 내 방랑객신세로 사또의 륭숭한 대접을 받는것만도 다행한 일이온데 감히 그런 행운을 바랄수 있겠소? 실은 이번 상경길에 옛 친구나 잠간 만나볼가 해서인데 사또께서 잘못…》

사또는 《성인들은 다 이리 겸손한가.》 하고 너털웃음을 치고는 아

예 들을념조차 안했다.

그저 잔에 가득 부은 술을 권하며 부디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말만 거듭했다.

(허, 이 사람이 벼슬에 환장해도 되게 환장했군. 그러니 이제껏 극성을 부린게 다 그때문이였군, 흠.)

밸이 울컥 치민 림춘은 어떻게 하면 이 량반을 골려줄가 하고 생각을 굴리였다.

이때 한참이나 신세타령을 늘어놓던 군수는 불쑥 《서하선생, 이 좌석에 시흥도 바이 없지 않으니 기념삼아 시나 한수 남겨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림춘은 군말없이 붓을 들었다.

군수는 벌써부터 림춘의 줄을 타서 송도에서 뚱땅거릴 자신을 그리며 흐뭇한 기분으로 림춘이 쓰는 시를 바라보았다.

금비녀로 단장하고 새벽부터 분부받아
고운 기생 재촉하여 꽃자리에 나왔건만
원님의 엄한 령도 두려워않고
길손이 초라하여 그냥 화를 내였지
루에 올라 다정하게 퉁소불고 노닐대신
뒤길로 살짝 빠져 달아나버렸다오
그러나 이보게 어진 벗이여
인자한 마음 쓰지 말고 부들채찍이나 쳐주게

시를 읽어본 군수의 얼굴은 대뜸 새파래졌다.

그는 그제야 기생 란초가 어제 밤 자기 령을 어기고 도망쳤음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군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이거 정말 실례하였소이다. 본관이 기생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선생을 노엽혔소이다.》라고 하고는 《게 누가 없느냐. 당장 란초년을 잡아다 내앞에 끌고오지 못할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분부가 떨어지기 바쁘게 라졸들은 군수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망쳐먹은 란초를 씹어삼킬양으로 복새판을 피웠다.

《사또, 그만 진정하시오. 내가 불민한탓에 그리된것이니 어찌 죄

없는 기생을 탓하겠소. 지금의 영광도 분에 넘친데 정 그러시면 내가 되려 미안하지 않소?》

림춘이 하도 간청하여 다행히 일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군수는 좀처럼 노기를 참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러는 꼴을 본 림춘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 세상에 제노라고 으시대는 량반들이라는게 저런 속물들뿐이니 이 나라는 장차 어찌 되리오.)

림춘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그리고는 애초에 목적했던 송도가 아니라 그 반대방향인 경주로 발길을 돌리였다.

그곳에서는 친구 오세재가 역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시를 지으며 살아가고있었던것이다.

* 림춘의 《서하선생집》중에서

《배우는자는 마땅히 자기의 능력에 따라 알맞게 써야 할 따름이요, 억지로 남을 본따서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리는것과 같은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나의 요령이다.》

*《해좌칠현》

12세기 후반기에 있었던 문학류파. 《강좌칠현》이라고도 부른다. 1170년 무신정변때 탄압을 받고 정계에서 물러나 전원에 들어가있던 리인로, 오세재, 림춘, 리담지, 황보항, 조통, 함순 등 7명의 문인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생활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창작에서도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 특히는 무인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런데로부터 《해좌칠현》의 시문학은 강한 현실비판적기백과 랑만주의적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리인로의 어릴적 재능

《해좌칠현》의 중심인물이였던 리인로(1152－1220년)는 어릴적부터 총명하고 령리하였으며 특히 시에 남달리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었다고 한다.

그가 9살나던 때의 일이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남의 손에서 자란 리인로는 마을의 한 늙은 선비에게서 글을 배우고있었다.

그 선비로 말하면 한생을 학문연구로 살아오면서 고금의 경전과 명문장을 환히 통달하고있어 마을의 유지들과 근처의 권세가들이 저저마다 자식을 보내여 배워줄것을 청하군 하였다.

어느날 선비는 서당에 모인 제자들에게 옛 문인들이 남긴 경구에 대한 강의를 한적이 있었다.

《글을 지으려면 응당 짤막한 말마디에 깊은 뜻을 담을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성현군자들과 문장가들은 다 이런 경구의 능수들이 아니였느냐. 옛날 시의 대가로 명성떨친 사람이 이런 시를 남긴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서둘러 책을 펴들었다.

머루알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을 정겹게 바라보며 스승은 다음의 경구를 읊었다.

란간앞의 꽃은 웃어도
그 소리 들을수 없고
숲속의 새는 울어도
그 눈물을 볼수 없도다

듣고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히야! 하며 경탄을 거듭했다.

선생은 다시 《그럼 이 시구의 우점에 대해서 누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평가해보아라.》 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먼저 오른쪽켠에 앉은 아이가 자신있게 일어났다.

《예. 이 시는 우선 사물을 보는것이 매우 깊습니다. 꽃이 웃는다는것은 늘쌍 외우는 소린데 웅당 나야 할 소리가 없다고 꼬집은것은 정말 기발한 착상이였습니다. 그리고 새가 우는데 눈물을 떨구지 않는다는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나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반대편줄에 앉은 한 아이가 응수했다.
《제 보기엔 서로 대조되는 꽃과 새의 행동을 두고 겉과 속을 대비한것이 기본장점인줄 아옵니다.》
련이어 일어서는 제자들의 말에 스승은 만족했다.
《옳다. 하나의 사물도 무심히 보지 않고 그 진속을 파헤친데 바로 이 시의 묘기가 있느니라. 그러니 두 애의 말이 다 그 경지를 깨달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스승이 칭찬을 하자 대답한 아이들은 어깨가 으쓱해서 옆의 애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던 스승의 눈길이 문득 구석에 앉은 리인로에게 부딪쳤다.
헌데 웬일인지 리인로는 열려진 창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골몰히 생각하고있었다.
(허, 저녀석은 또 무슨 생각에 빠졌노?)
장난이라면 엉뚱한짓을 해서 가끔 놀래우는 그의 소행을 두고 늘 벼르고있던 선비는 곧바로 닦아세울 잡도리로 물었다.
《너 득옥(리인로의 어릴적이름)이는 무슨 잡생각에 옴해있느냐?》
리인로는 자기 이름을 짚자 놀라 정신을 차렸다.
《이녀석, 글방에 왔으면 글공부에 전심해야지 또 가재잡을 궁냥을 하느냐?》
선비가 진실로 노여워하자 리인로는 당황하여 변명하였다.
《아니옵니다. 실은 선생님이 읊으신 시구가 어딘가 불만스러워서 그럽니다.》
《뭐라구?》
순간 선비는 깜짝 놀라며 무엇때문인가고 물었다.
《암만 생각해봐야 방금 읊으신 시구가 차라리 〈저 문앞의 버드나무 찌뿌둥한데 그 심사 알기 어렵네〉라고 하는것만 못한것 같소이다.》

리인로는 눈빛을 반짝거리며 대답했다.
《?!》
선비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저 문앞의 버드나무 찌뿌둥한데
그 심사 알기 어렵네

되새겨볼수록 그 관찰력이 전혀 새로왔다.
생각해보니 과연 그의 말대로 앞의 경구는 단순히 직관적인 관찰로 대비한것이였다.
그런데 득옥의 시는 한걸음 나아가서 버드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웬간한 선비들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이 유명한 경구에 자기식의 새로운 시구를 내댄 득옥의 관찰력은 선비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확실히 저 득옥에게는 같은 사물이라도 남들과 달리 새로운것을 발견할줄 아는 천품이 있었다.
(허, 후생가외라더니 저녀석은 필경 앞으로 큰 문장가가 되겠는걸.)
비록 나어린 소년이지만 그 세심하고 창조적인 사색에 선생은 자기의 틀에 박힌 지식이 미숙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리인로는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고 소문이 자자해졌다.
후날 선생의 예언대로 리인로는 과연 뛰여난 시적재능으로 당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 리인로의 《파한집》중에서
《이 세상에서 귀천과 부귀로써 높낮이를 정하지 아니하는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문장은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빛남과 같고 구름이 허공에 떠다님과 같다. 눈있는자는 누구나 바라볼수 있어 조금도 가리워 숨길것이 없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문장은 결코 부에 떨어짐이 없다고 할만 하다.》

리규보의 야유솜씨

대바르고 호탕한 성격과 뛰여난 시적재능으로 리규보(1168—1241년)는 젊은 나이에 벌써 년장자들인 리인로, 림춘, 오세재, 리담지 등 《해좌칠현》의 제노라고 하는 문인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었을뿐아니라 야유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였다.

열아홉살때 리규보는 년장자인 오세재의 막역지우가 되여 그와 함께 《해좌칠현》문인들의 시모임에 자주 다녔다.

그러던중 오세재가 경주로 떠나간 후로는 리규보가 혼자서 계속 그 모임에 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좌중에 인사를 보내며 리규보가 빈 자리에 가앉자 리청경(리담지의 자)이 그를 넌지시 건너다보며 말을 붙였다.

《오덕전(오세재)이 경주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대가 그 자리를 보충함인가?》

이미전부터 시에서는 저들밖에 없는듯이 은근히 자부하고있는 이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리규보는 즉시 야유조로 반문했다.

《칠현(해좌칠현을 념두에 둠)이 조정의 벼슬도 아닌데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이 웬 말인지요?》

그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늘 수염을 내리쓸며 년장자연하던 청경을 멋지게 골려넘기는 젊은 시인의 솜씨에 감탄했던것이다. 얼굴이 벌개가지고 어쩔바를 몰라하던 청경이 그래도 체면을 유지해볼 심산인지 이번에는 봄 춘자, 사람 인자를 운자로 내고 시짓기를 청했다.

그러자 리규보는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즉석에서 시를 지어 읊었다.

영광스럽게 족하모임에 참여하여
유쾌히 술을 마셨노니
내 몰라라 칠현가운데

누가 오얏씨 뚫을 사람인고

시읊기를 마치자 모두가 그의 시적재능에 또다시 감탄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시에 담겨진 의미를 음미해보고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오얏씨란 리규보가 자기의 성씨를 념두에 둔것으로서 시의 의미인즉 칠현가운데 자기를 당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리규보는 모르는체 하며 여유작작하게 량껏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 리규보의 《동국리상국집》 중에서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바는 글에서 나타나는것이기때문에 그 글로써 특히 그 사람을 알수 있다.》
《대개 시란 뜻을 선차적인것으로 한다. 창작에서 뜻을 파는것이 제일 어렵고 말을 엮는것이 그다음이다. 뜻은 역시 시인의 열정을 전제로 한다.》

시 한수로 군직을 되찾은 조충

조충(1170－1220년)은 12세기말～13세기초에 활동한 재능있고 담력있는 무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조충은 체격이 우람하며 위엄있는 인상을 주면서도 성미가 호방하고 소탈하여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너그럽고 상하간의 간격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군사를 거느릴 때에는 군률을 엄하게 세웠고 위험한 고비에 부닥쳐도 주저함이 없이 대담하게 뚫고나갔다.
조충은 또한 여러 방면의 학식을 소유하고 시와 문장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 고려조정의 중요한 문서들이 그의 손에서 많이 작성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문무에 능통한 조충의 재능과 군사가로서의 담력은 뜻하

지 않은 실수로 박탈당하였던 군직을 한편의 시로 되찾은 일화를 통해서도 엿볼수 있다.

1216년 초가을이였다. 행영중군 부원수 조충은 북방변경으로 침입한 수만명의 외적을 격퇴시킬데 대한 령을 받고 출전하였다. 안주방면으로 행군하던 군사들은 며칠째 억수로 퍼붓는 비로 하여 몹시 지치고 피로하였다.

조충은 행군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군사들의 피로와 기분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대오를 멈춰세우고 비가 멎을 때까지 휴식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휴식도중 뜻하지 않게 적들의 불의습격을 당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병쟁기와 군량도 손실을 입었다.

대오를 다시 수습하지 않고는 더 전진할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주변일대에 대한 깊은 료해와 경계근무를 소홀히 했던탓에 빚어진 엄중한 실책이였다.

조충은 지휘관으로서의 자기 과오의 엄중성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군사를 돌려세웠다.

그 후과가 너무도 큰것이여서 어사대에서는 즉시 임금에게 상소하여 조충을 부원수직에서 당장 파직시킬것을 거듭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평소에 조충의 다재다능한 능력에 대해 탄복하군 하던 왕은 처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조정의 다른 관리들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영향을 고려하여 결국 그를 파직시키는데 동의하였다.

나라와 백성앞에 중죄를 졌다는 죄의식에 몸부림치고있던 조충은 자기에게 차례진 책벌이 너무도 응당하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란을 겪고있는 때에 나라를 위해 한몸 바쳐 싸울수 없게 된것이 원통하고 한스러웠다.

더우기 자기때문에 외적과의 싸움에서 값없이 목숨을 잃은 군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전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없이 괴로왔다.

갈마드는 이런 생각으로 번뇌에 모대기던 조충은 파직을 선포하는 어전회의마당에서 자기의 비장한 심정을 담은 다음과 같은 시 한수를 지어읊었다.

만리를 달리던 말
무릎 한번 꿇게 되니
시절이 바뀐탓에
슬픈 소리 지르노라
말 잘 타는 장수 있어
채찍 한번 다시 치면
모래언덕 단숨에 날아넘어
적진을 짓뭉개리

비록 첫 실수로 하여 고뇌의 쓴맛을 체험하고있으나 싸울 기회를 다시한번 더 준다면 침략자들을 단숨에 요정내고 나라와 백성앞에 지은 죄를 기어이 씻겠다는 그의 결의를 담은 시를 듣고 왕과 관리들은 모두 놀랐고 그의 가슴속에 높뛰는 견결한 애국의지에 감동되였다.

이렇게 되여 조충의 파면문제는 취소되고 다시 서북면 부원수의 군직을 맡고 군사를 지휘할데 대한 조취가 취해졌다.

그후 조충은 자기가 읊은 시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서북면 원수로 승진하였다.

문인의 성품

13세기 전반기의 이름난 문인 최자(1188－1260년)가 《보한집》을 편찬할 때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최자가 제자들이 수집해온 시자료들을 읽어보고있는데 문득 직강인 하천단이 찾아왔다.

하천단은 당시 문장이 능하여 고려조정의 표문과 전문작성에서 주역을 맡고있었다.

《어디 나가지 않았나 걱정했더니 마침 있소그려.》

들어서기 바쁘게 하천단은 마음이 놓이는지 최자의 어깨를 무랍없이 툭 쳤다.

여느때없이 흥분해서 나타난걸 보니 또 좋은 시구가 떠올랐는가.
최자는 그가 갑자기 나타난 리유를 가늠해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만큼 최자와 하천단의 교우관계는 시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것이였다.
얼마전 중서성 평장사인 리규보가 자기 후임선정을 위해 진행한 시험에서 최자는 첫자리를, 하천단은 그 다음자리를 차지했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꺼내는 이야기란 전부 시에 관한것뿐이라 최자가 하천단이 나타난 리유를 이렇게 예견하는것도 무리가 아니였다.
예견한바 그대로 하천단은 이번에도 시이야기를 꺼냈다.
《이보게, 자네가 〈파한집〉 속편을 쓴다는 말을 듣고 내 피뜩 생각되는게 있어 찾아왔네.》
《그래, 잘 왔네. 그러지 않아도 내 아름이 벌게 큰일을 맡아안고 망설이던 참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놓게나.》
《그러면 그럴테지, 언제봐야 자넨 이 〈스승〉을 존경할줄 안단 말이야, 허허.》
하천단은 최자의 겸손성에 마음이 흡족했는지 다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래 용건은 무언가?》
《거 〈파한집〉에서 강일용의 끝맺지 못한 갱무시구에 리미수가 짝을 맞추어 지어놓은 시가 있지?》
《파한집》을 여러번 곱씹어읽은 최자였던지라 하천단이 말하는 리미수의 시를 어렵지 않게 기억하였다.

푸른 산허리를 가르듯 날으더니
높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어라

여기서 앞의 시구는 고려 예종때 시인 강일용이 개경 동쪽의 천수사에 가서 남긴것으로서 뒤구를 마저 생각해낼수 없어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것을 후날 미수(리인로의 자)가 보충하여 지은것이였다.
보충된 시구가 하도 맵시있고 뜻이 깊어 리인로는 스스로 만족해하며 《파한집》을 편찬할 때 그것을 기록해두었던것이다.
그런데 하천단이 새삼스레 그 얘기를 꺼내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의아해하는 최자의 표정을 살피며 하천단은 말을 이었다.

《암만 생각해도 신통치 않아. 시구를 보충하는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공연히 손을 대서 아까운걸 버려놓았거던. 리미수가 글재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공연히 제 기분에 떠서 그 시를 망쳐놓은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이번에 그 시구를 아예 삭제해버리라구. 그리고 내 생각엔 차라리 〈푸른 풀잎우에 고운 발 내렸도다〉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구만.》

하천단의 어조는 벌써 의견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까왔다.

말뜻을 알아차린 최자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리 그 시구에 흠이 있다한들 저 사람은 너무도 남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재능을 과신하면서 이따금 교만을 부리는 하천단의 태도에 은근히 불만을 품고있던 최자였다. 최자는 차라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딱 잘라 말했다.

《자넨 어쩌면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실을 그리도 혹평하고 모욕할수 있나. 그래 리미수가 자기의 시구라고 해서 〈파한집〉에 그 시를 올렸단 말인가. 옛날에도 앞선 사람이 못다 지은 글을 후세사람이 그 진미를 살려 완성시킨 실례야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리구 리미수야 당대에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대가였은즉 그가 지은 시구는 오히려 강씨의 시상을 더 넓혀 걸작으로 만들었다고 보네. 내 생각에는 경솔한건 리미수가 아니라 바로 자네야. 어쩌면 글을 쓴다는 사람이 선배들을 그리도 무시하나.》

최자가 짐짓 엄한 기색으로 꾸짖자 하천단은 대번에 얼굴이 붉어지며 벌컥 성을 내였다.

《내가 경솔하다구? 흥, 그만두게. 그래 이젠 큰 사람이 됐다구 옛친구를 뭐 세살난 철부지로 아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가와서 진정하라고 말리자 하천단은 오히려 더 노기를 띠우며 씩씩거리더니 문을 차고 나가버리였다.

최자는 욱 치미는 결기를 삭이지 못한채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용히 말을 비쳤다.

《선생님, 하천단선생의 시구에도 일리가 있사온데 어찌 그리도 단번에 부정하시나이까?》

《?!》

자기를 주시하는 제자들의 눈빛을 바라보던 최자는 문득 이들도 앞

으로 저 하천단처럼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뇌리를 스치였다.
아니, 학문의 길에 첫발을 내디딘 초학도인 이들에게 시인으로서의 참된 성품을 지니도록 가르치는것이 보다 중요한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저으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최자는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말하였다.
《그럼 너희들이 어디 강씨의 미완성시구에 화답구를 지어보아라. 만일 리미수의 시구보다 더 훌륭하게 지어낸다면 내 주저없이 다시 기록하여 내가 만들고있는 책에 올리겠다.》
최자의 의견에 제자들은 숨이 막힐듯 흥분했다.
리인로가 편찬한 《파한집》의 속편으로 최자가 보다 많은 자료를 인입하여 만들고있는 《보한집》에는 력대의 이름난 문인들이 지은 시들과 그와 관련한 일화, 시평들이 풍부하게 기록되는, 당시로서는 매우 품위있는 책인것으로 하여 만일 최자의 말대로 된다면 후세사람들은 응당 자기들의 이름을 두고두고 칭찬할것이기때문이였다.
제자들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즉시 붓을 들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명시구를 지어내려고 모대기였다.
어떤 사람은 《강변의 홍료화속에 잠들어버렸네》, 또 다른 사람은 《밝은 달 향해가며 울어예도다》라는 식으로 적어놓고 저들대로 자기의 시구를 내세우려고 승벽을 다투었다.
하지만 누구의 시구도 최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최자는 웃음을 거두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나 저력있게 타일렀다.
《너희들도 학문에 뜻을 둔 이상 앞으로 문인이 되자면 꼭 두가지를 경계할것이 있다. 하나는 제딴에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깔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옛것에 구애되여 새것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남의것을 대함에 있어서 단점을 따지기에 앞서 우점을 보며 항상 자기를 낮출줄 아는거다. 봐라, 강씨와 리씨가 너희들만 못해서 그런 시구를 남겼겠느냐. 그들은 다 당대의 대가였지만 글 한자 한자에도 언제나 고심어린 사색을 기울였다. 이런것을 리해한다면 아마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것을 무턱대고 내버리자고는 못했을게다. 명심들 하거라. 이게 바로 문장짓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제일 중요한 성품이다.》

최자의 웅심깊은 말에 제자들은 누구도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후날 이 말을 전해들은 하천단 역시 다시 최자를 찾아와 자기의 경솔함과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한다.

* 최자의 《보한집》중에서
《시문에서 중요한것은 시인의 열정이다. 열정은 개성에서 흘러나오며 사상감정은 열정에 의거하는것이다. 그리고 말은 사상감정의 표현이다. … 사상감정과 예술적재능이 겸전할 때 그 시는 볼만 한것이다.》

방패에 새긴 시

거란침략자들과의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던 1217년 여름 새로 편성된 고려군의 한 부대가 출전하기 앞서 당시 서북면 원수 조충의 사열을 받게 되였다.
북소리 둥둥 울리는 가운데 해빛에 번쩍이는 기치창검을 수풀처럼 늘어세운 대오의 장엄한 위용은 침략자들에게 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고려군사들의 복수의 기상 그대로였다.
만족한 기색으로 군사들을 사열하던 조충은 문득 한 군사앞에 말을 멈추었다.
사나운 짐승의 얼굴만이 그려진 여느 방패들과 달리 그가 쥔 청동방패에는 시 한수가 활달한 필치로 새겨져있는것이였다.

나라의 걱정은 신하의 걱정이요
아버지의 근심은 자식의 근심이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위해 싸움은
충성과 효성을 다함이로다

한눈에 시를 읽어내려가던 조충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충과 효를 다하겠다?! 음, 시가 마음에 든다. 네가 지었느냐?》
우람찬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단아한 얼굴의 그 군사는 약간 어줍

어하는 기색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래 적실하단 말이지, 남들이 다 그리는 맹수대신 유독 방패에 시를 썼을적엔 무슨 까닭이 있을텐데…》

의문 실린 조충의 말에 군사는 저으기 흥분한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상도 청주고을에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김지대라는 27살의 젊은이였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이름났던 지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섬겨왔으며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열중할 때도 아버지에 대한 봉양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거란침략자들이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지경 깊숙이 쳐들어왔다.

도처에서 분노한 애국적인민들이 자진하여 창칼을 들고 일어나 관군과 합세하여 싸움에 떨쳐나섰다. 당시 군역이 면제되여있는 성균관생이였던 지대는 국난이 닥쳐온 이때 가만히 앉아 책이나 볼수 없었다.

그리하여 군사로 자진하여 준비를 갖추고있는차에 공교롭게도 지대의 아버지가 급병으로 몸져눕게 되였다.

어머니도 세상을 뜨고 없는데 차마 식구들에게만 내맡기고 갈수 없어 지대는 부친곁에 눌러앉고말았다.

하지만 간고한 싸움소식이 귀전에 들려올적마다 흉중의 피가 끓어올라 못 견딜 지경이였다.

지대는 아버지의 병을 구완하는 짬짬에 무술을 익히기도 하고 달빛밝은 밤이면 울적한 심정을 피리가락에 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이웃마을에 있는 의원에게 가서 아버지의 병구완에 쓸 약을 지어가지고 대문가를 넘어서던 지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토방에까지 나와앉아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게 아닌가.

무릎에는 늘 벽에 걸어두군 하던 방패와 갑옷이 놓여있었다.

영문을 알길 없어 덤덤히 서만 있는 아들을 띄여본 아버지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너 이웃집소식을 들었느냐?》

지대는 그제야 이웃집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던 아침일이 생

각되였다.

《예로부터 충신효자는 나라위한 전장에서 죽는다 하였거늘 정말 기특하고 장한 일이다.》

순간 지대는 참군의 욕망을 터놓고싶은 충동이 북받쳤으나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대의 손에서 약꾸레미를 살피던 아버지는 조용히 《너도 이젠 내 시중을 그만하고 전장에 나가거라.》라고 하는것이였다.

《예?!》

머리를 버쩍 든 지대는 내심 기쁘기도 했으나 막상 아버지가 승낙하고보니 당황해졌다. 자기마저 떠나면 아버님 병구완은…

아들의 속마음을 헤아린듯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못난 아비때문에 여직껏 종군을 미룬줄 내 알고도 남음이 있다. 허나 생각을 크게 하거라.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구 나라가 없이 제집에서 백년을 편안히 산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지금 숱한 남정들이 처자식솔을 뒤에 두고 전장에서 피흘리구있는데 난 도리여 조촐한 이 목숨 하나를 건지자고 너를 붙들어두고 국란을 강건너 불보듯 했으니 대역죄인들 이보다 하겠느냐.》

점점 격해지는 아버지의 음성에 지대는 서둘러 위안의 말을 찾았다.

《아버님, 그러하오나 반역이라고까지 하심은 지나친듯 하오이다. 아버님께서야 전날의 무공도 많으시고 더구나 지금이야 앓으시는 몸이니…》

《그만해라.》

으스러지게 틀어쥔 주먹을 떨며 아버지는 지대를 꾸짖었다.

《내가 늙었단 말이지, 이놈의 병만 아니라면 내 선참으로 나섰을게다. 진정 애비를 생각하거든 네 내대신 이 갑옷을 입고 당장 떠나거라. 만일 작은 인정에 포로되여 나라에 대한 충정을 소홀히 한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고말겠다. 명심해라, 나라에 대한 충성이자 이 애비에 대한 효도라는걸.》

그날밤 지대는 잠들수 없었다.

병약한 아버지의 심중에 그토록 강렬한 애국심이 살아 숨쉬고있음을 미처 몰랐던 자기가 얼마나 불효한 인간인가.

(아버지, 불충불효한 이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한 가정의 효자가 되

기 전에 나라위한 충신이 되라신 그 뜻을 명심하고 제 기어이 나라지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리다.)

자책속에 어느덧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자 지대는 갑옷과 투구를 떨쳐입고 정성껏 방패를 닦았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의 강개한 심정을 한자한자 시로 새겨나갔다.

…

김지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충은 가슴이 쩌릿해났다.

아, 고구려의 얼을 지닌 이 나라 백성들의 가슴속엔 얼마나 깨끗한 충의심이 불타고있는것인가.

이런 백성들이 지켜선 내 나라 고려는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다치지 못하리라.

장군의 사열을 마친 부대는 이윽고 격전장을 향해 힘찬 진군을 개시했다.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군사들의 씩씩한 모습을 바라보는 조충의 귀가에는 벌써 승리의 합성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한수의 풍자시때문에 십년을 추방당했던 김구

《이놈, 네가 감히 내 령을 거역하고 그냥 무사할줄 아느냐. 김구, 이 죽일 놈같으니라구.》

파리가 날개질하는 소리까지 들릴만큼 고요하던 최항의 널다란 사랑방에서 갑자기 벼락치듯 하는 호령소리가 터져나왔다.

최항은 당시 권세가 서슬같이 시퍼런 큰 벼슬아치였다.

대대로 권세를 틀어쥐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최가네 집안의 전횡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사람들도 최씨가 앉았던 자리에는 풀조차 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최씨들을 저주하였다.

늘 기가 펄펄해있는 최항은 제 손아귀에 틀어쥔 권세의 칼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란도질하였다.

《이놈, 이 죽일 놈!》

최항은 목에 피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그는 방금전 김구네 사람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보고 몹시 노한것 같았다.
그의 호령소리에 매미날개같은 종이로 바른 밀창문이 드르르 떨렸고 온 집안의 심부름군들은 간이 콩알만 해졌다. 방금전에 편지를 전해준 그 사람도 얼이 나가서 목을 잔뜩 움츠리고있었다.
이때 약삭바른 상노아이 하나가 화로에 불을 담아들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된꾸중을 듣는가싶어서 미닫이틈새로 살그머니 엿보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점잖은 벼슬아치어르신이 무릎꿇고 엎드려 쩔쩔맬줄 알았는데 천만뜻밖에도 방안에는 최항이 혼자 앉아서 펄펄 뛰고있을뿐이요, 욕을 당하고있는것은 말 못하는 편지 한장뿐이였다.
편지 한장을 앞에 놓고 미친 사람처럼 펄펄 뛰면서 목의 피줄이 터질듯이 고래고래 호령질을 하고난 최항은 종시 분을 삭일수 없었던지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던 편지종이를 다시 와락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금전에 김구가 보내온 쪽지였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사연도 적혀있지 않고 다만 시 한수가 있을뿐이였다.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던 최항의 얼굴에는 또 노기가 새파랗게 되살아났다.
시의 제목을 적은 글자들이 마치 김구의 조소를 띤 두눈처럼 빤히 자기를 쏘아보는것 같았다.
《뭐, 어찌고 어째, 원각경을 조소한다?! 김구 이놈, 원각경을 조소한다는거야 이 최항을 조소한다는 소리가 아니냐.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네놈이 이따위 소리를 함부로 써보낸단 말이냐. … 그리고 이 마감구절은 또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최항은 김구가 써보낸 시의 마지막구절을 글자마다 불태워버릴듯이 한자한자 훑어내려갔다.
《뭐, 입을 다물고 마지막봄을 보내는것만 못하다구?! 어어, 이건 나를 보고 입을 봉하고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고약한 놈!》
그는 갑자기 경풍을 만난듯 제풀에 와들와들 손을 떨더니 쥐고있던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후닥닥 일어선 최항은 안절부절 못하

며 우리에 갇힌 승냥이마냥 울부짖었다.

《내 네놈의 사지를 이 쪽지신세로 만들지 못하면 성을 갈겠다.》

문틈으로 올방자를 틀고앉은 주인이 말 못하는 종이장과 사생결단을 하듯이 날뛰는 거동을 엿보며 작은 혀를 뾰족이 내밀던 상노녀석은 최항이 벌떡 일어서는것을 보고 놀라서 얼른 옆에 놓인 화로를 들고 허리를 폈다.

그 시각에 최항을 노발대발하게 만든 김구(1211—1278년)는 자기 집 방안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집안팎에는 무겁고 괴로운 침묵과 근심이 겹겹이 서려있었다.

처음에는 김구가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한 일이기때문에 그의 부인도 아무런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었다.

집안의 근심은 김구가 써준 쪽지를 가지고 최항의 집에 갔던 사람이 저편의 대노한 소식을 안고와서 안방에까지 알린 때부터 시작되였다.

김구의 부인은 과묵하고 강직한 남편의 대쪽같은 성미를 잘 아는지라 혼자서 속을 태우다가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서 하인을 사랑방으로 보내여 좀 와달라고 전했다.

그때는 녀자들이 사랑방에 함부로 나들지 못하던 풍습이 있던 시절이므로 부인은 꼭 할 말이 있을 때면 남편을 안방으로 청하였던것이다.

잠시후 문밖에서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그린듯이 앉아있다가 급히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일어난 부인은 문밖에 나와 남편을 맞았다.

김구는 부인의 인사에 흔연히 답례하고 방안에 들어가앉더니 무슨 의논할 일이 갑자기 생겼는가고 물었다.

부인은 조금도 근심스러워하는 기색을 찾아볼수 없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태연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그동안 남편이 혼자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모질게 하였으랴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 아침 편지를 보내신 후 불길한 소식이 있사온듯 하오나 과히 근심하지 마시오이다.》

부인은 남편을 위로한다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심정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빛을 보이면 오히려 자기가 걱정할가봐 태연해지려고 애쓰는 남편을 더 괴롭힐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서였다.

김구는 부인의 따뜻한 이 한마디 말이 고맙기 그지없었다.

사실 그는 현숙한 부인이 옳게 판단한것처럼 혼자서 많은 마음을 썩이고있었다.

그것은 최항이 《원각경》의 발문을 지으라고 요구한 때부터였다.

《원각경》은 바로 최항이 주관하여 찍어낸 불경책이였다.

최항이 《원각경》의 발문을 김구더러 쓰라고 한 속심은 청렴결백하고 글재간으로 이름이 높은 김구를 시켜 제 공적을 찬양하게 하자는데 있었다.

또한 그 일을 김구에게 시킴으로써 아무리 도고하고 강직한 인물이라도 자기의 령은 군말없이 시행한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타산에서였다.

그러나 김구는 학문을 닦고 글을 짓는 선비로서 그런자의 권력앞에 굴종한다는것은 씻을수 없는 수치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허나 자기의 지조를 지킨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당시의 형편에서는 최항의 령을 거역하면 목숨을 빼앗길뿐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하는 화를 입게 되기때문이였다.

자기 한몸이 죽는 일은 받아들일수 있다 하더라도 조상의 신주들이 마구 흩어져 치욕을 당하고 죄없는 안해와 자식들도 죽지 않으면 종이 될수 있는 판이니 그 모든 불행을 어찌 가벼이 여길수 있겠는가.

그가 이렇게 여러날동안 번민하고있는 사이에 정해진 날자는 오고야말았다.

온밤 뜬눈으로 밝힌 김구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온 가족이 도륙을 당해도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나니 마음은 폭풍뒤의 바다처럼 태연해졌고 최항의 무리가 발밑에서 꿈지럭거리는 지렁이처럼 여겨져서 가소롭기짝이 없었다.

그런데 최항에게 회답을 보내자고 막상 붓을 들고보니 그따위 사람값에도 가지 않는자에게 길게 쓰고싶지 않았다.

어른은 어른으로 대하고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게 대해야 하듯이 타락하고 추악한자에게는 실컷 비웃어주는것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김구는 편지를 쓰려는 생각을 돌려 붓 가는대로 풍자시 한수를 적었다.

벌은 붕붕 나비는 훨훨
백가지꽃 다 피웠네
뚱땅거리는 화장사에는
모두다 진귀한것들이구나
온종일 주절주절 듣기도 싫다
원각경 읽는 저 소리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마지막봄 보내는게 어떨런지

시를 다 쓰고 한번 읊어본 김구는 마음이 후련하였다.
김구는 시를 읽고 눈이 뒤집혀 돌아갈 최항의 몰골을 눈앞에 그려보며 《원각경을 조소한다》라는 활달한 필체의 표제를 써넣었다.
통쾌한 풍자시 한편을 최항에게 띄워보낸 김구는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길지 않은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보았다.
어린시절에 고향 부령에서 소꿉동무들과 더불어 즐겁게 뛰여놀던 일이며 아명을 백일이라 부르고 자는 차산이라고 하여 별로 번잡스럽게 생각되던 일까지 전에없이 새삼스러운 회상으로 떠올랐다.
열두살 어린 나이에 진사가 되고 스물두살때 문과에 올랐던 그 희망에 부푼 젊은 시절도 생각났다.
권세있는 집의 자식들이 좋은 옷에 기름진 음식을 차려가지고 요염스러운 녀인들과 함께 화장사로 가서 온종일 뚱땅거릴 때 관청의 문서를 붙들고 씨름하던 일도 어제런듯싶었다.
지난날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느라니 늘 고생만 시킨 안해를 대하기가 더욱 미안해졌다.
김구는 그 무슨 가느다란 가시로 찌르는것처럼 가슴이 짜릿하였다. 어쩌면 이제 20년 가까이 생사고락을 같이한 안해와도 리별해야 할것이였다.
지금 그 불쌍한 안해의 청으로 안방에 들어와앉은 그는 예전보다 더 각별한 정을 느끼였다.
불길한 소식을 듣고도 과히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안해의 심정이 눈물겹게 고마왔다.
그래서 김구는 목구멍으로 치미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고나서 조

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소, 겨죽을 먹으며 고생할 때 맞이한 안해는 각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부인은 한평생 이 못난 남편때문에 고생만 하였구려, 허허…》

과묵한 남편의 살뜰한 말은 쇠라도 녹일듯싶은 열을 가지고 안해의 가슴에 미쳐왔다.

부인은 뭉클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고개를 수그리고 옷고름을 눈에 가져갔다.

김구도 눈을 슴벅거리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남들은 이런 때 선비가 된것이 한스럽다고 한다지만 글하는 사람인 나는 자기가 믿는바를 글로써 지키는것이 얼마나 떳떳한지 모르겠소. 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소.》

《아무리 포악한 무리인들 차마 사람의 목숨을 해치리까.》

부인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잠긴 음성으로 말했다.

이에 김구는 껄껄 웃었다.

《최항이 나를 죽일수도 있을거요. 허지만 그자가 칼을 가지고 협박하며 달려들 때 나는 붓을 들고 그의 숨통을 먼저 눌렀소. 그러니 숨통이 눌린자의 칼이 내 목을 치지는 못할것이요. 그렇다고 무사하기야 어찌 바라리요. 그것은 내 이미 각오한바이니 부인은 너무 상심치 마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였다. 김구의 판단은 정확하였다.

김구의 시 한수에 된매를 맞은 최항은 임금에게 간하여 그를 멀리 내쫓도록 하였다.

날이 저물기도 전에 왕의 어지가 떨어졌다.

그것은 김구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라는 령이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동안 김구는 바람세찬 제주도에서 최항의 음으로 양으로 되는 갖은 박해를 다 받았다.

혈기왕성하던 그도 이제는 세월의 거센 풍파속에서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풍자시 한수로 10년동안 추방당했던 김구, 그는 이 10년동안 끝내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만 10년이 되는 해에 최항이 정계에서 쫓겨나자 김구는 고달픈 귀양생활에서 놓여나왔다.
제주도를 떠난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살같이 달리는데 배전에 서서 옷자락을 날리며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는 김구의 얼굴에는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긍지가 어려있었다.

재능도 옳바로 써야 빛이 난다

지나온 력사의 갈피에는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었지만 그것을 권세에 아부하여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은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지탄을 받은 문인들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고려 말기에 활동한 문인들이였던 오잠과 김원상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다같이 《애가호악지사》로서 당대에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문장과 음악적재능을 가지고있었지만 그 재능을 자기 한몸의 부귀영화를 위한 발판으로 리용한것으로 하여 력사에 오명을 남기였다.

남장대의 조직자 오잠

남장대는 고려 25대왕인 충렬왕시기(1275－1308년)에 무어진 궁중녀성가무단이였다.
이 남장대는 바로 오잠이 임금의 환심을 얻어 권세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들여 고안해낸 창안품이였다. 찬성사 오선의 아들로 비교적 유족한 가문에서 태여난 오잠은 어린시절부터 머리가 퍽 총명한 편이였고 학문에 대한 탐구심도 높았다.
그의 이름은 소년시절에 벌써 온 개경일판에 알려졌고 뭇사람들의 찬탄속에서 창창한 앞날이 기약되여있었다.

《하늘도 끝이 있다고 내 기어이 품은 뜻 이루고 나라의 당당한 인재가 되리라.》

아직 세파에 때묻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는 오잠도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가지군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결심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첫걸음부터 흔들리고말았다.

벼슬길은 그가 꿈속에서 그려보던 무지개 비낀 화창한 봄날도 아니였고 화려한 꽃밭길도 아니였다.

한번 떨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찔한 칼벼랑길을 톺아오르고 중중첩첩 막아서는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는 험난한 길이였다.

별로 재능도 없고 학식도 깊지 못한 간신배들이 세력을 등대고 온갖 전횡을 부리면서 바른말을 하면 바른말을 한다고 참하고 재능이 있으면 저보다 재능이 있다고 짓뭉개버리는 세상이였다.

원래 재능은 있으나 지조가 부족했던 오잠은 차츰 세상물정에 눈이 트면서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던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어느날 오잠이 임금의 행차를 따라 봉은사로 갔을 때였다.

한갖 임금의 거동이나 돌보아주고 심부름을 하는 내료인 석천보와 석천경이 떠날 때부터 관리들에게 호령질하며 야료를 부리더니 봉은사에 도착하여 천렵을 하고 술이 거나해지자 비서윤 정형을 물에다 쓸어넣고는 너털웃음을 짓는데 당사자는 물론 좌중의 여러 고관대작들도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것이였다.

이것을 목격한 오잠의 머리속에서 번쩍 하는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쳤다.

(아, 이 세상에 아무리 귀천의 구별이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권세보다 못하다. 재능이 아무리 높다 한들 권세를 어찌 당하랴.)

오잠은 지금까지 머리속에서 맴돌고있던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다시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재능도 없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내료들이 관리들을 깔보며 욕보이기를 서슴지 않는것도 바로 그뒤에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권력은 누가 틀어쥐고있는가.

바로 임금이다. 한마디의 불호령에 온 천하가 벌벌 떨고 한마디의 웃음소리에 온 천하가 기뻐하는 바로 그 무제한한 권력이 임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임금을 틀어쥐여야 한다.

오잠은 드디여 쟁쟁한 문인이 되리라던 왕년의 꿈을 헌신마냥 줴던지고 임금의 환심을 얻기에 골똘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키운것이 임금이 주색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이였다.

얼굴이 반반한 계집들을 골라다 자기가 직접 지은 노래를 가르쳐주어서 임금에게 섬긴다면 그야말로 일은 성공적일것이였다.

오잠은 곧 자기의 짝패인 김원상과 내통하여 작정을 한 다음 임금에게 관현방 대악에 재인이 부족하다고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내고는 각 도에 폐행들을 파하여 얼굴 곱고 기예가 있는 기생들을 뽑아올리였다.

한편 개경의 무당과 관비로서 가무에 능한자들을 뽑아서 궁중에 두고 마미립(말총갓)을 씌워서 남복을 시키고는 자기가 직접 지은 《삼장》과 《사룡》이라는 음탕한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이렇게 되여 력사에 녀자들이 남복을 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류다른 가무단인 남장대가 나오게 되였고 이로 하여 오잠은 임금의 남다른 총애를 받으며 온갖 권세와 부귀를 누리게 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해후 오잠은 임금의 권력을 등대고 온갖 전횡을 일삼다가 탄핵을 받고 귀양을 가고말았다.

당시 남장대가 부른 《삼장》과 《사룡》의 노래가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삼장사에 등불 켜러 갔더니
주지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네
혹시 이 말이 절밖에 퍼져나간다면
상좌야 너더러 소문냈다 할게다
(삼장)

뱀이 룡의 꼬리를 물고
높은 산을 날아넘더라네
만사람 저마다 한마디씩 말한들

짐작은 두사람의 마음에 있을거다
(사룡)

이 노래들은 나라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색으로 세월을 보낸 왕과 오잠을 비롯한 반동적봉건관리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력사의 갈피속에 굴욕의 한페지를 남긴자들의 가련한 한생을 교훈적으로 돌이켜보게 한다.

* 궁중녀성가무단 남장대의 활동은 고려 후반기 가곡의 발전면모를 알수 있게 하며 특히 오잠이 지은 《삼장》과 《사룡》은 당시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국어시가의 창작정형을 리해하는데서 자료로 되고있다.

기는 놈우에 나는 놈

오잠과 함께 신조 《태평곡》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가곡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김원상은 량주태생으로서 이른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벼슬길에 나선 이후로 문장가로, 음악가로 두각을 나타내였다.

하여 그는 당시 문장과 가곡으로 손꼽히던 오잠과 짝패가 되여 궁중의 례악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김원상은 오잠보다 한수 더 뜰줄 아는 사람이였다.

어느날 김원상은 오잠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것은 이레전에 궁중안에 재인을 보충하려는 문제를 임금에게 제기하여 승인을 받았다는것과 인츰 각 도에서 많은 기생들을 뽑아올리려는데 그 일을 맡아달라는것이였다.

(그러니 인물 예쁜 계집들을 섬겨바쳐 임금에게 환심을 얻어보겠단 말이지. 그럴듯해. 허지만 그것은 오잠이 자기를 위한 일이지 나하고야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굴리던 김원상은 무릎을 딱 쳤다.

《그렇지, 이번기회에 나도 한몫 봐야겠다.》

이튿날 원상은 재인들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살던 마

을에 내려가 적선래라는 인물곱고 노래 잘하는 기생을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는 한고향내기인 내시 박윤재를 통하여 기생을 궁중안에 들여놓고는 특별히 자기가 직접 노래 《태평사》를 지어 가르쳐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주연에서 적선래가 임금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였다.

인물이 어여쁜데다가 노래가락 또한 흥겨워 저으기 만족한 임금은 적선래를 가까이 불러다놓고 《이 노래는 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짓지 못할터인데 누가 지은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적선래는 《저의 오라비 김원상과 박윤재가 지은것이옵니다.》라고 여쭈었다. 임금은 대뜸 《이같은 인재가 있으니 쓰지 않을수 없다.》라고 하고는 김원상을 통례문 지후로, 박윤재를 권무관으로 임명하였다.

그후 원상은 벼슬이 루차 승진하여 미구에 관리임명권을 주관하게 되였다.

《허, 제 밥 먹여주며 길러준 개 주인의 발뒤축 문다더니.》

원상에게 선손을 떼운 오잠은 속으로 화가 불끈 치밀어올랐다.

허지만 자기보다 권세가 높아진 그에게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디 두고보자.

이렇게 오잠은 속으로 벼르고있었다.

한편 이전과 달라진 오잠의 태도에서 불안을 느낀 김원상은 그대로 오잠을 주시하고있었다.

그러던중 오잠이 관리들속에서 지탄을 받고 탄핵이 분명해지자 김원상은 그전에 그처럼 가까왔던 《우의》도 싹 저버리고 발딱 돌아앉아 오잠의 허물을 들추어 갖은 말로 비방중상하였다.

결국 오잠이 귀양을 가는데 김원상도 크게 한몫하였다.

그러나 기는 놈우에 나는 놈으로 자처하는 김원상이 아무리 처세술이 능하다 한들 어찌 무사하랴.

1320년(충숙왕 7년) 김원상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 역적음모를 꾀하다가 가산을 몰수당하고 백근짜리 착고를 걸고 먼 외진 섬으로 귀양가게 되였다.

이 백근이나 되는 착고는 김원상이 순군만호로 있을 때 제가 직접

만든것이였다.
  결국 제가 만든 착고를 제가 걸게 되였으니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 뒤집기를 잘하던 김원상이 받은 응당한 벌이라 해야 할것이다.

  * 경기체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시가형식의 하나로서 노래가사에 《경긔 엇더하니 잇고》라는 구절이 있는데로부터 《경기하여체가》, 《경기체가》라고 부른다.
  13세기초 첫 작품인 《한림별곡》이 창작되였는데 그 제목을 따서 일명 《한림별곡체》라고도 한다. 여러개의 분절로 이루어진 경기체가는 매 분절이 6구로 되여있으며 락구를 가지는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휘가 어려운 한문투로 씌여지고 주로 량반문인들의 유흥정서를 노래한것으로 하여 광범히 보급되지 못하다가 16세기에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전하는 유산가운데서 비교적 우수한 작품으로는 안축의 《관동별곡》을 들수 있다.

탐관의 시를 깎아버린 최해

동래현(현재 경상남도 부산시)의 해운대는 바다의 일망무제한 장관이 한눈에 안겨들고 동백나무와 두충나무, 소나무 등이 울울창창히 자라 푸른 기상을 자랑하는 동해일판의 명승중의 하나이다.

이 루대는 후기신라시기의 유명한 시인 최치원이 신라왕실의 배척을 받고 외직으로 밀려나있을 때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그 이름도 자기의 호(해운)를 따서 붙인것이다.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고려 후반기에 최치원의 먼 후손인 최해(1287－1340년)가 이곳을 찾은적이 있었다.

때마침 봄계절이라 활짝 피여난 동백꽃향기가 싱그럽게 코를 찌르고 시원한 바다바람에 도포자락이 가볍게 날리였다.

그러나 자연의 이 상쾌한 정경과는 달리 최해의 심중은 가볍지 못하였다.

일찌기 해동의 시선으로 문명을 떨친 최치원의 후손이건만 자기는 지금껏 후세에 남을만 한 시 한편 변변한것을 지은것이 없고 벼슬살이도 순탄치 못하였던것이다.

원래 최해는 문장이 남보다 뛰여났고 포부도 큰 사람이였으나 성격이 곧은목인데다가 행동에 절제가 없고 그릇된 일을 보면 말을 맞대놓고 하기때문에 여직껏 큰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였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민부 원외랑을 지내던 아버지 최병륜이 왕의 비위를 거슬려 고란도로 귀양을 가게 되여 이래저래 가세가 기울어지더니 이제는 조반석죽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말았다.

루대의 란간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끝간데없이 펼쳐진 일망무제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최해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시구가 흘러나왔다.

나의 옷은 솜누데기
남의 옷은 비단갖옷
남의 집은 고대광실

나의 집은 오막살이
하늘이 사람낼 때
고르지 못했던가
내사 남을 탓하랴만
남들이 나를 수모하노라

읊기를 마친 최해는 북받치는 슬픔에 못이겨 장탄식을 거듭하였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샘터에 물길러 내려갔던 하인 하나가 헐썩이며 올라오더니 다른 하인에게 볼부은 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아따, 글쎄 이리로 오는데 웬 장교 하나가 막 야단하며 돌아가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가 하는 말이 뭐 오늘은 이곳에 잡인들의 통행을 엄금하게 하라는 만호나리의 령이 내렸다나.》

《별꼴 다 보겠군, 대체 무슨 금덩이라도 여기에 감췄나?》

《하여간 그 으시대는 품이 여간 아닙데.》

하인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듣던 최해는 부쩍 호기심이 났다.

《자세히 아뢰여라, 거기서 뭣들 한다구?》

《예, 복색을 보니 여기 수영군관 같았소이다. 그런데 그 장교가 소나무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무언가 새기고있던뎁쇼.》

《무지하도다, 소나무에 글을 새기다니.》

최해는 즉시 하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얼마쯤 내려가느라니 하인이 말하던 그 수영장교가 한참 일을 마치고 흐뭇하니 서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그대들은 여기서 뭣들 하느냐?》

일부러 엄엄하게 목청을 돋구자 장교는 와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옷갓이 단정하고 틀진 행동거지로 보아 보통량반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였던지 장교는 넙적 엎드리며 고했다.

《소관은 합포진소속의 교위이온데 어제 만호나으리께서 여기에 유람을 나오셨다가 읊으신 시를 제가 지금 이 나무에 새기고있는중이올시다.》

《만호가 누군데?》

《장선이라 하옵니다.》

《뭐라구? 장선이라구? 그럼 일전에 광주목사를 지냈던 그 장선이란 말이냐?》
《그렇소이다.》
최해는 순간 눈에 퍼런 불이 일었다.
장선, 그 이름을 최해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바로 권세가들의 겨드랑이에 붙어 뢰물 섬기기에 미쳐 부임지마다에서 토색질이 지독하기로 소문이 났던자였다.
그자가 얼마전에 여기 합포진의 만호로 부임했다는것을 최해도 들은적이 있었다.
혐오감이 치솟은 최해는 장교가 금방 나무에 새겨넣은 장선의 시를 쭉 훑어보았다.
시에는 해운대를 찾아 한껏 술판을 즐기고난 자만자족의 기분이 잔뜩 담겨있었다. 최해는 누구에게라없이 탄식조로 말했다.
《슬프다, 나무여. 무슨 액운을 만나 이런 나쁜 시를 받아안게 되였는고.》
최해는 교위에게 글을 새기던 칼을 달래가지고 무작정 나무에 새긴 시를 깎아내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런…》
교위는 급기야 비명을 지르며 최해의 팔에 매달렸다.
《이 무슨짓이오이까? 만호나으리의 시에 칼질을 하시다니요?》
그러나 최해는 막무가내로 《이따위 시는 콱 긁어버려야 해. 그 더러운 놈의 시를 어찌 선조들의 순결한 넋이 깃들어있는 이곳에 새겨둘수 있단 말이냐.》 하고 노기띤 소리를 질렀다.
장교는 최해의 서슬푸른 기상에 눌리워 비실비실 뒤걸음치더니 《어디 두고보자. 우리 만호나리께서 네놈들을 가만둘줄 아느냐!》 하고 씨벌이더니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그 꼴을 본 하인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치였다.
그러건말건 최해는 더욱 손에 힘을 줄뿐이였다. 마치 장선의 더러운 속통을 우벼내기라도 하는듯…
마지막 한자까지 남김없이 다 깎아버리고난 최해는 하인들에게 흙을 담아오게 했다.
《이젠 흙을 날라다가 이 나무의 상처를 메꾸어야지.》
그러자 한 하인이 근심어린 어조로 말했다.

《나리님, 듣자니 이 아근에 장선의 세도를 당할자가 없고 그 위인이 또한 포악스럽기 그지없다는데 혹시 후환이 있지 않겠는지요? 》

다음순간 하인은 최해의 무서운 눈초리에 부딪쳐 화닥닥 놀라 입을 봉해버리였다.

《내 어찌 대장부로 그따위 놈의 서슬에 주접이 들겠느냐? 잔말말고 냉큼 가서 흙이나 파오너라!》

하인들이 흙을 파오자 최해는 직접 자기 손으로 물을 추긴 다음 정성껏 나무에 발라주었다.

한편 오금에 불이 일게 달려온 교위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장선은 성이 독같이 나서 펄펄 뛰였다.

《무엄할지고, 그 잘난 학관놈따위가 나를 욕보이다니. 그 최해란 놈은 원래 그렇다치고 대체 네놈은 죽기로서 항거하지 못하고 도리여 쫓겨온단 말이냐?

이 사지를 찢어죽일놈같으니.》

장선은 당장에 교위에게 매 수십대를 안기게 하고는 군영의 날랜 군교 서너명을 데리고 급히 해운대쪽으로 달려올라갔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최해의 일행이 안동쪽으로 가버린 뒤였다.

아무 흔적도 없이 번번해진 소나무를 보는 장선은 너무도 억이 막혀 이를 박박 갈았다.

이 이야기는 즉시 린근에뿐아니라 개경에까지 퍼져 당대 문인선비들속에서는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최해는 그후에도 권세를 믿고 거들먹거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풍자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의 이러한 성품이 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성격을 눅잦히라고 권고하면 최해는 더욱 화를 내며 자기의 대쪽같은 성품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성품으로 하여 당시 통치배들은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가하였고 결국 최해는 아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자산절간에 들어가 살다가 생을 마치였다.

비록 불우한 생이였으나 대바른 성품은 평생 그의 자랑이였다.

림종을 앞두고 쓴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인 《예산은자전》에서 최해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와 상종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였고 상종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자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나의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다.》

김황원의 《부벽루》시를 뒤이은 권한공

12세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였던 김황원의 시 《부벽루》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문장가라고 자처하던 권한공이 끝맺지 못한 김황원의 시 《부벽루》를 뒤이어보려다가 후세문인들의 비난거리가 된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

권한공으로 말하면 고려 26대왕인 충선왕(1309－1313년)때의 사람으로서 호는 일재이며 안동태생이다.

그는 충선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도첨의정승이라는 높은 관직을 지냈으며 리제현을 비롯한 이름있는 문인들과도 교제가 깊었다.

그의 시와 문장들은 모두 순탄하여 막힘이 없었으므로 충선왕은 그와 시를 주고받기를 즐겨하였다.

당시 그는 시와 문장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부하고있었다.

보슬비 내리는 어느해 가을 그는 일찌기 시와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해동제일》이라는 호칭까지 받은적 있는 명사였던 김황원의 시 《부벽루》 한수를 보게 되였다.

길게 뻗은 성벽의 한켠엔
강물이 늠실늠실
아득한 벌판 동쪽켠엔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이 시는 한때 김황원이 부벽루에 올라 고금의 허다한 재사들이 써붙인 시편을 다 보고나서 자기의 뜻에 차지 않아 모조리 떼여 불지른

다음 종일토록 란간에 기대여 고심하던 끝에 다만 이 시 한구를 얻었을뿐 그만 다음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붓을 꺾어버리고 통곡했다는 일화를 남겨놓은 시였던것이다.

그는 김황원의 일화를 듣고 시를 마무리하지 못한것을 가지고 무에 그렇듯 통곡할거야 있는가고 조소하며 자기가 그의 시를 뒤이어 평양의 절승경개를 노래하리라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다.

갈매기 노는 강물우엔
보슬비 부슬부슬
송아지 뛰는 언덕 남쪽엔
산봉우리들이 우뚝우뚝

그는 이렇게 시를 마무리짓고 재사로 소문난 김황원을 자기가 뛰여넘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15세기의 유명한 문인이며 평론가인 서거정은 《동인시화》라는 자기의 저술에서 《권한공의 시구가 김황원의 시를 뒤이었다고 뻐젓이 말할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평하였다.

서거정의 이 시평에는 《갈매기 노는 강물》, 《송아지 뛰는 언덕 남쪽》이라는 표현으로야 어찌 평양의 절승을 다 담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야유의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결국 권한공은 김황원의 시 《부벽루》를 완성하려고 하다가 시로써는 결코 평양의 절승경개를 다 담을수 없다는 일화속의 일화만을 남겨놓게 되였다.

리제현에 대한 일화

리제현(1287－1367년)은 고려시기를 대표하는 재능있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호는 익재 또는 력옹이라고 하였다.

그는 오래동안 해외에 나가있으면서 수많은 시와 산문을 썼고 귀국한 이후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창작을 계속하였다.

왕을 곤경에서 구해준 이야기

리제현이 어느해인가 임금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있은 일이였다.

고려임금이 책과 학문을 몹시 좋아했던지라 그곳 학자문인들이 자주 왕래하며 옛 문장가들의 글이며 고금의 력사에 대해 상담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곳 문인들이 시를 지어 고려임금에게 바쳤다.

그래서 임금도 답례로 시 한수를 지어주었다.

임금이 쓴 시에는 《닭의 울음소리는 흡사 문앞의 버들이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시를 읽어본 사람들은 시문에 조예가 깊은 임금이 이 시구에 무슨 깊은 뜻을 담은줄 알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구절은 옛글의 어느 구절에서 가져다쓰신것이온지 가르쳐주셨으면 하옵니다.》 하고 물었다.

하지만 임금은 대답이 궁했다.

그 시구는 어느 옛글에서 따온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것을 그대로 적었을뿐이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곳의 문인들은 시를 지을 때 옛글이나 고사에서 따온 내용을 가지고 지은 시라야 잘된 시로 인정하고있었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리제현이 임금의 딱한 사정을 인차 눈치채고 사태를 수습하였다.

그는 태연하면서도 의젓하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붕우에 해가 뜨니 /누런 닭이 울음을 운다/ 꼬끼요 길게 뽑는 소리/ 늘어진 버들가지처럼 길구나〉 이 시에서는 닭소리를 버들가지의 가늘고 긴데 비기고있지요. 우리 임금님께서 지으신 시의 구절은 바로 여기서 따온것입니다.》

리제현은 계속하여 이렇게 덧붙였다.

《옛날 당나라 시인 한유도 거문고를 노래하면서 〈뜬 구름 버들꽃은/ 뿌리도 꼭지도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문고를 버들꽃에 비긴것이 아니겠습니까.》

리제현의 이 말을 들은 그곳 문인들은 그의 박식과 정연한 론리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리제현이 이때 우리 나라의 시라고 인용한 시는 실지로 있었던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은 시였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기발한 재능과 풍부한 식견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이 일화를 기록하고있는 《청비록》의 필자는 리제현의 답변에 대하여 《임금의 궁색함을 풀어주고 가히 나라를 빛내였다고 할만 하다.》라고 썼다.

리제현의 충의심

리제현이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온 직후에 있은 일이였다.

충선왕은 원나라에 가서 한 녀인과 알게 되였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 녀인은 멀리까지 따라나와 바래주었다.

왕은 그와 헤여지기 아쉬워하면서 련꽃 한송이를 꺾어주고 왔다. 조국에 돌아온 이후부터 왕은 그 녀인이 그리워 나라일에 정력을 쏟아붓지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녀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여 견딜수 없었던 왕은 리제현에게 한번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하였다.

리제현이 원나라에 가서 그 녀인을 찾아가니 그는 충선왕을 그리워하던 나머지 자리에 누워 앓고있었다.

충선왕의 소식을 들은 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기뻐하였으나 힘이 진하여 말은 하지 못하고 겨우 붓을 들어 시 한수를 써주었다.

주고가신 련꽃송이
붉고붉어 싱싱하더니
꺾은지 몇날이던가
시들기 나와 같네

리제현이 돌아오자 충선왕은 그리운 그 녀인과 만나는듯이 반가와하며 그의 소식을 물었다.

《그가 잘 있더냐?》

《네, 잘 있소이다.》

《그래 어떻게 지내더냐? 아직 나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있을테지?》

《그랬으면 제 마음도 기뻤을텐데…》

《그런데 어쨌단 말이냐?》

《말씀 올리기 거북하옵니다마는 제가 그 녀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술집에서 젊은 사내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고있었나이다.》

《뭐라구?》

《그래 조용한 틈을 타서 겨우 만나 여기 소식을 전하고 다음날 만나자고 하였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뒤 종적을 찾지 못해 여러날 헤매다 그냥 돌아왔나이다.》

《에익, 더러운 년.》

왕은 침을 탁 뱉았다.

《내가 타국의 녀자에게 정을 붙인게 잘못이지. 그런줄 모르고 여직 그를 생각하고있은게 분하구나!》

왕은 그후부터 녀인에 대한 생각을 잊고 나라정사에 전심전력하였다.

몇해가 지난 뒤 왕의 생일날이였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차례가 되자 리제현은 앞에 나가 엎드리며 사죄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주소이다.》

《죄라니? 그게 무슨 소린고?》

이때에야 리제현은 일전에 그 녀인이 써주었던 시를 품안에서 꺼내여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전후사연을 아뢰이며 죄를 청했다.

녀인의 시를 한동안 들여다보고난 왕은 천천히 다가와 엎드린 리제

현의 팔을 잡아일으켜세웠다.

《그대가 그때 이 시를 주었더라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갔을 것이로다. 허지만 경은 나를 사랑하여 이런 일을 꾸미였으니 내 대업을 이어가는데 허물을 막아주었구나. 그러니 경의 나라에 대한 충의심을 감사히 여길뿐이다.》

그리고는 리제현이더러 술을 붓게 하고 또 그에게 자신이 직접 술을 부어주었다.

* 리제현의 《익재란고》중에서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도 높으며 체험하는바가 열렬하면 지키는 바도 확고하다.》

《말은 엄정하게 하고 뜻은 새롭게 해야 한다.》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차거운 눈바람이 울부짖는 한겨울의 어느날 밤, 원나라의 도읍 대도(오늘의 베이징)에 머무르고있던 고려서장관 림박의 처소로 한무리의 말 탄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림박에게 한첩의 그림병풍을 내보이며 말했다.

《덕흥군께서 료양으로 떠나기 앞서 그대에게 보내는것이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순종의 글월을 올리든지 아니면 목을 바치라는 분부요.》

네폭짜리 병풍에는 사계절풍경이 그려져있었다.

만산을 뒤덮은 일만꽃이 향기 그윽히 풍기는 봄계절과 구름에 잠긴 층암절벽과 록음속에 뭇새들이 지저귀는 여름, 단풍이 붉게 타고 벽계수에 비친 달빛 아름다운 가을과 눈꽃으로 뒤덮인 겨울의 설경. 태연자약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림박은 덕흥군이 왜 이 병풍을 자기에게 보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때는 1363년(공민왕12년), 겉으로나마 평온하던 고려—원나라관계가 첨예한 대결상태로 급변하던 시기였다.

7년전인 1356년에 고려정부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전횡을 부리던 기철일당을 일거에 축출하고 원나라의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중서성리문소를 페지하였으며 있을수 있는 사변에 대처하여 대담하게 압록강을 건너가 3개의 요새를 들이쳤다.

이에 당황한 원나라는 고려의 강경한 태도를 무마시키려고 겉으로 회유책을 쓰는 한편 은밀히 침략준비를 서둘렀다.

특히 기철의 누이동생인 기황후(당시 원나라 순제의 처)는 오라비의 복수를 운운하며 고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원나라는 1351년 고려에서 중살이를 하다가 도주한 왕탑사첩목아(고려 26대왕 충선왕의 서자)를 덕흥군으로 봉하고 같은 반역자인 최유에게 벼슬을 주어 길잡이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수만명의 군사를 편성하여주었다.

그런데 이때 고려는 련달아 들이닥치는 왜구와 홍두적의 침습을 막아내느라 힘겨운 싸움을 겪은 뒤였으므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바야흐로 엄혹한 결전을 또다시 눈앞에 둔 고려는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리공수를 사신으로, 림박을 서장관으로 하는 사절단을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원나라 봉건정부와 덕흥군일당은 그들을 제편으로 끄당기려고 각방으로 획책하였다.

그들가운데서 적들의 검은 마수가 제일 우심하게 뻗친것이 바로 림박이였다.

안동부 길안현에서 태여난 림박은 1360년 과거급제하여 개성참군으로 임명된 후 다음해인 1361년 홍두적이 우리 나라에 침입하여 오자 김득배의 참모로 되여 용의주도한 계책을 꾸며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문장이 뛰여나고 란리통에 인멸될번 하였던 귀중한 력대문헌들을 제때에 수습보존하여 봉건정부로부터 큰 신망을 얻고있었다.

급제한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그가 사신단의 주요인물인 서장관의 중임을 맡은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원나라 순제는 림박을 만난 자리에서 공민왕을 페위시키고 덕흥군을 대신 왕으로 삼는다는 저의 칙서를 알리면서 오만하게도 그에게 덕

흥군과 손잡고 고려침략에 나설것을 강박하였다.

격분한 림박은 《우리가 만일 중노릇이나 하던자를 임금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녀자가 남편을 배반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단호히 배격하였다.

림박이 호락호락 굽어들지 않자 원나라와 반역자들은 비렬한 수법에 매달렸다.

놈들은 졸개인 통역관 리득춘을 거짓도망케 하여 고려정부에 리공수와 림박이 원나라 벼슬을 받고 조국을 배반하였다고 거짓보고하게 하였다.

그의 말에 속아넘어간 공민왕은 즉시 림박의 벼슬을 떼고 돌아오면 엄히 다스리라는 어지를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덕흥군은 흐뭇한 기분으로 림박을 제집으로 불러다 사태를 알려주었다.

순간 림박은 하늘이 무너지는듯 눈앞이 아찔하였다.

(천하에 너절한 놈들…)

덕흥군은 억이 막혀 말을 못하는 림박을 주시하며 달콤한 말로 구슬리기 시작하였다.

《그대가 아무리 뻗대봐야 이젠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되였네. 이래도 저래도 역적이 되기는 매한가지이니 차라리 나를 받들어 천하를 다스려보지 않겠나. 내 이제 고려의 주인이 되면 그대에게 전리총랑 벼슬을 주지.》

이때 덕흥군은 고려의 사계절풍경을 그린 병풍을 내보이며 벌써부터 이 금수강산의 주인이 다 된듯이 으시대였다. 하지만 림박의 태도는 오직 한본새였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결코 네놈을 따르지 않겠노라.》

화가 동한 덕흥군은 평상을 탕 치며

《네가 만약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멸화가 조석에 달린 고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그림의 실제주인이 되든가 아니면 역적으로 죽어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이것이 불과 며칠전의 일인데 덕흥군은 정말 최후통첩을 보내온것이였다.

생사를 결단해야 하는 림박의 심중은 참으로 착잡하였다.

덕흥군의 말대로 설사 절개를 지켜 죽는대도 어차피 이 몸은 조국

을 배반한 반역자로 되고말것이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림박은 무거운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다시 병풍에 눈을 돌렸다.

그림으로나마 정든 고려의 산천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세차게 울렁이였다.

(이게 대체 어떤 땅인가.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겨레들이 목숨도 서슴없이 내던지며 지켜낸 성스러운 땅이 아닌가. 그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이 땅을 원쑤들이 노리는데 내 고려의 아들로 감히 저들의 요구에 따라설수 있겠는가.)

림박은 순간이나마 일신의 생명을 저울질해본 자신이 부끄러웠다.

절컥거리는 병장기들의 아츠러운 소리를 귀등으로 흘리며 림박은 탁자우에 놓인 붓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어림도 없다. 내 설사 역적으로 저승귀신이 된다 해도 좀벌레같은 네놈들처럼 고려의 넋을 더럽힐수 없다.)

그리고는 병풍에 활달한 필체로 시를 적어나갔다.

정의를 버리고 리속을 따르는자들
큰산도 터럭만치 가벼이 여긴다네
채찍을 내던지고 강을 건너가라건만
땅바닥에 그린 떡은 헛수고뿐이로다
독을 얻고 춤출 때 뉘라서 깨여질줄 알았으랴
풍악소리 요란한통에 한수 보자고 덤비누나
그림으로 남의 눈을 흐리게 말거라
자연의 바위병풍을 나는 사랑하노라

단숨에 시를 쓰고난 림박은 덕흥군의 허리를 분지르듯 붓대를 와락 꺾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자, 이젠 내 머리를 잘라다 그 역적놈에게 바쳐라.

그리고 단단히 일러라. 이 림박이 결코 제 어머니도 모르는 개같은 무리에게 끼우지 않을테니 제놈도 개꿈을 버리고 머리를 고려에 바치란다고.》

추상같이 꾸짖는 림박의 기상에 덴겁한 군사들은 병풍을 걷어가지고 뺑소니를 쳤다.

뒤미처 사신 리공수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좀전에야 림박의 방에 덕흥군이 보낸 군사들이 몰려들어갔다는 소식에 접하고 오는 길이였다.

지금쯤 그가 목없는 귀신이 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안에 들어선 리공수는 태연히 서있는 림박을 보고 눈이 휑해졌다.

《아니, 끝내 덕흥군의 위협에 굽어든게 아니요?》

얼떠름해하는 리공수의 모습에 림박은 호탕한 웃음을 터치였다.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하였거늘 내 어찌 그만한 서슬에 지조를 꺾으리까. 그놈이 아마 내가 지어보낸 시를 보면 혼비백산할거웨다.》

리공수는 림박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다가 근엄한 안색으로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녘하늘가를 바라보았다.

덕흥군과 같은 매국역적들때문에 또 한차례 시련을 겪어야 할 조국이 마음에 걸려서였다.

말은 없었으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내 나라 고려여, 부디 이 시련을 이겨내고 동방의 강국으로 영세불멸하여라.)

바로 이즈음 살이 쩡쩡 얼어터지는 압록강우로 람루한 행색의 두사람이 넘어가고있었다.

이들은 긴급한 적정과 구체적인 대책안을 적은 통지문을 가지고 고려를 찾아가는 림박과 리공수의 하인 정량과 손원이였다.

＊ 1364년 1월 덕흥군과 최유를 앞세우고 고려에 기여들었던 원나라 침략군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있던 최영장군의 정예부대에 의해 수주 달천(현재 정주)에서 완전히 전멸당하였다.

심각한 패배를 당한 원나라통치배들은 마침내 고려의 요구에 굴복하여 림박과 사신단성원들을 돌려보냈고 반역자들을 제손으로 묶어바치며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귀국후 림박은 중서사인, 대사성 전교, 차자방 지인 등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국가정사에 공헌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원나라의 이름있는 문인이였던 위소라는 사람은 림박의 병풍시를 보고 《요새 세상에도 이런 충신과 절개있는 선비가 있구나.》 하고 못내 감탄하였다고 한다.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이다

목은 리색(1328－1396년)은 고려말기 봉건정계의 거물급의 한 사람으로, 철학과 력사학에 조예가 깊은 이름있는 학자,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리색은 일찌기 젊은 시절부터 벌써 시로써 두각을 나타냈고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까지 시재로 널리 알려졌다.

1348년 어느 가을날이였다.

20살의 리색은 정든 조국과 멀리 떨어진 원나라의 수도에서 그 나라의 이름있는 문사들과 마주서게 되였다.

리색에 비해서는 나이도 많고 문장에 있어서는 제노라 하는 그들이였다.

이러한 그들이였기에 고려에서 온 애젊은 서생인 리색을 얕잡아보았다.

그래서 리색앞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시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구를 내놓고 그에게 대구를 요구하였다.

잔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큰줄 알리로다

바다와 같이 넓은 대륙에 왔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물정에 밝아짐을 스스로 인정하라는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머리숙이고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속대사가 짙은 시구였다.

조롱기가 풍기는 시구의 이러한 속대사를 리색이 모를리 없었다. 진짜로 시야가 트이지 못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것은 누구들인데 감히 누구를 훈시하려 들다니.

리색은 그들이 허장성세하는 꼴이 가소로왔다.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주눅이 들어 우물쭈물한다면 그들이 더 기고만장해질것이다.

리색은 자존심이 강하게 일어나는것을 의식하며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대구를 내놓았다.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고는
하늘이 작다고 한다네

만만치 않은 자존심과 기발한 비유가 들어있는 리색의 이 재치있는 시구앞에 원나라 문사들은 대번에 기가 꺾이였다.

고려의 젊은 선비를 우습게 알고 접어들었다가 오히려 망신만 톡톡히 당한셈이였다.

그런즉 리색이 원나라와 그 나라 문사들을 알지 못한것이 아니라 그들이 리색과 고려를 모른것이고 그들에게서 리색이 배운것이 아니라 리색이 그들을 가르친것이였다.

리색이 평범한 서생이 아님을 알게 된 그들은 호기심이 많아졌다.

처음으로 온 낯설은 이역땅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든든한 배심과 문장에서 제노라 하는 자기들을 무색케 한 뛰여난 시적재능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알고싶었다.

그래서 쑥스러운감을 느끼면서도 자세를 낮추며 리색이 제일 사랑하는 시가 무엇인지 알고싶다고 청하였다.

이에 리색은 조국을 떠나오기에 앞서 평양에서 지은 5언률시 《부벽루》를 소리높이 읊었다.

어제는 영명사를 지나고
오늘은 부벽루에 오르니
고요한 성우에 쪼각달 걸리고
바위돌엔 천년이끼 덮이였구나
기린마 떠난 후로 돌아오지 않으니
단군은 어데 가서 머무르고있는지…
돌란간에 기대여 휘파람 불제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누나

얼핏 보면 부벽루일대의 밤풍경을 읊은듯 한 풍경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시에서 리색은 중요한 력사적사실을 노래하였으니 그것은 기린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관련한 사적이다.

즉 평양에서 나서자라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일떠세워 민족사의 시원을 개척한 단군의 사적을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더듬어보았던것이다.

결국 리색은 이 시를 통해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단군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자기를 자존심 강한 인간으로도 되게 하였고 뛰여난 시적재능도 내 나라 고려를 빛내가려는 애국적지향에서 움트고 자란것임을 웅변적으로 시사하였다.

리색의 시랑송이 끝나자 원나라 문인들은 그의 높은 민족적자존심에 감탄하여 박수갈채를 보냈다.

정 몽 주

《상사곡》

정몽주(1337－1392년)는 그의 유명한 시조 《단심가》와 함께 고려왕조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충신으로 력사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흔히 정몽주라고 하면 성격이 강직하고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다정다감하고 엉뚱한 생각을 잘하여 사람들을 곧잘 웃기군 하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이러한 성격을 전하는 일화가 있다.

정몽주가 아홉살되던 해에 있은 일이였다. 외가집에 놀러갔던 어린 정몽주에게 한 젊은 녀인이 찾아왔다.

녀인은 부탁할 일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인차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는것이였다.
그에게 그 무슨 사연이 있다는것을 눈치챈 정몽주는 무슨 할 말이 있는것 같은데 어서 하라고 친절히 말했다.
그러자 그 녀인은 점직한 안색으로 편지 한장을 써줄수 없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녀인의 사연인즉 멀리 나가있는 남편에게 문안편지를 보내야겠는데 글을 알지 못하여 안타깝다는것이였다.
한창 글공부에 재미를 붙이고있던 정몽주는 자기의 재주를 시험해볼만 한 일이 없을가 하고 생각하던차인지라 두말없이 그에 응했다.
정몽주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늘어진 눈꼬리에 담으면서 어느새 붓과 먹통을 꺼내고 두루마리종이를 펴들었다.
그리고 손에 익은 솜씨로 몇자 적어 봉한 다음 녀인에게 내주었다.
그런데 녀인은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기색으로 편지를 손에 받아쥔채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여 소년에게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지금 자기의 마음은 천장만장의 종이에 깨알같이 박아적어도 다 담을것 같지 못한데 어찌하여 편지에는 글자가 몇자밖에 안되느냐 하는것이였다.
녀인의 말을 들은 정몽주는 다시 편지를 받아 봉투를 쭉 찢고 글 쓴 종이를 펼쳤다.
소년은 몇자 안되는 편지를 들여다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머금었다.
소년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본 녀인은 아마 이번엔 자기 마음속의 사연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적어주려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눈으로 소년이 다시 붓대를 꼬누어드는것을 살펴보았으나 이번에도 그는 몇자밖에 더 쓰지 않고 다시 편지를 봉하는것이였다.
녀인은 마음에 차지 않았으나 어린 소년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것 같아 아쉬운대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돌아섰다.
그리하여 그 편지는 그대로 녀인의 남편에게로 전달되였고 곧 글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편지를 읽어준 사람은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글이 퍽 마음에 들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달은 찼다가도 기울지만
안해의 마음 변함이 없소이다

이것이 정몽주가 처음에 써주었던 편지의 내용이였다.
실상 이 말이면 안해의 간곡한 심정을 유감없이 표현했다고 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녀인이 더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덧붙이였다.

봉한것을 다시 뜯고 한마디만 더 씁니다
세상에 병이 많다 한들 상사병만 하오리까

소년 정몽주의 이 짧은 편지체문장은 그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것이 바로 님을 그리는 노래—《상사곡》이였다.

《단심가》

1392년 초봄 어느날, 리성계의 다섯째 아들 리방원(후에 리조 3대왕 태종이 됨.)은 자기 집에서 주연을 베풀고 시중 정몽주를 초청하였다.
리방원이 정몽주를 주연에 초청한것은 고려왕조에 충실한 그의 마음을 떠보고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겠는가 아니면 제거해버리겠는가 하는 최종결심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이때로 말하면 리성계일파가 이미 국가의 실권을 틀어쥐기 위해 창왕을 내몰고 정창군을 왕으로 내세운 뒤로서 신구세력의 정치적대립이 극도에 이르고 고려왕조의 멸망이 조석에 달린 시기였다.
리성계는 1391년에 도총제사가 되여 군사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

였고 새 왕조수립의 경제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전법을 실시하는 등 정권욕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고려왕조에 충실한 정몽주, 리색 등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리하여 리성계일파는 음모적방법으로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한편 정몽주와 같이 아직 세력이 강하고 사람들속에 신망이 높은 인물들을 자기편에 돌려세우기 위해 회유의 미소를 던지기도 하였다.

리성계일파의 검은 속심을 이미전부터 간파하고있던 정몽주는 리방원에게서 주연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자 자기에게 운명적인 시각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연에 참석하였다.

술이 몇순배 돌아가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어지간히 거나해졌을 때였다. 리방원이 술잔을 들어 정몽주에게 권하며 말했다.

《시중어른, 이 좋은 좌석에서 그저 술만 마시겠소이까? 우리 노래나 지어부르면서 흥을 돋구어보는것이 어떻소이까?》

《좋도록 하시구려. 거기서 먼저 한가락 뽑으면 나도 수창하리다.》

이에 리방원이 들었던 술잔을 비우고나서 시조 한수를 읊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같이하리라

이것은 고려왕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들과 손을 잡자는 회유의 뜻을 담은 시조였다.

(네놈들이 내앞에서 드디여 본색을 드러내놓는구나. 그래 나더러 절개를 꺾고 네놈들처럼 너절한 배신행위를 하란 말이지. 안된다. 열백번 고쳐죽는 한이 있더라도 역적은 될수 없다.)

정몽주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의분을 애써 누르며 태연히 화답하는 시조를 읊었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이 시조에서 고려왕조에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의리와 절개는 죽음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엄숙히 노래하였다.

이날 정몽주는 주연을 파하고 돌아오던 길에 개성 선죽교에서 리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에 의해서 철퇴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였다.

* 시조

고려시기에 향가를 비롯한 선행민족시가형식을 계승하여 나온 독특한 민족시가형식으로서 《시절가》, 《시절단가》 등으로도 불리웠다. 시구조상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로 이루어져있는데 매개 장은 한개 시행으로, 한 시행은 두개의 구로 이루어진다.

음수률은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정연한 규칙성을 가지며 구체적작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시조는 중세기에 창조된 민족고유의 시가형식가운데서 존속기간이 가장 오래고 민족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형시가형식으로서 오랜 세기를 두고 여러 사회계층속에서 광범히 창작되였다.

정도전의 시기심

예로부터 사람은 마음이 고와야 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마음이 곱지 못하고 품성이 바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그의 재능도 응당한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삼봉 정도전(1337－1398년)은 고려말－리조초에 활동한 정치가일뿐아니라 시문에도 재능이 있는것으로 알려진 문인이였다.

그는 당대에 명망높은 문인이며 유학자인 목은 리색에게서 글을 배워 시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그러나 정도전은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자기 재능을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자기보다 시문에 뛰여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몹시 시기

하였다.

당시 문단에서는 정도전과 함께 도은 리숭인이 쌍벽을 이루는 우수한 시인으로 평가되고있었다.

리숭인의 시들은 청신하면서도 정서가 은은하고 뜻이 깊으나 웅건한 기상이 없는것이 흠이였다.

반면에 정도전의 시들은 주정이 강하고 호방하나 섬세하고 세련되지 못한것이 결함이였다.

스승인 리색은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있는 두사람의 시들을 공정한 립장에서 자주 대비하여 평가하군 하였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리숭인의 시가 우수한것으로 평가되는것으로 끝나군 하였다.

정도전은 이에 몹시 불만을 품고있었다.

(도은의 시가 무에 그리 훌륭하단 말인가.

특별히 삐여져나온데가 없이 그저 평범하고 말마디나 요리조리 잔재간을 부려 엮어놓았을뿐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것이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삼봉을 우습게 알고 도은에게 편견적으로 대하는것이 분명해.)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약점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압도하는 리숭인에 대한 미운 마음과 시기심만 나날이 더해갔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날 정도전이 집안에 누워있는데 조카인 황현이 찾아왔다.

황현은 당시 문명이 높았던 삼촌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의문되는것이 있으면 자주 찾아와 묻군 하였다.

이날도 정도전은 그가 그일때문에 왔겠거니 하고 심상히 여기고 다른 생각없이 누운채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황현은 종이말이 하나를 들고들어와 누워있는 정도전에게 다짜고짜 일어나라고 하는것이였다.

《삼촌, 제가 아주 훌륭한 시를 하나 베껴왔는데 한번 보시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도전은 이제야 시문을 배우기 시작한 조카녀석이 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코웃음을 치며 그냥 눈을 감고 들을념도 하지 않았다.

황현은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는 정도전을 야속한듯 바라보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읊을테니 들어보세요. 제목은 호종시(임금의 거가를 모시고 감을 읊은 시)예요.》

드높은 풍악소리에 푸른 강물 진동하고
펄럭이는 기발아래 밝은 해빛 흐릿해라
글 잘하는 신하들 많이도 따라섰네
임금님께 우잠들을 때로 써드리도다

황현이 읊기를 마치자 정도전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앉으며 다시 한번 읊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가 읊는 시를 귀를 기울여 들으며 깊이 음미하여 보았다.

5언절구시의 특성에 맞게 음운과 운률을 잘 보장하면서 내용을 정서적으로 표현한 이 시는 대번에 정도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신한 느낌을 주는 시였다.

《어, 과시 훌륭하다. 네가 이제는 제법 좋은 시를 가려볼줄 아는구나. 그 시를 보건대 어운이 맑고 아름다와 우리 사람들이 쓴 시 같지는 않구나. 아마 당나라의 시인 모양이지?》

정도전이 시의 대가답게 점잖은 어조로 평을 내리자 황현은 재미있다는듯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예요, 틀렸어요. 삼촌, 이 시는 당나라의 시가 아니라 첨서리숭인선생이 지은것이예요. 내가 일전에 그 선생네 집에 놀러갔다가 이 시를 베껴왔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정도전은 그만 쓴 입을 다시였다.

그러니 어망결에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리숭인의 시를 찬양한셈이였다.

옆에서 새물새물 웃고있는 조카녀석이 마치도 자기를 우정 골탕먹이려고 한것같아 골이 났다.

정도전은 화풀이로 시를 쓴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며 욕질했다.

《이놈의 자식, 하필이면 베껴올 시가 없어서 그런 못된 시를 얻어

왔단 말이냐.》

정도전의 태도는 금방 매라도 들것처럼 무서웠다. 황현은 삼촌의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에 기가 질려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한채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듯 리숭인의 재능을 시기하던 정도전은 그후에도 어떻게 하면 그를 누르고 올라설수 있을가 하고 모대기며 골머리를 앓군 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마땅한 기회가 차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정도전은 스승인 리색이 리숭인이 지었다는 《오호도》시를 보고 극구 찬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렇지, 됐다. 이번 기회에 나도 《오호도》시를 지어 스승에게 보이자. 만일 스승의 평가를 잘 받기만 하면 도은의 코가 납작해질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허술히 대하지 못할테지.)

그날부터 정도전은 시짓기에 많은 정력과 시간을 바쳤다.

야심을 품고 짓는 시인지라 그는 쉽사리 내놓지 않고 며칠을 두고 시어를 다듬고 시구를 잘 엮어 자기로서는 보기드문 《걸작》을 만들었다.

마침내 시를 완성한 정도전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종이에 그것을 정히 써가지고 스승을 찾아갔다.

이번에야말로 자기의 성공이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혹시…) 하는 우려감도 없지 않았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자기 이름을 숨겨두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는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리색에게 자기가 지은 《오호도》시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제가 우연히 옛 사람들의 시고를 탐독하다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과히 졸작은 아닌듯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어디 좀 보세나.》

리색은 정색하여 시를 받아들고 거듭거듭 음미하며 읽어내려갔다.

곁에서 안타까운 눈길로 리색의 얼굴을 살피는 정도전의 심정은 천근짜리 추라도 매달아놓은듯 뻐근해났다.

단 몇줄밖에 안되는 이 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라도 하는듯이 생각되였다.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것인가.)

《멋있군, 정말 멋있구만. 이 시는 참으로 가작일세.》

리색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정도전은 날개라도 있으면 훨훨 날아가고싶었다.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근심스럽던 얼굴의 주름살은 삽시에 펴지고 함박꽃같은 웃음이 피여올랐다.

《정녕 그렇단 말이지요, 저는 기쁘기 그지없소이다.》

정도전은 그만에야 자기의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흥분에 떠있는 정도전의 행동을 일별한 리색은 그 시의 숨은 뜻을 알아본듯 정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시가 아주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대와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는 넉넉히 지을수 있을걸세.

그러나 일전에 도은이 지은 시를 보니 그런 시는 정말 흔히 얻어볼수 없겠더군. 그처럼 좋은 시는 시를 쓴다고 해서 아무나 지을수야 없지.》

순간 정도전은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듯 하였다. 다리맥이 풀리고 걸음이 휘청거렸다.

(다로구나. 아무리 해도 내 재능으로는 리숭인을 릉가할수 없구나.)

스승의 집을 나온 정도전은 자신의 무능을 통탄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이 불끈 치솟았다.

리숭인을 그냥 두면 자기의 재능은 언제 가도 빛을 보지 못할것만 같았다.

그를 복수하고싶은 야심이 뇌리를 파고들며 요동쳤다.

심신을 괴롭히는 시기심으로 하여 먹은것이 살로 가지 않고 밤잠도 제대로 잘것 같지 않았다.

야심만만한 정도전은 그후 리성계가 권력을 틀어쥐고 정몽주를 비롯하여 고려왕조에 충실한 보수관료들을 제거할 때 그에 편승하여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

권신이 된 정도전은 끝내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리숭인을 정몽주의 일당으로 몰아 먼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는 심복부하인 령남사또 황거정에게 비밀지령을 주어 리숭인을 때려죽이게 하였다.

정도전은 명예를 노리고 자기의 벗이였던 리숭인을 죽였으나 자신의 명예는 높아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후세에 더러운 야심가라는 오명을 남기고말았으니 정도전의 일화는 야심과 시기심으로는 그 어떤 명예도 얻을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맹사성의 《공당문답》

맹사성(1360－1431년)은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에서 첫 련시조작품을 남긴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시와 음악에 박식하였을뿐아니라 소탈하고 호방한 성품을 지닌것으로 하여 생애에 적지 않은 일화들을 남기였다.

이 이야기는 맹사성이 정승벼슬을 지내던 어느해 여름에 있은 일이다.

일찌기 10살나이에 어머니를 여읜 맹사성은 관직에 나선 이후 해마다 온양에 있는 늙은 아버지를 찾아보는것을 어길수 없는 준칙으로 삼고있었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그는 이번에도 관복대신 수수한 평복차림에 소한마리를 끌고 아버지에게 갔다오고있었다.

맹사성이 통인에 채 이르기도 전에 아침부터 찌뿌둥하던 하늘에서는 한두방울 비끄치가 떨어지더니 인츰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내리꽂히기 시작하였다.

우장도 갖추지 못하고 떠났던 길이여서 맹사성은 다급히 소를 몰아 근처의 주막집으로 들어갔다.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고 맹사성은 주인을 찾아 하루밤 묵고갈 방 한칸을 요구하였다.

으시시 떨리는 몸으로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맹사성은 폭 젖은 옷자락을 쥐여짜며 빠금히 열린 문틈으로 하늘을 내다보았다.

먹장구름이 꽉 뒤덮인 하늘은 그대로 밤을 새우려는지 쉴새없이 비를 퍼부었다.

얼마간 몸을 덥힌 후 식사까지 마치고나자 갑갑증을 느낀 맹사성은 보퉁이에 꿍져넣었던 퉁소를 꺼내여 불기 시작하였다.

소시적부터 음악을 즐겨온 그는 먼 길을 떠날적마다 몸에서 퉁소를 떼여놓는 법이 없었다.

구성진 가락에 맞춰 불어대는 능란한 솜씨에 객주집에 류숙하던 나그네들은 숨소리를 죽여가며 피곤도 잊고 문가에 귀를 가져다댔다.

맹사성이 속이 후련하도록 퉁소를 불고나서 자리를 펴려는데 문득 한사람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보슈, 그냥 자시려우?》

문을 열고보니 웬 낯선 사람이 문지방에 서있었다.

영문을 몰라 하는 맹사성에게 그는 무작정 방안에 들어서며 《거 정말 솜씨가 여간 아니시구려. 그대같은 풍류객과 면식이나 익히고싶어 인사불성으로 들어온것이니 과히 탓하지 말게.》 하는것이였다.

길손은 맹사성의 평복행장을 보고 그가 보통나그네로 여겨졌던지 대뜸 말투가 하대하는 투였다.

《보아하니 자네도 나처럼 이놈의 비때문에 발목을 잡힌 모양인데 하늘이 준 인연이라 생각하고 통성이나 합세.》

맹사성은 너부죽한 얼굴에 호인다운 웃음을 짓는 그가 싫지 않은지라 빙그레 웃음으로 응대했다.

얘기를 나누어보니 그는 령남지방의 대부호로서 래일 아침 한양으로 올라간다는것이였다.

맹사성도 한양행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반색을 하며 무랍없이 청을 냈다.

《자네 바둑솜씨도 퉁소재주만 한가?》

《전혀 모른다고 할수야 없지요.》

령남부호는 그 말을 듣기 바쁘게 바둑판을 당겨놓았다.

초면인 맹사성에게 무작정 바둑을 두자고 하는것을 보면 아마도 바둑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성미인듯 하였다.

맹사성은 자기 본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저 보통행객으로 자처

하며 바둑판에 마주앉았다.
밤이 이슥토록 바둑의 승패는 서로 엇갈리며 도무지 결판이 나지 않았다.
마침내 맹사성이 거퍼 이기는 바람에 령남부호는 더는 견디지 못하겠는지 손에 쥔 바둑알을 놓고말았다.
《에, 오늘은 바둑하는 날이 아닌가보네. 바둑은 운수가 맞지 않아 진셈치고 우리 운자나 내서 글짓기나 하는게 어떤가?》
아마 그는 맹사성에게 바둑진 봉창을 해볼 속심이였던지 제법 글 아는 행세를 하려 들었다.
《나도 뭐 별로 아는건 없소만 그대 청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소.》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운자를 내게. 가만, 우리 차라리 아예 운대로 대화를 나누는게 어떨가. 시를 짓듯 말일세.》
《거 정말 좋은 방안이오이다.》
령남부호는 맹사성이 선뜻 받아물자 기분이 떠서 빨리 운자를 내라고 재촉했다.
맹사성은 잠시 곰곰히 생각하더니 《공》(공경할 공)자와 《당》(집 당)자를 택했다.
말끝마다 받침을 《이응》으로 발음하는 령남사투리를 흉내내고 또 자기를 하대하는 부호에게 일부러 공경의 뜻을 나타낸다는 내심에서 부터였다.
이렇게 되여 맹사성과 령남부호사이에 《공》, 《당》문답이 시작되였다.
맹사성: 《하여상경공》(어찌하여 서울로 올라가는공?)
부호: 《록사취재상거당》(록사벼슬을 얻으러 올라간당.)
맹사성: 《아위공차제공》(내 자네를 위해 천거할공?)
부호: 《하부당》(하, 그건 안된당.)
령남부호는 맹사성이 제법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큰소리를 치는것이 재미있었던지 배가 터져라 껄껄 웃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후 맹사성이 여러 재상들과 함께 새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뜻밖에 그가운데 바로 객주집에서 만났던 령남부호도 끼여있었다.
맹사성은 너무도 반가운김에 객주집에서 하던대로 《하여공》(어찌된공?) 하고 물었다.

엉겁결에 머리를 번쩍 쳐든 령남부호는 학을 수놓은 정승관복을 입은 맹사성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불손하게 대해준 저 사람이 조정의 한다하는 재상이였단 말인가.

더 긴말없이 령남부호는 그 자리에 넙적 엎드리며 대답하였다.

《사거지당》(죽을 죄를 지었습당.)

맹사성은 느닷없이 대청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이 사연을 알리 없던 재상이하 관리들은 눈이 휑해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였다.

결국 이날의 대화도 《공》자와 《당》자를 운으로 진행된셈이였다. 물론 령남부호는 후날 맹사성의 천거로 전주고을의 록사벼슬을 얻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력사기록에 남아 전하는 맹사성의 《공당문답》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이다.

＊ 련시조

련시조는 시조의 한 양식으로서 3행으로 된 평시조양식을 여러 수 잇대여 짓는 형식을 말한다.

련시조가 평시조와 구별되는 점은 거기에 속한 개별적인 시편들이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련시조는 오늘의 시초와 비슷하다. 련시조는 또한 일반 평시조작품들이 대체로 제목이 없는데 비하여 제목이 있는것이 특징이다.

련시조는 15세기 맹사성의 《강호사시사》에서 시작되여 16세기말－17세기에 많이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윤선도의 《다섯벗의 노래》, 박인로의 《립암》, 리황의 《도산십이곡》, 리이의 《고산구곡가》 등이다.

시 한수로 죽음을 면한 박안신

력사에는 한편의 시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우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리조초기에 활동한 박안신은 한편의 시로 죽음을 면한 사람들중의 한 사람으로서 력사에 기록을 남기였다.

박안신(1369－1447년)은 리조 태종때 사간원 좌정언벼슬을 지냈는데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였다.

어느날 집에서 저녁상을 받던 그는 느닷없이 달려든 라졸들에게 잡혀 의금부로 끌려갔다.

서슬푸른 병장기를 든 옥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켜서있는 감방안에는 자기보다 먼저 잡혀온 여러 사람들이 갇혀있었다.

서로 마주보며 말은 없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조대림의 문초사건때문에 잡혀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조대림은 태종의 사위였다.

그는 태종의 권력을 턱대고 갖은 비행을 적지 않게 저질렀다.

하여 사람들속에서는 그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그래서 사헌부에서는 직분상(사간원이나 사헌부는 당시 관리들의 비행이나 풍기를 장악통제하던 일종의 법기관이였다.) 그를 불러다 죄목을 따졌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왕족의 하늘같은 존엄을 손상시켰다고 성이 독같이 나서 조대림의 문초를 주관한 박안신과 관계자들을 잡아다 목을 치라는 엄명을 내렸다.

사헌부관리들은 창졸간에 당한 변이라 감옥안에서 기가 질려 안절부절 못했으나 박안신은 무표정한 태도로 눈을 감은채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제 날만 밝으면 모두 저자에 끌려나가 목이 잘릴 판이였다. 생각할수록 법을 어긴 조대림의 죄행은 묻어두고 자기의 직분을 다한 충실한 신하들을 꺼리낌없이 처형하려는 왕의 횡포한 처사에 치

가 떨렸다.
자기들이 이대로 죽는다면 앞으로 왕족의 전횡은 더 극심해질것이고 나라의 기강은 문란해져 백성들의 고통만 늘어날것이였다.
박안신은 죽더라도 자기의 무죄를 밝히고 간신들의 전횡을 막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밤을 새웠다.
어느덧 날이 밝아 형을 집행할 시간이 닥쳐왔다.
관례대로 사형수들에게 먹이는 술과 음식이 들어오자 박안신은 태연히 술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고는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깨여진 사기쪼박을 하나 집어들고 벽에다 시 한수를 휘갈겨썼다.

천년이면 흐린 물도 맑는다 하기에
임금께서 성스럽고 어질기만 바랐노라
직분을 다 못한 이 몸 기꺼이 죽사오만
어진 신하 죽인 임금 악명 쓸가 두렵구나

쓰기를 다한 박안신은 그것을 통쾌하게 읊고나서 옥리를 쏘아보며 추상같이 웨쳤다.
《너는 이제 당장 이 시를 상감께 아뢰여라. 만일 참형당할 사람이라 하여 네 감히 허술히 여기고 실행치 않는다면 내 죽어 귀신이 되여 너의 씨족을 말리울테다.》
그의 도고한 기세에 겁을 먹은 옥리는 즉시에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갔다.
자기의 무지한 처사에 대한 신랄한 야유와 조소가 비낀 시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태종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생각같아서는 릉지처참해서라도 분풀이를 하고싶었으나 무고한 신하를 죽였다는 악명을 쓰기는 싫었다.
태종은 하는수없이 형을 거두라는 말을 남기고는 내전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할번 했던 박안신과 사헌부의 관리들은 무죄로 석방되고 조대림은 후에 법을 어긴 죄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였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1453년 3월, 일명 답청절이라 불리우는 삼월삼짇날이였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답청절을 맞은 한양장안거리는 이른아침부터 봄놀이를 떠나는 사람들로 차고넘치였다.

세도재상가의 안댁들은 저마다 화려한 수레와 교자에 올라 인왕동이며 삼청동, 쌍계동과 청학동 등 린근의 명소들로 향했고 일반 서민들은 또 그들대로 소박한 음식일망정 보퉁이에 정히 꾸려가지고 춘삼월 호시절을 즐기려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물러께라 치여께라 하는 견마군과 사령들의 호통소리가 귀청을 째고 좁은 골목의 복새통에서 발등을 밟히운 내인들의 비명소리와 사내들의 흥그러운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온 한양장안이 다 떨쳐나선듯하였다.

바로 이 인파속으로 얼굴에 약간 병색이 도는 한 젊은 선비가 도포자락을 날리며 천천히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얼마전 과거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간(1427－1456년)이였다.

올해 들어 27살을 넘긴 그는 지금 한양 남산기슭에서 열리는 집현전 학사들의 시회에 초청되여가는 길이였다.

한달나마 병에 시달리느라 수척해진 성간은 봄기운 완연한 장안의 풍치를 흐뭇이 바라보면서 속으로 자기한테 호의를 베푼 집현전 학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종의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사실 집현전으로 말하면 나라의 한다하는 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였다.

아직 벼슬하는 몸도 아닌 자기를 특별히 청한 그 선의의 리면에는 아마도 이번 기회에 자기의 문장솜씨를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성간은 어릴적부터 기억력이 비상하고 무서운 독서열을 소유한것으로 유명했다.

집의 서가는 물론이거니와 린근의 한다하는 선비들의 서가를 다 탐독한 그였다.
성간은 누구의 집에 가서든 처음 보는 책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려다가 밤낮을 가림없이 탐독했고 한번 본 책에 대해서는 글귀 하나, 문장 하나 흘리는 법이 없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성간은 15살에 벌써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시는 물론 음악에서도 남들이 부러울만큼 해박한 조예를 가지게 되였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성간의 이름은 한입두입 거쳐 집현전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였던것이다.
성간이 남산기슭에 당도하니 면목있는 집현전의 학사 하나가 길목에서 기다리고있었다.
《화중(성간의 호)이 드디여 왔군그래. 우린 혹시나 못 오는가 했지. 그래 몸은 좀 어떤가?》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쏘이려던 참에 마침 초청을 받으니 병이 다 달아난것 같소이다.》
인사를 나눈 다음 그들이 얼마쯤 산골짜기로 들어서니 관복차림의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여라문명 모여앉아 술을 나누고있는 모습이 안겨왔다.
이들이 바로 성간에게 청첩장을 띄운 집현전 학사들이였다.
성간이 자리에 이르기 바쁘게 그들은 반색을 하며 맞이하였다.
《그대가 화중인가. 이 좋은 춘삼월에 자네 같은 재사와 즐기고저 청한것이니 병자를 수고로이 불렀다고 과히 탓하지 말게.》
《황송하오이다. 오히려 변변치 못한 제가 이런 좌석에 들었으니 이거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정중히 읍을 하며 말하는 성간의 겸허한 태도에 집현전 학사들은 눈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술이 몇순배 돌고난 후 기녀 하나가 현금을 잡고 사뿐사뿐 나섰다.
슬기당 둥둥 슬기당 둥둥…
기녀가 은은한 곡조를 두어곡 탔을 때였다. 좌중의 한사람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듣자니 저 화중의 현금솜씨가 범상치 않다던데 오늘 모처럼 만난 김에 한번 선을 보이게나.》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며 성간에게 눈길을 보냈다.
어줍은 미소를 띄우며 현금을 받아쥔 성간은 잠시 곡상을 더듬더니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그의 현금소리가 얼마나 유정했던지 좌중은 삽시에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남산의 경치는 성간이 울리는 유정한 현금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연거퍼 세곡을 타자 집현전 학사들은 입을 헤— 벌리며 연송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신묘해. 꼭 신선세계에 온 기분일세.》
《아마 저 사람은 속세에 태여난 신선인가보지.》
그러자 좌중의 또 한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술좌석에 노래가 있으면 시도 있기마련이어늘 이젠 시를 지어 흥을 올려봅시다.》
그러자 여러 학사들은 기다리기라도 한듯 일제히 시축을 펴놓고 옮겨쓸 차비를 하였다.
당시 시회의 관례는 한사람이 먼저 시를 지어 읊으면 다음사람이 받아쓰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이날 시회에서는 성간이 특별히 초청을 받은 손님인지라 좌중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성간에게 먼저 운을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자 성간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다.
《제 시란게 골방샌님의 작은 재주에 불과한데 어찌 고명하신 학사분들께 견주리까. 그러니 어느분께서 먼저 운을 떼십시오. 저는 그저 이 기회에 많이 배우렵니다.》
《허허, 너무 겸양하니 되려 우리가 면구하오.》
《그러지 말고 어서 운자를 내보라구.》
학사들이 지꿎게 청을 했으나 성간은 미소를 머금은채 선뜻 나서려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집현전 학사들이 운자를 엇바꾸어가며 앉은 순서대로 시를 수창하더니 어느덧 성간의 차례가 되였다.
그런데 성간에게 시운을 넘겨주는 학사가 동료들과 눈을 끔뻑거리

더니 《남녘 남》자 운을 떼는것이였다. 앞선 시운에 비해보면 가장 힘든 운자였다.

아마 성간의 재능을 시험할 심산으로 미리 생각해두었던것 같았다.

좌중의 눈길은 일시에 성간에게로 쏠리였다.

자기에게 쏠리는 뭇시선들을 느끼며 성간은 태연히 붓과 벼루를 자기앞에 당겨놓고 즉석에서 일필휘지로 써갈겼다.

붓을 놀리는 솜씨가 얼마나 재빠르고 박력있는지 획마다 준마가 내달리는듯 하였다.

해포째 쓰고 짓고 병든 몸 괴롭더니
봄바람 나를 끌어온 곳은 남쪽교외
양지쪽 파란 풀이 비단같이 고운데
오늘이 무슨 날인고 바로 이 삼월삼짇날

성간이 붓을 놓는 순간을 기다리던 학사들은 다투어 돌려보고나서 입을 딱 벌렸다.

웬간한 사람같으면 많은 고심을 해야 할 운자를 가지고 남산의 봄풍치와 답청절의 류다른 감흥을 순간에 함축해놓았던것이다.

《기막혀, 아주 훌륭해.》

《듣던바 그대로 그대는 과시 뛰여난 시재요.》

학사들은 저마다 감탄을 표시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이날의 시회는 결국 성간이 시를 짓는것으로 끝을 맺았다.

성간은 그후 전농직장, 집현전 수찬, 정언 등을 지내면서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그는 생애에 시 《원한의 노래》, 《늙은 소》를 비롯하여 당대 현실의 불합리성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진실하게 노래한 사실주의적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후세에 남겨놓았다.

성간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서거정은 《동인시화》에서 그의 높은 시적재능을 가리켜 웅건하면서도 필치가 다채로운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하였다.

만일 성간이 29살의 애젊은 나이에 병사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재능있는 시인의 문학유산은 지금 전하는것보다 훨씬 더 풍부했을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 《동인시화》

《동인시화》는 15세기 후반기에 서거정이 편찬한 2권으로 된 시평론집이다.

《동인시화》는 세나라시기로부터 15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 특히 리조시기에 시로써 이름을 떨친 우수한 시인들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창작적특징을 밝히였으며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시작품들을 분석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문인들속에서 이 책은 《시학의 정수》, 《시론의 집대성》으로 인정되여왔다.

《동인시화》는 우리 나라에서의 전형적인 첫 시평론집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다른 책들에 실리지 않은 시가유산을 많이 싣고있으며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미학견해를 피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중세문학사연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리용되고있다.

성삼문의 기발한 글재주

15세기에 활동한 성삼문(1418－1456년)은 훈민정음창제에 기여한 집현전의 권위있는 학자일뿐아니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후세에 남긴 우수한 시인이였다.

그의 자는 근보이고 호는 매죽헌(매화꽃과 대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충의와 절개를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하여 력사에 《사륙신》의 한사람으로 기록된 성삼문은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락천적이며 해학적인 기질을 소유하고있었다.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읊은 시 《절명사》와 유명한 시조《이 몸이 죽어가서…》는 그의 이러한 기질을 잘 보여주고있다.

북소리 둥둥 울려 이 목숨 끊기를 재촉하는데

가을바람 쓸쓸하고 해는 기울었구나
저승가는 길가에는 주막이 없다거니
오늘 밤은 뉘집에서 자야 할고

시《절명사》(세상을 하직하는 노래)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였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시조《이 몸이 죽어가서…》

그 어떤 폭력에도 굽히지 않는 굳센 의지와 락관적인 정신세계를 잔잔하면서도 락천적인 서정속에 노래한 이 시편들은 후세사람들속에서 널리 애송되였다.

언젠가 성삼문은 사신일행에 포함되여 명나라수도인 연경에 가 머무른적이 있었다.

어느날 성삼문이 머물고있는 객관에 선비 한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성삼문에게 례의를 차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나서 해오라기를 그린 명화를 하나 얻었는데 그 그림에 넣을 시 한수를 써달라고 하였다.

조선의 이름있는 문필가에게서 글을 받으면 두고두고 기념하겠다는 것이였다.

성삼문은 겸손한 태도로 그림을 먼저 구경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좀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금 다른 사람이 그림을 가지고 오는중이니 먼저 시부터 지어놓으면 어떠하겠는가고 하였다.

이에 성삼문은 즐겁게 웃었다. 글재간을 한번 보자는 그들의 속생각을 제꺽 알아차리고 번개갈이 떠오르는 시상을 잡아 쥐였던 것이다.

그는 이런 경우 뜻대로 일이 잘되면 서로의 사이를 더 친근하게 하는데 유익하지만 일이 뜻대로 잘 안되면 나라의 명예가 훼손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붓이 쥐여졌다. 그가 먹을 듬뿍 찍은 붓을 흰종이우에 가져가자마자 룡처럼 꿈틀거리는듯싶은 힘찬 글획들이 솟아

올랐다.

눈같은 옷에
구슬같은 발로
고기 노려 갈대숲에
그 얼마를 서있었나

강가에 서있는 해오라기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이 그려낸 나무랄데 없는 명시였다.

그 시구를 본 명나라사람들은 모두 탄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띄웠다.

잠시후에 그림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펼쳐보니 채색그림이 아니라 먹으로 그린 수묵화였다.

우리 사신단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확연하였다. 검은색으로 그린 해오라기를 흰것으로 형상하였으니 다시 고치기도 힘든노릇이였다.

그러나 성삼문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즉석에서 시의 다음구를 써갈겼다.

z네 모습 검은것은
삼음현을 날아지나다
왕희지의 벼루 씻은
못속에 빠졌음이냐

성삼문은 붓을 던지고 또 한번 호탕하게 웃었다.

흰 해오라기가 왕희지의 벼루 씻은 못에 빠져 검어졌다고 한것은 그야말로 기발한 착상이였다.

중국의 이름있는 옛 서예가 왕희지는 고향 삼음현에서 얼마나 글씨공부를 하였던지 그가 먹을 갈고 벼루를 씻은 못물이 검어졌다는 전설까지 생겨났다.

성삼문은 바로 명나라사람들이 다 아는 이 전설을 솜씨있게 리용하여 그림에 꼭 들어맞는 시의 결구를 만들어냈던것이다.

시를 본 명나라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그 민첩하고 능숙한 시적재능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림과 맞지 않던 첫구의 표현이 다음구에서 자연스럽게 가리워졌을뿐아니라 오히려 시상이 더 원숙해졌던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그림을 처음부터 보면서 시를 지었고 그림이 먹으로 그렸기때문에 해오라기가 흡사 먹못에 빠졌다 나온 새처럼 검어진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듯싶은 재치있는 시적형상이 이루어진것이다.

그림임자는 좋은 그림을 얻었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금상첨화》(비단에 꽃수)라는 말과 같이 그림도 좋았지만 그에게는 격에 맞는 시를 얻어 그림이 한결 돋보이게 된셈이였다.

거기에 세상에 보기드문 조선의 시재를 알게 된 기쁨까지 얻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을 땐셈이였다.

김 시 습

《오세문장》의 신기한 재능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김시습(1435－1493년)은 나서 여덟달만에 글을 보고 다섯살때에는 벌써 사서중에서도 어렵다는 《중용》과 《대학》을 휑하니 꿰뚫어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여덟달만에 글을 읽었다는것은 좀 과장된듯 하나 다섯살난 어린것이 상투를 튼 수염쟁이들도 어려워하는 《대학》과 《중용》을 뗐다는것은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지만 그것 역시 당시로서는 희한한 일이 아닐수 없다.

시습이란 이름은 최치운이라는 그의 할아버지벌 되는 사람이 그의 재주를 기특히 여겨 배우는대로 익힌다는 뜻에서 지어준것이였다.

이 최치운으로 말하면 집현전 학사로 세종의 남다른 총애를 받던 문신으로서 문명이 쟁쟁하던 사람이였다.

그로 하여 시습의 이름은 궁중에도 알려져 한때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한번은 태평재상으로 불리우던 정승 허조가 찾아와 시습을 만나본적이 있었다.

제비꼬리만 한 꽁지머리에 갑사댕기를 가뿐히 드리우고 무릎을 단정히 꿇은채 깐닥거리며 책을 읽는 모양이 어찌나 대견하고 기특했던지 허조는 어린것을 담싹 들어 무릎에 올려놓았다.

《허허. 얘, 네가 지금 무엇을 읽고있느냐?》

《〈중용〉이옵니다.》

《〈중용〉이라. 그래 〈중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고 읽느냐?》

《〈가운데 중〉자에 〈떳떳할 용〉자를 쓰오니 가운데란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오며 〈떳떳할 용〉자는 〈쓸 용〉자와 통하니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옳바른 도리를 행한다는 뜻인가 하옵니다.》

《하하, 과연 신동이로다. 그럼 어디 네가 나를 위해 글귀 하나 지어주렴.》

《분부대로 하겠사와요.》

《내가 늙었으니 어디 〈늙을 로〉자를 가지고 지어보아라.》

허조는 흰 수염을 내리쓸며 무릎에 난딱 올라앉은 어린 시습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것은 허조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눈을 반짝이며 랑랑한 목소리로 글귀를 읊었다.

《로목개화심불로》(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 어이 늙다 하리)

허조는 너무도 놀라와 수염을 쓸던 손을 뚝 멈추고 어린것을 신기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았다.

《하하하. 옳다, 명문이다. 네 글이 신통히 내 뜻을 읊었구나. 명문이로다! 어, 네가 다섯살이라니 〈오세문장〉이로다.》

허조는 너무도 기특하여 손벽을 치며 웃었다.

그때부터 김시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섯살난 문장가라고 해서 《오세문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급기야 《오세문장》 김시습에 대한 소문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

가 세종은 어린 시습을 대궐에 불러다놓고 도승지 박이창을 시켜 시험해보게 하였다.

도승지라면 임금의 가까이에서 도는 벼슬이요, 왕명을 내고 들이는 요직이였다.

승정원의 제일가는 관리인 도승지는 임금의 신임도 신임이려니와 재주와 학식에서도 남보다 뛰여난 사람이라야 하는 벼슬이다.

박이창은 워낙 쾌활하고 익살궂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웬만한 일에는 구속을 모르는 호남아풍의 사나이였다.

걸걸한 성미그대로 박이창은 시습을 무릎에 앉힌채 벽에 붙은 산수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가 〈오세문장〉이라니 저것을 보고 시구를 만들수 있겠느냐?》

산수화는 우불구불 뻗어간 산을 배경으로 큰 강이 흐르고 강가에 자그마한 정자가 멀리 보이는데 정자앞에는 작은 배가 둥실 떠서 인적없는 시골의 고요한 향취를 한껏 풍기는 그림이였다.

눈을 반짝거리며 산수화를 쳐다보던 시습은 곧 앵두알같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종알종알 시구를 불렀다.

조그마한 정자와 배집속에는
그 어떤 사람이 살고있느뇨

박이창은 한동안 시의 뜻을 되새겨보는듯 하더니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네가 과연 신동이로다. 저 그림의 청아한 뜻이 네 시로 하여 더 살아나는구나. 그렇느니라. 세상공명을 버리고 청산과 록수를 벗삼은 은일지사의 밝은 기상이 저 그림의 뜻이로다. 하하하.》

한바탕 즐겁게 웃고난 박이창은 시습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시 한구를 불렀다.

《동자의 학문은 백학이 구름밖에 춤추는듯 하고》

박이창이 시구를 부르자 시습이 대뜸 대구를 이었다.

《임금의 높은 덕은 황룡이 바다속에 넘노는듯 하여라》

박이창은 참으로 신기한듯 어린 시습을 놀라운 눈길로 다시금 바라

보며 혀를 찼다.
《세상에 이런 신동이 있는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장차 이 나라를 문장으로 빛낼 사람이 네 아니고 누구겠느냐.》
시습의 재능이 뛰여나다는 도승지 박이창의 말을 듣는 세종은 기쁜듯 웃음을 지었다.
《다섯살난 어린것이 그리도 시재가 신통하드란 말이냐?》
《전하께서 만나보시면 자연 아실줄 아오이다.》
《과인이 직접 만나보고싶으나 공연히 세속의 이목을 떠들썩하게 하는것이 재미적을듯 하다.
은근히 잘 기르고 가르쳐서 나이가 들고 학문이 성취되거든 크게 등용해야 하겠다.》
《지당하신 분부이오이다.》
《대궐에 불러왔다가 그냥 보낼수는 없으니 비단 50필을 상으로 주어라. 그러되 제 힘으로 가져가도록 하라.》
세종의 말에 박이창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많은것을 어린것이 혼자서 어떻게… 》
《진짜 신동인지 내 한번 시험해보려는것이다.》
《알았소이다.》
박이창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물러났다.
한필이라면 몰라도 오십필이라니 어른도 지고 일어서지 못할것이였다.
그러니 아무리 신동이라도 다섯살짜리가 어찌 제 힘으로 가져갈수 있으랴.
그러나 임금의 입에서 한번 말이 떨어지면 법이 되니 거기다 대고 다시 무어라 할수 없었고 더구나 진짜 신동인가 시험해보겠다니 더 할말이 없었다.
《허 그참, 고양이 소대가리 맡은 격이니 저걸 어쩌누?》
암만 생각해야 신통한 수가 없어 박이창은 속을 끙끙 앓으며 승정원으로 돌아왔다.
어린 시습이 동료관리들의 무릎에 올라앉아 새물거리다가 박이창이 들어서는것을 보자 얼른 일어났다.
《얘야, 성상께서 너의 재주가 기특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비단

50필을 하사하셨다.》
《성은이 황감하오이다.》
제법 어른스레 머리를 조아리는 모양을 보고 이창은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하되 제힘으로 가져가랍신 분부이시다.》
《높으신 분부를 삼가 받들겠사옵니다.》
《허허. 그래 네 힘으로 그 많은걸 가져갈만 하냐?》
박이창이 허구픈 웃음을 웃으며 비단필을 가리켜보이자 시습은 잠시 고개를 개우뚱하며 생각을 굴리더니 발딱 일어나 쪼르르 달려가 비단필을 풀기 시작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박이창은 물론 시습이 노는양을 재미있게 바라보고있던 승정원의 관리들도 어안이 벙벙해졌다.
가쯘히 말아놓은 비단필도 가져가기 어려운데 그걸 다 풀어놓으면 도대체 어쩔셈이란 말인가.
그러나 시습은 념려말라는듯 이창을 바라보며 배시시 웃었다.
《비단필들을 풀어서 끝을 이을려구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어쩔셈이냐? 그걸 안구 가려느냐? 얘, 네 아름으로는 반필도 어림없느니라.》
《글쎄 그래만 주세요.》
《그래? 그럼 내 사람들을 불러 이어주련?》
《네!》
《사령방에서 두엇 나와 얼른 비단필들을 이어주도록 하라.》
박이창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사령 두엇이 들어와 비단필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두어필쯤 풀어놓자 시습은 한끝을 허리에 맸다.
《시습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제가 커서 성상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말씀올려주셔요.》
시습은 임금이 있는 정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나서 문으로 향하였다.
시습의 뒤로 풀어놓은 비단 50필이 사르락거리며 끌려나갔다.
박이창은 한참이나 놀라운 눈으로 시습을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고

개를 제끼며 껄껄 웃었다.

《핫하하. 사람의 재주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을 내 오늘에야 믿게 되였구나.

네가 아니더면 내가 딱할번 하였다. 너같은 인재가 나는걸 보니 이 나라가 흥하려나보다.》

어쩌는가 지켜보고있던 승정원 관리들 역시 저마다 혀를 내두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세문장이 과연 다르오.》

《문장도 문장이려니와 생각이 엉뚱하니 진짜 재목이외다. 저 애를 잘만 키우면 나라의 기둥감이 되겠소.》

불의의 세상을 등진 《오세》김시습

큰 뜻을 품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스물한살의 청년 김시습은 어느날 수양대군이 제 어린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제가 그 자리에 틀고앉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하늘이 금시 무너지는것 같았다.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남달리 사랑하던 그에게 있어서 수양대군의 이같은 처사는 추호도 허용할수 없는 범죄였다.

그는 수양대군밑에서 영달의 길을 구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다.

이 사건은 꽃잎을 방실거리며 바야흐로 활짝 피여오르려는 그의 재능과 열정을 한순간에 식혀버린 찬서리였고 된바람이였다.

김시습은 더 학문을 닦을 뜻이 없어 읽던 책들을 모조리 불사른 다음 금강산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여버렸다.

그러나 여러해동안 중노릇을 하였지만 종시 마음의 안정을 얻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표연히 방랑의 길을 떠나 평안도와 강원도며 전라도 등 정한 곳없이 떠돌았으나 속이 풀리지 않았다.

1468년에 김시습은 다시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오래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편의 소설을 썼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오신화》이다.

김시습은 그후 산을 내려 한양에도 가보고 양주 수락산에서 글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나이는 40대를 지나고 쉰고개를 넘어 어느덧 인생말년에 접어들었다.

말년에 접어들어서도 김시습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설악산, 지리산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절간으로 다시 들어갔다.

김시습이 이렇게 세조에 대한 울분을 안고 방랑하고있을 때 세조와 그밑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한다.

그의 재능을 아끼는 심정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옛 우정을 잊지 못하여 같이 일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한번은 서울에 소문없이 들어온 김시습이 어느 집에 이르러 그 집 벽에 붙어있는 글을 보게 되였다.

그것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음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한명회가 지은 시였다.

내 젊어서는 나라를 받들고
머리에 흰서리 이고는 강변에 누웠도다

그 시를 읽어본 김시습은 쓰겁게 웃으며 침을 뱉았다.

(한명회, 네가 세조의 턱밑에 붙어돌아가는 주제에 그런 소리를 할 체면이 있느냐. 에잇, 더럽다.)

그는 붓을 꺼내여 벽에 붙어있는 글에서 두글자를 고쳐버렸다.

내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머리에 흰서리 이고는 강변을 더럽히도다

이렇게 두글자를 고치니 시의 뜻은 왕청같이 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전혀 뜻이 달라진 시를 본 한명회는 너무도 부끄럽고 분하여 벽에 붙어있는 시를 뜯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한다.

김시습은 세조에게 끝까지 굽어들지 않았으며 그가 다스리는 세상을 오만한 자세로 외면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속에서는 그를 《오세(세상을 오만하게 대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당대의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증오하는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창작품을 처리하는데서까지 나타났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쓰고도 그것을 세상에 내놓지 않은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는 단편소설들을 써서 소설집을 여러책 만들었으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돌함속에 넣어 감춘 다음 금오산을 떠났다.

김시습은 당시 사람들이 리해할수 없는 이 책을 먼 후세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했던것이다.

그가 바란대로 몇백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그의 《금오신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첫책만 남아있어 겨우 다섯편의 단편소설들만이 전해지고있다.

만일 그 책들이 창작된 후에 곧 알려졌다면 결질이 없이 소설집전부가 보존되였을것이고 그것은 우리 나라 중세소설유산을 더 풍부히 했을것이다.

* 김시습의 《매월당집》중에서

《무릇 글을 쓰려면 허식적인 말은 되도록 깎아버리고 다만 실속있는 리론을 전개하여 전후의 론리가 일관될뿐아니라 자자구구마다 사상과 감정이 넘쳐흐른 다음에야 독자의 심금을 휘여잡게 될것이다.》

한밤중에 써준 시문

한양 인왕사에 몸을 붙이고있던 김시습이 언젠가 답답증이 치밀어 울적한 회포를 풀겸 산수간에 방랑의 길을 떠날 생각으로 친지들을 찾아 내려온적이 있었다.

저녁무렵 그는 홍유손의 집을 찾아갔다.

홍유손은 본래 아전출신으로 남양의 아전 홍순치의 아들이였다.

가난한 살림에도 책만은 손에서 놓지 않아 그는 한다하는 선비들과 문장을 겨루어도 짝지지 않을만큼 되였다.

그러나 아전노릇이란 대대로 세습되는것이여서 아버지가 아전이면 아들도 아전노릇을 하는것이다.

다행히 남양의 고을원이 그리 막힌 사람은 아니였던지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아전의 역을 면하게 해주어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업을 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한양의 명현재사들과 벗으로 사귀게 되였으나 종시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다.

벼슬길에 나선대도 출신이 미천하여 좋은 벼슬을 못할것은 뻔한노릇이니 아예 단념하고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터였다.

김시습과 홍유손은 재주와 뜻은 남보다 뛰여나지만 그것을 펴지 못한데서 처지가 같았다.

그래서인지 두사람의 사이는 각별하였다.

이런저런 회포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밤이 깊었는데 문득 밖에서 시습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열경(김시습의 자)이 예 있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은 뜻밖에도 서거정이였다.

《아니, 강중(서거정의 자)이 어떻게?》

서거정은 시습보다 나이는 10여년 우였지만 한때 서로 무랍없이 지내던터였다.

서거정도 어려서는 신동이라는 말을 듣던터여서 은근히 시습과 재능을 겨루다보니 서로 면목을 익히게 된것이요, 피차 재주에 탄복하

여 마음까지 터놓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의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다. 시습이 한갖 떠돌이중이라면 서거정은 온 나라에 이름이 쟁쟁한 벼슬아치이고 선비출신관리들중에서도 나라의 으뜸가는 재사로 떠받들리는 판이였다. 그러한 서거정이 이 밤중에 시습을 찾아온것이였다.

보매 그는 남의 눈에 띄우는것을 저어해서인지 수수한 평복차림을 하고있었다.

《글쎄 내 짐작이 맞았지. 열경이 예 있을줄 알았다니.》

서거정은 시습을 여기서 만난것이 몹시 다행스러운듯 기쁜 기색을 띄우며 자리에 앉았다.

《대관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찾는단 말인가. 난 이미 세상을 버린 몸일세. 속세의 일이 산속에 사는 중에게 무슨 상관이겠나.》

시습이 랭소를 하자 거정은 난처한 기색을 띠우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열경, 너무 그러지 말게. 실은 자네에게 긴한 부탁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걸세.》

《긴한 부탁이라니? 조정에서 불공이라도 올리겠다던가? 하긴 지금 임금께서 부처를 끔찍이 위하신다는 말은 들었네만 자네가 선비로서 밤중에 중을 찾아다닐줄은 뜻밖인걸?》

시습의 말은 여전히 비양조였다.

《아니, 그런게 아닐세. 아무리 중이 되였대도 열경이야 열경이겠지. 그 재주야 어디 가겠나.》

《아따, 비위 긁는 얘긴 제발 그만하게.》

시습이 손을 홱 내저으며 발끈하자 서거정은 넌장자답게 빙긋 웃었다. 시습의 괴벽스러운 성미를 잘 아는 서거정인지라 구태여 성낼것도 없었던것이다.

서거정은 소매속에서 그림족자를 하나 꺼내여 방바닥에 펴놓았다.

《이것 보게, 어떤 그림인가?》

시습과 유손이 들여다보니 한 로인이 낚시대를 들고 강변에 앉았는데 뒤의 수양버들우에서는 새들이 갸웃이 내려다보고 낚시대는 방금 고기가 문듯 동그란 물결을 그리며 물속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로인은 무슨 생각에 잠긴듯 낚시대를 쳐들념을 않고있었다.

《허, 이게 위천수조도로구만. 그참, 명화일세.》

홍유손이 감탄하는 소리를 지르며 그림앞으로 나앉았다.

《그러이, 한정승대감께서 요즘에 구한 보물일세.》

한정승이란 말에 펴질만 하던 시습의 눈살이 다시 찌프러졌다.

《한정승이라니, 한명회 말인가?》

《그러이.》

한명회라면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내는데 팔을 걷고 앞장에 섰던자요, 지금 세조의 오른팔노릇을 하는자였다.

《한정승대감이 이 명화를 구해놓고 그림에 시문을 쓸 사람을 물색하는데 어디 그런 인재가 있을세 말이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세문장이 아니면 이 그림에 맞출수가 없다는 구먼. 그래 내가 자네를 일부러 찾아온걸세.》

사실 서거정이 그림을 들고 온데는 한명회의 음흉한 계책이 깔려있었다.

저들의 비인륜적처사를 지탄하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시습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던 한명회는 세조와의 의논끝에 그가 한양에 내려온 기회에 은근히 회유책을 써보기로 한것이였다.

그래서 일부러 김시습과 인연있는 서거정을 선택하여 보낸것이였다. 시습은 그 내속을 대중하며 조용히 따지듯 물었다.

《자네가 나를 무얼로 아나? 나를 한명회따위의 문객쯤으로 아는셈인가?》

서거정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시습이 발끈할 때는 웃어넘길수 있어도 일단 어성을 낮추고 조용히 말할 때는 롱으로 스쳐버릴수 없다는것을 잘 아는 그였던것이다.

《아니, 그런건 아니네만…》

거정이 당황하여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것을 시습이 가로챘다.

《내가 세상을 버린 뜻은 자네도 모르지 않을테지? 그걸 아는 자네가 내게 한명회의 그림을 들고 와서 시문을 써달라는게 말이 되는가 말일세?》

《안 쓰면 그만이지 날 기갈할셈인가?》

이번에는 서거정도 가만있을수 없어 마주 어성을 높이고는 분을 삭이지 못해 가슴을 풀떡거렸다.

자기로서는 그래도 김시습이 마음을 돌려 정계에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걸음인데 동냥은 못 얻고 쪽박만 깬셈이니 분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시습이 붓을 들고 나앉으며 선선히 말하였다.

《좋네, 내 쓰지.》

《정말인가?》

거정이 반색을 하며 시습의 얼굴을 기연가미연가 해서 쳐다보았다.

시습은 벼루에 붓을 푹 담그어 두어번 휘젓고나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앉았다.

어느덧 그의 눈에 이상한 광채가 떠돌았다.

가물거리는 시상을 붙잡으려는듯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숨결이 거칠어졌다.

이윽고 붓을 쥔 그의 손이 꿈틀거리더니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붓을 휘두르는대로 흰 종이우에 룡이 꿈틀대는듯싶은 호방한 글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오소소 낚시터에 내릴적에
위천수조 벗을 삼아 세속일 잊었더니
어찌하여 늘그막에 날랜 장수 되여나가
부질없이 백이숙제 고사리 캐게 한고

쓰기를 다 마친 시습은 붓을 내던지고 일어섰다.

《나는 가네.》

서거정은 시습이 일어난것도 모르고 그가 쓴 시만 멍한 눈길로 들여다보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꺼멓게 질렸다.

그는 이 시의 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위천수조도는 옛날 강태공이 초야에 묻혀살며 위수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였다.

후에 강태공은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다.

시습은 분명 시에서 한명회가 세조를 도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한것을 비난한것이였다.

은나라가 망하자 은나라의 왕자였던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는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은것처럼 세종, 문종 량대의 충의지사들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거나 죽게 한것을 빗대여 풍자한것이다.

서거정은 넋을 잃은 사람모양으로 문지방너머로 멀어져가는 김시습의 뒤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청어를 품고 세조앞에 나서다

김시습이 행각중노릇을 하던 세조년간은 리조성립이래 처음으로 불교가 다시 성행하던 때였다.

일설에 의하면 세조는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인것때문에 늘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한다.

단종을 내쫓기 위해 세종, 문종 량대의 이름난 신하들을 거의다 죽였을뿐아니라 병자년 단종복위사건때만 해도 성삼문을 비롯한 200여명을 무참히 죽였고 나중에는 단종마저 죽여버렸던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수많이 죽인데 대한 응보였던지 세자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백약이 무효로 종내 불귀의 객이 되고말았다.

세자가 죽던 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잡아가련다.》고 호령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불공을 착실히 드려 속죄를 하고 래세의 복을 구하려고 세조가 불교에 극성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세조는 말년에 명산대천의 이름난 절들에 시주를 지극히 하고 빈번히 전국의 도승들을 모아들여 법석을 베풀군 하였다.

이러한 흐름속에 한번은 김시습이 임금이 참가하는 법석에 나오라는 령을 받고 대궐에 불리워가게 되였다.

아무리 세속을 떠난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령을 받은 이상 안 갈수는 없었다.

여느 중이라면 그것을 반갑게 여겼을것이건만 시습으로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였다.

임금인 세조의 신하가 되기 싫어 중이 된 시습이였던것이다.

그런데 그 임금을 위해 불경을 읽어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대궐에 불리워가던 시습은 몰래 몸을 빼여 달아나 홍유손을 찾아갔다.

《아니 열경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유손은 반색하며 시습을 맞아들였다.

《대궐에서 벌리는 법석에 참가하라구 해서 불리워왔네. 지금 몰래 도망쳐나오는 길일세.》

《아니, 도망쳐나오다니? 자네 그러다 어쩔려구?》

유손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말하는 시습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흥, 그럼 나더러 그 법석에 참가하란 말인가?》

《글쎄 자네 마음이야 왜 모르겠나만 사람이 그래도 굽힐 때가 있어야지 무작정 곧은배기로 내뻗치기만 하면 어쩔텐가?》

《굽힐려면 애당초에 굽혔지. 아니, 나는 싫네.》

시습은 천천히 도리머리를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단 화를 입기가 첩경 쉽네. 글쎄 자네가 죽음을 겁내기야 하겠나만 그렇게 값없는 죽음을 당하면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될게 없네. 잘 생각해보게.》

유손의 사리정연한 말에 시습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쉰 시습은 번민이 잔뜩 서린 눈으로 유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자네 말이 옳긴 하네만 그래두 지금 임금앞에 굽히고 들어가진 못하겠네, 서뿌른 죽음을 당하면 당했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차라리 도망이라도 하는게지.》

《도망? 어디루 말인가? 내라는 사람이 도망하여 가만히 숨어살 성미인가? 부질없는 헛이름을 얻은탓으로 숨어살래야 숨어살수 없는 내가 아닌가.》

시습은 부르짖듯 말하며 가슴을 탕 두드리였다.

《엥이, 모두 귀찮네. 될대로 되겠지.》

한마디 내뱉은 시습은 그대로 벌렁 자리에 드러누웠다.
잠자코 천정을 바라보던 시습은 문득 다시 벌떡 일어나앉더니 유손의 손을 잡아당겼다.
《자네 집에 비린게 뭐 좀 없겠나?》
《허허, 이 스님이 정말 미쳤나. 중이 갑자기 비린것을 다 찾으니…》
유손은 어리둥절한중에도 시습의 노는양이 우스워 손을 내저으며 껄껄 웃었다.
시습도 마주웃었다.
번민이 채 가시지 않은 눈에 쇠끌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바하고는 한번 실컷 세상을 조롱해보려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더 물을것 없네. 비린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주게.》
시습의 괴벽스러운 성미를 잘 아는 유손은 더 묻지 않고 부시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어디 청어 한손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럼 되였네.》
시습은 청어 한손을 받아 장삼밑에 쑤셔넣고는 선뜻 일어섰다.
《나는 가네.》
《어디루?》
얼떠름해진 유손이 묻는 말에 시습은 싱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대궐루.》
시습은 올 때처럼 씽하니 가버렸다.
이튿날이였다. 법석을 앞두고 임금이 중들을 만나보러 나왔다.
중으로서 임금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일이 잘되면 이런 기회에 임금의 눈에 들어 출세를 할수 있는것이여서 모두 숨을 죽이고 임금의 눈길이 자기에게 닿기를 바라며 은근히 왼심을 쓰고 있었다.
중들은 모두 비단장삼에 자주빛가사를 걸치고 엄숙히 늘어서 합장을 하고 서있었다.
좌우로 늘어선 중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지나가던 세조는 문득 한

중이 눈에 띄우자 이마살을 찌프렸다.

구깃구깃한 베장삼은 언제 해입은것인지 날실이 무슨 술처럼 너슬너슬 드리웠는데 그나마 석삼년전에나 한번 빨았는지 때국이 자르르 흘렀던것이다.

광대뼈가 튀여나고 이마가 불뚝 앞으로 내민데다 움푹한 눈확속에 꼬리가 매섭게 들리운 만만치 않는 눈이 야릇한 광채를 뿜었다.

행색은 꾀죄죄하였지만 어딘가 록록치 않은 기상이였다.

작은 키에 여위기까지 하여 장삼입은 어깨박죽이 별스레 삐죽 쳐들리여보였다.

아무리 중이기로서니 임금이 나온다는데 저게 무슨 꼴인가싶어 세조는 마뜩지 않은 눈길로 그 중을 노려보았다.

만조백관이 벌벌 떠는 그 눈길앞에서도 그 중은 기가 죽기는커녕 마치 나무나 돌앞에 서있는듯 태연하였다. 피끗 들리는 눈길에 오히려 가슴을 선뜩하게 하는 서늘한 기운이 풍기였다.

《흠.》

세조는 자기도 모르게 코소리를 내며 시선을 돌리였다.

순간 무엇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바닥에 마른 청어 한마리가 나딩굴었다.

불교의 계률에 의하면 중들은 일체 비린것을 입에 대지 않게 되여있었다.

비린것을 입에 대는것은 죄를 짓는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른바 법석에 참가하러 왔다는 중의 몸에서 난데없이 청어가 떨어졌으니 해괴망측한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좌우의 중들이 실색한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세조도 아연하여 한동안 입을 다물수 없었다.

모두 얼혼이 빠진듯 멍하니 청어만 바라보고있는데 람루를 걸친 그 중이 아무렇지도 않은듯 태연히 허리를 굽혀 청어를 쥐더니 도로 장삼밑에 쑤셔넣었다.

황급한 기색이라고는 꼬물도 없었다.

세조는 어이가 없었다.

미친 중이 아니고서야 청어를 품고 다닐리 만무한것이요,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면 저렇게 태연할수 없는것이였다.

미친 중에게 시비를 따져야 쓸데없는짓이라 세조는 그만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저게 미친 중이다. 당장 내쫓아라.》

임금의 령이 떨어지자 시종내관들이 우하고 달려들어 그 중의 등을 밀어냈다. 그는 다름아닌 김시습이였다. 시습은 대궐밖으로 쫓겨나자 하늘을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청어를 품고 임금을 만나러 간 김시습, 그러니 세조가 아무리 불공을 드린대도 그것은 청어를 품고 부처앞에 절하는것이나 다를바 없다는 뜻이 아닐가.

＊ 교훈시가

일반적으로 교훈시라고 하면 교훈적인 목적으로 씌여진 시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서 교훈시가라고 할 때에는 주로 15～16세기이후 리조봉건국가의 유교장려정책에 따라 유학자들속에서 유교교리를 해석하고 설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한 국문시가형식의 작품들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훈시를 도학시가라고도 한다. 교훈시가작품들은 여러가지 국문시가형식으로 씌여졌는데 그중에는 시조나 가사형식으로 씌여진것이 가장 많고 일부 경기체가형식으로 창작된것도 있다. 15～16세기 교훈시가의 대표적작품들로는 주세붕이 창작한 경기체가형식의 《도동곡》, 《륙현가》, 《엄연곡》과 시조형식의 《군자가》, 《학이가》, 《효제가》, 정철의 《훈민가》, 박인로의 《오륜가》 등을 들수 있다.

교훈시가는 봉건유교사상의 테두리안에서 사람들이 유교교리대로 생활할것을 설교하고있는 본질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박식가 김수온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들이 들까불며 처마와 나무사이를 오가고 온갖 꽃이 활짝 피여난 봄날, 한양 대궐안에서는 큰 경사라도 생긴듯 웃음소리가 유쾌히 들려왔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요.》

《명나라사신이 아마 기가 질렸을테지.》

《아무렴, 우리 조선에 인재가 없을라구.》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온통 칭찬의 소리였다.

이날 조정대신들이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바로 괴애 김수온(1409－1481년)이였다.

남달리 탐구심이 강한 김수온은 일생에 읽어보지 못한 책이 없다고 할만큼 다독가로서 기억력 또한 비상하여 한번 읽은 책은 문장채로 암송하면서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군 하였다.

그의 독서에서 특이한 점은 책을 읽을적마다 한장씩 찢어 소매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데 통달하고서는 휴지처럼 내버리는것이였다.

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괴애의 괴이한 독서법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숱한 책을 읽고 내버렸으며 그 결과 박식한 선비로서의 명성을 떨칠수 있게 되였다.

지금 관리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입에 올리는 찬사도 바로 그 뛰여난 박식과 기억력, 기발한 시적재능에서 나온것이였다.

얼마전 명나라의 진감이란 사람이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왔는데 《회청부》라는 시를 지어 여기에 화답할 사람이 있으면 솜씨를 보이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제노라는 문사들이 앞을 다투어 부를 읽어보았건만 그 뜻을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웠다. 뜻을 알아야 화답할수 있건만…

당시 조정의 문학관계를 주관한다던 정승 신숙주도 고개를 기웃거

릴 정도로 난감한 글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조정에 숱한 문인들이 앉아 록을 타먹으면서도 그놈의 〈회청부〉 하나 화답 못한단 말이냐. 당장 부에 능한 사람을 찾아내서 빨리 조처하라. 그렇지 못할 땐 다시 내앞에 얼씬도 말아.》라고 신숙주를 다몰아댔다.

임금의 독촉은 불같으나 진감이 돌아갈 시간은 촉박하지 그렇다고 어느 하가에 화답할 재사를 찾아낼수 있으랴.

죽지 부러진 새마냥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퇴궐하던 신숙주는 《대감의 신색이 참 가긍하구려. 무슨 기분나쁜 일이라도 생겼소?》하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머리를 들어보니 다름아닌 친구인 승문원 교리 김수온이 길을 떡 막아서있다.

《오, 자넨가. 속탈이 심해서 괴로와 그러네. 만난김에 집에 가서 한잔하자구.》

신숙주를 따라 그의 집에 도착한 김수온은 의관을 벗어제치고 술상을 마주한채 밤이 이슥토록 술을 마시였다.

워낙 살림이 빈한하여 별로 술마실 기회가 없던 김수온은 체면불구하고 음식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아무 근심없이 먹는데만 열중하는 수온을 보면서 신숙주는 몇잔 마시지도 않고 풀풀 한숨만 내쉬였다.

《제길헐, 술맛 잡치게 무슨 한숨이 그리 많은가?》

김수온은 저가락을 놓으며 정색해서 신숙주에게 물었다.

그러자 신숙주는 《내가 공부를 헛했소그려.》하며 탄식조로 말했다.

《무슨 소린지.… 조정의 쟁쟁한 문사로 꼽히는 대감이 이제 와서 공부타령을 다 하구, 대체 무슨 고민인가. 혹시나 내가 풀어줄수도 있지 않겠나.》

《그 빌어먹을 〈회청부〉 때문이지. 참, 자네도 그 얘길 들었을테지. 성상도 오늘 날보구 야단을 칩데.

당장 화답할 사람을 찾아내라구. 에이, 이젠 별수없이 자릴 내놓구 물러나야 할가보이.》

김수온은 입술을 오무라뜨리더니 《응, 듣자니 그 뭐 난해한 대목

때문이라지. 그걸 한번 내게 보여줄수 있겠나.》하며 청을 했다.
신숙주는 (한다하는 문사들도 혀를 차며 물러난걸 이 친구가 해낼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응낙해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신숙주에게서 《회청부》를 받아본 김수온은 글줄을 세세히 읽어가던중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그러니 이 중간대목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겠다? 원, 별로 어려운것도 아닌걸 가지구들 그러는구만.》
《뭐라구?》
신숙주는 새삼스레 김수온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러니 자네 꽤 화답할수 있겠나?》하며 재차 물었다.
《그렇지 않구, 우물쭈물할것도 없지. 내 이제 부를테니 제꺽 받아쓰기나 하게.》
뜻밖의 행운에 신숙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붓과 종이를 탁자우에 펴놓았다.
이윽고 김수온이 눈을 감은채 시구를 줄줄 내리엮어대는데 마치 구렝이 담을 넘듯, 막힌 물목이 터져나가듯 조금도 멈춰서는 법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김수온이 마침내 결구를 맺으며 《다 쓰셨소?》 하고는 눈을 번쩍 떴다.
그와 동시에 붓을 놓는 신숙주의 얼굴에선 비지땀이 흘러내리고 눈은 충혈되여있었다.
내용과 시운, 어느것이나 나무랄데없이 짝이 맞는 글귀를 다시 훑어보고난 신숙주는 별안간 김수온앞에 넙적 꿇어엎드려 연신 절을 해댔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였더라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될번 했나. 이 은혜를 어떻게…》
김수온은 신숙주를 붙들어일으키며 껄껄 웃었다.
《너무 그러지 말게나. 내 글이 자네의 난감한 처지를 면하게 했다면 그만 다행한 일이 없겠네. 그저 전날 책값을 물어준셈치고 다른 말은 말게.》
《책값이라니?》
《벌써 잊었나. 언젠가 자네가 나한테 화풀이하던것 말일세.》

순간 신숙주는 언젠가 김수온에게 책 한질을 몽땅 빼앗겼던 일이 떠올랐다.

몇해전 신숙주는 임금에게서 다른 나라의 고문서 한질을 하사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고문서로 말하면 당시 임금과 신숙주 두사람에게밖에 없는 희귀한 책인지라 그는 금빛책가위까지 해씌워서는 가보로 건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김수온이 찾아와 지꿎게 청을 하기에 며칠기한으로 빌려주었는데 도무지 반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그의 집을 찾아가보았더니 글쎄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가보가 모조리 뜯기워 벽에 주런이 붙여져있는것이 아닌가.

천정에까지 빼곡이 박아붙인 고문서를 보는 순간 신숙주는 너무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건말건 김수온은 히물히물 웃으며 《내 누워서 책을 보기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 한장한장 뜯어본다는게 그만 이렇게 됐네. 미안하이. 어찌겠나, 이제야 원본찾기는 굴렀으니 내 이담에 꼭 책값을 물어놓겠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조반석죽도 어려운 주제에 책값을 운운하는 김수온의 말에 신숙주는 약이 올라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었다.

김수온은 그날의 책값으로 오늘 신숙주를 곤경에서 구원해준것이였다.

신숙주는 너무도 고마운김에 《값으로 말하면야 어디 여기에 비길텐가. 이젠 나도 잊어버리겠네.》라고 사례했다.

그러자 김수온은 《아니, 고마운건 날세. 사실 〈회청부〉의 어려운 대목이란게 바로 그 고문서에 인용된것이였네.

그러니 자네가 아니였던들 어디 내 재간에 풀어볼수 있을라구.》 하며 사유를 설명했다.

신숙주는 다시한번 놀라며 김수온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김수온의 화답시는 인차 진감에게 전달되였다.

진감 역시 깜짝 놀라 도대체 이 화답시를 누가 지었는가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신숙주로부터 김수온의 이야기를 들은 진감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내

흔들며 《내 지금껏 숱한 문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조선의 김수온 같은 박식가는 처음 보웨다. 과시 조선은 인재가 많은 문명국이 분명하오.》라고 감탄해마지않았다.

김수온은 그후 부사직, 집의, 령중추부사 등을 지내면서 시문에뿐아니라 의학, 불교에도 밝아 대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의방류취》, 《금강경》등 국보적문헌편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다문박식한 괴애 김수온, 력사의 한 갈피에 기록된 그에 대한 일화는 많은것을 후세에 가르치고있다.

시 한구절로 친구의 경솔함을 비난한 윤자운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재능있는 문인의 한사람이였던 윤자운(1416—1478년)은 당대에 시인, 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신숙주(1417—1475년)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들은 나이도 비슷했고 과거시험을 거쳐 벼슬길에 오른 경위와 벼슬등급도 비슷했다.

다만 차이나는것은 윤자운보다 신숙주가 6년 앞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1450년대말부터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봉건정부의 최고관직인 령의정을 했다면 윤자운은 1444년에 과거급제하여 1460년대말부터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령의정에 오른것이였다.

그리고 윤자운이 문관출신으로서 무관의 직무를 맡아 적지 않은 기간 국경수비와 내란평정과 같은 군사상의 일을 해온데 비하여 신숙주는 전형적인 학자, 문인으로서 여러 왕대를 거쳐오면서 봉건군주들의 특별한 신임속에 곡절없이 출세의 일로를 걸어온 문관이였다.

윤자운은 일생에 비록 신숙주만큼 이름을 날리지 못하였지만 시문창작에서 재치를 보여주군 하여 한다하는 문인들의 감탄을 자아낸 문사였다.

그는 젊은시절에 총명하고 글재능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앞날이 촉망되고있던 신숙주를 크게 신망하였고 그를 친구로 사귄것을 행운으

로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누이동생과 신숙주의 결혼문제가 상정되였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찬성하였었다.

처남, 매부지간이 된 후에 두 벗의 사이가 더 막역하여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이후 그들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원래 집현전 8학사의 한사람이였던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불법무도한 왕위찬탈에 가담하고 적극 비호해나선것으로 하여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의 명망높은 학자, 문인들로부터 선왕의 유지를 지키지 않는 절개없는 놈이라는 비난과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어쨌든 신숙주는 세조의 신임을 얻어 몇년어간에 벼슬이 일략 령의정에까지 올랐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왕들의 실록편찬사업을 맡아하면서 수많은 저서들을 집필하고 시문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여 문인으로서는 당대에 1인자로 꼽힐만큼 명성이 높아졌다.

윤자운은 신숙주가 벼슬이 급속히 높아지고 명성을 얻게 되자 이전부터 면식이 있는 동년배친구들을 눈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며 유아독존식으로 행동하는것이 못마땅하였다.

더우기 부인 윤씨가 절개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세상을 떠난 이후 처남인 자기를 이전처럼 스스럼없이 대하지 않고 길을 가다 만난 사람처럼 간격을 두고 대하는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윤자운의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든것은 신숙주의 깨끗치 못한 뒤생활이였다.

그때 신숙주는 나라의 실권을 쥐고있는 정승으로서 상처한지 몇해 안되여 얼굴이 반반한 단심이라는 애어린 고부기생한테 빠져 며칠씩 정사도 보지 않고 침방에만 들어박혀있는가 하면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리는 기생의 치마폭에 감겨 그가 하자는대로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한 나라의 정승이라는 그가 기생의 장단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여 방탕한 생활로 세월가는줄 모르니 나라의 정사가 어찌 잘되랴.

주대없이 간에 붙었다 염통에 붙었다 하는 저런자한테 누이동생을

맡겨 그의 운명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윤자운은 속에서 불이 이는듯 했다.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치 아무리 친구지간이라 하여도 서슬푸른 정승대감과 함부로 맞설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윤자운과 그의 동료들은 몇해만에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지는 뜻깊은 모임이라 지방관리로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왔다.

신숙주도 윤자운의 친구이며 동년배로서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맛있는 감홍로며 불로주, 청주 등 향기로운 술과 풍성한 음식이 상에 오르자 그들은 흥에 겨워 권커니작커니 술을 마시고 회포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윤자운은 한쪽에 치우쳐앉아 음식을 들 생각은 하지 않고 줄곧 신숙주가 있는쪽만 바라보고있었다.

그것은 신숙주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옛 우정을 안고 모인 동년배 친구들속에 앉아서도 정승의 위세를 뽐내며 거드름을 부리는 태도가 눈이 시도록 아니꼬와서였다.

그가 너무도 틀을 차리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라 식으로 대하니 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쓴입을 다시며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북스러운 자세를 취하고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모처럼 마련된 자리의 흥이 다 깨여져나갈 판이였다.

윤자운은 헛기침을 둬번 하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신숙주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먼저 말을 걸었다.

《상공은 예나 지금이나 기력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여러 동년배들이 다 모였지만 상공처럼 혈색이 좋고 정력에 넘치는 사람은 없는가봅니다. 상감마마의 두터운 은총을 받는 상공이 다르십니다.》

술기운으로 취기가 오른 신숙주는 윤자운의 비웃는 말뜻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내 한생 지내보니 사람은 늙을수록 제 몸관리를 잘해야 하네. 제 몸을 중히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빨리 죽게 되면 인품이고 재능이고 뭣에 필요하겠나. 이젠 우리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앞날을 위해서 몸보신을 잘하는게 제일일세. 여보게 락한재(윤자운의 호), 그런데 자넨 언제 머리가 그렇게 희여지기 시작했나.
얼마 안있으면 머리에 흰눈이 내려앉아도 아예 구별이 안되겠네. 난 이래뵈두 머리에 흰오리가 하나두 없네. 그러니 내가 자네보다 한 10년은 젊어보일걸세.》
《옳은 말씀입니다. 상공처럼 길운이 트인분이 어찌 빨리 늙사오리까. 저도 몸단련에 힘써 상공에 못지 않게 생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겠소이다. 그런데 저는 사람의 한생이란 건강하여 오래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후세에 욕되지 않게 생을 잘 마무리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자운이 정색하여 말하자 신숙주는 한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자기가 옳바른 주견을 못 가지고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전에는 안해 윤씨가 그를 원망하고 집현전의 학사들이 침을 뱉고 돌아서더니 오늘은 처남인 윤자운마저 자기를 뜻이 없는 쓸개빠진 놈으로 비난하고있는것이였다.
신숙주는 가슴이 떠박질리운듯 찔끔했으나 이 자리에서 한마디 잘못했다간 많은 동년배친구들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할것 같아 내색을 하지 못하고 슬쩍 말머리를 돌리였다.
《에 여보게들, 우린 옛날에 글도 함께 익혔구 지금은 벼슬살이도 함께 하고있네. 여기에 모인 친지들은 재주가 뛰여나고 인물도 범상치 않으니 앞으로 나라의 중신들이 될걸세.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 기쁜 날 시나 한마디씩 불러 흥을 돋구세나. 락한재, 자네 생각엔 어떤가?》
신숙주의 뜻밖의 제의에 윤자운은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일반적인 시문을 지으라고 한다면 윤자운으로서는 크게 걱정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학문에서 당대 1인자로 자처하는 신숙주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데는 결국 자운을 시짓기내기로 골탕을 먹여 눌러놓고 다시는 엇서지 못하게 하려는 숨은 뜻이 내포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윤자운은 그가 도전을 걸어온 이상 그에 응할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자기는 결국 담도 재능도 없는 무맥한 인간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고 눈밖에 날수 있었던것이다.
《좋습니다. 상공의 제의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공께서 먼저 한수 부르시오이다.》
신숙주는 그러면 그럴테지 하고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우고는 허리를 쭉 펴고 윤자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내 먼저 한구를 부를테니 대구를 잇게. 〈친근한 벗 머리에 백발을 이였는데〉》
윤자운은 신숙주의 시구가 끝나기 바쁘게 뒤를 달았다.
《검은머리 정승은 오직 단심뿐일세》
순간 옆에서 긴장하여 두사람의 시짓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어려운 시구에 즉시적인 대구로 솜씨있게 대처하는 능력도 놀라왔지만 그 뜻 또한 의미심장하게 안겨왔던것이다.
단심은 신숙주가 그토록 사랑하는 고부기생이였다.
정승대감의 높은 신분으로 딸이나 다름없는 기생에게 혹하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숙주의 인간됨이 한줄의 시구에 력력히 표현되였다.
이제 더 무슨 시구로 이를 메꿀수 있단 말인가.
대구로 찾아낸 그 하나하나의 표현들은 또 얼마나 재치있는것인가.
별안간 신숙주는 윤자운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떠듬거리며 말하였다.
《자네의 민첩한 시재주를 나로선 따를수 없네. 자네야말로 뛰여난 재능과 안목을 지녔으니 앞으로 크게 출세할걸세.》
그리고는 덤덤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날의 모임은 신숙주의 퇴장으로 어수선하게 막을 내리였으나 동년배친구들은 괜히 잘난체 하며 코를 쳐들던 신숙주가 윤자운의 시 한구절에 무릎을 꿇는것을 보고 몹시 통쾌해하였다.
그후 윤자운은 과연 거듭 벼슬이 올라 령의정에 이르렀고 신숙주보다 3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

* 가사
가사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시가의 한 형태로서 훈민정음이 창

제된 이후 우리 글자를 표기수단으로 하여 씌여진 긴 형식의 국문시가이다.

이로부터 지난날 가사를 장가라고도 불렀다.

가사는 우리 글자가 창제되여 민족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룩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와 당대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15세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가사는 고려시기에 널리 창조보급된 국어가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그의 창조경험을 바탕으로 삼고있으나 처음부터 곡조와 결부되여 발생하고 직접 노래로 불리워진 국어가요와는 달리 분절이 따로 없으며 시행수에서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가사는 생활을 비교적 자유롭고 폭넓게 반영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여기에 선행시기에 창조된 국어가요들과 구별되는 가사형식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시행의 음절수에서 가사는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삼고있으나 구체적인 작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가사의 대표적작품들로는 15세기 정극인의 《상춘곡》, 16세기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17세기 박인로의 《태평사》, 《선상탄》등을 들수 있다.

가사는 18～19세기에 이르러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행가사, 부녀가사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목숨은 죽어도 시는 남는다

지금도 사람들은 남이장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가 남긴 유명한 시 《북으로 출정하며》를 입에 올리군 한다.

한것은 그가 남긴 이 시에 바로 시인의 열렬한 애국심과 호방한 인격이 그대로 응축되여있기때문이다.

남이(1442－1469년)는 리조초의 용감한 장수였다.

그는 풍채가 름름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성격과 행동이 기백있고 과단성이 있었다.

17살때 무사를 뽑는 과거시험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무관이 된 남이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북부국경지대를 안정시키는데서 큰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스물여섯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벌써 온 나라의 군사를 지휘통솔하는 병조판서가 되였다. 남이가 이렇게 애젊은 나이에 판서가 되자 그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류자광이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였다.

문인들만 내세우고 무인들을 하대하던 시절이라 무관인 남이가 이십대의 젊은 나이에 재능과 명성, 지위가 저보다 월등하고 인망이 높아진것이 시기심이 많은 그를 참을수 없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런데다가 새로 왕이 된 예종은 원래 시짓기를 즐겨하는 성미여서 매일같이 문사들을 거느리고 풍월에만 빠져있으면서 남이의 용맹하고 강직한 성격을 은근히 싫어하고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류자광은 예종과 남이사이에 쐐기를 박아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남이가 임금의 누이와 음탕한 관계를 가지고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가지로 획책하며 기회를 노리던 류자광은 남이가 스물여덟살이 되던 해에 드디여 그를 반역죄로 몰아 사형장에 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해에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당시에는 이 별이 나타나면 나라에 큰 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어 벼슬아치들속에서는 나라

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위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다.
어느날 남이가 궁궐에 들어가서 수직을 서고있을 때였다.
이때 마침 혜성이야기가 나오자 남이는 그를 두고 근심하는 벼슬아치들에게 혜성이 나타난것은 묵은것이 제거되고 새것이 성할 상서로운 징조를 암시해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아!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내 강토!》라고 웨쳤다.
이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에서 남이의 말을 엿들은 류자광은 이튿날 임금에게 찾아가 남이가 반역음모를 꾸미고있다고 모합하였다.
이때 류자광은 남이의 말을 외곡하였을뿐아니라 그가 지은 시 《북으로 출정하며》를 거들어 반역행위를 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내놓았다.
류자광이 왕에게 보여준 남이의 시는 그 정황에서는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반역자의 야심이 비낀 작품이였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날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류자광이 내놓은 남이의 시를 본 임금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병권을 쥐고있는 남이가 나라를 얻겠다는 시를 썼기때문이였다.
임금은 그러지 않아도 젊은 병조판서의 지나친 과단성과 용맹이 싫던 참이라 당장 남이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남이는 곧 형틀에 꽁꽁 묶여 야만적인 고문에 살이 터지고 뼈가 부스러졌다.
그러나 남이는 끝끝내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류자광이 자기가 지은 시의 글자 한자를 바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원래 남이가 지은 시는 이러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날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남이가 간직하고있는 애국의 넋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이 시에는 나라의 강토를 지키려는 무인의 장쾌하고 호방한 기상과 후대앞에 지닌 크나큰 사명감을 다하려는 시인의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져있었다.

시는 남이가 북쪽국경지대를 튼튼히 지키던 나날의 체험에 기초하여 지은것으로서 군사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었다.

그런데 류자광은 이 시의 세번째 구에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의 《태평》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 대신에 《얻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바꾸어넣음으로써 나라의 안녕을 지키려는 남이의 애국심을 나라를 얻겠다는 반역음모로 외곡하였던것이다.

결국 남이는 류자광의 검질긴 모함에 의하여 나라를 위한 그 장한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스물여덟살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처형당하였다.

하지만 그는 갔으나 그의 시는 남아 후세에 많은 애국지사들속에서 애송되였다.

＊ 참요

참요는 풍자적성격을 가진 민요의 특수한 형태이다. 옛 책들에서는 《동요》라고도 하였다.

참요는 대체로 극히 함축된 형식과 은어적수법으로 부정적현상을 신랄히 폭로비판하고있는 점에서 일반민요와 구별된다.

또한 음악적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몇줄의 시행으로 엮어지는 단가형식으로서 일반민요에 비하여 빨리 퍼지나 거기에 담긴 내용이 이미 지나간것으로 되여버리면 더는 퍼지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참요는 이미 삼국시기 말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후반기에 이르러 더 활발히 창작되였다.

《흑책》, 《우대후》, 《아야가》 등은 고려시기 통치배들의 부정부패와 사대주의적망동을 풍자한 대표적인 참요작품들이다.

참요는 리조시기에도 적지 않게 창작되였는데 《남산의 정》, 《우습

구나》, 《가보세》 등을 대표작으로 들수 있다.

참요는 내용이 알기 어렵게 씌여진 제한성도 있지만 중세시가문학의 인민적유산으로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마음이 고와야 재능도 빛난다

리조 초기에 활동한 임원준(1426－1506년)은 학식과 문장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당대에 널리 알려진 문인이였다.

그는 일찍부터 시문창작에서 남다른 솜씨를 발휘함으로써 문인들의 관심을 모았고 세종, 세조를 비롯한 여러 왕들의 특별한 신임을 얻기도 하였다.

임원준이 20살때인가 세종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다.

그때 세종은 경상도 관찰사로부터 밀양에서 귀양살이를 하고있는 임원준이 나이는 젊지만 나라의 인재로 될수 있는 재능있는 문사이므로 특사를 내리게 해달라는 상소를 받았었다.

그리하여 왕은 임원준을 시험해보리라 마음먹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옛 시인들처럼 일곱발자국을 옮기는 사이에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웬만한 사람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였으나 임원준은 마치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즉석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

화창한 봄철은 지나가는데
뭉게뭉게 피는 구름 만리에 떠있네
바람을 헤치고 아득히 뻗었고
해빛을 받아 오색무늬 펼쳤구나
령롱한 빛은 옥대궐에 엉키고
상서로운 기운은 금빛문에 둘러있네
훌륭한 임금을 따르는 그날이면

이 몸은 서리되여 임금님 보좌하리

임원준이 지은 시를 본 왕은 매우 감탄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과거도 보지 않은 유생으로서 집현전에 들어가 명망높은 문인들과 함께 학문을 론하고 국가의 중요한 서적편찬사업에도 참가하게 되였다.

그후 임원준은 과거에 급제하여 좌찬성의 높은 벼슬에까지 이르렀으나 시문창작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조정의 수많은 문서작성과 《경국대전》과 같은 중요한 서적을 집필편찬하는데 참가함으로써 당대에 벼슬높은 관리로보다는 문필능력이 특출한 문사, 시인으로 더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그런데 이처럼 재능있는 시인, 문장가인 임원준에게도 한때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남을 깔보고 약은 수를 써서 명예를 얻어보려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할번 한 교훈적인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1456(세조 2년)년 임원준이 문과시험인 회시(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보는 과거시험)를 치르던 때의 일이였다.

임원준은 이번 회시에 꼭 장원급제함으로써 명성을 떨쳐보리라 단단히 결심을 품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선대임금들도 자기의 재능을 인정하였고 이미 집현전에서 서적편찬에 종사하면서 명망높은 문인들과 인연을 맺고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왔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 회시에서도 장원은 문제없을것 같았다.

(이번 과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해. 내가 지은 표문이나 부같은 글들은 상감마마께서도 칭찬해마지않는것들인데 누가 감히 나와 견줄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지.)

이런 생각은 자신의 글재능에 대한 자부심으로 임원준의 마음을 몹시 들뜨게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미타한 점은 자기보다 나이는 서너살아래이지만 학식과 시문에서 자기와 짝지지 않는 어세겸이 회시에 참가하는것이였다. 어세겸과 임원준은 오래전부터 너나들이로 지내는 친구였다. 그만큼 두사람은 서로의 장점과 약점도 잘 알고있었다.

어세겸은 무슨 일을 하든 침착하게 깊이 생각하고 심중하게 처리하는 좋은 품성을 지니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가 지은 시문들은 량적으로는 그리 많지 못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깊이와 무게가 있고 형식이 다채롭고 참신한 맛이 있었다.

그러니 임원준의 생각에도 이번 회시는 자기와 어세겸의 경쟁으로 될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어떻게 하면 어세겸을 누르고 자기가 단연 장원으로 뽑힐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모대기던 임원준은 한가지 묘한 궁리가 떠올라 무릎을 쳤다.

한순간 임원준은 친구에게 미안한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미 세종왕때부터 떨쳐온 자기의 명예를 고수하고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자신을 위안하였다.

드디여 회시를 보러 가는 날 아침 임원준은 일부러 어세겸을 찾아가 속을 떠보는겸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게, 자넨 회시에 응할 준비를 착실히 했겠지. 어때, 자신 있나?》

《글쎄, 좀 떨리네. 나야 자네처럼 문장에 그리 능하지 못하니 원만하다고 할수 없지. 회시에 붙기나 하겠는지 모르겠네.》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말게. 내가 뭐 자네 글솜씨를 몰라서.》

《아니야, 이건 진심일세. 난 아무래도 자네보다 문장력이 약해. 사실 좀 걱정되는바가 없지 않네.》

어세겸은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둘사이의 대화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흐르자 임원준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지난밤에 궁리했던것을 슬쩍 비치였다.

《여보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세.

나는 표문에 능하고 자넨 부에 능하니 각각 장끼대로 두편씩 몰아지어서 서로 바꾸기로 하세.

그러면 둘이 다 고생을 하지 않고 표문과 부를 갖추게 될것이 아닌가.》

그때 어세겸은 친구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선뜻 찬성하였다.

《그것 참 신통한 생각이로구만.

나의 부족한 문장력을 자네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그렇게만 되면 회시도 승산이 있어보이네.》
《좋아, 그럼 우리 약속을 했네.》
두사람은 다같이 기뻐하였다.
이윽고 과거시험장에 도착한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 자리를 각각 정하고 문제로 제시된 표문과 부를 짓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시험지를 낼 때가 되여 어세겸이 먼저 임원준을 찾아와 부를 주면서 표문을 내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원준이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보게, 미안하네.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생각이 바짝 말라붙어서 표문을 겨우 한편밖에 못 지었네. 내 처지에 자네가 지은 부를 받을수도 없구만. 그러니 부도 내 생각대로 대충 써볼가 하네.》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럼 할수 없지.》
어세겸은 약속을 어긴 친구가 민망스러웠지만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자신이 뉘우쳐지는지라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짜내여 자기식으로 표문을 지어 바쳤다.
임원준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여간다고 내심 만족해하였다.
며칠후 급제자의 이름을 발표하는 날이 되였다.
임원준은 집의 하인들가운데서 글을 볼줄 아는자를 시켜 급제자명단을 보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렀다.
《이제 가거들랑 뭐 여기저기 살펴볼것도 없느니라. 그저 명단의 맨 첫머리만 보고 오너라. 거기에 반드시 내 이름이 씌여있을것이다.》
임원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방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하인이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것이였다.
《명단을 보니 주인님의 성함은 첫번째가 아니고 두번째에 있소이다.》
《뭐, 뭐라구? 그래 장원은 누구더냐?》
《어세겸이라는 사람이오이다.》
《어세겸? … 그럴수가 있는가. 시험관들이 뭔가 오해를 한것이다. 아니면 어세겸이 무슨 간특한 수를 썼던지. …》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앞에서 당황해난 임원준은 곧 어세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놓고 따지고들수 없는 일인지라 얼굴에 억지웃음을 짓고 물었다.

《여보게, 자네 이번 회시에 장원으로 뽑힌 소식을 들었나?》

《나도 방금전에야 알았네. 별로 재간이 없는 내 글이 장원으로 뽑혔다니 황송하기 그지없네.

여러 스승들과 친지들이 많이 방조해준 덕분일세.》

《축하하네. 자네의 글재주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줄은 미처 몰랐구만. 그런데 그 글의 초고를 한번 보여줄수 없겠나?》

어세겸은 그제야 임원준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을 비슷이 짐작하고 웃으면서 《초고를 그만 잃어버렸네. 허나 정 보고싶다면 내가 생각을 더듬어 써보겠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초고를 써내려가다가 짐짓 중요한 대목의 네댓구를 빼버리고 그대로 주었다.

임원준은 성급히 종이를 받아들고 글을 살펴보았다. 역시 의심했던 그대로였다.

《아니, 이런 문장으로 장원이라니… 알수 없는 일이군. 이게 그 글이 옳은가? 시험관들이 뭔가 삭갈린게 분명해.》

《그러니 자넨 내 글이 미심쩍어 알아보자구 왔구만.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보충해넣으면 어떤가?》

어세겸은 다시금 종이에 빼여놓았던 문구들을 써넣었다.

임원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번을 연거퍼 되풀이하여 읽고나서야 맥없이 종이를 바닥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과연 나로서는 어세겸의 글재능을 당할수 없구나.》

임원준은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머리에는 온통 어세겸의 문장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묻자 임원준은 얼결에 동문서답격으로 《어세겸의 글이야말로 참 잘 지은것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동료들은 임원준이 과거장에서 어세겸을 속여서 장원을 하려고 거짓약속을 했었다는것을 알고 어쩌면 그리도 속통이

바르지 못하고 의리도 모르는가고 하면서 저만 잘난체 하다가 응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비난하였다.

임원준은 그때부터 한동안 친구들앞에 머리를 들고다니지 못하였다.

며칠후 그는 어세겸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빌었다.

《여보게, 나를 고약한 놈이라고 욕많이 하라구. 난 이제껏 쥐뿔만한 글재간을 믿고 으시대면서 글재능은 천성적으로 내가 타고난것이고 남들은 다 나만 못하다고 자부하고있었네. 그래서 이번 과거시험때에도 내가 꼭 장원으로 뽑혀야 한다고 여기고 자네를 얼려넘기려다가 이 꼴이 되였네.》

어세겸은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말을 듣고 너그러이 타일렀다.

《글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마음이 고와야 하네. 부족한 재능은 부지런히 련마하면 되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고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의 손에서 어찌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좋은 글이 나올수 있겠나.》

그때부터 임원준은 이 일을 교훈삼아 자식들에게나 후배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붓끝이 무디여지는 법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우면서 자신을 다잡았다고 한다.

정승의 사위가 된 윤효손

윤효손(1431－1503년)은 한미한 량반가문에서 태여났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학문을 닦고 창작적재능을 련마하여 이름있는 문사로 알려졌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말년에는 형조판서, 좌참찬 등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였다.

윤효손이 아직 과거에 급제하기 전의 일이였다.

어느해 마가을날 윤효손은 의정부의 록사(지금의 서기와 비슷한 직무)로 있던 아버지 윤처관이 정승대감댁에서 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날 아침 새벽에 좌의정 박원형댁에 전할 문서들을 가지고 집을 나섰던 윤처관은 날이 저문 다음에야 후줄근해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선 아버지는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것이였다.

《허참, 기가 막혀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괄세를 당한단 말인가. 하루종일 밥도 못 먹구 걸인처럼 남의 집 대문가에서 바람막이노릇이나 하다 오다니…》

윤효손은 분을 삭이지 못해 연방 큰 한숨을 내쉬는 아버지의 얼굴을 놀라웁게 바라보며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아버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시 정승댁에 사람이 없어 헛수고를 하고 오신것이 아닙니까?》

《사람이나 없어 그냥 왔다면 이처럼 통분하겠냐?

아무리 권세가 하늘에 닿은 정승이기로서니 공적인 일로 사람이 찾아갔는데 문지기를 시켜서 밖에 세워두고 자기는 한낮이 지나도록 잠만 자고 해가 지도록 얼굴조차 내밀지 않으니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한두끼 밥을 굶고 찬바람을 맞으며 하루종일 떨다 온것이 가슴아픈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대접을 못 받고 온것이 가슴에 맺혀 그런다.

가문이 보잘것 없고 재주가 없어 이렇게 욕을 보는구나.

효손아, 명심해라. 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능을 닦고 가문을 떨쳐 이 아비처럼 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비분으로 몸을 떨며 당부하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문벌이 낮은탓에 남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자기의 재능도 펼쳐보지 못한채 속절없이 썩어가고있는 사람들의 원망과 서러움이 저 눈물속에 어려있으리라.

윤효손은 마치도 자기가 모욕을 당한듯 하여 울컥 밸이 치밀어올랐다.

(과연 우리가 저들만 못하단 말인가. 내 기어이 성공하여 문벌만 믿고 우쭐대는자들을 눌러놓고야말테다.)

효손은 몇번이고 맹세를 다지며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문벌높은 량반님네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효손은 잠들수 없었다.

찬바람이 불어치는 밖에서 떨고있는 아버지의 지친 모습과 한껏 술에 취해 뜨뜻한 방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있는 박정승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그처럼 아버지를 욕보인 박정승을 그냥 둬두고는 도저히 견딜것 같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워 모지름을 쓰며 골머리를 앓던 윤효손의 머리에 번개치듯 시상이 떠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앉아 곧 흰 종이를 펴들고 붓을 휘둘렀다.

잠간사이에 종이우에는 시 한수가 씌여졌다.

다음날 아침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 평상앞에 다가앉던 윤효손은 아버지가 박정승의 집에 다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아들의 속마음을 읽은듯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사람이다. 어제일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 집에 발길을 돌리고싶지 않다만 사적인것과 공적인것을 갈라야 하지 않겠느냐.

사사로운 감정에만 사로잡혀 나라정사와 관련된 일을 그르친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것이 아니겠느냐.

내 직분이 수시로 제기되는 공문들을 제때에 정리해서 전달하는것이니 어쩔수 없구나.

그래 내 분하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가보련다.》

효손은 눈을 내리깔고 듣고있다가 소매속에 간수하였던 종이말이를 꺼내며 당부하였다.

《아버님, 그럼 박정승댁에 가시거들랑 이것을 보이십시오. 제가 어제 밤에 한번 지어본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박정승이 시문을 몹시 좋아하고 글보는 눈이 높다고 하던데 이 글을 보면 아버님을 괄세하여 돌려보내지는 못할것입니다. 꼭 보이도록 하십시오.》

아버지는 한순간 눈이 휘둥그래지며 주춤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종이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

한편 박정승은 이날도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선뜻 일어나기가 싫어 문틈으로 비쳐드는 해살을 바라보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을 굴리고있었다.

그러다가 문지기가 몇번씩이나 손님이 찾아뵈우러 왔다고 여쭤서야 겨우 몸을 일으키고 꽥 소리를 질렀다.

《왜 아침부터 이리 소란하냐. 해가 이제야 산마루에 올라설가말가 했는데 어떤자가 일찍부터 찾아다니며 시끄럽게 군단 말이냐.》

문지기는 황급히 문밖에 엎드리며 아뢰였다.

《황송하옵니다. 저, 의정부에서 록사가 어제도 왔다가 대감을 뵙지 못하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와서 전할 문서들이 있다고 재촉하오이다.》

《정 그러하다면 사람은 거기에 있으라 하고 문서만 들여보내도록 해라.》

박정승은 그제야 마지못해 승인하고 옷을 걸치고나서 문지기가 들여보낸 문서들을 대충 훑어보았다.

의정부의 사무내용과 관련된 일반문서들이라 별로 흥미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 한장을 펼쳐든 박정승은 그만 눈길이 굳어졌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활달한 필치로 쓴 시 한수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정승대감 술에 취해 잠을 자는데
해는 바로 머리우에 높이 떴구나
문앞에서 기다리는 길손의 명합장
어느덧 보풀일어 볼꼴 없어라

내 만약 꿈속에라도
옛 성인 주공을 만나본다면
아마도 그에게 물었으리라
찾아온 길손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고

박정승은 갑자기 몽둥이에라도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뗑해졌다.

얼마나 신랄한 풍자인가.

한낮이 되도록 술에 취해 잠만 자는 라태하고 무위도식한 정승, 찾아온 사람을 하루종일 문밖에 세워두고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도덕도 례절도 모르는 대감, 즉 자기의 그릇된 처사를 성인으로 불리우는 주공의 고사에 비기여 신랄히 야유하고있는것이다.

주공은 옛 중국의 주나라사람으로서 벗을 얻는데 매우 극진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밥을 먹다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면 먹던 밥을 뱉아버리고 달려나가 마중하였으며 머리를 감다가도 손님이 오면 물에 젖은채로 나가 맞아들이군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덕이 있고 례절바른 주공이 살아있다면 박정승의 무례한 행동에 노하여 대번에 그의 뺨을 쳤을것이 아닌가.

박정승은 가슴이 섬찍해졌다. 짤막한 시가 이렇게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를줄은 몰랐다.

그는 시인의 재능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시문에서는 누구에게 짝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박정승은 이처럼 기발한 시를 써서 자기를 골탕먹인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싶었다.

박정승은 거짓 엄한 표정을 짓고 문지기를 불러 이 종이를 가져온 사람을 당장 대령시키라고 하였다.

문밖에서 소식을 기다리고있던 윤처관은 뜻밖에도 들어오라는 전갈

을 듣고 의아한 기색으로 들어와 정승앞에 읍하고 섰다.
박정승은 윤처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의정부의 록사라지. 그래 네가 그렇게 글재간이 좋으냐?》
《무슨 말씀이온지 소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순간 윤처관은 박정승이 내미는 종이에 눈길이 가자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아뿔싸, 이게 뭐야. 내가 경황이 없이 여기로 오다나니 아들이 준 종이에 무엇이 씌여있는지도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큰 변이 나게 되였구나.)
윤처관은 자기의 실책을 느끼며 난감한 기색으로 조용히 아뢰였다.
《실은 이게 저의 어린 아들놈이 장난삼아 쓴것이옵니다.
어제 내가 정승대감을 뵈오러 갔다가 하루종일 문밖에 서있다가 그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놈이 글쎄 이런 장난질을…》
《뭐, 뭐라구? 그럼 이게 너의 시가 아니라 네 아들이 쓴것이란 말이냐? 아들이 몇살이나 되였느냐?》
《예, 이제야 겨우 총각꼴이 잡혔소이다.》
박정승은 아연해졌다.
짤막한 시줄에 깊은 뜻을 담고 힘든 고사를 리용하여 자기의 그릇된 처사를 야유한 시를 그의 아들이 썼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박정승은 아까와는 달리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물었다.
《그래, 자네 아들이 시문에 그렇게 능한가?》
《네. 그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남달리 극성을 부리더니 한다하는 성현들의 글들을 보지 않은것이 없소이다. 그리고 짬만 있으면 시문을 짓는데 시문을 지은 종이가 키를 넘습니다.》
《허허, 개천에서 룡이 난다더니 자네 가문에 그런 인재가 숨어있었구먼.
이보게, 내 실은 이 시를 보고 가슴이 찔끔해서 속이 좋지 않았네만 년소한 자네 아들이 이렇게까지 뛰여난 시재인줄을 알게 되니 나를 욕하는 시일망정 받아본것이 기쁘기 그지없네.》
윤처관은 박정승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것을 보고 어떻게 처신해

야 할지 난감해하였다.

그러는 윤처관에게 박정승은 정색하여 말을 이었다.

《이보라구, 보아하니 자네 아들은 재능이 비상해서 그저 썩이긴 아까운 사람일세.

앞으로 학식을 넓히고 과거에도 급제하자면 훌륭한 스승들에게서 더 배워야 하겠는데 우리 집에 맞춤한 딸년 하나가 있으니 아예 자네 아들과 혼인을 맺어주는것이 어떻겠나?

그럼 내 뒤에서 적극 밀어주어 그가 큰 사람이 되도록 돌봐주겠네.》

《예?! 아니, 우리 처지에 대감댁과 어떻게 혼사를… 》

《일없네. 걱정말게, 이래뵈두 사람을 가려보는 눈은 내게두 있네. 그리구 자네 아들이 욕한것처럼 그런 무례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나도 자신을 다잡겠네. 어떤가?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혼인을 맺는게 좋을걸세.》

이 일이 있은 후 한미한 량반가문출신의 윤효손은 일약 정승대감의 사위로 되였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되였다.

학식이 높고 글재능이 있었던 그는 선대왕들의 실록편찬사업에도 참가하고 여러권의 저작들도 내여 당대에 이름을 떨치였다.

그의 이러한 벼락출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장가를 잘 가서 처가집 덕을 보았다고 할 때면 윤효손은 이런 말로 점잖게 핀잔을 주군 하였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을 키우면 아무때건 빛이 나는것이지 장가를 잘 가고 못 가는것이 성과를 담보하는것은 아닐세. 노력과 재능,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품이야.》

＊ 서거정의 《동인시화》중에서

《시는 감정이 피여남이고 기백이 넘침이다.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의 시를 읽으면 그의 사람됨을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옳은 말이다.》

《시는 마땅히 기백을 앞세우고 기교는 다음으로 해야 한다.》

《시는 내용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함축성있는것이 좋다. 그러나 희미하고 은근한 말은 기쁨과 아픔을 명백히 하지 않아 또한 시의 큰 흠집이다.》

《시는 자그마한 재능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관련이 있다면 뜻있는이들은 마땅히 이를 리용하여야 한다.》

소 춘 풍

소춘풍은 성종(1470－1494년)때 영흥지방의 명기로서 성격이 활달하고 얼굴 또한 활짝 핀 장미꽃마냥 예쁘장하여 뭇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게다가 시 또한 잘 지어 영흥지방은 물론 조정의 문무백관치고 영흥의 소춘풍이라고 하면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였다.

지어 임금인 성종까지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불러다 여러번 궁중연회에까지 참석시켜주었으니 과히 경국지색의 명기라고 해도 그릇됨이 없을것이였다.

소춘풍이 성종의 부름을 받고 궁성에서 차린 주연에 참가했을 때 있은 일이였다.

구름처럼 모여든 문무백관들은 풍악에 맞추어 복사꽃마냥 스쳐가는 기녀들의 춤가락을 따라 한껏 취흥에 잠겨있었는데 여기에 영흥의 명기 소춘풍도 참가하여 잔치의 흥을 더 돋구어주고있었다.

전에없이 기분이 떠있던 성종은 문득 소춘풍을 불러 술을 쳐올리라고 분부했다.

한갖 비천한 기생신분으로 임금에게 술을 올리게 된 소춘풍은 황공한 마음으로 금술잔이 넘치게 호로병을 기울였으나 감히 임금의 앞에까지는 갈수 없어 그결에 있는 령의정에게까지 가서 술을 권한 다음 차례로 대신들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하였다.

봄버들마냥 한들거리는 자태에 구슬을 굴리는듯싶은 랑랑한 목소리로 술을 부어 권하는 그의 아름다운 미모에 넋을 잃은 대신들은 초조히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한껏 교태를 머금고 품계에 따라 술잔을 권하던 소춘풍은 얼결에 병조판서를 지나쳐 공조판서한테 먼저 술잔을 가져갔다.

순간 병조판서의 얼굴은 경련이 일듯 실룩거렸고 반대로 뜻밖의 행

운에 공조판서는 입이 귀밑까지 째졌다.

두사람의 기색을 띄여보며 소춘풍은 한순간 당황했으나 한번 이 기회에 고관대작이라 뽐내는 그들을 놀려볼 생각에 생긋이 웃음을 지었다.

성종이하 문무백관들은 얼떠름해서 소춘풍의 행동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소춘풍은 공조판서에게 술을 권하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것이였다.

요순시절 어제 본듯 한당송은 오늘 본듯
고금리치 통달하는 군자선비 옆에 두고
이것저것 다 모르는 무부를 내쫓으랴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빼놓고 공조판서에게 먼저 술을 권한 소춘풍을 괘씸하게 생각하고있던 병조판서는 무인이라 함부로 조롱하는 그의 노래까지 듣자 더 참지 못하고 그만 대노하였다.

당장이라도 소춘풍을 요정낼듯싶은 병조판서의 무서운 기상에 웃음소리 높던 좌석의 분위기는 한순간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여졌다.

그런데 이때 소춘풍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앞서 한 말 롱말이니 내 말씀 허물마소
문무일체인줄 나도 잠간 아옵거니
두어라 규규무부를 아니 쫓고 어이하리

소춘풍은 어느새 술을 잔에 가득 부어가지고 병조판서앞에 마주서있었다.

실로 기지가 섬광마냥 번뜩이고 시조 한수로 일국의 재상들을 휘여잡는 소춘풍이였다.

그러니 제아무리 성난 사자같은 병조판서인들 소춘풍의 그 뛰여난 미모와 기지앞에 용빼는 수가 있으랴.

만장의 찬탄속에 병조판서는 앞서 취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의 인품을 깎아내린것만 같아 면구스러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소춘풍이 권하

는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사례의 표시로 자기도 술을 부어 소춘풍에게 권했다. 소춘풍은 머리를 깍듯이 숙이며 병조판서의 본을 따서 그것을 쭉 들이켰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대신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성종까지도 소춘풍의 뛰여난 기지와 시적재능에 탄복하여 웃통을 들썩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치였다.

임금을 훈계한 문지기군사

리조 성종때의 어느해 봄날, 엄엄한 정숙이 깃들어있던 궁성안이 하루아침에 복새판으로 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인즉 후원기둥에 써붙인 임금의 시에 누군가 감히 손을 댄것이였다.

며칠전 성종은 후원으로 꽃구경을 나왔다가 시흥에 겨워 기둥에 이런 시 한구절을 남긴적이 있었다.

풀색비단 잘라서 봄버들 만들었나
붉은 비단 말아서 꽃을 피웠나

뒤따르던 문무대신들은 저마다 태평성대의 기상이 넘치는 걸작이라고 입에 침이 마를새없이 수선을 떨었다.

그러나 성종은 다음구절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 후날 마저 마무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날 아침 못다 지은 시를 완성하려고 후원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기에 이런 시구가 덧붙여져있었다.

신하들 저저마다 봄경치 좋아해도
그 봄빛 백성집에 가닿기나 할는지

시를 읽어가던 성종은 저도 모르게 낯이 흙빛으로 되여버렸다.

그렇게 과찬하던 첫 시구와는 대조되게 이 시구절엔 자기에 대한 야유가 은근히 내비치고있었던것이다.
아무말없이 헛기침만 하는 임금의 속내를 눈치챈 대신들은 무엄하게도 임금의 시에 손을 댄자를 당장 잡아다 릉지처참하자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댔다.
그런데 반나절도 채 못되여 그를 잡았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금부라졸들이 끌고온 범인을 보는 순간 성종이하 관리들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앞에 나타난것이 다름아닌 후원문지기 신귀원이라는 군졸이 아닌가.
과연 천하기 그지없는 저 시골뜨기가 신성한 임금의 시에 함부로 손을 댔단 말인가.
너무도 어이없어 쓴웃음을 짓던 성종은 《네 어면 연고로 이런 시를 썼는고?》하고 엄한 얼굴로 물었다.
노기서린 왕과 대신들의 눈총이 몸에 와닿는것을 느꼈으나 문지기군사는 의외로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궁성의 꽃경치가 아름다운들 어찌 기아로 허덕이는 백성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겠나이까.
소인은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것이니 이제는 상감마마의 현명한 처분을 바랄뿐이오이다.》
성종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며칠전에도 성종은 몇해째 계속되는 가물로 농민들이 페농하여 류랑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차고넘친다는 량사의 문서를 받았었다.
그러니 만약 저 문지기군사를 처형한다면 자신은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의 체면만 세우려는 무지한 폭군으로 후세에 남을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 군사는 틀림없이 목숨을 내대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것이다.
성종은 끓어올랐던 노기가 수그러지는것을 스스로 느끼며 한결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자고로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했거늘 짐이 아무리 선정을 마음먹은들 별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대의 갸륵한 마음

만은 내 알았으니 이 시를 금후의 교훈으로 삼을지어다.》
그리고는 모여선 대신들에게 이 시를 기록해두라고 일렀다. 결국 임금의 시가 한갖 문지기군사에 의해 완성된셈이였다.
당대에 큰 파문을 일으킨 이 일화는 《해동시화》라는 책에 실려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

서 경 덕

스승을 놀래운 어린 서경덕

16세기의 유명한 학자이며 재능있는 시인, 문장가였던 서경덕(1489—1546년)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다.
학구심이 남달리 강하였던 그는 모를것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 해명하고야마는 기질을 지니고있었다.
그가 14살되던 해에 있은 일이다.
그때 그는 이웃에 있는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있었다.
어느날 스승이 그에게 경서를 배워주고있었는데 어느 한 장에 이르러서는 읽는 법만 가르치고 그 뜻을 해석해주지 않고 어물쩍 넘기려고 하였다.
《이 글의 뜻을 왜 해석해주지 않으십니까?》
서경덕이 의아해하며 묻자 스승은 《이 장의 글뜻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무엇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당돌하게 따지고드는 서경덕앞에서 스승은 대답이 궁해져서 머뭇거리였다.
사실 그 장의 글뜻은 너무 어려운것이여서 그자신도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어린 제자앞에서 자기도 모르겠으니 해석해줄수 없다고 말할수도 없었다.
《이 장의 글뜻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읽지 않는것이 좋으

니라.》

그리고는 다음장의 글을 배워주었다. 집에 돌아온 서경덕은 스승의 말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없는 글을 어찌 책에 올렸을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런 의혹이 들면 들수록 그것을 그대로 덮어버릴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배운 글자와 단어의 뜻을 되새기며 그 부분을 읽고 또 읽었다.

이렇게 읽고 또 읽기를 백번천번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여 보름만에 그 뜻을 해득하고야말았다.

그 다음날 서경덕은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해득한 그 글의 뜻을 해석하면서 옳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그 글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 스승은 서경덕의 탐구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부끄럼도 잊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였다.

《옳구나, 바로 그런 뜻이였구나.》

그리고는 서경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한탄하였다.

《내가 학문의 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한건 결코 더 배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처럼 탐구할줄 몰랐던탓이였구나.》

서경덕과 황진이

황진이라고 하면 리조 성종때 송도(개성)의 유명한 기생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바로 이 황진이가 어느날 송악산기슭에서 량반들속에 끼여 한담을 하고있었다.

한 량반이 황진이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이 세상에서 도덕이 있고 고상한 사람은 량반들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황진이가 대뜸 조롱하듯 말했다.

《허지만 량반들이 아무리 도덕에 밝고 고결하다고 해도 색에 빠지지 않는 량반을 이 소녀는 보지 못했나이다.》

황진이의 이 말에 좌중의 량반들은 얼굴이 벌개져 서로 바라보며 한동안 대답을 못하였다.

그러다 한참만에 한 량반이 무슨 생각이 났던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다.

《아니, 색에 빠지지 않는 량반이 있소. 있단 말이요.》

《그분이 뉘신지요?》

《그건 얼마전부터 우리 송도에 내려와 은거하고계시는 화담선생이요.》

《화담?》

당시 화담 서경덕은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개성에 내려와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다른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있었다.

《옳소, 그분은 주색에 빠지지 아니하는 량반의 고결한 풍모를 지닌분이요.》

서경덕을 이미 알고있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량반들은 그 말에 호응해나섰다. 황진이는 량반들에게 더 반박하지 않고 앞으로 화담선생을 만나보고와서 다시 론하자고 하였다.

며칠후 황진이는 아무리 주색에 빠지지 않는다는 량반도 자기앞에서는 굽히고말리라는 생각으로 서경덕을 찾아갔다.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찾아가면 문전거절을 당할수 있다고 타산하고 서생차림으로 찾아가 그에게 제자가 되고싶다고 공손히 청을 올렸다.

그러자 서경덕은 황진이를 기꺼이 맞아들이였다. 그리고 황진이가 요구하는대로 낮에 밤을 이어 글을 가르쳐주었다.

이렇게 며칠 한방에서 지내면서 그와 어느 정도 친숙해지자 황진이는 드디여 자기의 계책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는 밤늦게 글공부를 마치고는 우정 서경덕의 곁에 잠자리를 정하고 누워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잠을 갈개자는척 하면서 흰 팔을 서경덕의 가슴우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는 흰 다리를 서경덕의 배우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이럴 때면 서경덕은 《허, 몹시 피로한 모양이구만.》하면서 황진이의 팔과 다리를 조심히 들어 바로놓아주군 하였다.

이렇게 여러날 밤을 보냈으나 서경덕은 끝내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직 글공부에만 모든 사색과 정력을 바치도록 가르칠뿐이였다.

이렇게 되여 끝내 자기의 계책을 실행하지 못한 황진이는 일전에 자기와 한담하던 량반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색에 빠지지 않는 고결한분은 화담선생 하나뿐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여 남달리 고결한 성품과 높은 학식을 지닌 서경덕과 자기나름의 독특한 인격과 재능을 지닌 황진이는 개성의 명승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3절》로 후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게 되였다.

* 강호시가

봉건시기 문인들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강과 호수 등 자연을 찬미하여 쓴 시가작품들을 말한다.

일명 전원시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향의 시가들은 주로 량반사대부들이 벼슬살이를 멀리하고 산수속에 묻혀 한가로이 음풍영월하는것을 인생의 더없는 행복으로 구가하고있다.

강호시가작품들은 고려 중엽이후시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였고 15~16세기경에는 하나의 조류를 이루었다.

강호시가는 늙거나 병으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전원에 내려가 살던 문인들 또는 통치계급내부의 모순과 알륵으로 벼슬에서 파직되였거나 스스로 그만두고 산촌에 내려가 살고있던 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되였으므로 창작경향에서 일련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앞의 실례로는 15세기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정극인의 《상춘곡》, 16세기 리현보, 권호문 등의 시가작품들을 들수 있고 뒤의 실례로는 17세기 신흠, 윤선도 등의 작품들을 들수 있다.

강호시가작품들가운데는 윤선도의 《산중신곡》을 비롯하여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생활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반영한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도피적이며 관조적인 경향이 농후한것이 특징적이다.

정랑을 몰아낸 림형수

16세기 전반기 북방요새의 관문 회령을 노래한 장시 《오산가》를 지어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림형수(1504－1547년)는 익살기가 많고 호방한 시인이였다.

그가 정계에 나선지 얼마 안되여 리조의 고공사에서 근무할 때 있은 일이였다.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관리 하나가 림형수에게 대뜸 욕지거리를 퍼부어대는것이였다.

《사수(림형수의 자), 이제 보니 자네 밑으로 호박씨를 까고있었더군. 어쩌면 량반군자라는게 속통이 그리 너절한가.》

《아니, 이 친구 선밥을 자시고 나왔나. 왜 아침부터 생트집인가?》

평소에 무랍없이 지내던 사이여서 형수는 느슨한 미소를 띠우며 응수했으나 여느때없이 불그락푸르락하는 품이 뭔가 심상치 않아보였다.

동료는 형수가 눈섭 하나 까딱 않고 롱조로 넘기자 더욱 부아가 돋았는지 언성을 높였다.

《시치미를 떼지 말게. 그래 까밝혀야 토설할텐가. 자네 상소초안을 〈절곡쟁이〉한테 갖다바쳤다면서.》

《아니, 그거야 지금… 》

형수가 미처 변명하기도 전에 동료는 더 들을것도 없다는듯 손을 휘저으며 말허리를 끊어치웠다.

《흥, 아침에 자네가 그 방에서 나오는걸 본 사람이 다 있어. 우릴 잡아 몸값을 올리자구? 암만 그래야 뜻대로는 안될걸.》

동료는 쓴입을 다시고나서 휭하니 나가버렸다.

어안이 벙벙하여 지켜만 보던 림형수는 《허참.》하며 맹랑한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가 방금 따져묻던 상소문은 고공사의 일부 관리들이 새로 부임한 정랑을 탄핵하여 지은 글로서 비밀리에 엊저녁 자기에게 의견을 물으러 가져온것이였다.

당시 고공사는 륙조에서도 노란자위라고 불리우는 리조의 한 부서로서 조정관료들의 근무실적을 장악하는 직능을 수행하고있었다.

비록 관리임명권을 쥔 문선사에 비하면 먹을 알이 적으나 매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께 주달하는 관계로 감히 허술히 여길수 없는 고공사였다.

그래서인지 한다하는 대감들조차 이곳의 실제 책임자격인 정랑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앉는가에 은근히 윈심을 썼다.

그런데 이번에 온 정랑은 그 위인이 얼마나 까다롭고 아래사람들을 들볶아대는지 고공사관리들은 누구나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서 죽어갔다.

듣자니 그는 이전에 여기 고공사의 좌랑을 지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청백한 기질을 키운다면서 밥대신 솔잎만 먹는 《절곡》(단식)을 하는통에 《절곡좌랑》이란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어쨌든 위선과 아첨이 능한 덕에 다른 곳에 승진했다가 다시 정랑으로 부임해왔던것이다.

더해만지는 정랑의 복달질에 시살이 날 지경이던 관리들은 아예 임금께 상소하여 내쫓거나 집단적으로 사퇴할 의향으로 몰래 상소문초안을 작성하여 사헌부에 제출하려고 했던것이다.

상소문초안작성자들은 우선 림형수에게 보이고 그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다.

그네들이 다른 사람에 앞서 림형수를 택한데는 무엇이든 그릇된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칼도마우에도 올라서는 그의 대쪽같은 성미를 믿었기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림형수는 상소문을 대강 훑어보더니만 《심사가 꽁지벌레같은 사람을 내라고 좋아하겠나.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바지걸친 장부들이 이게 무슨 꼴인가. 촌아낙네들처럼 이런 뒤공론을 펴니 말일세.》

하고 시답지 않게 말하는것이였다.

동료들은 뜨아해하며 《아니, 그럼 자넨 반대라는건가, 뭔가. 좀 명백히 밝히게.》하고 다불러댔다.

잠시 아무말없이 생각을 굴리던 림형수는 문득 가벼운 웃음을 입가에 띠운채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을 열었다.

《좌우간 놓고가게. 내 알아 처리하겠네.》
동료들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림형수의 사람됨을 믿고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돌아갔다.
이때 밖에서 통방이 빨리 정랑방에 오라는 전갈을 여쭈었다.
이무렵 정랑방에서는 정랑이 관리들을 모아놓고 고래고래 목청을 돋구고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짓을 했는가? 썩 나서지 못할가.》
대들보를 쩡 울리는 고함소리에 사람들은 또 무슨 졸경을 치를가 하는 조바심에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였다.
정랑의 손에는 종이 한장이 들려있었다.
초안을 작성한 장본인들은 필시 림형수때문에 일이 탄로난것으로 짐작하고 서로 눈길을 맞추며 입만 다시였다.
림형수가 방에 들어서는것을 띠여본 그들은 눈에 잔뜩 독기를 띠우고 노려보았다. 그러건말건 형수는 평소의 자세대로 태연히 사람들속에 끼여들었다.
한동안 또다시 씩씩거리던 정랑은 맥이 진했는지 손에 집었던 종이를 홱 집어던졌다.
일제히 시선을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 모으던 관리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종이에는 이런 짤막한 시 한수가 적혀있는것이였다.

가증스런 저것을 누가 낳았나
오래도 살면서 아래사람 들볶네
단식하던 그해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번에는 정랑되여 다시 나타났구나

시를 띠여본 관리들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느라 입을 싸쥐였다.
사실 이것은 림형수가 오늘 아침 정랑이 출근하기 전에 그의 책상에 지어다 놓은것이였다. 저만 제일인듯 코대를 높이며 허세를 부리는 정랑이 제 처지를 좀 알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시가 얼마나 신통했던지 정랑은 마치 불맞은 메돼지모양으로 길길

이 날뛰였다.

그러나 동정은커녕 오히려 속시원해하는 관리들의 표정을 일별하자 그는 제풀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부임이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수선하여 늘 짜증만을 내던 참에 이렇게 로골적인 적의가 실린 탄핵시를 받아들었으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정 그렇게도 내가 보기 싫다면 좋다. 내 이 잘난 정랑자리를 내놓으면 될게 아니냐. 하지만 두고보라, 당신들도 무사치는 못할걸.》

정랑이 이렇게 뇌까리고 문을 차며 나간 뒤 만장은 폭소판으로 변했다.

《거참, 누군지 정말 우리 생각을 그대로 대변했소그려.》

《그래, 그 시가 정랑을 면바로 찔렀어.》

《어쨌든 괴짜야. 우리 고공사에 그런 인재가 있다는게 뭐니뭐니해두 제일로 큰 자랑일세.》

관리들은 십년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듯 환한 얼굴을 하고 자기 방으로 흩어져갔다.

림형수도 방을 나서려는데 문득 뒤에서 누군가 팔굽을 툭 쳤다. 돌아보니 아까 자기에게 화를 내던 동료였다.

림형수는 아무말없이 그에게 입을 삐쭉하며 한쪽눈을 끔뻑해보이는 것이였다.

＊ 《동문선》

《동문선》은 133권으로 된 우리 나라의 력대작품선집으로서 1478－1481년에 서거정, 로사신, 강희맹, 량성지 등 20여명의 문인학자들에 의하여 편찬되였다.

작품집에는 삼국시기로부터 15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창작된 2 000수의 시들과 1 600여편의 산문이 실려있는데 대부분은 고려시기에 창작된것들이다.

책에는 운문과 산문작품들이 형태별, 사람별, 년대순으로 분류배렬되여있다. 운문(1－22권)에는 사, 부, 고시, 률시, 배률, 절구 등이 있고 산문(23－130권)에는 전, 설, 론, 기, 문, 찬, 송 등을 비롯하여 45가지의 각이한 형태의 글들이 실려있다.

《동문선》은 15세기 중엽까지 우리 나라에서 편찬출판된 작품집들가운데서 작품수가 제일 많으며 그 체제도 잘 째여있는것으로 하여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동문선》에는 삼국시기와 고려시기, 리조 초기의 대표적인 작가, 문인들의 작품들뿐아니라 당시에 이름은 비록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의 시와 산문들도 적지 않게 들어있으며 또한 15세기이전시기에 쓰인 운문과 산문의 다양한 형태들을 거의다 포괄하고있기때문에 당시 문학의 발전면모, 각종 문학형태들이 발생발전하여온 력사적과정과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동문선》이 편찬된 후 40여년이 지난 16세기 전반기에 신용개 등이 23권으로 된 《속동문선》(《동문선》의 속편)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동문선》이 나온 이후 약 40년간에 창작된 시와 산문들이 실려있다.

이밖에 1713년 송상기 등이 편찬한 15권으로 된 《속동문선》도 전하는데 여기에는 신용개 등이 편찬한 《속동문선》이후시기에 창작된 시와 산문들이 실려있다.

녀류시인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는 1516년에 개성에서 황씨성을 가진 한 량반의 서녀로 태여났다.

《송도기이》를 비롯한 일부 야사책들에서 그의 출생과 관련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있다.

황진이의 어머니 진현금이 어느날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있는데 다리우로 지나가던 한사람이 그에게 물을 청하는것이였다.

진현금이 그에게 물을 떠주자 그 사람은 절반쯤 마시고 다시 그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달콤한 술이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황씨성을 가진 그 사람과 진현금사이에 딸

이 태여났는데 그가 바로 황진이였다고 한다.
황진이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용모와 남다른 재능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는 시문과 가곡, 가야금에 조예가 깊어 당대의 이름있는 녀류시인, 예술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천한 기생신분으로 하여 그는 불우한 생을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뛰여난 림기응변술과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적지 않은 일화들을 남겼고 그중의 어떤것들은 신비화되여 전설처럼 전해지기까지 하였다.
황진이의 작품유산으로는 현재 시조 6수와 한자시 4수가 전한다.
그가운데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는 그의 뛰여난 기지와 창작적재능을 보여주는 대표작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와 결부되여 전해지고있다.
당시 서울에는 벽계수라고 하는 임금의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됨이 아주 교만하였다.
어느날 벽계수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앉아 한담을 하던중에 화제가 문득 송도명기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였다.
황진이 말이 나오니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용모와 재능이 탄복할만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한번 보면 그 아름다움과 재능에 넋을 잃고말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런데 교만한 벽계수만은 입가에 조소를 띠우며 그 어떤 미인도 자기의 눈섭 한오리 움직이게 하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벽계수에게 황진이를 직접 만나보는게 어떤가고 하였다. 그는 이에 쾌히 응했다.
그래서 벽계수는 하늘소에 몸을 싣고 호기있게 길을 떠나 개성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별들이 총총한 어느날 밤, 둥근달은 동산우에 두둥실 떠올라 밝은 빛을 뿌리고 산골물은 조잘거리며 쉬임없이 흘러내리는데 벽계수는 거들먹거리며 하늘소를 몰아 산모퉁이를 돌아가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한 녀인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말아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어떠리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황진이였다.

황진이는 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벽계수가 개성에 올라온다는것을 미리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벽계수는 맑고 랑랑하게 울려퍼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녀인이 황진이라는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것은 황진이가 부른 노래중에 있는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벽계수(푸른 계곡의 맑은 물)란 바로 자기를 념두에 둔것이고 《명월이 만공산하니》의 명월(밝은 달—황진이의 호)은 황진이를 가리킨것이기때문이였다.

결국 황진이는 이 노래에서 벽계수가 이번 기회에 자기와 한번 어울려보지 못하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것이라는것을 암시하였던것이다.

사실 이 노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계곡으로 흘러가는 맑은 물과 온 산에 가득찬 밝은 달빛이 한데 어울려 그윽한 정서를 자아내는 산속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노래한 풍경시로서도 나무랄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은근한 뜻을 음미해보면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만 한 시적재능이 번뜩이고있었다. 벽계수는 저도 모르는 충동을 금할수 없어 하늘소에서 내려 방금 녀인의 노래소리가 울리던 곳으로 다가갔다.

드디여 그의 눈앞에는 달빛아래 조용히 서있는 한 미인이 나타났다.

순간 벽계수는 다시한번 놀랐다. 세상에 저처럼 황홀한 녀인도 있단 말인가.

밝은 달보다 더 환하고 하늘의 선녀보다 더 아름다운 황진이의 자태에 넋을 잃은 그는 그만 황진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황진이의 아름다움과 재능도 자기의 굳센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고 장담하던 벽계수의 오만성은 산산쪼각이 나고말았다.

량반들을 조소한 황진이

황진이는 위선적인 량반귀족들이 오너라가너라,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이 역겹고 싫어서 가끔 집을 떠나 아름다운 산천구경을 다니군 하였다.

하루는 그가 어느 한 고을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고을의 원이라는 사람이 큰 잔치판을 벌리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량반벼슬아치들과 기생들이 서로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기는것이 눈에 뜨이였다.

황진이는 술이 질벅하게 넘치고 고기가 숲을 이룬 잔치판을 둘러보았다.

량반벼슬아치들은 거드름스럽게 앉아 이따금 껄껄 웃거나 소리를 지르며 긴 소매자락을 너풀거리였고 고을기생들은 그앞에서 아양을 떨면서 없는 재간을 피우느라 애쓰고있었다.

황진이는 그들이 노는 꼴을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니꼬운자들을 통쾌하게 골려줄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한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황진이는 곧 웃좌석으로 나아가 태연하게 앉으면서 자기도 노래 한곡 부르게 해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은 뜻밖에 나타난 녀인의 당돌한 행동에 아연하였으나 다른 한편 호기심도 없지 않아 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어 황진이는 한 기생이 연주하던 가야금을 달래가지고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는듯싶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실로 그것은 이 시골량반들에게 있어서 난생처음 들어보는 명창이였다. 넋이 나간듯 황홀하여 황진이의 노래를 듣던 량반들은 그가 한곡을 마치자 환성을 올리며 연거퍼 재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다시 줄을 고르고 가야금을 울리려던 황진이가 갑자기 한손을 저고리 목깃안으로 쑥 밀어넣더니 가려운데를 벅벅 긁다가 무엇인가를 두손가락으로 집어내여 고을원이 앉아있는쪽으로 휙 내던지는것이였다.

황진이의 그 《상스러운》 행동을 보게 된 《점잖은》 량반들은 너무도 놀라 붕어처럼 입만 벙긋거릴뿐이였다.

그들은 황진이가 저희들을 골려주기 위해 일부러 맑은 살결에는 있을리 없는 무는것을 잡아내는체 하고 가렵지 않은데를 긁는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눈치 무딘 그들도 녀인의 그 행동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기생들도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다른데로 돌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황진이는 계속 가려운데를 한참이나 긁더니 이어서 다른 한곡을 멋지게 타넘기고는 조용히 일어나 사례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 녀류시가

녀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시와 가요작품들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녀인들에 의한 시가창작은 이미 고조선때 려옥의 《공후의 노래》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삼국시기와 고려시기를 거쳐 리조 전반기에 이르러 하나의 조류를 이루고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15～16세기의 대표적인 녀류시인들로는 황진이, 리매창, 신사임당, 허란설헌, 리옥봉, 소춘풍 등을 들수 있다. 이들은 봉건사회에서 남존녀비의 가정적 및 사회적구속으로 하여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불우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혈육과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숨막히는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지향을 자기들의 작품에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황진이의 시조 《동지달 기나긴 밤을…》, 《청산리 벽계수야…》 등과 한자시 《반달》, 《꿈》, 《박연폭포》, 리매창의 시 《봄의 시름》, 《탄식》, 《가락지》, 신사임당의 시 《어버이 생각》, 《대관령을 넘으며》, 리옥봉의 시 《녀인의 마음》, 《칠석》, 《계미년란리》등은 녀류시가의 이와 같은 창작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리장의 풍자시

12월의 맵짠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어느날 아침이였다.

형조의 마당안에서는 김안로를 위시한 재상들과 시종관들이 노려보는 속에 한 죄인이 형틀에 묶인채 문초를 당하고있었다.

《아직도 잘못을 빌지 않을테냐?》

마루에 틀고앉은 김안로는 성이 독같이 나서 시뻘개진 낯빛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건말건 형틀의 죄인은 아무 응대도 없이 꼿꼿이 앞만 쳐다보고있을뿐이였다.

《지독스러운것, 그놈이 용서를 빌 때까지 매우 쳐라.》

휘익—

듣기만 해도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곤장치는 소리가 차거운 공기를 헤가르며 맵짜게 울렸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전들조차 차마 보기가 참혹하여 머리를 돌리고 말았다.

하지만 매질이 심해질수록 죄인은 입술을 앙다물며 대청의 관리들에게 쏘는듯 한 시선을 보내였다.

그 죄인은 다름아닌 시재가 뛰여나고 익살기가 심하기로 당대에 소문이 자자하던 리장이였다.

리장이 이 강추위속에 옷을 벗기우고 곤욕을 치르는것은 며칠전에 자기가 지은 풍자시때문이였다.

어느날 밤 리장은 친구인 리준인의 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었다. 그날은 리준인의 어머니의 생일이여서 가까운 친지들과 이름난 선비들이 적지 않게 모여들 왔다.

이미 어디선가 얼근히 취해버린 리장이 리준인의 집에 도착하니 손님들은 벌써 상을 마주하고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친구들속에 끼여앉은 리장은 연거퍼 술잔을 비웠다.

《자네 그러다 아예 취하겠군. 좀 작작 마시라구.》

그러건말건 리장은 또다시 술잔을 쭉 비우며 《걱정말게, 지금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선 이거라도 마시고 취해있는게 나아. 마시고 취하고 깨면 또 마시고 이렇게 사는게 오히려 낫지.》하고 빈정거렸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친구가 그의 등을 쿡 찌르며 훈시했다.

《자네 그런 소릴 함부로 하다가 어쩔려구 그래. 혹시 김대감의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 코 다쳐.》

그러나 리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김대감? 그런 사람을 난 모르네.》

사실 그는 자기의 스승인 리행이 귀양지에서 신병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기별을 받은 다음부터 며칠째 기분이 울적해있었다.

리행은 전날 김안로의 비행을 상소했다가 오히려 그 일파의 역습에 걸려 먼곳으로 귀양살이를 떠났던것이다.

평소에 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한식솔처럼 지내오던 리장은 조정의 어지러운 현실에 격분을 금할수 없었으나 자신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어찌할수가 없었다.

더우기 존경하는 스승이 앓는다는 소식에 접하자 김안로를 비롯한 권세가들에 대한 저주와 불만이 하늘끝에 사무칠 지경이였다.

부글부글 뒤번지는 심정을 가까스로 억누르던 리장은 더 참을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내 요새 장가 하나를 지었는데 어디 들어들 보시려우?》

워낙 입을 벌리면 익살과 롱담이 쏟아지고 멋진 명구가 나오던 리장이여서 사람들은 재미나는 얘기를 또 듣는가 하여 귀를 강구었다.

리장은 손에 쥔 술잔을 바라보며 약간 취기가 섞인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정광필은 잔 글씨로 리홍관과 편지질하고
장순손은 웬 손님이며 한효원은 어느 고을 원인가
정만종은 남종질하고 리임은 녀종질하나니
조원기는 호기부리고 류관은 도가니 터지는 박자라
최세렬은 절개없고 김탁은 큰 방울보다 더하지
황개가 기개 있으니 권예도 너를 밉다고
채무택은 몹시 간사하건만 임무는 크게 취하였거늘
심언광이 발광하니 김안로는 나 모르노라

시를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얼굴빛이 시꺼매졌다.

한것은 리장이 자기의 시에서 령의정 김안로를 비롯한 17명의 정승, 대간, 시종관들의 이름을 모조리 렬거하여 그들의 추악한 리면을 신랄하게 야유조소하였기때문이였다.

사실 당시 이들은 임금도 무색케 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있어 누구든지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기만 하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가기가 십상이였다.

리장은 차마 입을 벌리지 못하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좌중의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통쾌한 마음으로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이날 그가 지은 시는 곧 서울장안에 쫙 퍼졌고 나중에는 김안로의 귀에까지 가닿게 되였다.

《저런 발칙한 놈 봤나.》

대노하여 길길이 날뛰던 김안로는 당장 의금부와 포도청에 명하여 리장을 끌고오게 하였던것이다.

형틀에 매인 리장의 몸에서는 선지피가 뚝뚝 흘러 바닥을 적시였고 사령들도 이제는 힘이 진했는지 헉헉거리고있었다.

《아직도 네 죄를 토설 안할테냐?》

김안로가 또다시 독살스레 물었으나 여전히 리장의 입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줄 몰랐다.

당장에 사지를 찢어죽이고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치솟았으나 시 한편때문에 생사람을 잡았다는 소문이 나는것이 께름하였던지 김안로는 하는수없이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죽일 놈 같으니라구. 어디 무인도에 가서 어르신네 욕을 보인 값을 톡톡히 치러봐라. 여봐라, 당장 저놈을 거적에 싸서 멀리 내던져라.》

김안로는 채 사그라지지 않은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대청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리장은 그날로 경상도 동래에 귀양을 가게 되였고 그의 노래를 들은 리준인, 리원손, 리후 등은 벼슬을 삭탈당하고말았다.

그만큼 리장의 시는 조정대신들의 죄행을 폭로한 하나의 예리한 비수와 같았던것이다.

신 사 임 당

우리 민족문화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재능있는 녀류작가, 예술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１６세기 전반기의 재능있는 시인이며 화가인 신사임당(1504－1551년)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성품이 곧고 효성이 지극하며 인정이 많은 녀인이였다.

그는 시, 서, 화 즉 시와 글씨, 그림에 아주 뛰여난 재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아니라 신사임당은 수도 아름답게 놓았고 음악에 또한 조예가 깊은 녀인이였다.

그래서 그는 다재다능한 녀류예술가로 알려져왔다.

신사임당은 강릉의 외가에서 딸만 넷이나 되는 가정의 둘째딸로 태여나 자라났다.

19살에 리원수에게 시집간 그는 그 이듬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강릉에 눌러앉아 3년상을 치른 다음 시집이 있는 경기로 자리를 옮겼다.

신사임당의 부모들은 딸자식들을 무척 사랑하였지만 효성이 지극하고 예술적재능이 남다른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의 아버지 신명화는 《우리 아무개(신사임당을 가리킴)의 말을 들을 때면 옛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조심하게 된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사임당을 시집보낸지 얼마후에는 사위 리원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딸 넷을 키웠으나 자네의 처만은 내곁에서 내놓지 못하겠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신사임당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림에 등한한 남편을 탓하는 일없이 이악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한편 아들딸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그 바쁜 속에서도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것은 두편의 시와 초서

체글씨 여섯폭, 해서체글씨 한폭 그리고 사십여폭의 그림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명작들이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속에 자란 신사임당은 평생토록 그 은정을 잊지 못해하였으며 아들딸을 낳아키우게 되였을 때는 자기자신이 그처럼 현숙하고 엄격한 어머니로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식들을 올곧게 키웠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다정하고 세심한 심정으로 보살펴줄줄 안 녀성이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생활과 창작은 언제나 웅심깊은 모성애와 련결되여있었으며 그가 키운 자식들도 재능있는 학자, 문인으로 당대에 이름을 날렸다.

셋째아들 률곡 리이는 높은 벼슬에 오른 당대의 큰 학자로서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만명의 군사를 키워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였고 넷째아들 리우 역시 당대의 재능있는 문장가이고 예술가였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

신사임당은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딸만 여럿을 낳아 다 시집보내고 나이 40대에 남편을 잃은 후 80고령이 되도록 쓸쓸하게 지내였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각별하였다.

한번은 신사임당의 친척벌되는 녀인이 놀러 온적이 있었다. 그때 그 녀인은 신사임당을 위하여 현금 한곡을 탔었다. 맑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구슬픈 감정을 자아내는 그 녀인의 현금소리를 들으며 신사임당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였다. 녀인이 현금을 다 타고나자 신사임당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현금소리가 어찌도 감회를 돋구는지 그리운 어머니 생각으로 눈물이 나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날 밤 신사임당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이런 시를 지었다.

밤마다 밤마다 저 달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 비노라
바라고 원하건대 살아 생전에
어머님 뵈옵게 하옵소서

신사임당은 서른여덟살때 친정어머니를 뵈오려 강릉에 갔다가 시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관령을 넘으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든 고향산천을 뒤에 두고 떠나는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눈물속에 고향마을을 다시 바라보며 또 이런 시를 지어읊었다.

자애론 어머니 흰서리 이시고 강릉에 계시는데
이 몸은 한양으로 혼자 가야 하는가
다시 보자 정든 고향마을아 머리돌려 바라보니
흰구름 날아앉는 저기 저아래 푸른 산만 저물어가네

이것이 그의 유명한 시 《대관령을 넘으며》이다.
철부지 어린시절부터 다 자라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이때까지 언제한번 잊어본적 없고 떨어져있을수록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 응석받이 그때처럼 어머니품에 안겨 만시름을 잊고 행복에 잠겨들고싶은 마음은 언제나 그의 온넋을 사로잡고 어머님 계시는 고향으로 그를 이끌었다.
하여 신사임당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충만된 시들을 쓰고 또 썼다.
그런 시들은 아마도 수십, 수백편에 달했을것이다.
그러한 작품들가운데는 《어버이 생각》이라는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옛집은 천리밖 첩첩히 산이 가려
그리운 이 마음은 꿈결에나 가보네
한송정언덕에는 달돋아 물에 어리고
경포대앞에는 맑은 바람 불어오누나
모래우의 갈매기 흩어졌다 모이고

강기슭 고기배도 오락가락하건마는
어느때나 다시 강릉 옛길 달려가
어버이슬하에서 즐겁게 지내볼가

이처럼 신사임당은 일생동안 어머니를 노래한 시들을 수십편이나 지었다.

닭모이로 될번 한 그림

신사임당은 녀류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화가로서도 유명하였다.

그가 그린 그림에는 녀성적인 섬세한 감정과 정서가 잘 표현되여 있다.

그는 웅장한 산발이나 허황한 신선그림 같은것보다 포도, 란초, 대, 매화, 오이, 풀벌레, 나비, 물고기, 잠자리 등 자기가 자주 대하는 꽃이나 새, 곤충들을 녀성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많이 그렸으며 수묵화와 함께 채색화도 아주 잘 그리였다.

18세기의 사람인 송상기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신사임당의 《풀벌레》그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여있다.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지도 2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신사임당의 《풀벌레》그림은 송상기의 친척되는 사람의 집에서 대대로 전해내려오고있었다.

어느해 여름이였다.

지루하게 내리던 장마비가 멎고 밝은 해빛이 집안에 비쳐들었다. 마당에서는 닭들이 구구거리며 해빛쪼임을 하고있었다.

집주인은 오래간만에 해가 나자 풀벌레를 그린 신사임당의 그림을 밖으로 내갔다. 그림이 누기에 상할것 같아 해빛에 말리려는것이였다.

그는 포도나무그늘밑에 평상을 놓은 다음 그우에 교자를 얹었다.

그리고 그 교자에 그림을 걸었다.

늘 보는 그림인데도 해빛 쨍쨍한 마당에서 교자에 걸어놓고 들여다보니 포도잎사귀에 붙어있는 풀벌레가 신통히 살아움직이는것 같았다.

주인은 마당에서 돌아치는 변두가 빨간 닭들을 쫓으며 《이놈들, 이 그림이 있는데 오면 안돼. 휘이 휘이 … 》하고 소리를 쳤다. 한동안 닭들은 그림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은 담장을 손질하느라고 잠간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닭이 구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놈의 닭이 … 》

능청스러운 장닭이 껑충한 두발을 저겨디디면서 평상우로 걸어가고 있었던것이다.

주인은 등골에 진땀이 죽 돋았다.

그는 후닥닥 일어서며 《이놈.》하고 소리쳤다.

풀벌레가 달아날가 하여 살금살금 걸어가며 목을 움츠리던 장닭이 그 소리에 놀라서 날개를 푸드득거렸다.

한순간만 더 지났더라면 장닭의 고약한 부리가 사정없이 풀벌레를 내리쪼아 그림에 흠을 낼번 하였었다.

그는 후에 여러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 이야기를 전한 필자인 송상기는 자기도 닭모이가 될번 한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잘 그렸다 한들 그림속의 벌레를 보고 닭이 쪼으려 했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으나 신사임당의 다른 그림을 본 다음에야 그림이 과연 명화임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말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정작 실물을 보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던차에 마침 정존기가 가지고있는 사임당의 화첩을 보니 과연 그 그림속의 꽃, 오리, 곤충, 나비들이 모두 살아움직이는듯 하여 그림속에 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로소 전일 나의 친척되는 집에 간직되여있다는 그림도 이런것이므로 내가 들은 말이 빈 말이 아니였다는것을 알았다.》

이처럼 황룡사벽에 그린 솔거의 소나무그림이 하도 신통하여 그 가지에 날아들던 새들이 벽에 부딪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내려왔듯이 16세기 신사임당의 그림 《풀벌레》도 닭의 화를 입을번 하였다는 일화를 남기였다.

얼룩진 치마가 명화폭으로

신사임당은 포도그리기를 좋아하였다.

한번은 그가 어떤 집의 잔치에 간 일이 있었다. 안방과 대청마루에서는 잔치음식을 차리고 음식상을 나르느라고 분주하였다.

그런데 한 녀인만은 일손을 놓고 구석진 곳에서 울상이 되여 안절부절을 못하고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한 나머지 이 녀인의 곁을 지나면서도 그가 괴로와하는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지만 항상 다심하고 세심한 신사임당은 어딘가 편안치 않은듯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거동을 대뜸 눈치챘다.

녀인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신사임당은 정답게 속삭였다.

《몸이 편찮으신가요?》

녀인은 사임당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종이장도 맞들면 더 가볍고 근심도 서로 나누면 덜어진다지 않아요. 혹시 저라도 함께 의논하면 어떨는지요.》

사임당이 다정한 음성으로 이같이 말하니 녀인은 시름겨운 마음의 한끝을 비쳐보이였다.

《저, 실은 이 치마때문에… 》

사임당은 녀인이 펼쳐보이는 치마를 살펴보았다.

다홍색비단으로 지은 치마는 여기저기 어지러운 얼룩이 지고 몹시 덞어져있었다.

《아까운 옷이 이처럼 못쓰게 되였으니 오죽이나 속이 타겠어요.》

《제것이면 이 기쁜 날에 옷이 덞어진들 무슨 아쉬울것이 있겠어요. 이웃집에서 빌려입은 옷이 빨아도 안되게 덞어졌으니 새것으로 바꾸어줄 처지가 못되는 형편이라 그게 근심스러워 그러지요.》

녀인은 당장 울음이라도 터칠것 같은 얼굴이였다.

신사임당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한 녀인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진작 저에게 말씀하였더면 벌써 새것을 마련해

드렸겠는데…》

녀인은 수수한 차림새로 자기앞에 앉아있는 사임당이 넉넉치 못한 살림인것을 이미 알고있는터라 비단치마를 새로 장만해준다는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어린 말에 불안이 저절로 가셔지는듯 하여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신사임당은 곧 녀인을 데리고 조용한 방으로 가서 치마를 갈아입힌 다음 치마의 말기를 뜯어 주름살을 정하게 폈다.

그리고는 색감을 묻힌 붓을 그우에 가져갔다. 녀인은 그렇지 않아도 덞어진 치마에 울긋불긋한 색칠까지 해놓으면 영영 돌려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졌다.

그러나 이미 뒤엎은 물그릇이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뿐이였다.

신사임당은 녀인의 초초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듯 그림의 세계에 깊숙이 잠기여 팔과 손목을 솜씨있게 놀리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가볍게 휘두르는 붓끝이 한고비를 돌면 구슬다발같은 포도 한송이가 생겨나고 또 한번 붓끝을 채올리면 푸른 잎과 줄기가 뻗어나갔다.

그와 동시에 덞어진 자리들이 하나하나 흔적을 감추었다.

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놓으니 티한점 없는 새 바탕에 방금 마당에서 뿌리채 떠다가 심어놓은듯싶은 포도나무가 돋아나있었다.

싱싱한 줄기와 푸른 잎이며 소담한 열매들을 자랑하는 그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청신하였다.

신사임당은 그림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감탄과 기쁨을 연해연방 터치는 녀인에게 그림을 저자에 내다팔라고 권하였다.

신사임당의 말대로 녀인이 그림을 저자에 내갔더니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들은 물론 장사군들까지 저마끔 사겠다고 값을 서로 올리는 바람에 새 치마감을 한벌 사고도 남을 많은 돈을 얻게 되였다.

결국 얼룩으로 덞어진 치마가 그림치마로 되고 그것이 다시 새 비단치마감으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녀인은 신사임당에게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여전히 소박하고 진실한 녀인들이 그러하듯이 《댁에서 기뻐하시니 저도 시름이 놓여요.》라고 한마디 할뿐이였다.

퉁소로 왜적을 쫓아버린 최경창

최경창(?－1582년)은 16세기의 이름있는 시인이고 예술가였다.

그는 인품이 시원스럽고 사람들과 곧잘 친숙해지는 호방한 성격을 소유한것으로 하여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려 시도 짓고 활도 쏘고 현금을 타거나 저대, 퉁소를 불며 즐기는 일이 많았다.

그가 아직 스무살도 되기 전에 리이 등과 사귀면서 좋은 글을 많이 썼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당대의 《8문장》의 한사람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리달, 백광훈과 더불어 시의 《3대가》라고 불리웠다.

그는 젊은 시절의 한때를 전라도 령암에서 보내였다.

령암은 해변가에 자리잡은 경치좋은 고장이였다.

드넓은 바다를 무척 사랑한 최경창은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즐기면서 예술적정서와 재능을 키웠다.

그는 자주 거품을 일으키는 검푸른 파도를 끝없이 바라보며 바다의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시들을 지었다.

화창한 봄날 어부들이 포구를 떠나며 부르는 구성진 노래는 그의 가슴속에 그지없이 정다운 선률을 가득 채워주었고 거세면서도 웅글은 파도소리는 고저장단을 이루며 그를 숭엄한 음악의 세계에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음악은 다시 젊고 다정다감한 그의 심장을 파도와 같은 시정으로 소용돌이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경창은 허리춤에 찔렀던 퉁소를 꺼내여 입에 가져다대군 하였다. 그 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향은 참으로 맑고 부드러웠다.

그가 퉁소를 불면 날아예는 갈매기들도 그 곡조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그의 청춘시절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는 사이에 경창은 퉁소소리로 자기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퉁소의 명수가 되였다.

거센 파도소리, 어부들의 구성진 배노래,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결,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수평선, 청청한 참대숲, 감, 유자나무들, 정다운 이웃들의 친근한 음성, 천진한 아이들의 맑은 웃음 … 그 모든것이 경창이 부는 퉁소의 곡에 담겨졌다.

당시 바다를 건너오는 왜해적들이 불의에 해변가마을들을 침범하군 하였다.

이 흉악한 해적들은 인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였다.

사태가 이러하건만 무능하고 비겁한 량반관료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어찌할바를 몰라 쩔쩔매였다.

그러던 어느날 해적놈들이 령암마을에 갑자기 기여들었다.

마을의 씩씩한 젊은이들은 분기충천하여 해적무리들을 맞받아 나갔다.

그들은 몽둥이로 해적들을 까눕히고 대나무창으로 그놈들의 가슴을 찌르며 용감하게 싸웠다.

뭍에서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한창일 때면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몸을 피하군 하였다.

경창은 몇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로약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일을 맡아하였다.

해가 진 드넓은 바다우에 쟁반같은 달이 두둥실 떠오른 저녁 그들은 서둘러 배에 올랐다.

그런데 일행을 태운 배는 기슭을 떠난지 얼마 안되여 불시에 또 다른 해적의 무리와 맞다들었다.

뭍에 오른 저희패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무슨 다른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기하던 놈들이였다.

놈들은 마을사람들이 탄 배에 방비수단이 크게 없다는것을 알고는 고함을 지르며 사방에서 배를 몰아 좁혀들었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이 탄 배는 잠간사이에 해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달빛이 환하여 적을 따돌리기도 어려웠고 파도조차 일지 않으니 놈들을 암초에로 끌고가기에도 이미 때가 늦었다.

늙은이들은 허리춤에서 낫 또는 도끼를 빼여들고 녀인들은 비녀를 뽑고 머리채를 풀어제치였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였던것이다.
그럴 때 경창이 늘 품에 지니고있던 퉁소를 꺼냈다.
그는 최후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싶었다.
해적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정황은 위급하였다.
경창은 손때묻은 퉁소를 천천히 입에 가져다대였다.
그러자 맑고 아름다운 음향이 달빛 가득찬 바다우에 울려퍼졌다.
비장한 결심을 가다듬고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일시에 경창에게로 집중되였다.
잔잔하게 흐르던 퉁소소리는 잦은 가락으로 넘어가다가 돌연 폭풍을 부르는듯 힘차게 울리며 장엄한 음조를 내기 시작하였다.
서넛밖에 안되는 젊은이들은 눈을 빛내이며 죽창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로인들과 녀인들, 아이들의 굳어졌던 얼굴에는 화기가 돌았다.
퉁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멎어선 해적배들은 마치 높은 도술을 지닌 도사의 술법에 걸린듯 한동안 움직일줄을 몰랐다.
생사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이같이 무서운 장소에서 퉁소소리를 들어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놈들이였다.
더우기 포위속에 들어 정신없이 야단법석을 하고있을줄 알았던 그 배에서 정가롭고 여유있는 퉁소소리가 울려나오니 신의 조화가 아닌가싶었다.
놈들은 유인계책을 쓴 조선군사들이 퉁소신호로 매복한 군사들을 부르는것이 아닌가 하여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배머리를 돌려 줄행랑을 놓았다.
그 시각에 물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아 바다기슭으로 도망쳐온 놈들이 같이 가자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해적배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다.

그제야 경창은 퉁소불기를 그만두었다.
그런 다음 배머리에 나서서 달아나는 해적들을 바라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마을사람들도 덩달아 따라웃었다.
이번에는 바다가에 퉁소소리대신 웃음소리가 울려퍼지였다.

박충원의 글짓는 묘리

사람마다 글을 짓는데는 자기 식의 방법과 묘리가 있다.
방법과 묘리가 없이 무작정 글을 쓰는것은 마치도 소경이 막대기질하는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글쓰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글의 품위를 높이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글쓰는 방법과 묘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6세기 후반기에 국가정사를 학문으로 보좌하는 대제학, 좌찬성 등의 높은 벼슬을 하였던 락촌 박충원(1507－1581년)도 자기식의 독특한 글짓는 묘리를 터득하여 뛰여난 문장가로 찬양을 받아온 사람이였다.
박충원은 문장을 꾸미고 글을 쓰는데서 붓을 들기에 앞서 깊은 사색으로 글의 체계와 론리, 표현에 이르기까지 구상을 충분히 무르익히고 일단 붓을 든 다음에는 단숨에 훌륭한 글을 지어내는 자기식의 독특한 글쓰기방법과 묘리를 터득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초고가 따로 없었다. 초고이자 그대로 완성된 글이였던것이다.
그만큼 그의 창작적구상과정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였다.
박충원은 벼슬살이를 해온 수십년세월 이런 방법으로 봉건국가의 중요공문서들을 수많이 작성하는 한편 자신의 생활체험을 반영한 시문들을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당대에 문장가로서의 명성을 떨칠수 있었으며 그의 뛰여난 창작적구상방법과 글쓰는 묘리는 문인들속에서 신비화된 이야기로 전해질 정도로 유명해졌다.

어느 해인가 박충원과 면식이 있는 한 친구가 그를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시문에서는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였다.

자존심이 강한 그 친구는 웬만한 사람들의 시문은 앞의 한두줄만 읽어보고 《이것도 문장이라구?》하고 밀어놓기가 일쑤였고 좀해서는 남의 글이 잘됐다고 칭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충원을 만나자마자 일부러 딱한 표정을 짓고 사정을 들이대였다.

《여보게, 일전에 내가 어느 대감댁에 놀러 갔더니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하데그려.

그런데 시골 외가댁에 며칠 가있으면서 그 부탁을 깜박 잊고있었더니 어제 심부름군이 와서 대감이 글이 어찌 되였느냐구 독촉한다지 않겠나.

시간이 있으면 내가 품놓구 지어보겠네만 당장에 요구하는데다가 글감도 세개씩이나 되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내 생각다못해 자네를 찾아왔네. 친구의 딱한 사정을 좀 봐달라구.》

좀처럼 남에게 글과 관련한 부탁을 하지 않던 친구가 이토록 간청하자 박충원은 오죽 급하면 이러랴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글들을 써야 할지 보자고 하였다.

박충원이 대번에 승낙하자 친구는 속으로 환성을 지르며 세개나 되는 각이한 형식의 어려운 글소재들을 내놓았다.

정말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글을 하루에 하나 지으라고 해도 진땀을 빼며 숱한 종이만 랑비할것이였다.

박충원은 각이한 글소재들을 머리에 새기며 써야 할 내용과 형식에 맞게 차례로 정리해놓고는 제일 힘들다고 보아지는 첫번째 글부터 달라붙었다.

그는 앉은자리에서 한참이나 눈을 감고 머리를 앞뒤로 끄덕이며 깊은 사색속에 구상을 무르익히였다.

얼마후 눈을 뜨고 천천히 붓을 손에 든 그는 종이를 펴고 그우에 무엇인가를 쓰면서 《그렇지, 그래. 옳거니.》하는 소리를 연방 내뱉는

것이였다.

그런데 한장한장의 종이가 잠간사이에 번져지는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친구는 박충원의 어깨너머로 붓이 움직이는것을 바라보았다.

순간 친구의 눈은 둥그래졌다.

종이장우에는 글이 아니라 장난꾸러기아이들이 해놓은것같이 한가운데 점이 찍혀있는가 하면 혹은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군데군데 획을 그어놓기도 하였다.

또 한참 가다가는 《비록》, 《그러나》를 쓰거나 《아아!》등의 감탄사를 써놓기도 하였다. 친구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정신없이 붓을 달리고있는 박충원에게 말을 걸기가 멋적어 좀 더 두고보리라 생각하였다.

이윽고 박충원은 붓을 멈추고 몸을 바로 세우더니 《이만하면 됐네. 이제는 그대로 따라내려가며 정서를 하면 끝나네.》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우는것이였다.

《아니, 그럼 이게 글이란 말인가? 이런걸 가지구야 어떻게 문장을 만들겠나?》

친구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박충원은 그에는 상관없이 점과 동그라미 등 각종 표식과 몇개의 단어만이 적혀있는 종이장을 다시한번 훑어보고는 붓에 먹을 듬뿍 묻혀가지고 일사천리로 글을 내리엮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그 모든 표식들은 그대로 멋진 어휘로 변하고 그것들은 하나도 삐여져나감이 없이 서로 아귀가 꼭 맞물리여 하나의 미끈한 문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친구는 연방 《야! 야!》 감탄을 하더니 붓이 떨어지자마자 제 먼저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내려갔다.

글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글자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고칠것이 전혀 없는 천하명문장으로 엮어진 미끈한 글이 안겨왔다.

《원, 이렇게 희한할데라구야…》

친구가 넋을 잃고 글을 바라보고있는데 박충원은 두번째 글을 또 시작하였다.

글쓰는 묘리는 처음과 같았다.

이렇게 세차례를 거듭하여 박충원은 반나절 되나마나한 사이에 글들을 한번의 수정가필도 없이 모두 완성하여 내놓았다.

그제야 친구는 박충원의 두손을 부여잡고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세상에 별의별 문장가, 재사들이 있다는 말은 다 들었네만 자네같은 재간둥이는 처음 보네. 자네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문필가일세.

내 지금껏 시문에서는 나를 당할자가 바이 없을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했었네만 자네의 그 귀신같은 재주를 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였는가를 느끼게 되네.

이제부터 난 자네를 단순히 친구로가 아니라 스승으로 삼고 글재주를 배우고싶네. 나한테도 자네의 그 기막힌 재주를 가르쳐주게나.》

박충원은 그러는 친구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겸손하게 말하였다.

《원, 자네두. 너무 그렇게 추어올리지 말라구. 나는 아직 문필가라고 당당히 말할만큼 재능이 높지 못하네. 그저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할뿐이지.

자네가 정 나의 글짓는 묘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에게는 별로 특별한것이 없네.

내 경험에 의하면 글을 짓는데서 가장 어려운것은 구상이네. 구상만 잘되면 문장을 엮는것쯤은 붓끝에 달렸을뿐이야. 그래서 나는 서뿔리 글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구상을 충분히 무르익히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잊어지지 않게 종이우에 적당한 표식을 해놓군하지. 알만한가?》

친구는 박충원의 진지한 창작태도와 묘리에 대하여 그리고 문인의 겸손한 품성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뛰여난 문필가로서의 박충원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더 크게 났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양 사 언

양사언과 그의 어머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1517－1584년)이 지은 이 시조는 사람이 높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애쓴다면 세상에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 생활의 교훈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후세 사람들속에서 널리 애송되여왔다.

양사언은 시조와 함께 수백수천편에 달하는 우수한 한자시들을 창작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였을뿐아니라 뛰여난 서예가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능있는 시인, 명필가인 양사언이 첩의 아들이였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봉건시기에는 본처가 낳은 자식과 첩의 몸에서 난 자식간의 신분적 차별이 참으로 심하였다.

첩의 몸에서 난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높은 벼슬도 할수 없었으며 상놈취급을 당해야 하였다.

이러한 적서차별의 불합리한 제도가 사람들의 생활과 발전을 가로막고있던 당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사언이 첩의 아들인줄을 몰랐던가?

여기에는 양사언의 앞날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제 목숨을 바쳐 아들에게서 첩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벗겨주려고 한 가슴아픈 사연이 깃들어있다.

양사언의 어머니는 어느 고을의 관청에 소속된 하급포졸의 딸이

였다. 그가 열두살때 아버지, 어머니가 들일을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키고있는데 지나가던 이웃 고을원이 그 집에 들려 점심을 먹었다.

그때 이웃 고을원은 자기의 점심시중을 잘 들어준 단정하고 아름답고 령리한 소녀가 마음에 들었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여 그 원은 몇해후에 녀인이 처녀꼴이 잡히게 되자 첩으로 데려갔다. 그들사이에 태여난 옥동자가 바로 양사언이였다.

양사언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풍채가 의젓하고 눈에 맑은 총기가 넘실거렸으며 행동이 단정하여 보는 사람마다 자라면 큰 인물이 될것이라고 칭찬하여마지 않았다.

양사언의 어머니는 총명하고 감수성이 빠른 아들의 재능을 살려주려고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였다.

아들이 글을 읽는데서는 엄한 요구성을 제기하였고 그의 글씨공부에 소용되는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구해주었다.

이처럼 애쓴 보람이 있어 양사언의 재능은 나날이 높아갔고 한다하는 량반문인들도 그의 시와 글씨를 보고는 혀를 내두르군 하였다.

그러나 의젓하게 자라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괴로움이 자리잡고있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재능있고 잘난들 무엇하랴. 첩의 자식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될수 있으랴. 큰 인물은 고사하고 첩의 자식이 잘나면 역적이 된다고 하여 미리 죽여버리는 이 세상에서 저것이 제 명대로 살수만 있어도 좋으련만…)

그러던 어느날 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할데가 있다는 생각에 그럭저럭 지낼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남편이 죽은지 사흘째되는 성복날이였다. 여러 상제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상복을 입기 시작하는 날이였다.

이날 양사언의 어머니는 최후의 결심을 하였다.

그는 본처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탁할 일 하나가 있으니 들어줄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평소부터 집안사람들이 현숙

한 부인으로 알고있는 그의 부탁이여서 모두가 어서 말하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자식이 그리 어리석은 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 풍속에 이전부터 첩의 소생은 천대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니 저 애가 비록 어른이 될지라도 장차 어디에 쓰이리까.

앞으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공자들이 나를 위해 서모의 상복을 입을 때 내 아들은 입을수 없으니 그러면 내 아들이 첩의 자식인것이 어쩔수없이 세상에 드러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애가 어떻게 행세할수 있으리까.

이 사람이 마땅히 오늘 자결하여 이번 장례에 껴묻혀 떠나간다면 상복을 입는데서도 차별이 드러나지 않게 될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나의 심정을 살피시고 장차 나 죽은 후에 저세상에 가서도 한이 없게 하여주소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말렸으나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여러분의 인정에는 비록 감격하는 바이오나 죽는것보다 더 나은 도리는 없습니다.》

녀인은 말을 마치자 남편의 관앞으로 가서 품속에 간직하였던 칼을 꺼내여 가슴을 찌르고 자결하였다.

《서모님, 어이하여 이러시오이까?》

《엄마, 죽지 마, 죽지 마. … 》

어린 양사언과 본처의 자식들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앞에서 어쩔줄을 모르며 관옆에 쓰러진 녀인을 붙들고 통곡하였다.

녀인의 자결이 본처의 자식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충동을 주었는지라 그들은 그후 그의 유언을 지켜 양사언을 내놓고 첩의 자식으로 천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를 졸지에 잃은 양사언의 가슴에는 큰 못이 박히였다.

양봉래와 온정처녀

한때 안변부사로 있던 양사언이 고성온천이 좋다는 말을 듣고 금강산유람을 할 때였다.

행장을 갖추고 안변을 떠난 그는 통천에서 총석정을 구경하고 온천을 지나 고성 온정리에 이르렀다.

말을 타고 먼길을 와서인지 갈증이 심했다. 양사언은 말에서 내려 길가의 우물가로 다가가 물긷는 한 어린 처녀에게 물을 청했다.

얼굴이 곱고 얌전해보이는 처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곧 바가지에 정갈한 샘물을 한가득 뜨더니 우물가에 실실이 늘어진 버들잎을 한줌 훑어서 물에 띄워주는것이였다.

처녀의 거동을 살피던 양사언은 깨끗한 물에다 나무잎을 띄워주는 처녀의 행실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편 괘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너무도 목이 타는 바람에 입술에 걸리는 버드나무잎을 훌훌 불어가며 바가지의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돌려주었다.

양사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듯 처녀는 바가지를 받아들고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목마르신분이 갑자기 숨을 돌리지 않고 단숨에 물을 마시면 탈이 날가 하여 그랬나이다.》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양사언은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금강산은 과연 경치만 뛰여난줄 알았더니 사람들 또한 나무랄데 없구나.》하고 탄복하였다.

명산의 깨끗한 정기를 닮아서인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었던것이다.

양사언은 이때 금강산을 돌아보고나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한다.

산우에 산이 있으니 하늘에서 땅이 나왔나
물가에 물이 흐르니 물가운데 하늘이로다

이 몸이 창망히 허공속에 있으니
연기나 안개도 아니요 신선도 아니더라

내 듣건대 천하사람들이
고려국에 태여나길 원한다더니
금강산에 와보니
만이천봉우리는 구슬이로다

양사언은 그후 벼슬을 그만두고 금강산에 들어와 살면서 적지 않은 시를 짓고 명소들에 글을 남겼으며 호를 금강산의 이름을 본따서 《봉래》라고 하였다.

노비출신의 시인 어무적

봉건사회에서 노비는 극심한 신분차별로 하여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마소처럼 고역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16세기에 활동한 어무적은 김해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는데 총명하고 시적재능이 뛰여난 사람이였다.

그는 낮에는 관청의 잡일로 허리 한번 못펴고 고되게 일하고도 밤이면 달빛아래서 글을 익히고 시를 지었으며 달이 없는 날이면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면서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처럼 피타는 노력으로 그는 마침내 노비신분에서 속량되였다.

그러나 노비출신인 그에게 천대와 멸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무적이 한번은 어떤 곳을 지나다가 한 농민이 집뜨락에 심은 과일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것을 보게 되였다.

아직 과일이 한창 열릴 나무인데 그 농민은 아까와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손바닥에 침까지 뱉아가며 찍어댔다.

《아니 여보슈, 그 아까운 나무를 왜 찍어버리오?》

《참견말구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놈의 나무때문에 집안이 아예 거덜날판인데 내 어찌 이것을 그냥 놔둘수 있겠소.》

어무적은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한참만에 나무를 넘어뜨리고나서야 그 농민은 그냥 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는 어무적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주었다.

그가 하는 말이 관청에서 농민들의 집에 심어놓은 과일나무까지 조사등록해놓고 해마다 가을이면 나무에 열린것보다 더 많은 량을 바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

더 견디다못해 그는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예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결심했다는것이였다.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뜨락에 꽃과 나무를 심어가꾸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랐고 정성담아 자래워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말았으니 세상에 이런 야속한 일이 또 어데 있단 말인가.

농민에 못지 않게 격분한 어무적은 이러한 시를 지었다.

누렇게 주렁주렁 열매야 적으련만
음흉한 아전놈의 욕심을 못 따르리
가지에 달린 수의 곱절도 더 내라니
그것을 못 낼 때는 닿는대로 매질일세
…
매화나무 오히려 잡목만 못하거늘
내 어이 너를 베기 사양하리

우리 문학사에 봉건착취계급의 가혹한 수탈행위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당대의 대표작으로 기록된 시 《매화부》는 바로 이런 사연을 안고 태여났다.

하건만 이 시가 화근이 되여 어무적은 관가의 체포령이 내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피신하여 다니다가 로상에서 병을 얻어 객사하고말았다.

녀류시인 리옥봉

리옥봉은 16세기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이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며 옥봉은 호이다.

그는 나이가 되여 조원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후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속에서도 짬짬이 적지 않은 시를 지었는데 그것들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을뿐아니라 후세의 여러 문인들에 의하여 높이 평가되였다.

17세기 중엽의 이름난 시인인 신흠은 리옥봉의 《죽서루에서》라는 시를 보고 예나 지금의 시인으로 이에 따라설자가 없다고 찬양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시 《려강에서》는 청신기발하여 참으로 천고의 절창이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리옥봉에게는 주옥같은 시들이 많으나 그가운데서도 《이웃집 녀인을 위하여》라는 시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옥봉이 이 시를 짓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리옥봉의 이웃에는 가난하고 무던한 내외가 살고있었다.

하루는 그 이웃집녀인이 옥봉을 찾아왔다.

옥봉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늘 따뜻이 위로해주었으므로 마을의 녀인들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군 하였었다.

이날 울면서 옥봉을 찾아온 이웃집녀인은 순박한 자기 남편이 남의 소를 훔쳤다는 억울한 죄를 쓰고 관가에 잡혀갔으니 이 천만부당한 루명을 벗을수 있도록 진실을 밝힌 글을 한장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녀인의 하소연을 주의깊게 들은 리옥봉은 두말없이 붓을 들었다.

그는 먼저 서두에 이웃집녀인의 남편이 죄없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쓴 다음 그뒤에 다음과 같은 시를 한수 적었다.

거울이 없어

소랭이 물에 얼굴 비쳐보고
기름도 없어
물을 발라 머리를 빗습니다

나같은 촌녀자가
무슨 직녀성이라고
저의 남편이
견우성이겠습니까

옥봉은 시의 앞부분에서 거울이 없어 소랭이 물에 얼굴과 몸가짐을 비쳐보고 기름대신 물을 발라 머리를 빗을망정 남의 물건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넘겨다보지 않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생활형편과 정직한 마음씨를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그리고 뒤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이 남의 소를 훔치는짓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을 의미심장하게 노래하였다.

여기서 옥봉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전설을 리용하여 옥에 갇힌 남편을 만날수 없는 녀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남편이 소도적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견우는 소를 끌고간다는 뜻이니 견우성이 아니라는 말은 곧 소도적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있었다.

옥봉이 써준 글과 시를 본 관가에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어 이웃집 녀인의 남편을 옥에서 내놓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옥봉의 남편 조원은 량반집녀자가 시를 지어 남의 죄를 풀어주는것은 그릇된 행실이고 집안망신이라고 하며 노발대발하여 안해를 집에서 내쫓았다.

옥봉은 원통하였다.

가난한 이웃이 불행을 당한것을 도와준것이 무슨 잘못이며 녀자라고 시문을 짓는것이 어떻게 죄로 된단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죄아닌 죄를 들씌워 집에서 쫓아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하여 어디 가서 하소할데도 없는 처지였다.

어쩌는수가 없이 친정에 간 옥봉은 그곳에 일시 몸을 의탁하고 살면서 남편이 마음을 돌리기만을 바랐다.

무정한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였다.

그래도 남편은 옥봉을 찾을념을 안했다.

그리하여 옥봉은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 《운강에게》를 지어 시집에 보냈다.

운강은 그의 남편 조원의 호였다.

요즈음 우리 님
편안하신지요
창문에 달 비치면
시름이 많습니다

오고가는 꿈길에
발자취가 있다면
님의 문전 돌길이
절반나마 모래가 되였사오리…

님을 그리는 녀인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이 시는 곧 조원에게 전해졌으나 군자로 자처하는 그에게는 안해의 사랑보다 량반의 체면이 더 중하였다.

결국 꿈결에서나마 남편의 문전에 난 돌길이 모래길이 되도록 오가던 옥봉의 간곡한 애정은 깃을 내리지 못하고말았다.

그후 리옥봉은 임진조국전쟁의 와중속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품은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였다고 한다.

림제와 파격적인 생활

림제(1549－1587년)는 16세기말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청년시절에 소설 《원생몽유록》을 썼으며 그후 짧은 생애에 《화사(꽃력사)》, 《수성지(시름의 성)》, 《서옥설(재판받는 쥐)》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중세소설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림제는 성격이 호협하고 특히 허례허식을 싫어하였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당시의 량반사대부들에게서 비난의 대상으로 되였고 적지 않은 일화들을 남기였다.

박지원의 《연암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느날 림제가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오른발에는 깁신(비단으로 지은 신)을 신고 왼발에는 갖신(가죽신)을 신고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부가 여쭙기를 〈술에 취하셨나봅니다. 갖신과 깁신을 짝짝이로 신으셨습니다.〉하니 백호(림제의 호)가 대답하기를 〈길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깁신을 신었다 할게고 길 왼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갖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다.

그러니 누가 제짝 아닌 신을 신었다고 할가부냐?〉라고 하였다.》

여기서 림제가 한 말은 얼핏 보면 그저 술취한 사람의 기지있는 롱담갈지만 사실은 당시 량반들의 고루하고 편협한 도덕관념과 질서를 풍자조소한것이였다.

그가 남긴 수많은 일화들가운데서 제일 널리 알려진것은 녀류시인 황진이의 무덤앞에서 그를 추모하여 시조 한수를 지었다는 이야기이다.

림제가 평안도 도사로 임명되여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던 도중 개성에 들렸을 때의 일이였다.

황진이는 인물이 뛰여났을뿐아니라 기지있고 시를 잘 지어 당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기생출신의 녀류시인이였다.

그러니 개성땅에 들어선 의기남아 림제가 어찌 황진이를 생각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부임지로 가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지나게 된 림제는 길가에 말을 세웠다.

그런 다음 닭 한마리와 술 한병을 가지고 황진이가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는 잡풀이 무성히 자란 그 쓸쓸한 분묘앞에 술 한잔 부어놓고 시조 한수를 지어 고인을 추모하였다.

청초 우거진 곳에 자난다 누웠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난다
잔잡고 권할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봉건관리인 그가 잡초가 무성한 기생의 무덤앞에서 술을 붓고 시조를 지었다는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수 없었다.

림제는 이 일로 하여 량반사대부들속에서 미움을 받았다.

그들은 황진이의 무덤을 찾은 림제의 행동을 놓고 임금의 명령을 받고 부임해가는 길에 한날 기생의 무덤부터 찾은것은 더없이 불손한 태도라느니, 량반으로서 기생의 제를 지낸 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비방중상을 다 퍼부었으며 입을 모아 림제를 벼슬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상소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림제는 파면되여 그리 달갑지 않는 벼슬을 미련없이 내놓고 돌아갔다.

원고들을 불태우고 숨을 거둔 허란설헌

무릇 모든 진실한 작품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창조물이다.

참된 작가는 검은 먹으로 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심장의 붉은 피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법이다.

때문에 진정한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럴진대 작가가 자기의 온넋을 바쳐 쓴 작품을 불태워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하물며 세상을 하직하여 숨을 거두는 마지막시각에 한생을 바쳐 써온 작품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불태워버린다면…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 그가 바로 16세기의 이름있는 녀류작가였던 허란설헌(1563－1589년)이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3년전인 1589년 어느날 허란설헌은 병석에 조용히 누워 림종의 시각을 맞이하고있었다.

생의 이 마지막시각에 그의 머리맡에는 살뜰한 살붙이 하나 없었다.

다만 약을 끓이는 화로의 숯불이 이글거리고 약탕관에서 새여나오는 김이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초약냄새를 풍기며 서려오르고있을뿐이였다.

리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허란설헌은 그 당시 대부분 녀성들과는 달리 바느질이나 수예보다 글쓰고 시짓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자기의 짧은 생애를 돌이켜보는듯 생기를 잃은 눈길로 이글거리는 화로의 숯불을 지켜보고있었다.

풍만한 향기를 한창 내뿜을 나이인 26살의 꽃나이에 림종을 맞이하는 그였다.

너무도 곡절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던 짧은 인생길에서 그는 언제나 시를 지어 자기의 애달픈 마음을 위안해왔다.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7살에 《광한전 백옥루》상량문을 지었을 때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던 일이며 동생 허균과 함께 리달선생에게서

시문을 익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고마운 리달선생은 글 잘하고 인정많고 덕행이 높은 사람이건만 울분속에 한생을 보낸분이였다.
첩의 자식이라는 죄아닌 죄로 하여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조상의 제사때에도 마루우에 올라설수 없어 마당 한구석 멍석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그 설음이 오죽하였으랴.
허란설헌은 또 자기 남편 김성립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재능보다도 권문세가의 그 잘난 명예를 팔아 무위도식하는 위인이였다.
게다가 난봉군이고 고주망태 술고래였다.
한번은 남편의 친구들로부터 그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난봉을 부리고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허란설헌은 마음이 괴로왔지만 꾹 참고 남편도 량심이 있으면 가책을 느낄것이라고 생각하며 술병에 시 한구절을 써서 술과 안주를 그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었다.

랑군님은 무심코 그러시련만
그 누가 이 마음에 쐐기를 치는건가

하지만 남편은 안해의 간절하고 점잖은 충고가 담긴 그 시구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림종의 이 시각조차 머리맡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남편을 위하여 애를 태우며 지었던 그 시는 지금 서글픈 추억으로 그의 가슴을 허비였다.
세상을 하직하게 된 이 시각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것은 어미의 손을 잡아줄 자식 하나 없는것이였다.
원래 그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었으며 배속에서 태기가 꿈틀거린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먼저 큰아이가 어미곁을 떠나고 이듬해에 둘째 아이를 또 잃었다.
그 슬픔이 너무도 커서 《자식에게 곡하는 시》를 지었었다.
시 한수를 짓고는 눈물을 흘리고 또 한수를 짓고는 눈물을 흘리면

서 괴로운 낮과 밤을 보내다나니 배속의 태아마저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렸다.

결국 그는 자식을 먼저 저승으로 보내는 뼈를 에이는듯 한 고통을 세번이나 겪어야 했다.

자식의 죽음앞에서 곡을 하던 그날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으나 어미곁을 떠난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속에 지은 시들도 이제는 더이상 아프게 가슴을 긁어내리지는 않았다.

사그라져가는 생명과 함께 야속한 세상에서 겪은 수많은 곡절과 슬픔도 사라져가는듯이 느껴졌다.

허란설헌은 또 형제자매들을 생각했다.

부모를 잃고 시집살이에서도 정을 느껴보지 못한 그에게 있어서 속이 깊고 인정많은 오라버니들은 참으로 둘도 없는 살붙이들이였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쁜 일보다 가슴아픈 사연이 더 많았다.

오라버니들인 허성, 허봉과 동생 허균은 남달리 총명하고 뜻과 포부가 큰탓에 풍파많은 생을 보내야 했던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당대의 유명한 문필가들이였다.

맏오라버니 허성은 나이가 훨씬 우이라 아버지처럼 어려웠다. 둘째오라버니 허봉은 글재간이 뛰여난 사람으로서 누이동생을 각별히 사랑해주었고 글도 열심히 가르쳐주었으며 자기가 시문을 지어보이면 높이 평가해주고 화답시를 써서 고무해주군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품이 강직하여 조정벼슬아치들의 그릇된 처사를 늘 비난하였으므로 그들의 미움을 받아 북방의 두메산골 갑산에 귀양을 갔다.

그때도 허란설헌은 오라버니와의 리별이 너무 서러워 글을 지어보이며 소리내여 울었었다.

오라버니를 위하여 지은 시만도 얼마나 많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종착점을 바라보는 순간이건만 동생 허균을 생각하면 진정으로 근심스러웠다.

그것은 허균이 지나치게 결패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곧 움직이는 성격이였기때문이였다. …

이렇게 길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가슴아픈 추억속에 돌이켜본 허란

설헌은 마지막으로 정든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문갑우에는 지금껏 써서 모은 시첩이 가득히 쌓여있었고 그밑에는 손때묻은 벼루집이 있었다.
그는 힘을 모아 벼루집을 당겨 뚜껑을 열고 붓을 들었다.
시를 쓰기 위해 태여난 몸이니 세상을 떠날 때도 시를 써야 할것이였다.
그는 버릇처럼 붓을 잡고 종이를 마주하여 정다운 사람들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리달선생님, 먼저 간 자식들, 오라버니들, 그래도 남편인 그 무심한 사람…
그들에게 살아 생전의 마지막작별을 하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절명시를 채 쓰지 못했다.
자기를 리해해주고 사랑해주던 친근한 사람들은 다 가고 없는 쓸쓸한 세상에서 누가 나의 시를 알아주랴 하는 생각이 그의 마지막힘을 깡그리 앗아갔던것이다.
그는 기운을 잃고 사그라져가는 숯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하얀 재가 숯등걸우에 소복이 쌓이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그라져가는 자기의 생명처럼 느껴졌다.
불을 피우자. 귀양지에서 고생하고계시는 오라버니의 찬 방을 덥혀주고 먼저 간 자식들의 싸늘한 몸에 이 어미의 한가닥 온기를 얹어주자.
허란설헌은 방금 쓴 시종이를 숯불우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노랗게 되다가 연기를 피우며 타기 시작했다.
그 불길속에서 시구절과 글줄들이 연기로 사라져갔다.
불을 끄지 말자. 저 불이 꺼지면 오라버님도 아이들도 추워할게다.
그는 손을 뻗쳐 시첩들과 시 쓴 종이들을 내려 한장한장 숯불우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그 시들을 하나하나 외워보았다. 문갑우에 가득 쌓였던 시들은 모두 한가닥 연기로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는 불에 던질 시가 없어졌다.
연기마저 사라지고 화로에는 종이재만이 소복이 남았다.
허란설헌은 자리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렇게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였다.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시들을 썼건만 무거운 봉건의 쇠사슬에 얽매여 기를 펴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온 당대의 녀류재사 허란설헌은 이처럼 26살의 애젊은 나이에 고독하게 생을 마쳤다.

누가 그의 시를 불태웠는가.

그것은 허란설헌자신이 아니였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지은 작품을 제 손으로 불태우게 만든것은 불의로 가득찬 당대 봉건사회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란설헌집》이 중국에서 출판되였다.

그것은 허란설헌의 남동생인 허균이 친정집에 남아있던 시작품들을 모아서 간수해두었던것을 사신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주지번이 가져다가 출판한것이였다.

그때 중국에서는 이 시집이 어찌나 인기가 있었던지 그것을 거듭 출판하다나니 종이값이 부쩍 올라갔다고 한다.

조선고전작가일화집(상)

저 자 박사, 부교수 박길남
편 집 리원희
표 지 서상호, 김광석
편 성 한영실
교 정 김경희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2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25일

ㄱ－16516 값 150원

ISBN 978－9946－22－467－1